

향토사료 제35집

# 황성 각림사(覺林寺)와 태종의 강무 행차 재조명



황성문화원



## 발 간 사

2019년을 시작하며 황성 강림면 각림사에 대한 향토 사료집 제35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성지역에도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선대들이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다간 의미 있는 흔적들이 무수히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사는 드러난 것보다 묻혀져 있는 것이 훨씬 많으므로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를 발굴하여 황성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조명하는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강림은 황성소재지로부터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영월, 원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작은 면이지만 역사의 향기가 가장 짙게 서려 있는 고장입니다. 구한말 민공호의병장과 무명 의병들의 애국혼이 서려 있는 곳이고 고려 말과 조선 초 원천석 선생과 태종의 사연이 얽힌 각림사라는 유서 깊은 사찰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강림우체국 옆에 그 옛날 각림사 터였다는 작은 표지석만이 남아있어 그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게 했었는데 이를 파헤쳐 조명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집필하여 주신 강원대학교 유재춘, 한성주, 이흥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향토사료 제35집이 황성군민에게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황성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묻혀있는 소중한 향토사를 발굴·조명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황성문화원장 박순업

## 격려사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황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제35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성 각림사와 태종의 강무 행차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향토사료에는 황성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료집 집필에 헌신해 주신 강원대학교 유재춘, 한성주, 이홍원 교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박순업 황성문화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림면 강림리 강림우체국이 자리한 곳은 조선 태종이 어린 시절, 운곡 원천석 선생에게 학문을 배우던 사찰인 ‘각림사’의 옛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돼 폐사(廢寺)되고 현재는 사적비만 남아 있지만, 태종이 각별히 아끼고 보살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전해지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처럼 각림사를 중심으로 한 운곡 원천석 선생과 태종의 이야기, 그리고 각림사를 비롯한 태종대, 노구소, 변암, 누줄재 터 등 강림지역의 유적지가 이번 향토사료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향토사료가 군민 모두에게 널리 애용되는 소중한 역사자료가 되길 바라며, 집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황성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고, 가치 있고 풍요로운 내일의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성문화원과 향토사학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황성군수 한 규 호

## 축 사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향토사료 제35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순엽 흥성문화원장님과 “흥성 각림사(覺林寺)와 태종의 강무 행차 재조명”을 주제로 이번 사료집 집필에 힘써 주신 한성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정리하여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하며 오늘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원천이 곧 역사입니다.

이에 우리 흥성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사료집 발간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의 지혜를 찾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들이 대대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흥성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흥성의 진정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료집을 발간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흥성군의회 의장 변기섭





## 서 문

조선시대 국왕의 강무(講武)에 대해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강원도 횡성 지역에서 여섯 차례나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강무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가운데 1419년(세종 1), 1421년(세종 3) 두 차례는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하고 상왕(上王)이 되어 세종 임금과 함께 수행한 대규모 강무행사였다. 통상 수천 명 또는 5천 명 이상의 군사가 동원되고, 군마(軍馬)가 많을 때는 만여 필씩이나 동원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강무행사는 아마 상왕과 국왕이 함께 궁궐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고, 또 대규모 행렬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구경거리이자 이야기 거리였을 것이다. 특히 각림사는 태종 임금이 어릴적에 공부하던 곳으로 태종에게는 매우 각별한 장소여서 강무차 왔다가 직접 방문하여 사찰을 크게 중창하는 불사(佛事)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각림사나 태종대(太宗臺), 운곡 원천석 선생과 태종에 대한 이야기 등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태종의 횡성 강무행차와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강무(講武)'란 왕의 친림하(親臨下)에 거행되는 군사훈련이면서 수렵해 포획한 금수(禽獸)로써 국가 제사에 쓸 제물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따라서 '강무장(講武場)'이란 강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강무제도는 1396년(태조 5)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의 상소에서 비롯되어 점차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강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태종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태종이 강무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기에는 태종의 의사



대로 바로 정비되지는 않았다. 옛 제도에 따라 사시(四時) 강무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설적인 강무장이 설치되지 않아 실제로는 원칙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상설적인 강무장이 설치되기 전까지의 강무는 황해도 해주, 강원도 철원(세종 16년, 즉 1434년까지는 경기도 소속이었음), 경기도 양주와 광주 등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412년(태종 12) 처음으로 철원부의 별관을 강무장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강원도 평강, 황성, 원주, 강릉, 평창 등지와 경기도 광주(廣州), 양근, 장단 등지에 상설강무장이 설치되었다.

강무장으로 설정되면 일반 백성들에게 강무장 설정 지역에서의 수렵이나 개간 등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금지하게 되고 강무 시행시 강무장 설정 지역은 물론 국왕 행렬이 통과하는 각 지역은 강무에 동원되는 많은 인원에 대한 지대(支待)와 강무장의 정비 등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강무장 운영은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상설강무장은 점차 축소 또는 조정되었다. 이에 1452년(단종 즉위년) 7월에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설정하였던 강무장을 임시로 폐지하였다가 1460년(세조 6)에 와서는 강원도의 여러 강무장을 완전히 폐지하고 토지의 경작을 허용하였다. 이후로도 강무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그 구역은 최소화되어 갔고, 명종대에 이르게 되면 강무하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묵히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태종 스스로가 본인은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며, 공부를 조금 하기는 하였지만 실상은 무가(武家)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 서 문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하고 있다. 태종은 사냥하는 것을 매우 즐겼으며, 심지어 매사냥을 위해 아침 일찍 아주 적은 신하만 거느리고 몰래 궁궐을 빠져 나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태종이 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세자에 대한 교육 문제에서도 그의 생각이 드러난다. 태종이 세자에게 활쏘기를 교육하도록 지시하니 신하들이 반대하자, “옛부터 임금이 군세고 용감하면 능히 아랫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고, 온유하고 나약하면 실패함이 많았다. 무릇 활 쏘는 것과 말 달리는 것은 군세고 용감한 기질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무사(武事)를 익히게 하는 것이 도리에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즉, 임금이 군센 기질을 길러야 신하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태종은 옛 법도에도 있는 강무 행사를 굳이 신하들이 말리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본인을 가리켜 무가(武家)의 자손이라 무사(武事)를 좋아한다고 일컫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반드시 문무를 겸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종의 말은 신하들에게 본인이 강무를 좋아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훗날 세종에게 미리 왕위를 선위하고 본인은 상왕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특히 세종과 함께 직접 강무행사를 수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던 것도 태종의 문무겸비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한 후인 1419년(세종 1)에는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대마도를 정벌하던 시기로 대마도 정벌이 시행된 후 상왕(태종)과 세종이 함께 횡성에서 대규모 강무 행사를 시행한 것은 단순한







사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임금이 야전에서 군사를 통제하는 방법과 야전에서 군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익히는 실질적인 훈련의 성격이었다.

조선시대 강원도 횡성 지역에서 국왕의 강무행사는 총 6회 시행되었으며, 군사가 적게는 수천 명 많은 때는 5천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특히 1419년 강무시에는 군마(軍馬)만 만여 필이 동원되어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1414년(태종 14) 가을에 이루어진 태종의 횡성 등지에서의 강무는 횡성에서 열린 최초의 강무였다. 1414년(태종 14)의 강무 노정은 윤9월 3일 도성을 출발하여 양근, 횡성의 사기소 및 각립사, 실미원(횡성), 원주, 광주(廣州) 등지에서 유렵(遊獵)하고 윤9월 19일 환궁한 17일간의 일정이었다. 또 1415년(태종 15) 9월 25일경부터 시행된 강무는 양근, 치악산, 대화역, 미면산, 진보역, 방림역, 횡성 실미원 등지를 거쳐 10월 12일 환궁하였고, 1417년(태종 17) 2월 27일 경부터 시작된 강무는 3월 9일 환궁으로 10여 일만에 끝났다.

이후 태종은 1418년 세종에게 선위를 하고 그 이듬해인 1419년(세종 1) 11월 상왕으로서 현 국왕(즉, 세종)을 대동하고 강무를 시행하였다. 가장 대규모로 치러진 이 시기의 강무행사는 지평, 원주 북쪽, 횡성 사기소, 횡성 화동, 선암동(扇岩洞), 동원(洞原), 충구(葱丘), 소신산(跡薪山), 실미원(實美院), 원주의 서음소(鋤音所), 안장역(安將驛), 천녕현(川寧縣) 동편 교외, 양근(楊根)의 기산(機山), 용진, 양진(楊津) 등지를 거쳐 11월 13일 환궁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도 1421년(세종 3) 2월 말~3월 12일까지 상왕과 세종이 함께 횡성,





## 서 문

원주, 평창 등지에서 강무를 시행하였으며, 태종이 서거한 후인 1426년(세종 8) 2월 또한 황성 등지에서 강무를 시행하였지만 한성부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강무를 멈추고 불과 6일만에 환궁하였다. 이후 강원도 내 황성 등지의 강무장이 폐지되고 국왕의 강무 행사도 점차 퇴색하면서 황성에서의 강무 행사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다.

한편 1417년(태종 17)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시행된 강무 행사는 특별한 것이었다. 당시 태종은 물이꾼을 동원하기는 하였으나 사냥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바로 각림사로 가서 절의 승려에게 각림사 중창에 대한 뜻을 전하고 물이꾼을 모두 석방하여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서울로 환궁하였다. 이러한 태종의 강무 일정을 보면 당시 태종은 강무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기 보다는 어릴적에 머물며 공부한 각림사를 방문하고 각림사 불사(佛事)에 대한 뜻을 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있었다.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이 각림사에 꼭 가보고자 한 것은 첫째는, 어릴적 공부하던 곳인 각림사를 직접 보고 싶다는 것, 둘째는 태조와 모후의 기신재(忌辰齋)를 각림사에서 올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태종은 각림사를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태종이 그 당시 각림사에 가서 승려에게 “내 장차 지의(地衣 : 가장자리를 형겁으로 꾸미고 여러 개를 이어서 크게 만든 돛자리)를 주겠고, 또 오는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9월은 바로 모후의 기일(忌日)이 있는 달이기에 아마 태종은 모후 기일을 염두에 두고 각림사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태종은 당시 전지(田地)와 노비 50구(口), 사찰을 중창하기 위한 철 1천 근, 목재 1천 주를 하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횡성에는 조선시대 태종, 세종 임금의 강무 행차와 관련되어 있는 각림사, 태종대 등 여러 관련 유적지와 많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군마(軍馬)가 만약 필이나 동원되고 상왕이 된 태종과 현 국왕인 세종 임금이 함께 말을 타고 강무에 나서는 장면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위용이 느껴진다. 필자는 이 자료조사사업을 통해 횡성 지역에서의 조선시대 태종, 세종의 강무 행차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이 또한 횡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새롭게 조명·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지역의 훌륭한 역사문화자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순업 횡성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문에 가름하고자 한다.

2019년 3월

저자를 대표하여 유재춘 씀



# 차례

## 횡성 각림사(覺林寺)와 태종의 강무 행차 재조명

I. 각림사의 창건 시기	15
II. 고려 말의 각림사	31
1. 각림사(覺林寺)와 천태종(天台宗)의 동향	31
2. 신조(神照)와 각림사	37
3. 이방원(李芳遠)의 각림사 수학(修學)	47
4. 이방원과 원천석(元天錫)의 사제(師弟) 관계	56
III. 여말선초(麗末鮮初) 원천석과 각림사	62
IV. 조선시대 강무장 운영과 횡성	67
1. 강무장의 운영과 변천	67
2. 태종의 강무에 대한 인식	83
3. 횡성 지역에서의 강무	86

V. 조선 태종대(太宗代)의 각림사	101
1. 태종(太宗)의 불교정책(佛教政策)과 각림사 중창(重創)	101
2. 태종의 횡성(橫城) 강무(講武)와 각림사 행차(行次)	106
3. 태종의 강무소(講武所) 지정과 각림사	113
4. 1415년(태종 15) 가을 강무와 횡성	116
5. 태종대(太宗代) 각림사의 재중창(再重創)	119
6. 태종의 횡성 강무와 각림사 재행차(再行次) 논란	121
7. 태종의 각림사 재행차와 횡성에서의 강무	127
8. 각림사의 중창과 낙성법회(落成法會)	129
9. 태종과 원천석의 만남에 대한 이견(異見) 소개	137
VI. 세종대(世宗代)·문종대(文宗代)의 각림사	146
1. 세종(世宗)의 즉위와 횡성에서의 강무	146
2. 세종대(世宗代) 강무장(講武場) 지정과 강무시 횡성 경유	152
3. 세종의 불교정책과 각림사	156
4. 세종의 숭불(崇佛)과 각림사	163
5. 수록재(水陸齋)와 각림사	168
6. 세종의 횡성 강무와 문종(文宗)의 강무장 혁파	172
VII. 세조대(世祖代)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과 각림사	178

VIII. 성종대(成宗代)의 각림사	182
1. 각림사에 대한 소금 전수(轉輸)와 지원	182
2. 각림사에 대한 전세(田稅) 징수 문제	186
IX. 숙종대(肅宗代) 각림사에 대한 위전(位田) 문제	190
X. 각림사의 폐사(廢寺) 시기 문제	194
XI. 각림사와 태종대(太宗臺) 및 관련 유적	203
1. 각림사지	203
2. 태종대	208
3. 횡지암(橫指岩)	217
4. 노구소(老嫗沼 : 嫗淵이라고도 함)	217
5. 변암(弁岩 : 갯바위)	220
6. 누출재(陋拙齋)터	221
XII. 각림사 관련 사료	225
참고문헌	269



## 각림사의 창건 시기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강림면(講林面)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각림사(覺林寺)라는 절로 인하여 각림(覺林)이라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강림(講林)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진다.<sup>1)</sup> 각림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강림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강림우체국이 들어선 각림사지(覺林寺址)에서 발견된 각종 와편(瓦片)들을 통해 각림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다.

각림사지의 중심부는 강림교회와 강림우체국이 들어서 있고, 주변의 밭에서 발견된 와편들은 막새기와, 명와류(銘瓦類), 평와(平瓦), 치미편(鴟尾鞭)이다.<sup>2)</sup>

첫째, 막새기와 중 실상화연화문(實相華蓮華門)인 숫막새 기와(탁본 36)는 외측(外側)에 실상화문(實相華紋)이 장식되고 내측(內側)에 연화문(蓮華門)이 시문된 중판(重瓣) 양식의 매우 화려한 와당이다. 뒷면에는 마포 자욱이 없으며 모래가 조금 섞인 태토(胎土)로 경질(硬質)이며 회색이다. 이 숫막새 기와는 통일신라 중엽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와당편을 원권(圓圈)으로 2분하여 외측은 변형당초문을 장식하고 내측은 화륜(花輪)을 두른 중판 양식의 숫막새 기와(탁본 37)는 뒷면에 마포자욱이 있으며 모래가 조금 섞인 태토로 경질이며 회색이다.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동시대(同時代)의 자료로 매우 드문 것이다.

1) 강림면지편찬위원회, 『講林面誌』, 2008, 32쪽.

2) 신종원·정민화, 「橫城郡內 寺址調査」, 『강원문화연구』 3, 1983, 59~61쪽. 이하 내용은 이 논문을 요약 정리하여 발췌한 것이다.

황갈색의 숫막새 기와(탁본 38)와 회흑색의 숫막새 기와(탁본 39)는 모두 주변부(周緣部)와 연관권(蓮瓣圈)을 원권(圓圈)을 둘러 구분하였고, 원권의 안쪽에 반도(半圖) 혹은 파장형(波狀形) 반도를 두르고 그 안쪽에 중관연화문(重瓣蓮花紋)을 음각한 것이 특징으로, 뒷면에는 마포 자욱이 없고 모래가 조금 섞인 경질이며 모두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단관연화문와당(單瓣蓮花紋瓦當) 중 세장(細長)한 협판계(狹瓣系) 문판(問瓣)이 있는 형태(탁본 40)는 거칠고 조잡한 것으로 가는 모래가 조금 섞인 경질로 마포 자욱이 없고 회흑색인 숫막새 기와이고, 당초문 암막새 기와(탁본 41)는 연한 갈색, 탁본 42는 흑색)는 모래가 섞이지 않은 태토로 경질이다.

둘째, 명와류는 승석문(繩蓆紋)의 통일신라시대 문양으로 「夫수」라는 명문(銘文)이 있어 옛 사명(寺名)과 연관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탁본 43)이 있다. 이것은 굵은 모래가 섞인 태토로 경질이며 회색이다.

또한 분명한 판독이 어려우나 흑색으로 경질인 것(탁본 44)<sup>3)</sup>과 「근」 표시가 보이는 것(탁본 45)은 모두 고려시대의 수지문명와(樹枝紋銘瓦)로 모두 모래가 섞인 것이다. 그리고 뒷면에 마포 자욱이 있으며 모래가 섞이지 않은 태토로 회색인 명와(銘瓦, 탁본 46)는 「(慶)曆(元)年 辛巳」라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sup>

셋째, 각림사지(覺林寺址) 부근에서 수습된 평와(平瓦)는 사찰(寺刹) 초창기(初創期)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탁본 47~52). 또한 고려시대의 수지문(樹枝紋) 및 단조로움을 피하여 수지문을 변형한 평와들(탁본 53~62)도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평와들로 수지문에서 선을 그어 기하학적(幾何學的) 문양(紋樣)을 가미한 것(탁본 63~68), 조선시대의 기하학적 문양류로 모래가 섞인 경질 평와(탁본 69~78)들도 발견되었다.

사실적 문양을 나타낸 평와들(탁본 79~83)에서 직선식의 평행선문과 변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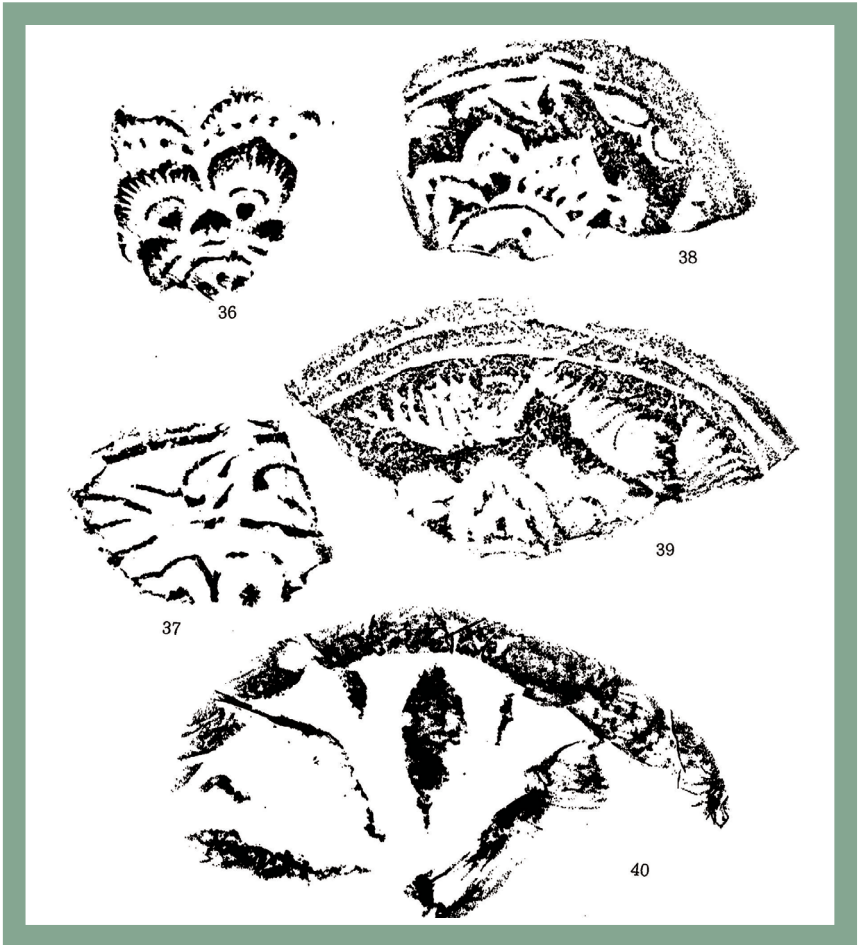
3) 탁본 44는 「中 二十」이라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4) ( ) 괄호는 추정 한자이다. 그러나 탁본 46은 「(慶)曆(元)年 辛巳 ○瞻」으로 판독할 수 있다(○은 판독 불가를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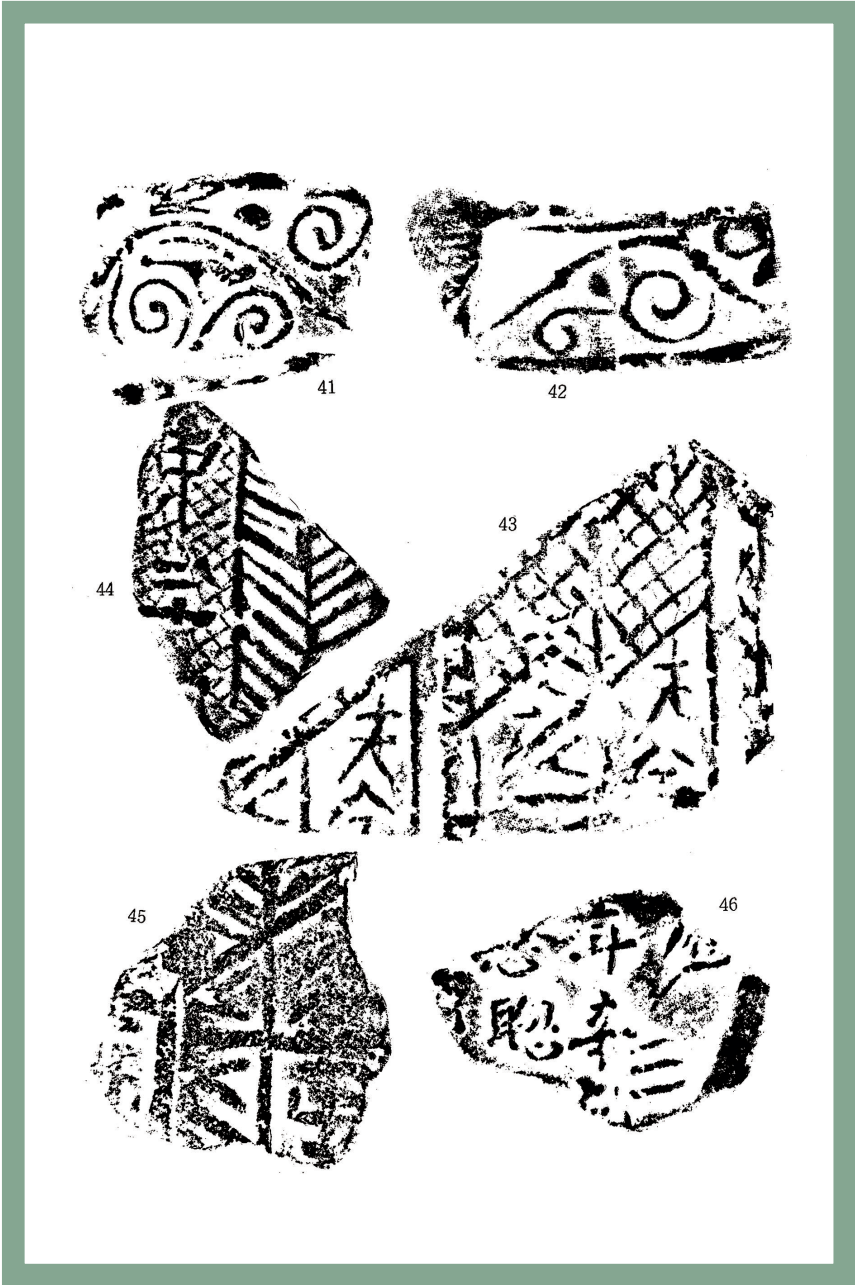


당초문으로 장식된 암기와(탁본 79)는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주위에 당초문을 장식한 것(탁본 80), 짧은 평행선과 당초문을 혼합한 평와(탁본 81), 모래가 섞인 흑색 평와(탁본 82), 「卍」자 및 평행선과 수지문을 혼합해서 양출한 평와(탁본 83) 등도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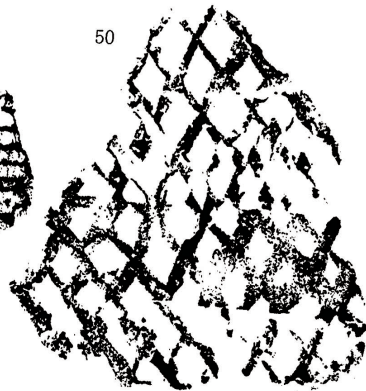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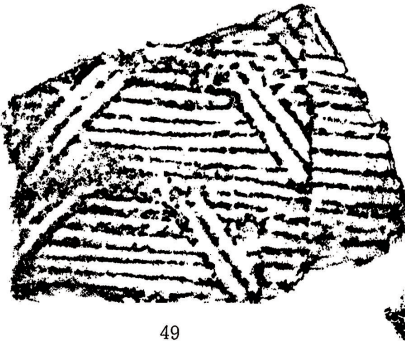
〈각림사지(覺林寺址) 와편(瓦片) 탁본(拓本)〉<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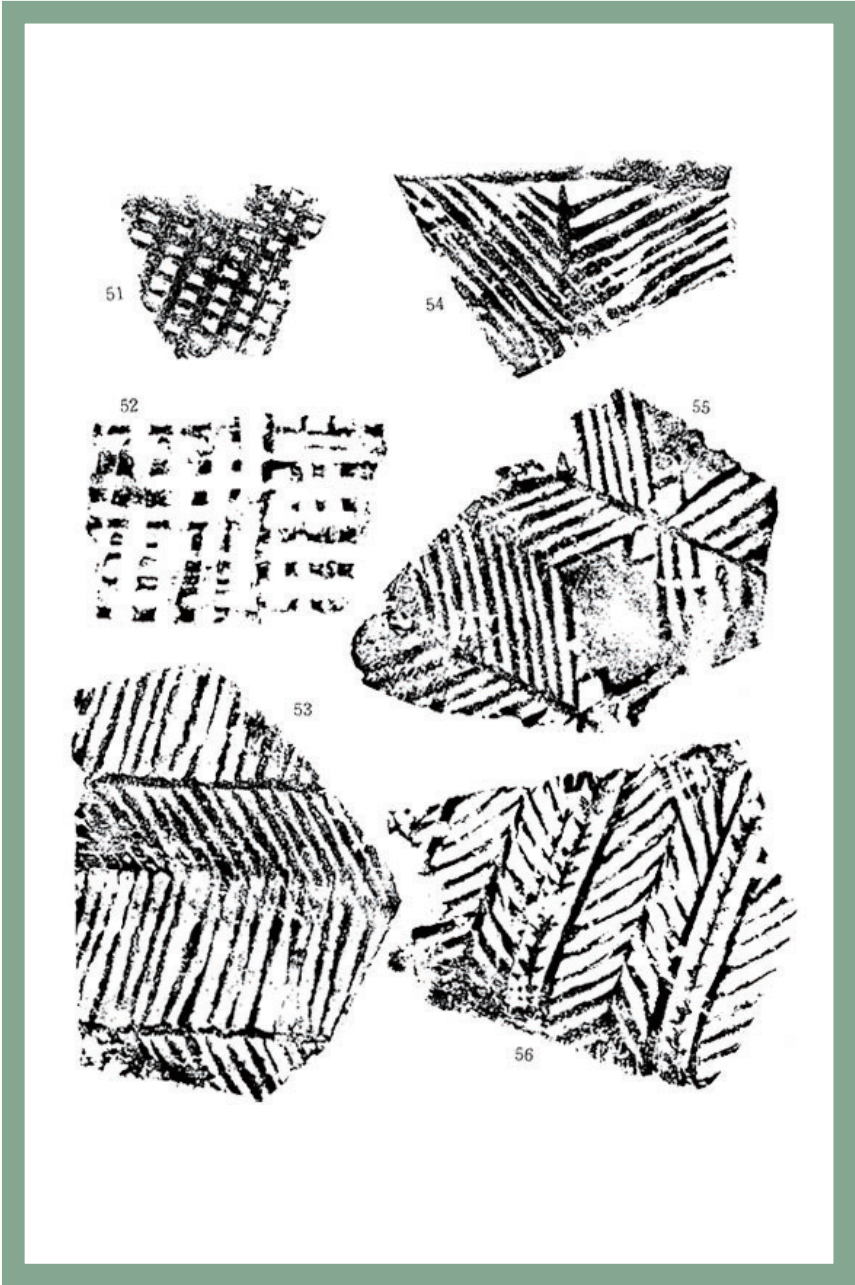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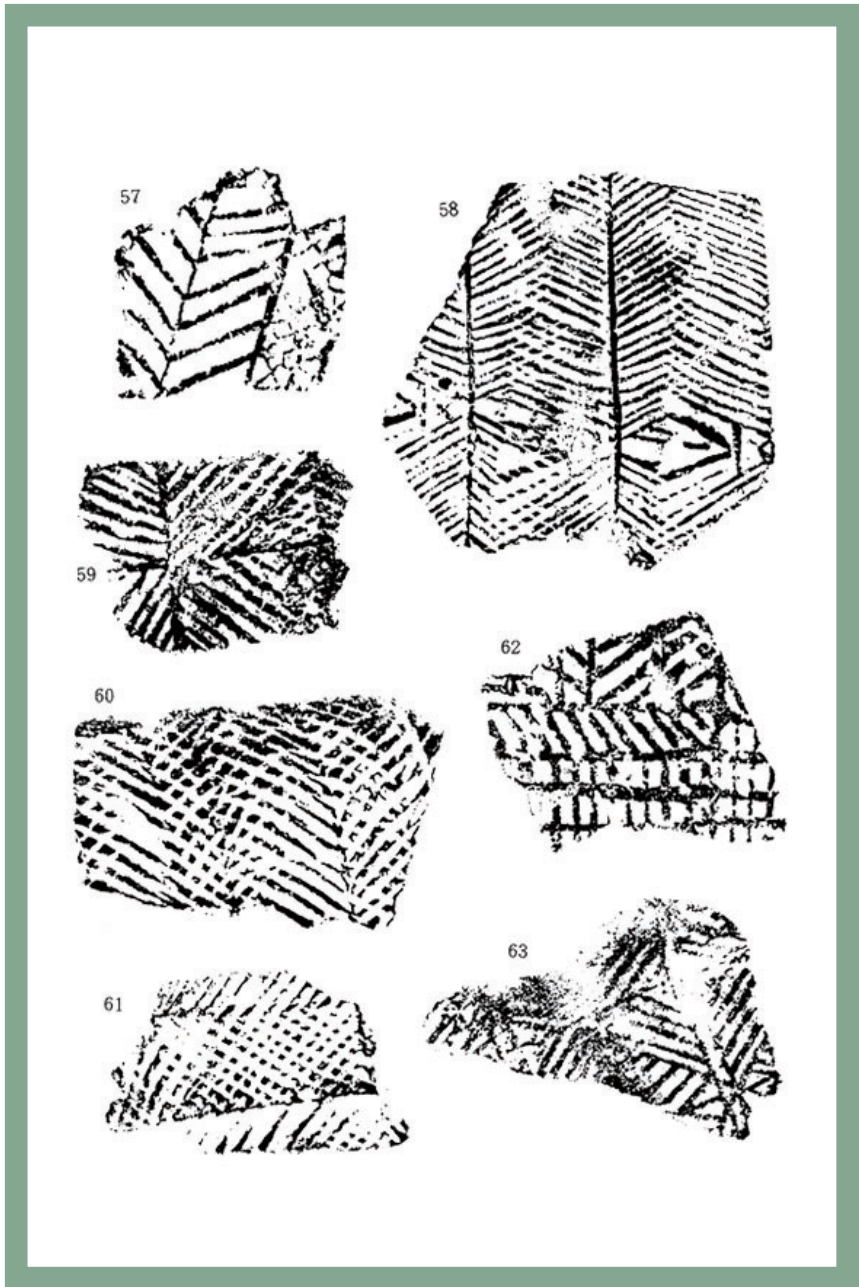
5) 신종원·정민화, 『橫城郡內 寺址調査』, 『강원문화연구』 3, 1983, 78~86쪽. 번호는 탁본 번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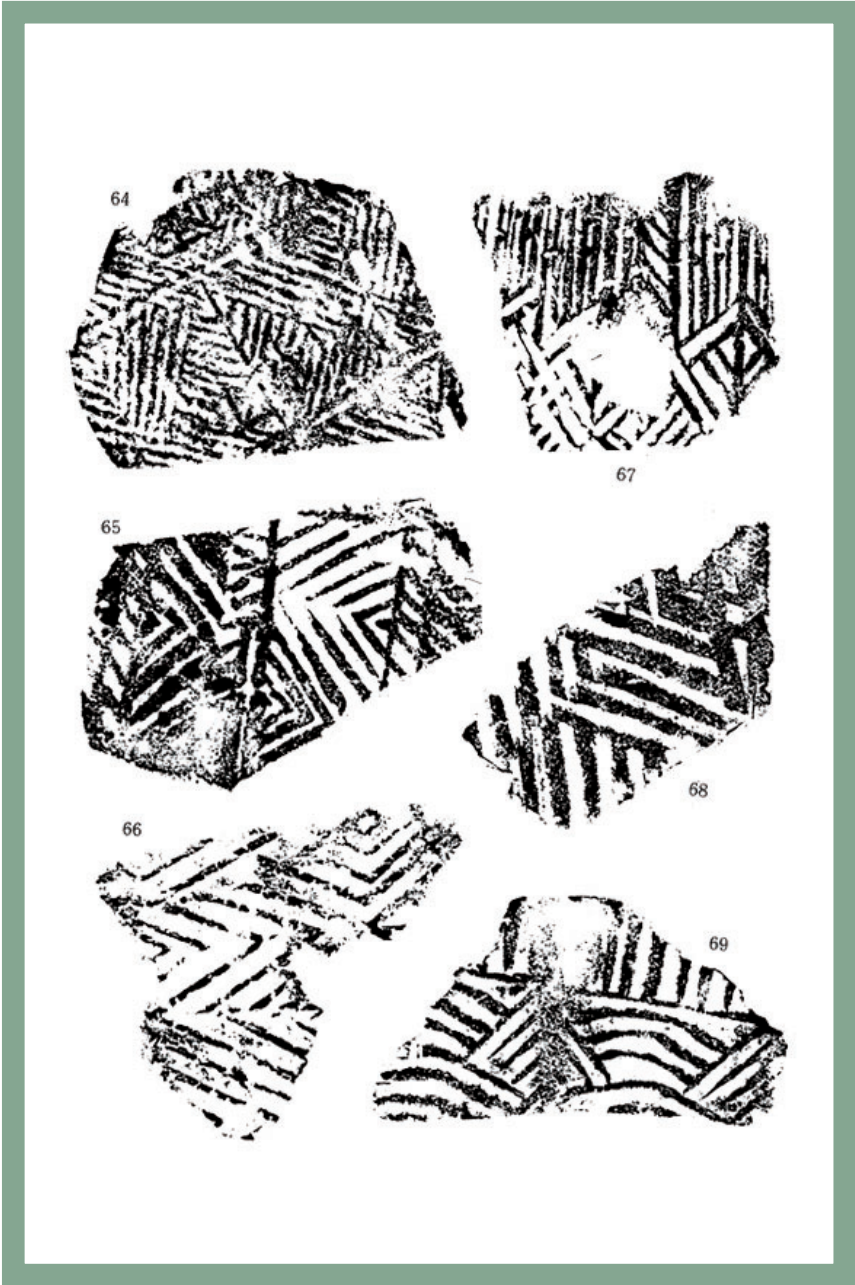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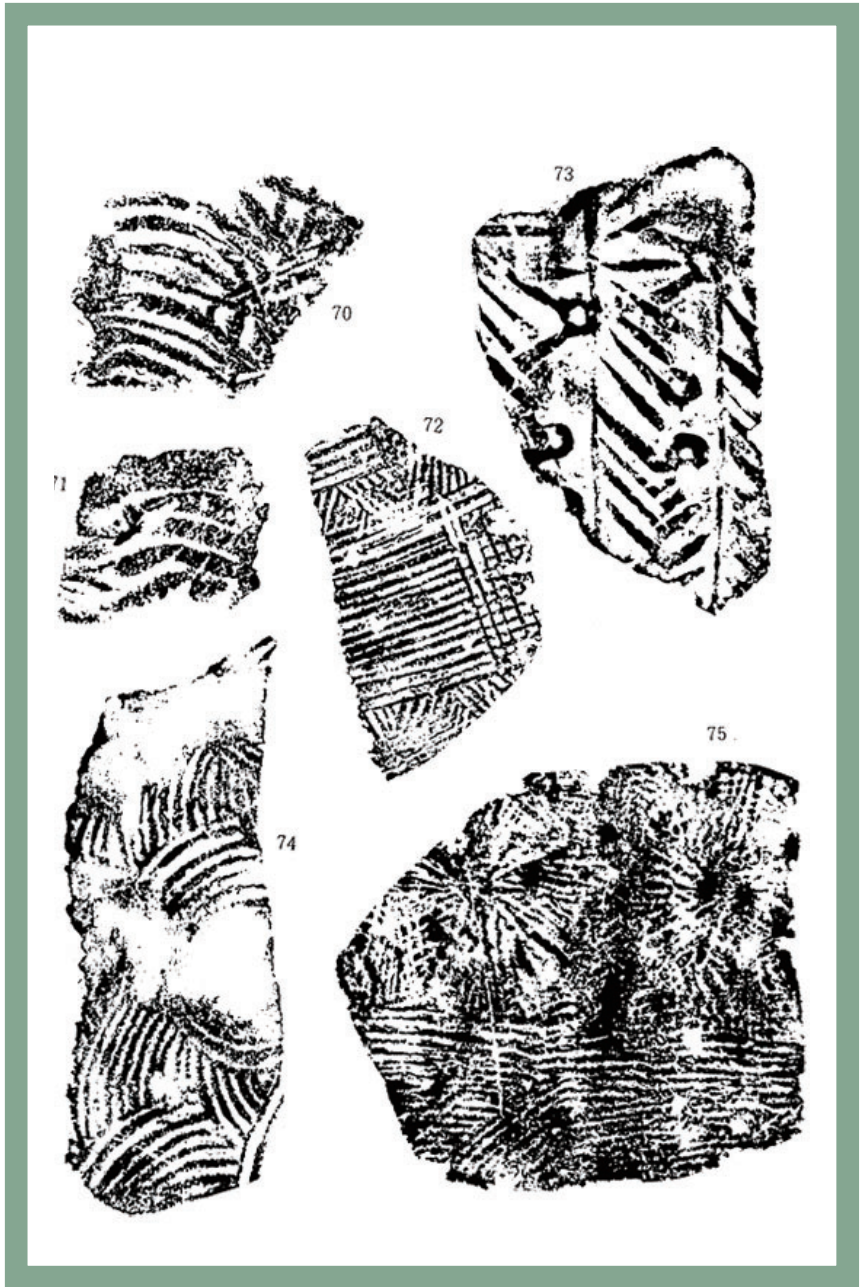
覺林寺址瓦片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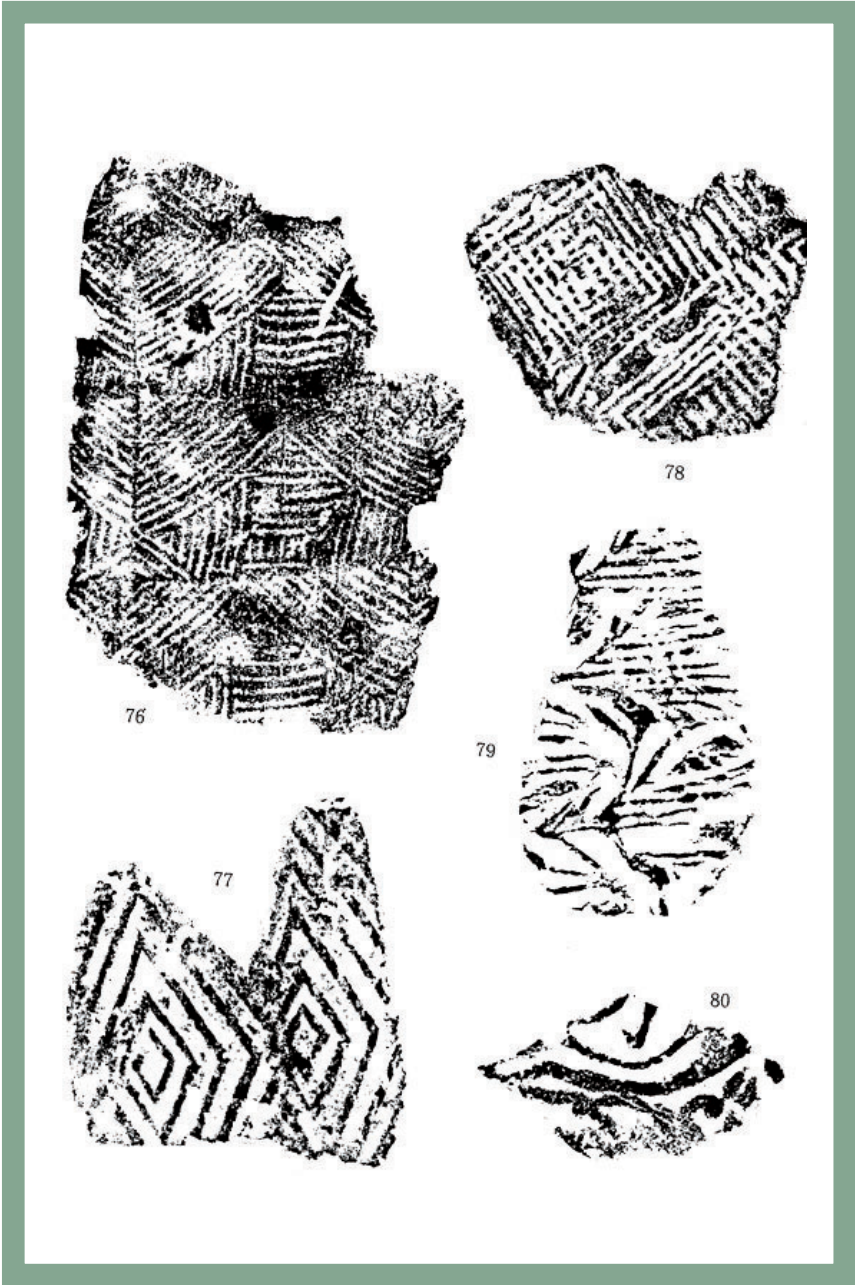














81



83



82



넷째, 오른쪽의 것은 치미편(鷓尾鞭)으로 보이며 평면 부분이 3cm이고, 원형 돌기 부분은 4.2cm이다. 가운데에 있는 솥막새 기와는 탁본 40의 실물 사진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림사지(覺林寺址)에서 발견된 막새기와, 명와류(銘瓦類), 평와(平瓦)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림사는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창건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림사지(覺林寺址) 치미편(鷓尾片)〉<sup>6)</sup>

그러나 『강림면지(講林面誌)』에서는 ‘절터에 산재된 와편들로 볼 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추측되나 고구려시대 이전의 평와편도 발견되고 있어 빠르면 고구려시대에 세워진 사찰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sup>7)</sup> 평와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횡성군(橫城郡)의 역사(歷史)와 문화유적(文化遺蹟)』에서도 각림사지(覺林寺址)에서 발견된 와편들을 분석하면서 ‘각림사는 정확한 초창연대(初創年代)를 알 수 없으나 사지(寺址)에 산재된 와편들을 볼 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는 창건된 사찰’이라고 하고 있다.<sup>8)</sup>

『문화유적분포지도(文化遺蹟分布地圖)-횡성군(橫城郡)』에서도 각림사지(覺林寺址)에서 발견되는 기와편을 근거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보고 있다.<sup>9)</sup> 그런데 『문화유적분포지도-횡성군』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림사지의 출토 유물의 범위를 추정해 볼 때 각림사지의 규모는 강림중학교를 중심으로 남북축이 약 1km, 동서축이 250m 정도의 대규모 사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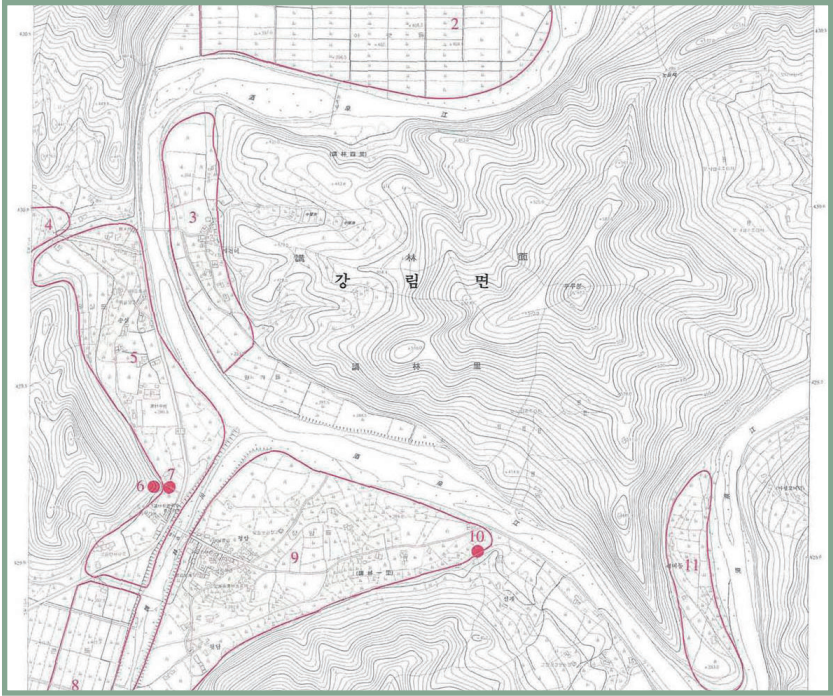
6) 신중원·정민화, 「橫城郡內 寺址調査」, 『강원문화연구』 3, 1983, 70쪽. 가운데는 와편(瓦片)임.

7) 강림면지편찬위원회, 『講林面誌』, 2008, 33~34쪽.

8) 강원도·횡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178쪽.

9)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360쪽.

유물의 북쪽 끝인 강림3리 송실마을 입구 발에도 기와편이 출토하고 남쪽 끝인 강림면사무소 일대에도 기와편이 산재한다고 하고 있다.



〈횡성 각림사지(覺林寺址) 유물 분포도(5번으로 표시된 부분)〉<sup>10)</sup>

다만 이곳은 현재 경작과 신축건물들로 지속적인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강림성결교회와 함께 족구장 및 배구장이 신축되면서 사지(寺址)의 중심부가 완전히 파괴된 양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축된 교회 축대에 기와편과 도기편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쌓였고 강림면사무소 북서쪽의 발에도 지속적인 경작으로 인해 경작자가 발독에 기와편과 도기편을 쌓아 두었다고 전하면서 1995년에 보고된 각림사 주변의 석재는 완전히 도괴(盜魁)되어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10)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259쪽.



〈좌:각림사지(覺林寺址) 석재(石材), 우:각림사지(覺林寺址) 와편(瓦片)<sup>11)</sup>〉

또한 황성 강림2리 유물산포지(강림면 강림2리 2516일대)에서 출토되는 '선문(線紋)'이 시문된 암기와편과 숫기와편이 출토되는 양상을 두고, '이 기와편은 각림사지와 유사한 유물로 인근의 각림사지와 관련된 부속건물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sup>12)</sup>

따라서 각림사가 한창 번창하였을 때는 그 규모가 최소한 남북축이 약 1km, 동서축이 250m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사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각림사지(覺林寺址)에는 고려 초기의 기와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도 여전히 존속하였다가, 고려 말을 거쳐 조선 초기에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필자들이 각림사지를 조사하였을 때(2018년 10월 19일)도 다량의 와편과 자기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와편들은 역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해당된다고 보이며, 백자 자기편에는 바닥에 「木」자를 압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림사지의 중심부라고 알려진 강림교회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 부근에는 다량의 와편 등이 산재하고 있다. 향후 각림사지에 대한 광범위한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면 명문(銘文)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아래 사진은 최근의 조사에서 발견된 와편과 자기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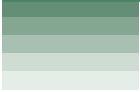
11) 강원도·황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201쪽(사진 65와 사진 66).

12) 황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358~359쪽.





## 고려 말의 각림사



### 1. 각림사(覺林寺)와 천태종(天台宗)의 동향

각림사지(覺林寺址)에서 고려 초 및 고려시대의 와편들도 상당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각림사(覺林寺)는 고려시대에도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말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 전체에 걸쳐 각림사와 관련된 기록은 현재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각림사는 고려 중기 무신정권기(武臣政權期)의 혼란, 몽골의 침략과 대몽항쟁기(對蒙抗爭期) 등을 거치면서 잠시 쇠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기(李璽)가 지은 『송와잡설(松窩雜說)』에 “원성(原城) 치악산(雉嶽山) 동쪽에 각림사(覺林寺)가 있다. 처음에는 뗏집 두어 칸이 숲속에 황폐하게 있었다(原城雉岳山之東, 有覺林寺, 其初數間茅舍, 蕪沒於林藪之中).”<sup>13)</sup>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림사가 고려 중·후기 혼란한 상황을 거치면서 뗏집 두어 칸만이 ‘무몰(蕪沒)<sup>14)</sup>, 즉 ‘황폐해졌다’라고 표현될 만큼 잠시 폐사(廢寺) 또는 쇠락을 거쳐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운곡시사(耘谷詩史)』에 있는 시(詩) 한편이 주목된다.

13) 『대동야승(大東野乘)』, 이기(李璽), 『송와잡설(松窩雜說)』.

14) 무몰(蕪沒)은 일반적으로 잡초가 우거져 덮였다는 뜻이다. 중국어에는 ‘잡초에 파묻히다’라는 뜻과 ‘황폐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천대(天台) 연(演) 스님이 총림(叢林)에 가는 길에 각림사(覺林寺)를 지나게 되어 나를 찾아왔다. 그의 말이 묵묵하고 움직임이 고요함을 보니 범상치 않았다. 비록 절간이 쇠락해 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장차 그 도를 다시 일으킬 것이므로, 이별하는 마당에 시 한 수를 지어 붓을 적서서 노자로 드린다(天台演禪者將赴叢林, 自覺林寺來過余, 觀其語默動靜, 甚是不凡雖當釋苑晚秋, 將是以福興其道, 臨別需語, 泚筆以贖行云).

禪門絕名相	선문(禪門)에선 이름과 모습을 다 끊었으니
闕闕本幽深	그 문턱이 본래 그윽하고 깊었네,
祖脉傳台嶺	조사(祖師)의 맥은 태령(台嶺)에 전했고
宗風隔少林	종단의 바람은 소림(少林)에 격했네.
應吹無孔笛	구멍 없는 피리를 불기도 하고
閑弄沒絃琴	줄 없는 거문고를 타기도 했으니.
此別何須恨	이 이별을 어찌 서운케 생각하라
不同塵土心	티끌 세상의 마음과 같지 않네. <sup>15)</sup>

이 시가 실려 있는 『운곡시사』 권5는 원천석(元天錫)이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쓴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1391~1394년 무렵, 즉 고려 말과 조선 건국 직후에 쓰여진 것이다. 이때 운곡(耘谷)은 노쇠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요양을 위해 각림사에 거처한 적이 있었으며, 각림사의 중흥을 위해 봉복군(奉福君) 신조(神照)에게 시를 보내 동국(東國)의 중흥(中興)을 찬양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 시를 보면, 원천석이 시 앞에 쓴 것처럼, 총림(叢林)에 가는 길에 각림사를 지나면서 자신을 찾은 천대(天台) 연(演) 스님에게 노자 대신 시를 지어 써 준 것이다. 그런데 원천석은 각림사가 쇠락해 가는 지경이라고 하였고, 천대 연 스님이 말이 묵묵하고 움직임이 고요함을 보아 매우 범상치 않으므로 그가 쇠락한 각림사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를 써 주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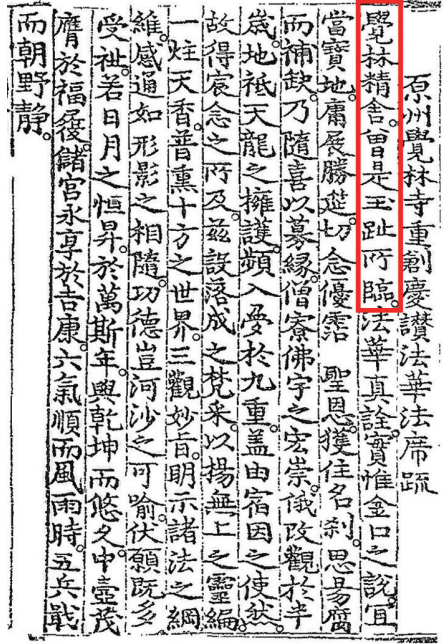
15)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48, 天台演禪者將赴叢林, 自覺林寺來過余, 觀其語默動靜, 甚是不凡雖當釋苑晚秋, 將是以福興其道, 臨別需語, 泚筆以贖行云(이인재·허경진 공역, 『운곡시사(耘谷詩史)』, 원주문화원, 2001, 525~526쪽).

16) 김혜완, 「운곡 원천석과 주변 사원과의 관계」,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혜안, 2007, 763쪽.



따라서 각림사는 고려 말에는 황폐해졌다고 표현될 만큼 쇠락해져 있었음이 다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춘정집(春亭集)』에는 각림사에 대해 ‘각림정사(覺林精舍)는 일찍이 임금이 들르셨던 곳’이라고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7)</sup> 즉 ‘정사(精舍)’는 일반적으로 신앙에 따라 수행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 불도(佛道)를 닦는 스님이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사에는 학사(學舍), 절, 서재, 사원 등의 뜻이 있다. 정사(精舍)는 주자학(朱子學, 성리학性理學)이 보급되던 고려 말에 본격적으로 세워졌으며, 조선시대 주자



〈『춘정집(春亭集)』, 각림정사(覺林精舍) 부분〉

학(성리학)의 융성과 함께 곳곳에 건립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명망 높은 유사가 강학소를 개설하면, 그를 흠모하는 지학들이 모여들어 수학함으로써 많은 정사가 성립되었다.<sup>18)</sup> 정사는 사적·학구적이라는 점에서 서원과 구분되지만, 정사는 개설자가 죽은 뒤에 서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사는 서원(書院)·서당(書堂)과 더불어 사학(私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춘정집』은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사후 그의 문인 정척(鄭陟, 1390~1475)이 처음 유고를 수습하여 엮은 것이 초고본(草稿本)이고, 또다른 문인 권맹손

17)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 “覺林精舍。曾是玉趾所臨”. 이 글은 1478년(성종 9)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徐居正)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詩文選集)인 『동문선(東文選)』에도 실려 있다(『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3, 소(疏)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

18) 정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이(李瑋)의 은병정사(隱屏精舍), 이황(李滉)의 농운정사(隆雲精舍), 김일손(金弼孫)의 운계정사(雲溪精舍) 등이 있다. 현존하는 정사는 대략 20개소로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들이다.

(權孟孫, 1390~1456)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하여 이를 간행하고자 하여 세종(世宗)께 아뢰었고, 이후 1442년(세종 24)에 초간(初刊) 목판본(木版本)이 만들어졌다.

변계량은 권근(權近)의 문하(門下)로,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文臣)인데, 조선 왕조 건국 초기의 불교 관계 글은 주로 권근이 왕명을 받들어 썼으나, 권근의 타계 전후 무렵부터 왕명을 받들어 쓴 이는 바로 권근의 문하인 변계량이었다. 변계량은 권근의 영향을 받아 경사(經史)와 시문(詩文)에 정통하고 학식과 문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 이르기까지 해박하여 국왕의 하명과 왕실의 요청으로 부처를 섬기고 도교(道敎)의 여러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헌의(獻議)하고 주관하였으며, 왕실의 숭불 행사와 그에 관한 글도 으레 변계량의 몫이었다.<sup>19)</sup>

따라서 변계량이 각림사의 중창(重創)과 관련하여 불덕(佛德)을 드높이는 법화법석(法華法席)과 관련된 글을 지으면서 각림사에 대해 '각림정사(覺林精舍)'라고 쓴 것은 당시 각림사가 번창하고 웅장한 사찰로 일반적인 불사(佛事)를 행하던 곳이 아니라 고려 말 스님들이 수행하던 공간이면서도 스님 이외의 사람들이 학문을 정진하던 곳이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계량은 각림사의 중창과 관련하여 '질이 허물어지고 기울고 좁고 누추하니 흰 것을 고쳐 새롭게 하였다'고 하고 있어 각림사가 태종 때 중창되기 전에는 실제로 무물(蕪沒), 즉 황폐해졌다고 표현될 만큼 상당히 쇠락해져 있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sup>20)</sup>

한편 고려 말 불교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불교는 보수화되고 귀족화되어 민중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용된 성리학에 대체되어 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고려 말 불교계 종파의 일부 선각자들은 자기정화와 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특히 고려 후기 불교계를 주도하였던 조계종(曹溪宗)과 천태종(天台宗)도 고려 말에 이르러 결사정신이 다시 부각되었다.<sup>21)</sup>

특히 고려 말 불교계는 원(元)의 지배를 받고 있던 기간 중에는 그 중심이 천태종으로 옮겨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충렬왕(忠烈王)이 개경(開京)에 묘연사

19)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춘정집(春亭集)』 해제 참고.

20)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3, 소(疏), 동전(同前), 변계량(卞季良).

21)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8, 297쪽.

(妙蓮寺)를 세우고 이곳에 백련사(白蓮寺) 계통의 천태종승(天台宗僧)을 주맹(主盟)하게 함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22)</sup> 충렬왕은 법화사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충렬왕과 그의 비(妃)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공동 발원(發願)으로 이룩한 원찰(願刹)을 세우고 사명(寺名)을 법화경을 뜻하는 묘련(妙蓮)으로 하였기 때문에 천태학(天台學)에 정통한 백련사의 주법(主法)이었던 원혜(圓慧)를 묘련사의 초대 주맹으로 칭하였다.<sup>23)</sup>

이후 묘련사는 백련사 계통 천태종승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고, 천태종은 이 묘련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여 점차 교세를 확장해 나가게 되었으며, 이후 묘련사 중심의 활동을 통해 천태종이 고려 후기의 불교계를 통할(統轄)하는 위치로까지 오르게 한 사람은 무외국사(無畏國師) 정오(丁午)였다.<sup>24)</sup> 고려 왕실의 원찰인 묘련사를 비롯하여 금장사(金藏寺)·국청사(國淸寺)·영원사(瑩原寺)·용암사(龍岩寺) 같은 대찰(大刹)이 정오의 주석(住錫) 아래 차례로 경영되었고, 정오는 충렬왕·충선왕(忠宣王)·충숙왕(忠肅王)의 삼대(三代)에 걸쳐 극직한 예(禮)를 받으면서 대선사(大禪師)·왕사(王師)·국통(國統)의 직위에 올라 교계(交界)를 총관(總管)하였다.<sup>25)</sup>

정오의 입적(入寂) 이후에는 묘련사에 새로운 천태종 세력이 등장하였는데, 당시의 권문세가(權門勢家) 중 하나였던 조인규(趙仁規) 가문에서 출가한 천태종승(天台宗僧) 혼기(混其)와 의선(義旋)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sup>26)</sup> 혼기는 조인규의 친형(親兄)으로 그는 수원(水原) 만의사(萬義寺)를 중창(重創)하고 법화도장(法華道場)을 설치하였는데, 만의사는 조씨가문(趙氏家門)의 원찰(願刹)임과 동시에 묘련사의 별원(別院)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의사는 여말선초(麗末鮮初) 천태종 활동의 중심이 된다.<sup>27)</sup>

22) 이달춘, 『高麗 天台宗의 成立과 그 展開』,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83쪽.

23) 이달춘, 『高麗 天台宗의 成立과 그 展開』,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85쪽.

24) 위와 같음.

25) 이달춘, 『高麗 天台宗의 成立과 그 展開』,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88쪽.

26) 위와 같음. 조인규(趙仁規, 1237~1308)는 몽고어(蒙古語) 역관(譯官) 출신으로 원(元)의 세력을 등에 업고 권문세가로 성장한 인물이다. 고려의 고종·원종·충렬왕·충선왕의 4대에 걸쳐 사신으로 30여 차례나 원에 왕래하면서 공신의 칭호를 받고 그의 딸은 충선왕의 비(妃)가 되기도 하였다. 평양군(平壤君)에 봉해졌다가 사후(死後)에 정숙공(貞肅公)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27) 이달춘, 『高麗 天台宗의 成立과 그 展開』,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89쪽.

의선(義旋)은 조인규의 넷째 아들로, 어릴 때 묘련사에 출가(出家)하여 원혜(圓慧)의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혼기(混其)를 이어 수원 만의사(萬義寺)에 주석(主席)하였고, 영원사(塋原寺)의 주지(住持)로 취임하기도 하였다.<sup>28)</sup> 의선은 이후 원(元)에 들어가 원 황제(皇帝)로부터 '삼장법사(三藏法師)'의 호(號)를 받고, 주로 원나라에 머물렀으나, 일시 귀국하였을 때는 묘련사를 크게 중창하여 천태종의 본산이 되게 하였다. 또한 혼기가 크게 중창한 수원 만의사를 묘련사의 별원(別院)으로 삼아 문도들이 계승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묘련사계(妙蓮寺系)의 사세가 개경(開京)에서 수원(水原) 등 근기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sup>29)</sup>

이를 바탕으로 의선의 대표적인 문도들인 희암(熙菴)과 나암원공(懶菴元公), 나암의 제자인 휴상인(休上人), 휴상인의 제자인 원달(元達)과 도우(道于), 요원(了圓) 등이 천태종의 고승(高僧)으로써 활동하였다. 그 밖에 원천석(元天錫)이 각림사(覺林寺)에서 머물 때 교유한 천태종승(天台宗僧) 연선자(演禪者), 여주 고달사(高達寺)에 주석한 의징(義澄), 천태판사(天台判事)에 오른 약언(約言), 원천석이 교류한 달의(達義), 달의의 도반으로 추정되는 달목(達牧) 등 천태종 고승들이 있었다.<sup>30)</sup>

의선으로 대표되는 조인규 가문과 결합된 묘련사계(妙蓮寺系)의 등장으로 백련사(白蓮社)가 철저하게 귀족불교화(貴族佛敎化)하고 부원세력화(附元勢力化)했다고 보여지면서 그 결사정신이 흐려졌다고는 하지만 백련결사의 전통적인 정신이 완전히 단절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무기(無器)는 종교적 실천수행과 서민불교적 경향을 가지면서 초기의 결사정신을 계승해 가고 있었다.<sup>31)</sup>

결국 고려 말의 천태종은 요세(了世)의 맥을 이은 백련사계와 권문세가인 조인규가(趙仁規家)와 결합하여 귀족불교로 변질된 묘련사계가 양립하다가 백련사계가 다시 강세를 보이던 시기로, 백련사(白蓮社) 본래의 성격, 즉 일심삼관(一心三觀),

28) 위와 같음.

29)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천태학연구』 11,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8, 301쪽.

30)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천태학연구』 11,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8, 302~307쪽.

31) 이달춘, 『高麗 天台宗의 成立과 그 展開』,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91~92쪽.

법화참회, 정토신앙을 기반으로 하였고, 백련사 4세 천책(天頤)과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운묵(雲默)의 사상이 부각되었던 시기이다.<sup>32)</sup>

이러한 백련사계의 부활은 각림사(覺林寺)와도 연결되는데 신조(神照)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세운 공훈으로 받은 만의사(萬義寺)에서 「계환해법화경(戒環解法華經)」을 강의하였다. 「계환해법화경」은 일찍이 만덕산 백련사 보현도장(普賢道場)에서 읽혔던 것으로 신조는 백련사계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찍이 신조가 머물렀던 각림사의 성격도 천태종 백련사계의 전통을 이었음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천태법사종(天台法事宗)으로 소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림사의 사상 경향은 교선일치적 성향에 법화경과 함께 아미타경을 중시한 정토신앙, 일심삼관의 마하지관을 실천하는 천태선의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33)</sup>

## 2. 신조(神照)와 각림사

신조(생몰년 미상)는 정오(丁午) 이후 천태종 소속 사찰인 용암사(龍巖寺)와 용화사(龍華寺)의 주지(住持)를 하였는데, 용암사는 정오와 요원(了圓)이 주지를 하였던 곳이므로 신조는 요원과 같은 계통의 승려였다고 생각된다.<sup>34)</sup>

그런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는 '신조(神照)가 처음에 치악산(雉嶽山) 각림사(覺林寺)에 있었다'고 하고 있다. 즉 서해도(西海島)의 신주(信州), 문화(文化), 안악(安岳), 봉주(鳳州)를 침입한 왜구(倭寇)를 이성계(李成桂)가 해주(海州)에서 맞서 싸웠는데, 그 때 신조가 이성계에게 고기를 찢고 술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용비어천가』는 신조에 대하여 본문의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김혜완, 「은곡 원천석과 주변 사원과의 관계」,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혜안, 2007, 782~783쪽.

33)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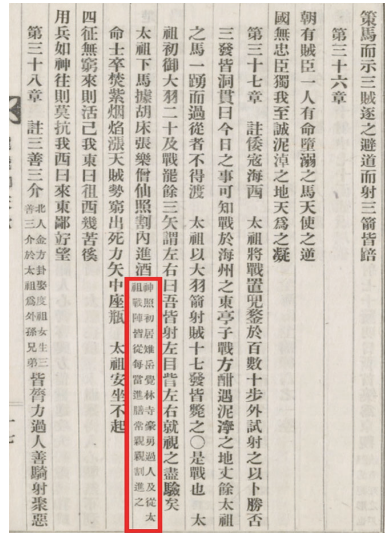
34)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천태학연구』 11,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8, 308쪽.

신조(神照)는 처음에는 치악산(雉嶽山) 각림사(覺林寺)에 있었다. 그는 호기와 용맹이 뛰어났다. 태조를 따라 사냥터와 전쟁터를 다니며 언제나 태조를 모셨다. 비록 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매번 식사를 올릴 때 친히 고기를 찢었다.<sup>35)</sup>

『용비어천가』를 보면, 신조가 처음에 치악산 각림사에 있었는데, 그는 호용(豪勇)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되어 있다. 또한 태조(이성계)를 따라 사냥터와 전쟁터를 다니며 언제나 태조를 모셨으며, 신조는 비록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매번 이성계에게 식사를 올릴 때 신조가 친히 고기를 찢어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태조(이성계)를 호종(扈從)한 공으로써 조선 개국 후에 신조는 봉리군(奉利君)에 봉해졌다.<sup>36)</sup>

따라서 신조는 정오(丁午)와 요원(了圓)과 같은 천태종 계통의 승려이고, 그가 처음 있었던 각림사(覺林寺)는 자연히 천태종 소속 사찰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조가 용암사(龍巖寺)와 용화사(龍華寺)의 주지가 되기 전에 있었던 곳 중 하나는 적어도 각림사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운곡시사(耘谷詩史)』에는 원천석(元天錫)이 신조에게 시를 보낸 것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신조가 각림사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신조(神照)와 각림사(覺林寺) 부분〉

35)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37장. 이 내용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도 실려 있는데, 신조가 '조선 개국 후에 그 공으로써 봉리군(奉利君)에 봉해졌다'는 내용이 뒤에 덧붙여져 있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권 태조조(太祖朝) 고사본말(故事本末)).

36)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권 태조조(太祖朝) 고사본말(故事本末).

봉복군에게 부침(신조대선사) (寄奉福君(神照大禪師))

專嚮慈門十過春 오로지 인자한 문을 향해 열 번이나 봄을 보냈으니  
無因縮地每勞神 축지법(縮地法) 배우지 못해 늘 마음만 괴로웠네.  
覺林八部增威德 각림사(覺林寺) 팔부(八部) 중생이 위덕(威德)을 더하여  
忙待經營舊主人 옛 주인 경영하기를 못내 기다리네.

東國中興第一春 동국(東國)이 중흥하는 첫 번째 봄이니  
農桑得意謝天神 농사와 누에치기가 뜻대로 되어 천신(天神)께 감사하네.  
沙門亦感風雲會 스님도 역시 풍운이 만남을 느껴  
奉福尋常獻一人 예사롭게 복을 받들어 한 사람에게 바치네.<sup>37)</sup>

이 시 역시 원천석이 62세에서 65세 사이(1391~1394년)에 쓴 것으로, '동국이 중흥하는 첫 번째 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시를 쓴 것은 조선 개국 후로 보인다. 시의 내용 중 '옛 주인 경영하기를 못내 기다리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의 '옛 주인'은 바로 신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 신조가 고려 말에 각림사의 주지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결국 이 시는 예전에 각림사를 경영했던 신조에게 각림사의 중흥에 대한 역할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조는 공민왕대 왕의 최측근 승려였는데, 그가 공민왕의 측근이 되어 총애를 받게 된 것은 당시 신조가 천태종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38)</sup> 결국 신조는 각림사를 거쳐 용암사의 주지가 된 후, 천태종을 대표하며 공민왕의 최측근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조는 당시 '천태종(天台宗)의 용암사(龍巖寺) 주지인 대선사(大禪師) 중대광(重大匡) 봉복군(奉福君)'이라는 봉군(封君)을 받고 있으며, 공민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sup>39)</sup> 또한 『고려사(고려사)』 1371년(공민왕 20) 기사 등에도 신조가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37)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67, 寄奉福君(神照大禪師)(이인재·허경진 공역, 『운곡시사(耘谷詩史)』, 원주문화원, 2001, 538~539쪽).

38) 황인규, 「고려말 李成桂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2001, 346쪽.

39) 『양촌집(陽村集)』 권12, 기류(記類),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78, 기(記),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승려로 나오고 있다.<sup>40)</sup>

따라서 신조는 1371년(공민왕 20) 기사에 공민왕이 총애하는 행승(倅僧)으로 나오고 이후 계속 중앙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적어도 1371년 이전, 또는 뒤에 언급되는 1370년(공민왕 19) 나옹혜근(懶翁惠勤)의 공부선(功夫選)<sup>41)</sup> 이전 각림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42)</sup>

한편 신돈(辛旽)이 매골승(埋骨僧)이었을 때 각림사를 방문하여 수련 후 편조(遍照)라는 법호를 받았는데, 이때 동문수학한 스님이 중조(中照)와 신조였고, 신돈이 신조를 왕궁의 내불당에 들여 왕의 곁에 머물도록 했다고 하여 신조가 공민왕의 최측근이 되는데 있어 신돈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sup>43)</sup>

신조는 1370년(공민왕 19)에 나옹혜근(懶翁惠勤)이 주관한 공부선(功夫選)에 참여하였다.<sup>44)</sup> 이때 신조는 광명사(光明寺) 공부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공민왕이 공부선이 끝난 다음 그를 나옹에게 보내어 출제 내용이었던 공부십절(功夫十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므로 나옹이 직접 써서 바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태종을 대표하는 공민왕의 측근이라 할 수 있다.<sup>45)</sup>

당시 혜근이 주관한 공부선은 고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오교양종(五教兩宗)이 모든 종파를 망라하여 유가종(瑜伽宗)을 제외한 4대 종파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불교계의 혁신 시도였다고 생각되며, 공부선이 실시된 다음해인 1371년(공민왕 20)

40) 『고려사(高麗史)』 권115, 열전 제28, 제신(諸臣), 이색(李穡);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5하, 신해년 공민왕 20년 7월. 이때 신조는 공민왕이 이색(李穡)과 이인복(李仁復)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좌우를 청소하고 향을 사르게 하는 것을 보고 "임금이 신하를 볼 때 하필 이와 같이 공경을 다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공민왕은 "두 사람은 웅렬한 선비와 다르다"고 하며 "어찌 감히 거드름을 피울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관련된 일화는 이색의 행장(行狀) 등에 자세히 다(『목은집(牧隱集)』, 행장(行狀), 조선목은선생이문정공행장(朝鮮牧隱先生李文靖公行狀); 『양촌집(陽村集)』 권40, 행장(行狀), 목은선생이문정공행장(牧隱先生李文靖公行狀);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6, 행장(行狀), 목은선생이문정공행장(牧隱先生李文靖公行狀)).

41) 공부선(功夫選)은 고려시대 승려에게 실시하는 시험을 이르던 말로, 1370년(공민왕 19) 광명사(廣明寺)에서 혜근(慧勤)이 주관했던 공부선(功夫選)은 모든 종파를 망라하여 불교계의 통합을 꾀한 것이었다.

42) 김혜완 역시 신조가 공민왕의 총애를 받기 이전에 각림사에 거처하였을 것으로 보았다(김혜완, 「운곡 원천석과 주변 사원과의 관계」,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원, 2007, 775쪽). 그러나 김혜완은 신조가 공민왕에게 총애받는 『고려사』의 기사 연도를 1355년(공민왕 4)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사』에서 신조의 기사가 보이는 것은 1371년(공민왕 20)이다(『고려사(高麗史)』 권115, 열전 제28, 제신(諸臣), 이색(李穡);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5하, 신해년 공민왕 20년 7월).

43) 김창현, 『신돈과 그의 시대』, 푸른역사, 2006, 58쪽; 234쪽

44)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천대학연구』 11, 천대불교문화연구원, 2008, 308쪽; 김홍삼, 『운곡시사』의 승려·사찰과 여말선초의 불교 동향,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원, 2007, 804쪽.

45) 각광(覺光), 「나옹화상행장(懶翁和尚行狀)」,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 권6(김혜완, 「운곡 원천석과 주변 사원과의 관계」,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원, 2007, 775~776쪽에서 재인용).



8월 혜근이 왕사(王師)로 책봉되어 송광사(松廣寺)로 갔는데 왕의 행승(倅僧)인 신조의 조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sup>46)</sup>

한편 신조는 1374년(공민왕 23) 공민왕이 홍륜(洪倫) 등에 의해 시해되자, 이인임(李仁任)에 의해 난(亂)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을 받아 옥(獄)에 갇히기도 하였다.<sup>47)</sup> 당시 이인임은 승려 신조가 늘 금중(禁中)에 있는데, 힘이 세고 간사한 꺾이 많아서 심왕(潘王)의 아들 탈탈첩목아(脫脫帖木兒)와 몰래 공모하여 변란을 일으켰다고 의심한 것이었다.

이후 신조는 공민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공민왕을 사모하여 그의 명복을 비는 일을 오래도록 더욱 힘써 왔다고 한다.<sup>48)</sup>

그리고 신조는 공민왕 사후(死後) 3년 뒤인, 1377년(우왕 3) 8월 왜(倭)가 서해도(西海道)의 신주(信州)·문화(文化)·안악(安岳)·봉주(鳳州)를 침구(侵寇)하였을 때, 이성계를 따라 해주(海州)의 전장(戰場)에서 종군(從軍)하였음이 확인된다.<sup>49)</sup> 당시 왜구(倭寇)에 의해 원수(元帥) 찬성(贊成) 양백익(梁伯益)·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나세(羅世)·지문하(知門下) 박보로(朴普老)·도순문사(都巡問使) 심덕부(沈德符) 등이 패전하였고, 우왕(禡王)이 이성계와 문하평리(門下評理) 임견미(林堅味)·변안열(邊安烈), 밀직부사(密直副使) 유만수(柳蔓殊)·홍징(洪徵)으로 조전(助戰)하게 하였다.

원수(元帥) 변안열·임견미 등이 해주(海州)에서 싸우다가 모두 패하여 달아났으나, 이성계는 해주의 동쪽 정자(亭子)에서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남은 적군들이 험지(險地)에 의거하여 쉼처를 쌓아 스스로 튼튼하게 하고 저항하자, 이성계는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음악을 베풀게 하였는데, 이때 중(僧) 신조(神照)가 이성계에게 고기를 베어 술을 올렸다고 한다.

46) 황인규, 「고려말 李成桂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2001, 346쪽.

47) 『고려사(高麗史)』 권131, 열전 제44, 반역 5, 홍륜(洪倫);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지(卷之)29, 공민왕 4, 갑인(甲寅) 23년, 대명(大明) 홍무(洪武) 7년 9월;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5하, 갑인년 공민왕 23년 9월.

48) 『양촌집(陽村集)』 권12, 기류(記類),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78, 기(記),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49) 『고려사(高麗史)』 열전 제46, 우왕(禡王) 3년 8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지(卷之)30, 신우(辛禡) 1, 丁巳 신우 3년, 대명(大明) 홍무(洪武) 10년 9월;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 충서 신우 3년 8월;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6상, 정사년(丁巳年) 전폐왕(前廢王) 우(禡) 3년 8월.

앞서 살펴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보면 신조는 태조(이성계)를 따라 사냥터와 전쟁터를 다니며 언제나 태조를 모셨다고 하며, 비록 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매번 식사를 올릴 때 친히 고기를 찢었다고 되어 있다.<sup>50)</sup> 따라서 신조는 해주 전투를 전후해서 이성계에게 종군하여 언제나 사냥터와 전쟁터를 함께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신조가 이성계를 따른 것은 공민왕의 죽음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신조는 공민왕이 죽자, 이인임(李仁任)으로부터 변란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 받아 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이인임은 공민왕이 죽자, 10세의 어린 우왕(禑王)을 즉위시키고, 당시 고려에 와 있던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을 호송관 김의(金義)로 하여금 살해토록 하였으며, 공민왕과는 다르게 친원(親元) 외교정책을 펼치며,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신조는 공민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면서도, 공민왕과는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이인임을 따를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이인임은 신조를 옥에 가두는 등 신조를 의심하고 경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성계 역시 이인임이 중앙 정계로의 진출을 막는 등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따라서 공민왕 사후, 이인임이 정권을 차지하자 이성계와 신조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1388년(우왕 14) 우왕·최영(崔瑩)·이성계 등은 이인임 세력을 축출하였다.

신조는 1383년(우왕 9) 신록사(神勒寺)의 대장각(大藏閣)을 지을 때 천태종의 대표로 참가하였으므로,<sup>51)</sup> 공민왕 사후 신조가 이성계를 따르게 된 것은 결국 이성계가 천태종의 지지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계종의 무학(無學)은 1375년 무렵부터 이성계의 터전인 동북면 일대인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에 머물렀으며, 1384년(우왕 10) 무렵에 석왕사에서 이성계에게 신왕조를 창업할 것을 종용하였다.<sup>52)</sup> 따라서 이성계는 공민왕 사후, 신조와 무학 등 불교계의

50)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37장;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권 태조조(太祖朝) 고사본말(故事本末).

51)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천태학연구』 11,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8, 308쪽; 이승인(李崇仁), 『신록사대장각기(神勒寺大藏閣記碑)』(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ic.go.kr>).

52) 황인규, 『고려말 李成桂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2001, 344~345쪽.

고승들과 조우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 내었고, 마침내 불교계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신조는 이성계와 함께 사냥터와 전쟁터를 누비면서 단순히 이성계를 보좌 하고 식사를 책임지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즉 신조는 명(明)나라의 철령위(鐵嶺衛) 설치 통보 문제로 야기된 요동정벌(遼東征伐, 1388년 우왕 14) 과정에서 이성계를 따라 종군하였다가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참여한 것이다.

홍무(洪武) 무진년(戊辰年, 1388년, 우왕 14)에 병화(兵禍)가 일어나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조공(照公, 곧 신조 스님)은 완산(完山) 이시중(李侍中, 이성계)의 휘하에 있으면서 능히 장상(將相)들과 큰 계책을 정하여, 의병(義)을 일으켜 회군(回軍)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켜 오늘날 중흥의 왕업을 열게 하였다. 주상(공양왕)께서 마음으로 가상하게 여기고 다음 해인 경오년(1390년, 공양왕 2) 8월에 그에게 특히 공신에게 주는 사패(賜牌)를 내려 만의사(萬義寺)와 그에 따른 노비를 영구히 그의 법손(法孫) 교리를 계승한 제자)에게 전하게 하였으며, 또 사전(寺田) 70결(結)을 주어 부처를 공양하고 중들을 먹여 살리는 비용을 풍부하게 하여 주었다. 신조(神照) 스님은 이에 더욱 임금의 은사(恩賜)에 감격하여 축복하는 것으로써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것을 생각하였다. 드디어 바랑 속에 모아 두었던 백은(白銀) 한 덩어리를 팔아 신미년(1391년, 공양왕 3) 정월에 특히 7일의 소재도량(消災道場)을 개설하였으며, 임신년(1392년, 공양왕 4) 2월에 또 법회(法會)를 벌이니, 의복과 좌구(座具)와 띠와 버선을 모두 구비하였으며 아름다운 제수(祭需)와 진기한 반찬과 마치는 기구가 풍부하고 정결하였다. 임금에게 아뢰어서 압불소(押佛疏)를 받고, 대천태종사(大天台宗師) 국일도도선사(國一都大禪師) 현견(玄見) 등 시 잘하는 중 3백 30인을 초청하니, 모두 한 시대의 큰 천태종의 덕(德)이 스님들이었다. 외호(外護)는 전 홍제사(洪濟寺) 주지 대선사(大禪師) 명일(明日) 등 1백 90인이었으며, 제집사(諸執事)는 감원선사(監院禪師) 각항(覺恒) 등 1백 90인이었다.<sup>53)</sup>

53) 『양촌집(陽村集)』 권12, 기류(記類),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78, 기(記),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위의 글은 권근(權近)이 조선왕조 개국 5개월 전인 1392년 2월(음력)에 쓴 것으로 『수원만지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日記)』에 있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 신조가 이성계와 함께 요동정벌을 나섰다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한 사실을 쓰고 있다. 그런데 신조는 이성계의 휘하에 있으면서 위화도에서 장수들과 함께 큰 계책, 즉 회군을 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의(義)를 일으켜 회군하여 종묘와 사직을 편안하게 하여 국가 중흥의 왕업을 열게 하였다고 하고 있다.

공양왕은 즉위한 후인 1390년(공양왕 2) 4월 신조를 비롯하여 위화도 회군에 참여한 공신들을 녹훈하고 포상을 실시하였다.<sup>54)</sup> 이때 『고려사』에는 공양왕이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이성계(李成桂)와 전(前) 시중(侍中) 조민수(曹敏修)가 대의를 앞장서 외치고 여러 장수들을 깨우쳐서 회군할 계책을 정하여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공로가 중대하다고 하면서 협력한 자인 문하시중(門下侍中) 심덕부(沈德符), 전 판삼사사(判三司事) 왕안덕(王安德),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지용기(池湧奇), 봉복군(奉福君) 승려 신조(神照) 등 45인에게 모두 공신호(功臣號)를 하사하고 포상하도록 하였다. 이때 신조는 이성계와 조민수가 포함된 45인의 공신 명단 중 17번째로 언급되고 있어 승려였지만 위화도회군에서 신조의 역할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승려였던 신조에게 공양왕은 4개월 뒤인 1390년(공양왕 2) 8월에 공신에게 주는 사패(賜牌)를 내려주고 특별히 만의사(萬義寺)와 그에 따른 노비를 영구히 그의 교리를 계승한 제자에게 전하게 하였고, 만의사에 사전(寺田) 70결(結)을 주었다. 만의사(萬義寺)를 신조(神照)에게 하사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우(辛禡) 때에 우리 태조(太祖)가 의주(義州)로부터 의거(義擧)를 일으켜 회군할 때에, 중 신조(神照)가 휘하에 있으면서 큰 계책을 정하는데 참여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이 특별히 공패(功牌)를 주어서, 이 절을 맡게 하고 인하여 노비와 토지를 주어서 법손(法孫)에게 전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sup>55)</sup>

54) 『고려사(高麗史)』 권45, 세가 제45, 공양왕 2년 4월 9일 임인(壬寅).

5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경기(京畿),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불우(佛宇).

만의사(萬義寺)는 조인규의 친형 혼기(混其)가 중창(重創)하였고, 의선(義旋)이 주석(主席)하였으며, 묘련사계(妙蓮寺系)에 귀속되어 대대로 이어져 온 사찰이라 할 수 있다.<sup>56)</sup> 그런데 공양왕이 신조(神照)에게 이러한 만의사를 특별히 하사하여 준 것은 그의 공로뿐만 아니라 그가 당대의 천태종을 대표한다고 보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조는 공양왕의 은사(恩賜)에 감격하여 축복하는 것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이 가졌던 백은(白銀)을 팔아 1391년(공양왕 3) 정월에 7일의 소재도량(消災道場)<sup>57)</sup>을 개설하였다. 또한 1392년(공양왕 4) 2월에는 다시 법회(法會)를 열면서 공양왕으로부터 압불소(押佛疏)를 받아 대천태종사(大天台宗師) 국일도도선사(國一都大禪師) 현견(玄見) 등 중 3백 30인을 초청하였는데, 모두 한 시대의 큰 천태종의 덕(德)이 있는 스님들이었다. 그리고 외호(外護)는 전 홍제사(洪濟寺) 주지 대선사(大禪師) 명일(明日) 등 1백 90인, 제집사(諸執事)는 감원선사(監院禪師) 각항(覺恒) 등 1백 90인이 참여하였다. 즉 이때 개최된 법회는 총 710인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신조가 대규모 법회를 개최하면서 공양왕으로부터 압불소를 받아 스님들을 모은 것은 그만큼 공양왕의 총애가 두터웠던 것을 말해준다. 1391년(공양왕 2) 2월 헌부(憲府)에서 지용기(池湧奇)가 왕익부(王益富) 사건<sup>58)</sup>과 관련되어 반역을 도모했다고 논핵하고 낭사(郎舍)에서도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였는데, “왕에게 총애를 받는 중(僧) 신조가 평소부터 지용기와 잘 지냈으므로 왕에게 은밀히 ‘전하를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한 공은 오로지 지용기에 있습니다’고 아뢰어 공양왕이 그 말을 믿고 특별히 지용기를 돕는데 무척 힘을 써서 단지 고신과 공신녹관만을 거두었다”고 한다.<sup>59)</sup> 이러한 사례를 보면 신조는 공민왕에 이어 공양왕으로부터도 상당한 신뢰와 총애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56) 이달춘, 『高麗 天台宗의 成立과 그 展開』,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93쪽.

57) 재앙소멸을 위한 다라니경(陀羅尼經)을 외우면서 질병과 천재지변을 없애고 복을 비는 의식도량.

58) 정읍(井邑)의 백성 왕익부(王益富)가 지용기의 아내와 재종형제가 되는데, 지용기의 집에 드나들면서 스스로 ‘중선왕의 서증손이다’고 하였다가 왕익부와 그 자손 13명이 교살된 사건.

59) 『고려사(高麗史)』 권114, 열전 제27, 제신(諸臣), 지용기(池湧奇);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35, 공양왕 2, 신미 3년, 대령 홍무 24년 2월.

이후 신조는 수원 만의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sup>60)</sup> 조선 건국 직후에는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책봉 받았는데,<sup>61)</sup> 이는 승려로서는 유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조는 고려 말에 각림사에 거주하였으며, 각림사를 경영하다가 이후 용암사(龍巖寺)와 용화사(龍華寺)의 주지가 되었고, 공민왕의 최측근으로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공민왕 사후, 이성계에게 종군하면서 위화도회군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신이 되었고, 만의사를 하사받아 주석하였으며, 조선 개국 직후에는 개국원종공신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 말 각림사에는 원통(圓通)이라는 스님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운곡시사(耘谷詩史)』에는 원천석(元天錫)이 ‘각림사(覺林寺) 당두(堂頭) 원통(圓通) 스님의 축상시에 차운한’ 시(詩)가 한 편 실려 있다. 참고로 이 시는 다음과 같다.

각림사(覺林寺) 당두(堂頭) 원통(圓通) 스님의 축상시(祝上詩)에 차운함(次覺林堂頭圓通祝上詩韻)

瑞氣蔥龍滿洞天 영롱한 서기(瑞氣)가 온 골에 가득하고  
 梵聲遙振白雲邊 염불 소리가 멀리 흰 구름 가에 들리네.  
 岳靈已獻吾君壽 산신령께서도 우리 임금께 헌수(獻壽)했으니  
 化日舒長政似年 덕화의 하루가 한 해처럼 길어지리.<sup>62)</sup>

이 시는 『운곡시사』 권1에 실려 있는데, 권1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석이 20~30대였던 1351년(충정왕 3)부터 1369년(공민왕 18) 사이에 지은 것이며, 특히 이 시는 1365년(공민왕 14)에서 1366년(공민왕 15)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63)</sup>

60) 『동명집(東溟集)』에 의하면 당시 수원(水原) 무봉산(舞鳳山) 만의사(萬義寺)의 7개의 부도 중 첫 번째 부도가 고려말 선사인 봉리군(奉利君) 신조(神照)의 부도였다고 한다(『동명집(東溟集)』 권16, 비갈(碑碣), 선화당대사비문(禪華堂大師碑文)).

61)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에서 ‘봉리군(奉利君) 신조(神照)’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1395년 정진(鄭津)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평택 문화정씨 삼봉기념관 소장; 鄭求福 外, 『朝鮮前期古文書集成-15世紀篇』, 國史編纂委員會, 1997. 참고).

62) 『운곡시사(耘谷詩史)』 권1-86, 次覺林堂頭圓通祝上詩韻(이인재·허경진 공역, 『운곡시사(耘谷詩史)』, 원주문화원, 2001, 102쪽).

63) 이익주, 『元天錫의 생애와 현실인식 再考-고려 말 지방거주 유교지식인의 삶과 생각-』,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혜안, 2007, 332쪽, 『耘谷詩史』 作品年譜 참고).

당두(堂頭)는 선사(禪寺)에서 한 절의 우두머리, 즉 주지(住持)를 말하므로, 이 시는 각림사 주지였던 원통(圓通) 스님의 축상시에 차운한 것이다. 원통 스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시가 지어진 시기를 볼 때 신조(神照)가 각림사에서 떠난 후에 각림사의 주지를 맡은 스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신조는 각림사에 있었다가 용암사(龍巖寺)와 용화사(龍華寺)의 주지가 되었고, 1370년(공민왕 19) 또는 1371년(공민왕 20)부터는 중앙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원통 스님은 신조 이후 각림사의 주지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이방원(李芳遠)의 각림사 수학(修學)

신조(神照)가 이성계(李成桂, 후의 태조)를 따라 종군(從軍)하였던 해주(海州) 전투는 1377년(우왕 3)이었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379년(우왕 5)에는 당시 13세였던 이방원(李芳遠, 후의 태종)이 각림사에서 수학(修學)한다.<sup>64)</sup> 이방원은 1367년(공민왕 16)에 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에서 태어났으며, 이성계와 한씨(韓氏, 후의 神懿王后) 사이의 다섯째 아들로, 이름은 방원(芳遠), 자는 유덕(遺德)이다. 이방원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태조의 사랑을 받았고, 자라면서 유학 공부에도 심취해 문무를 겸비하였으며, 17세가 되던 1383년(우왕 9)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이방원이 각림사에 수학한 것은 당시 천태종을 대표하던 신조가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각림사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신조는 공민왕 사후, 이성계를 따라 종군하였고, 이성계를 보좌하는 한편 직접 고기를 올렸다고 한 것처럼 이성계의 최측근으로써 활동하였다. 따라서 이성계와 신조는 그 관계가 돈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결합은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장세력과 신조로 대표되는

64) 후에 태종은 스스로 자신이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였다고 하였다(『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9일 己酉).

천태종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성계와 신조의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개성이 아닌 멀리 떨어져서 산세가 험한 강원도에 위치한 각림사에서 수학하게 한 것이고, 이를 통해 각림사는 신조가 이성계에게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장소이자, 서로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증표의 장소로 보기도 한다.<sup>65)</sup>

이방원이 각림사에 수학할 때 몇집 두어 칸이 숲 속에 황폐하게 있었으며, 승려 석휴(釋休)가 태종을 보살뵈었다고 한다.<sup>66)</sup> 『세종실록』에 ‘각림사(覺林寺)는 상왕(上王)이 잠저(潛邸) 때에 유학(遊學)한 곳이며, 석휴는 일찍이 세목(洗沐)의 공로(功勞)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sup>67)</sup>

이방원이 후에 태종(太宗)이 되기 때문에 그가 각림사에서 수학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많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향(香)을 내렸다.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sup>68)</sup>
- 원주목사(原州牧使)에게 명(命)하여 각림사(覺林寺) 중이 수조(收租)한 일을 핵문(劾問)하지 말게 하였다. …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독서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sup>69)</sup>
-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거둥하였으니, 옛날 잠저 때 공부하던 곳이었다.<sup>70)</sup>
-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 원주의 각림사(覺林寺)는 내가 나이 어렸을 적에 유학(遊學)한 곳이므로, 사우(寺宇)와 산천(山川)이 매양 꿈속에 들어오는 까닭에 한 번 가보고 싶었을 뿐으로 애초부터 부처를 위함이 아니었다. …”<sup>71)</sup>

65) 홍주민, 「조선 초기 각림사의 변창과 그 의미」, 『황성문화』 제29호, 황성문화원, 2014, 18쪽.  
 6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림사(覺林寺) 항목(<http://encykorea.aks.ac.kr>).  
 6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8일 庚午. 석휴(釋休)는 조선 태종과 세종 때에 각림사(覺林寺)의 주지(住持)로 나타난다.  
 6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0, 태종 10년 12월 20일 壬子.  
 6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10월 17일 己巳.  
 7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4일 甲寅.  
 7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己未.



-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각림사(覺林寺)에서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少時) 적에 놀던 것과 같다. …”<sup>72)</sup>
-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각림사(覺林寺)는 내가 젊었을 때에 놀던 땅이다. 지금도 꿈속에서 가끔 간다. 그러므로 중수(重修)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를 좋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sup>73)</sup>
- 원주(原州)의 기로(耆老) 정정(鄭政)·유선보(劉善寶) 등 10여 명이 와서 알현하므로, 상왕(上王)이 술을 주도록 명하고, 선보에게 이르기를,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 …”하였다.<sup>74)</sup>
-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 주지(住持) 석휴(釋休)가 와서 알현하니, 쌀 2백 석을 하사하였다. 각림사는 상왕(上王)이 임금이 되기 전에 공부하던 곳이며, 휴는 일찍이 시중드는 공로가 있었다.<sup>75)</sup>
-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 옛날에 태종(太宗)께서 각림사(覺林寺)가 예전에 노시던 땅이므로 친히 권문(勸門)에 수결(手決)두시어 간사(幹事)하는 중에게 주어 중창(重創)을 권유(勸誘)하였는데, …”하였다.<sup>76)</sup>
- 영의정(領議政) 황희(黃喜)·우의정(右議政) 노한(盧閑)·호조판서(戶曹判書) 안순(安純)을 불러 도승지(都承旨) 신인손(辛引孫)을 시켜 의논하기를, “… 대개 각림사(覺林寺)는 태종(太宗)께서 예전에 노시던 땅이라 하여 중수(重修)하였고, …”하였다.<sup>77)</sup>
- 영사(領事)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태종(太宗)께서 사사(寺社)의 노비(奴婢)를 혁파할 때 각림사(覺林寺)는 바로 태종께서 소년 시절에 독서(讀書)하던 곳인데도 오히려 아울러 혁파시켰습니다.”하였다.<sup>78)</sup>

7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7일 甲申.

7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7월 5일 戊午.

7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9일 己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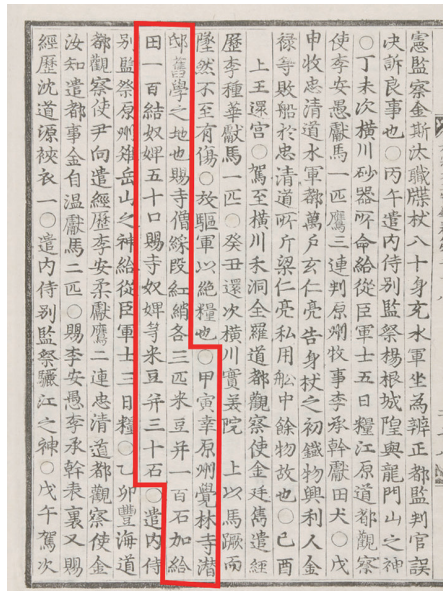
7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8일 庚午.

7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8, 세종 17년 5월 20일 辛卯.

7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8, 세종 17년 5월 21일 壬辰.

78)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3, 성종 2년 11월 22일 庚申.

태종 이방원이 잠저(潛邸)<sup>79)</sup> 때에 치악산 각림사에서 독서(讀書)하였다는 사실이 『태종실록(太宗實錄)』을 위시해서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주로 서술되어 있다. 즉 『태종실록』에는 1410년(태종 10) 각림사에 향(香)을 내렸다는 것을 시작으로 태종이 상왕(上王)으로 물러나기 전인 1417년(태종 17)에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410년부터 1417년은 태종이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어렸을 때 수학한 각림사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4일 甲寅〉.

특히 태종은 직접 각림사에 대해 언급하기를, “내가 나이 어렸을 때에 유학(遊學)한 곳이므로, 사우(寺宇)와 산천이 매양 꿈속에 들어오는 까닭에 한 번 가 보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각림사에서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少時) 적에 놀던 것과 같다”, “각림사는 내가 젊었을 때에 놀던 땅인데, 지금도 꿈속에서 가끔 간다”고 하는 등 자신이 어렸을 때 글을 읽고 뛰어 놀던 각림사를 그리워하였다.

또한 『세종실록』을 보면, 상왕(上王)이던 태종이 원주(原州)에서 기로(耆老) 유선보(劉善寶)에게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라고 묻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태종이 각림사에서 머물며 수학한 것이 13살 때인 1379년(우왕 5)이었음을 알 수 있다.

79) 나라를 처음 이룩한 임금이나 종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또는 그 시기를 말함.

이 이후에도 『세종실록』에는 각림사에 대해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공부하던 곳’, ‘태종께서 각림사에서 예전에 노셨던 땅’이라고 하였고, 후에 『성종실록』에도 ‘각림사는 바로 태종께서 소년 시절에 독서하던 곳’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리지(地理志)·읍지(邑誌) 등에도 각림사가 태종 이방원이 젊었을 때에 수학했던 곳이라고 쓰여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각림사(覺林寺), 치악산 동쪽에 있는데, 고을에서 40리 거리이다. 선종(禪宗)에 속하였고, 전지 3백 결(結)을 주었다.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 때에 글을 읽던 곳이다. 일찍이 횡성(橫城)에서 강무(講武)하다가, 이 절에서 연(輦)을 머무르고, 옛 늙은이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를 주고, 주(州)의 관원으로 하여금 조세를 면제하고 구휼하게 하였다.<sup>80)</sup>
- 각림사(覺林寺), 치악산 동쪽에 있다.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 때에 여기에서 글을 읽었다. 후에 횡성(橫城)에서 강무(講武)할 때에, 이 절에서 연(輦)을 머무르고, 옛 늙은이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를 주고, 주(州)의 관원으로 하여금 조세를 면제하고 구휼하게 하였다.<sup>81)</sup>
- 각림사(覺林寺), 치악산 동쪽 3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잠저(潛邸) 때에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 후에 횡성(橫城)에서 강무할 때 이 절에서 거동을 멈추어서 부모(父老)들을 불러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를 주고, 주(州)의 관원으로 조세를 면제하고 구휼하게 하였다.<sup>82)</sup>
- 각림사(覺林寺), 치악산 동쪽에 있다. 조선시대 태종이 잠저(潛邸) 때에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 후에 횡성(橫城)에서 강무(講武)할 때 이 절에서 거동을 멈추어서 부모(父老)들을 불러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를 주고, 주(州)의 관원으로 하여금 조세를 면제하고 구휼하게 하였다. … 지금은 폐사되었다.<sup>83)</sup>

8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53, 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원주목(原州牧).

8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강원도(江原道) 원주목(原州牧) 불우(佛宇).

82) 『원주읍지(原州邑誌)』 불우(佛宇); 『관동지(關東誌)』 권1, 원주(原州) 사찰(寺刹); 『여지도서(輿地圖書)』 원주(原州) 사찰(寺刹).

83) 『강원도지(江原道誌)』 권5, 사찰(寺刹) 영월(寧越).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서 각림사에 대해 ‘태종이 잠저 때에 글을 읽던 곳’이라고 서술한 것을 시작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원문에는 ‘태종(太宗)’이라고 되어 있으나 번역본에 ‘태조(太祖)’라고 잘못 번역되어,<sup>84)</sup> 이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인용하여 각림사에서 이성계(李成桂)가 수학하거나 신조(神照)와의 조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한 연구들이 있다.<sup>85)</sup>

조선 후기가 되어 각림사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읍지(原州邑誌)』, 『관동지(關東誌)』,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에도 태종이 잠저 때에 각림사에 수학하였던 사실이 계속해서 서술되었다. 특히 『원주읍지』·『관동지』·『여지도서』는 각림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강원도지(江原道誌)』에도 각림사에 태종이 잠저(潛邸) 때에 수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각림사에 태종이 젊었을 때 수학했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일로 인식되고 기록되어 왔던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각림사가 태종 이방원이 젊었을 때 수학했던 곳이라는 것은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많은 문집(文集)에서도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치악산(雉巖山)의 각림사(覺林寺)는 젊을 적에 거처하던 곳으로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오래 되어도 잊히지 않기에 여러 번 행차하였나이다.<sup>86)</sup>
- 치악산이 해동(海東)에 유명한데, 산중(山中)의 보찰(寶刹)로 각림사(覺林寺)가 최고이니, ... 지존(至尊)께서 옛날 여기에서 지내며 배웠으니 ...<sup>87)</sup>
- 원성(原城) 치악산 동쪽에 각림사(覺林寺)가 있다. 처음에는 띠집 두어 칸이 숲속에 황폐하게 있었는데 헌릉(獻陵, 태종의 능으로 태종을 지칭)이

8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VI, 1970, 15쪽.

85) 이러한 지적은 홍주민도 하였다(홍주민, 『조선 초기 각림사의 변창과 그 의미』, 『횡성문화』 제29호, 횡성문화원, 2014, 17쪽).

86)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3, 소(疏), 동전(同前), 변계량(卞季良).

87)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연화문(緣化文), 각림사정문안치대장경연화문(覺林寺正門安置大藏經緣化文).

즉위하기 전에 오가며 머물렀다. 절 남쪽으로 3~4리쯤에 용추(龍湫)가 있고 그 위에 대암(臺巖, 대바위)이 산에 기대어 있는데, 현릉이 때때로 책을 끼고 바위 위에서 읊조렸다 한다. 등극(登極)한 후에 특별히 명을 내려 고쳐 짓게 하고 드디어 큰 절이 되었으며, 주민들은 대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 불렀다.<sup>88)</sup>

- 고려 말 진사(進士) 원천석(元天錫)은 … 원주(原州) 변암촌(弁巖村)에 살았다. 고을 동북쪽 5리쯤에 영천(靈泉)이라는 절이 있었다. 현릉(獻陵)이 즉위하기 전에 이 절에 묵으면서, 공에게 자문(咨問)하여 깨우침이 자못 많았다. 대개 평창군(平昌郡)은 목조(穆祖)의 외가(外家) 고을이고, 고비(考妣)의 능(陵)이 삼척(三陟)에 있었으므로, 현릉이 가끔 삼척에 왕래하였던 것이다.<sup>89)</sup>
- 각림사(覺林寺)는 우리 강헌왕(康獻王, 태조 이성계)이 잠저(潛邸) 때에 글을 읽은 곳이다.<sup>90)</sup>
- 상원사(上元寺) 아래의 각림사(覺林寺)는 우리 태조(太祖)가 잠저 때에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sup>91)</sup>
-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는 태종대(太宗臺)가 있는데 태종(太宗)이 등극하기 이전에 책을 끼고 다니며 휴식하던 곳이다.<sup>92)</sup>
-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잠저(潛邸) 때에 각림사의 산에서 글을 읽었다.<sup>93)</sup>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시문집인 『춘정집(春亭集)』에는 치악산 각림사가 태종이 젊었을 적에 거처하던 곳으로 쓰여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이 1478년(성종 9)에 편찬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詩文選集)인

88) 『대동야승(大東野乘)』, 이기(李璽), 『송와잡설(松窩雜說)』.

89) 『대동야승(大東野乘)』, 이기(李璽), 『송와잡설(松窩雜說)』.

90) 『식산집(息山集)』 권3, 지행록(地行錄) 6, 관동(關東).

91) 『식산집(息山集)』 별집(別集) 권4, 지행부록(地行附錄), 치악(雉嶽).

92) 『성호사설(星湖僊說)』 권12, 인사문(人事門), 원운곡(元耘谷).

93) 『관암전서(冠巖全書)』 책(冊)22, 기(記), 주필대기(駐蹕臺記).

『동문선(東文選)』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춘정집』에는 치악산(雉嶽山)이 해동(海東)에서 유명한데, 산중의 보찰(寶刹)로는 각림사(覺林寺)가 최고라고 하면서 지존(至尊)께서 옛날 여기에서 지내며 배웠다고 하고 있다.

『춘정집』과 『동문선』을 시작으로 그 후 이기(李璽, 1522~1600)의 『송와잡설(松窩雜說)』에도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치악산 동쪽 각림사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각림사 절 남쪽으로 3~4리쯤에 용추(龍湫)가 있고 그 위에 대암(臺巖, 대바위)이 산에 기대어 있는데, 이방원이 때때로 책을 끼고 바위 위에서 읊조리며 공부하던 곳이었다고 하였다. 태종이 즉위 한 후에 각림사를 고쳐 짓게 하였고, 주민들은 대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 하였다고 써 놓았다. 태종대는 현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종이 스승인 원천석을 만나러 기다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기는 태종대가 이방원이 공부하던 곳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송와잡설』에는 원천석(元天錫)과 관련된 내용 중 원천석이 원주(原州) 변암촌(弁巖村)에 살았다고 하면서 고을 동북쪽 5리쯤에 영천(靈泉)이라는 절이 있었고,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이 절에 묵으면서 원천석에게 자문(諮問)하여 깨우침이 많았다고 하고 있다. 영천사(靈泉寺)는 현재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122-1번지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고려시대의 고승 나옹(懶翁) 스님이 창건한 고찰로 전해진다. 『조선왕조실록』 및 지리지·읍지, 문집 등을 검토해 보아도 태종이 영천이라는 절에서 수학했다는 기록은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림사에서 태종이 즉위 전에 수학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기가 태종이 영천이라는 절에서 수학했다고 서술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기는 『송와잡설』에서 평창군(平昌郡)은 목조(穆祖)<sup>94)</sup>의 외가(外家)이고, 고비(考妣)<sup>95)</sup>의 능(陵)이 삼척(三陟)에 있었으므로 태종이 가끔 삼척에 왕래하였다고 하고 있다. 즉 이기는 고려 말 이방원이 평창과 삼척에 가끔 왕래하면서

94) 조선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고조부(高祖父)인 이안사(李安社).

95) 이안사의 아버지인 이양무(李陽茂)와 그의 부인.

원주에 묵으며 원천석에게 수학했다는 뜻이 서술해 놓았다.

『식산집(息山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만부(李萬敷, 1664~1731)의 시문집(詩文集)인데, 여기에서는 본고와 별집에서 잠저 때에 각림사에서 수학한 것은 강헌왕(康獻王), 즉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라고 써 놓았다. 역시 『식산집』 이외의 『조선왕조실록』, 지리지·읍지, 문집에서는 모두 잠저 때에 각림사에서 수학한 것은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이라고 쓰고 있어 『식산집』을 쓴 이만부가 잘못 서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實學者)인 이익(李瀾, 1681~1763) 역시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 ‘치악산 각림사에는 태종대(太宗臺)가 있는데, 태종(太宗)이 등극하기 이전에 책을 끼고 다니며 휴식하던 곳’이라고 하여 각림사에서 태종이 수학했음을 써 놓았다. 또한 이익은 각림사 옆 태종대가 태종 이방원이 공부하던 곳이라고 하여 『송와잡설』과 같은 서술을 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시문집인 『관암전서(冠巖全書)』에도 태종이 잠저 때에 각림사의 산에서 독서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결국 『송와잡설』에서 영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식산집』에서 태종을 태조로 기술하였든가, 『성호사설』에서 태종대와 관련된 내용 등 일부 문집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집 역시 태종 이방원이 잠저 때에 각림사에서 수학하였던 사실을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려 말에 이방원은 16세가 되던 1382년(우왕 8)에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1등(一等) 2위로 진사(進士)가 되어 성균관(成均館)<sup>96</sup>에서 수학하였고, 다음해인 1383년(우왕 9)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sup>97</sup> 따라서 태종 이방원이 각림사에서 수학한 것은 13세이던 1379년(우왕 5)부터 진사가 된 16세인 1382년(우왕 8)까지,

96) 우리나라 최고학부의 명칭으로 ‘성균(成均)’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298년(충렬왕 24)에 국학(國學, 국가감을 개칭한 것)을 성균감(成均監)이라 개칭한 데서 비롯되며, 그 뒤 1308년에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감을 성균관(成均館)이라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배원정책(排元政策)에 따른 관제의 복구로 국자감(國子監)으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 다시 성균관으로 복구되었다.

9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650-10]).

즉 3~4년 사이의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방원이 각림사에서 수학했던 것은 3~4년 사이의 기간이었지만, 소년이던 이방원에게는 부모와 떨어져서 수학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주었던 곳이었다. 즉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각림사와 그 주변 지역은 글을 읽고 놀던 곳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우(寺宇)와 산천(山川)이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정들고 그림던 곳이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태종 이방원이 어렸을 때 각림사에 수학하면서 각림사 주변의 사람들과 교우(交友)한 점이다. 이방원은 각림사에 거처하면서 유선보(劉善寶)의 집에 들르기도 하였고, 이 인연으로 유선보의 사위 인시경(印時敬)을 장군(將軍)으로 삼기도 하였다.<sup>98)</sup> 유선보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인시경은 서주군수(西州郡守)<sup>99)</sup>를 지냈으며, 고려 말의 장군이었던 첨의평리사사(僉議評理司事) 석성부원군(碩城府院君) 인당(印堂)의 손자인 호조전서(戶曹典書) 인광보(印光寶)의 아들이었다.<sup>100)</sup> 이를 통해 이방원은 어렸을 때 각림사에 거처하면서 원주 지역의 유선보 집안과 인당으로 대표되는 교동인씨(喬桐印氏) 집안과도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원이 각림사에서 수학하면서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는 점이다.

#### 4. 이방원과 원천석(元天錫)의 사제(師弟) 관계

원천석(元天錫, 1330~?)의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耘谷)이다. 고려 말에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개탄하면서, 치악산(雉巖山)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살았다고 한다.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9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9일 己酉.

99) 서주(西州)는 충청남도 서천(舒川)의 옛 지명임.

100) 교동인씨대중회(<http://www.kyodongin.com>) 참고.



해박하였으며 원주 변암촌(弁巖村)에 살았다. 원천석이 치악산 변암(弁巖) 밑에 초가집에서 살며 농사를 짓고 부모를 봉양한 것은 그의 나이 45세인 1374년(공민왕 23)이었다. 이후 58세이던 1388년(우왕 14)에는 변암 남쪽 봉우리 아래 변암보다 인적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초가집 한 칸을 새로 지었는데 이곳을 '누졸재(陋拙齋)'라고 하였다.

원천석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으나, 교육 활동과 후학 양성을 하였음이 주목된다. 『운곡시사(耘谷詩史)』를 보면,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당시 목사(牧使)였던 서(徐) 아무개가 향학(鄉學)을 방문한 것에 쓰고 있으며, 원주향교(原州鄉校)의 학생으로 보이는 서생(書生)이 찾아와 『맹자(孟子)』 책의 뜻을 묻기에 강독을 해주었다고 되어 있다.<sup>101)</sup> 또한 운곡의 제자 가운데 신전(申詮)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확인되며, 성(姓)만 나타나는 이(李)·안(安)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밤에 술을 들고 산길을 뚫고 가 산 속에 있던 선생의 집을 찾아가고, 운곡 역시 맑은 술을 가져와 대접하는 등 사제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다.<sup>102)</sup>

더구나 원천석은 당시 불교계와 유교계 지식인들과 상당한 교류를 하였다. 원천석은 원주 지역의 사찰을 두루 돌아보았고, 불교계 고승들과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각림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봤던 '각림사(覺林寺) 당두(堂頭) 원통(圓通) 스님의 축상시에 차운한' 시(詩)가 있듯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과 가까운 사찰들을 방문하거나 스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이 시는 원천석이 1365년(공민왕 14)에서 1366년(공민왕 15) 사이에 지은 것이며, 그는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 무렵에는 각림사에서 머물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이 개국한 뒤에는 각림사를 경영했던 봉복군(奉福君) 신조(神照)에게 '봉복군에게 부침(신조대선사(寄奉福君(神照大禪師)))'이라는 시를 보내 각림사의 중흥에 대한 역할과 소망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천석과 각림사는 매우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01) 이인재, 「高麗末 元天錫의 學問觀과 地域 活動」,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혜원, 2007, 528~529쪽.

102) 이인재, 위의 논문, 2007, 529쪽.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각림사에 수학하기 시작한 것은 1379년(우왕 5)이고, 그가 진사시에 합격한 것은 1382년(우왕 8)이므로 3~4년 사이 동안 각림사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이성계는 흥건적 및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그 명성이 높던 시기로,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 각림사에서 수학한다는 것을 원천석 역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원천석의 거처가 각림사와 가깝고 또 원천석이 각림사의 스님들과 두텁게 교분을 맺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방원과 원천석 두 사람은 당연히 각림사에서 만났을 것이고, 이런 만남 속에서 들은 사제지간(師弟之間)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이방원과 원천석이 사제(師弟)의 관계를 맺었던 것은 주로 여러 문집(文集)들에 보이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려 말, 진사(進士) 원천석(元天錫)은 나의 외조부의 고조로 호는 운곡(耘谷)이다. … 원주(原州) 변암촌(弁巖村)에 살았다. 고을 동북쪽 5리쯤에 영천(靈泉)이라는 절이 있었다. 현릉이 즉위하기 전에 이 절에 묵으면서, 공에게 자문(咨問)하여 공의 깨우침啓沃이 자못 많았다.<sup>104)</sup>
- 원천석은, 자는 자정(子正)이며, 호는 운곡(耘谷)이고,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일찍이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그가 즉위하여 여러 번 불렀지만 나이가지 않았다.<sup>105)</sup>
- 원운곡(元耘谷)은 고려 말기의 진사(進士)로서 원주(原州) 변암(弁巖)에 살았다. … 태종(太宗)이 영동을 왕래하게 되었는데, 길이 원주를 경유하게 되므로 그를 찾아 자문한 바 있었고 …<sup>106)</sup>
- 원천석은 자를 자정(子正), 호를 운곡(耘谷)이라 한다. 태종이 어려서 그에게

103) 홍주민, 「조선 초기 각림사의 변창과 그 의미」, 『횡성문화』 제29호, 횡성문화원, 2014, 21쪽.

104) 『대동야승(大東野乘)』, 이기(李穡), 『송와잡설(松窩雜說)』.

105)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 태조조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 고려수절제신부(高麗守節諸臣附) 원천석(元天錫).

106) 『성호사설(星湖僿說)』 권12, 인사문(人事門), 원운곡(元耘谷).

수업(授業)한 일이 있었으므로 귀하게 된 뒤에 여러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sup>107)</sup>

- 선생은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 즉위하시기 전의 바로 그 스승이다.<sup>108)</sup>
- 태종대왕께서 미천하던 시절 공에게 배운 적이 있었다.<sup>109)</sup>
-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잠저(潛邸) 때에 각림사의 산에서 글을 읽었다. 또한 일찍이 원천석(元天錫)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sup>110)</sup>
- 원천석(元天錫)은 본관이 원주(原州)인데, 고려 말에 벼슬하지 않고 원주에 숨어 살았다. 태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태종을 가르친 인연이 있었으므로 ...<sup>111)</sup>

『송와잡설』, 『연려실기술』, 『성호사설』, 『동사강목』, 『운곡시사』, 『운곡선생사적(耘谷先生事蹟)』, 『관암전서(冠巖全書)』, 『해동악부(海東樂府)』 등에는 공통적으로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기 전에 원천석에게서 글을 배웠다고 쓰여 있다. 『송와잡설』에는 변암촌에서 동북쪽 5리쯤에 있는 영천(靈泉)이라는 절에서 이방원이 묵으면서 원천석에게 자문(諮問)하여 깨우침이 자못 많았다고 하고 있으며 태종이 즉위한 후에는 스승의 옛 정을 잊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성호사설』에서도 태종이 즉위 전에 원주(原州)를 경유하면서 원천석을 찾아 자문한 바가 있었다고 하였다.

『운곡시사』에서도 태종이 미천하던 시절, 즉 왕위에 오르기 전 어렸을 때 원천석에게서 배운 적이 있었다고 하였고, 『운곡선생사적』에서는 태종이 각림사(覺林寺)에서 글을 읽었는데, 일찍이 원천석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여 태종 이방원과 원천석이 사제 관계임을 밝혀 놓았다.

107)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7하, 임신년 공양왕 4년, 명 태조 홍무 25.

108) 『운곡시사(耘谷詩史)』 권1, 운곡선생문집서(耘谷先生文集序)(이인재·허경진 공역, 『운곡시사(耘谷詩史)』, 원주문화원, 2001, 7쪽).

109) 『운곡선생사적(耘谷先生事蹟)』(편자미상/역주 구지현, 『耘谷先生事蹟』,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88쪽).

110) 『관암전서(冠巖全書)』 책(冊) 22, 기(記), 주필대기(駐蹕臺記).

111) 『해동악부(海東樂府)』.

이러한 각종 문집들을 바탕으로 결국 『현종실록(顯宗實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도 이방원과 원천석 사이가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쓰이기까지 하였다. 즉, 칠봉서원은 1612년(광해군 4)에 건립되어 학생들을 교육하다가, 1624년(인조 2)에 사묘(祠廟)를 건립하고 원천석을 봉안하여 운곡서원(耘谷書院)이라고도 하는데, 원주 지역의 유생들이 이 칠봉서원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태종과 원천석의 사제 관계를 언급하였던 것이다.

강원도(江原道) 진사(進士) 한용명(韓用明) 등이 상소하기를, “고려(高麗) 진사(進士) 원천석(元天錫)은 학문(學問)이 정심(情深)하고 도덕(道德)이 순수(純粹)했었습니다. … 생각건대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는 스승의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거듭 은총을 가하셨습니다. … 하였다. … 원천석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였는데, 이색(李穡) 등 여러 사람과 평소 친하였다. 우리 태종께서 일찍이 그를 따라 학문을 배우셨는데(從學), 즉위하고 나서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아오지 않았다. …<sup>112)</sup>

1663년(현종 4) 강원도의 진사 한용명 등은 원천석 등을 배향(配享)한 원주(原州)의 칠봉서원(七峰書院)에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원천석의 학문과 충절을 언급하는 동시에 그가 태종 이방원의 ‘감반(甘盤)’, 즉 스승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진사 한용명 등은 태종이 원천석에 대해서 ‘스승의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거듭 은총을 더하였다고 하였고, 상소 뒤에 붙여진 사관(史官)의 논평에도 ‘우리 태종께서 일찍이 그를 따라 학문을 배웠다(從學)’고 하여 태종 이방원과 원천석의 사이가 사제 관계였음을 쓰고 있다.<sup>113)</sup>

원천석을 배향하는 칠봉서원에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는 1년 뒤인 1664년(현종 5)에도 이어졌다. 이때 상소는 강원도 원주의 생원(生員) 최동로(崔東老) 등이

112) 『현종실록(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4월 27일 甲子;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권8, 현종 4년 4월 24일 辛酉.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이 상소가 4월 24일로 되어 있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8책(달초본 9책) 현종 4년 4월 24일 辛酉).

113) 이 기사는 일반적인 ‘사신일(史臣曰)’로 시작되지는 않지만 사관(史官)의 논평으로 보아야 한다.

올렸는데, 역시 상소의 내용에도 원천석이 태종 이방원의 ‘감반(甘盤), 즉 스승이 있음이 강조되었다.<sup>114)</sup> 이후에도 원주 유생(儒生)들의 칠봉서원에 대한 사액 청원이 계속되었는데, 칠봉서원은 결국 1693년(숙종 19)에 ‘칠봉(七峰)’이라 사액되었다.

태종 이방원은 16세가 되던 1382년(우왕 8)에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1등(一等) 2위로 진사(進士)가 되었다. 당시 진사시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에 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기 때문에 각림사에서 진사시 준비를 하면서, 이미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운곡시사』에서 보듯 뛰어난 시를 짓던 원천석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결국 태종 이방원은 각림사에서 원천석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진사에 합격한 이후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이방원은 그 후 1년 뒤인 17세가 되는 1383년(우왕 9) 계해방(癸亥榜) 병과(丙科) 7위(33명 중 10위)의 성적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sup>115)</sup>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할 만큼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새로운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들과도 폭넓게 교류하였다. 이방원은 고려 말 신진사대부 중 하나인 민제(閔霽)의 사위이기도 하였지만, 이색(李穡)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숭인(李崇仁)의 문인이기도 하였다.

원천석은 이색 등과 교류하였고, 이색의 문하에는 이숭인을 비롯하여 정몽주(鄭夢周), 하륜(河崧), 박상충(朴尙衷), 김구용(金九容), 박의중(朴宜中), 권근(權近), 윤소종(尹紹宗), 정도전(鄭道傳)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고려 말 대표적인 신진사대부들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방원의 각림사 수학, 그리고 각림사 및 그 일대에서 원천석과의 사제 관계 형성은 이후 이방원이 진사시 합격과 문과 합격으로 이어졌고,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조선 건국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3책(탈초본 10책) 현종 5년 4월 9일辛丑; 『승정원일기』, 183책(탈초본 10책) 현종 5년 4월 18일庚戌. 최동로(崔東老) 등의 상소가 입계(入啓)된 것은 4월 9일이고, 그 내용이 보이는 것은 4월 18일이다.

11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650-10]).

## 여말선초(麗末鮮初) 원천석과 각림사

원천석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치악산 변암(弁巖) 주변에 거주하며 불교계와 유교계 지식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원천석은 치악산 주변의 사찰들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사찰의 선승들과 시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다.

특히 원천석은 주변 사원의 승려들과의 교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원과 여러 형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 주변 사원은 독서와 강학, 교유의 장소이기도 하였고, 여행과 숙박의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병이 들었을 때는 요양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원천석은 주변 사원으로부터 주식(酒食)과 일상생활용품을 조달받기도 하였고, 주변 사원은 원천석에게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천도재나 수륙재를 행하는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였다.<sup>116)</sup>

원천석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원은 각림사(覺林寺)와 영천사(靈泉寺), 환희사(歡喜寺)라 할 수 있다.<sup>117)</sup> 환희사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나 원천석이 어머니의 기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석 집안과 관계된 사원으로 볼 수 있고, 영천사는 누출재(陋拙齋)에서 능선을 넘어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하는데, 현재 영천사 옆 능선에는 원천석의 아들 기천현감 원형(元洞)의 묘소가 있어 원천석이 본래 집안 소유의 토지 옆에 위치한 영천사와 밀접한 교류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116) 김혜완, 「운곡 원천석과 주변 사원과의 관계」,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769~772쪽.

117) 김혜완, 위의 논문, 해안, 2007, 772~773쪽.

각림사는 누출재를 기준으로 치악산 동쪽으로 현재 황성군 강림면(현재 강림우체국 자리)에 위치하는데, 원천석이 거쳐하였던 변암, 누출재와는 가깝게 위치하여 원천석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왕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118)</sup>

특히 『운곡시사(耘谷詩史)』에는 각림사에 관한 시(詩) 5편이 남아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차각림당두원통축상시운(次覺林堂頭圓通祝上詩韻)  
: 『운곡시사(耘谷詩史)』 권1-86
2. 우중사영천당두송주, 각림주시야(雨中謝靈泉堂頭送酒, 覺林住詩也)  
: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12
3. 천태연선자장부총림, 자각림사래과여, 관기어묵동정, 심시불범수당석원만추, 장사이복흥기도, 임별수어, 차필이신행운(天台演禪者將赴叢林, 自覺林寺來過余, 觀其語默動靜. 甚是不凡雖當釋苑晚秋. 將是以福興其道. 臨別需語. 泚筆以驢行云):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48
4. 용심자운정각림실(用深字韻呈覺林室):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50
5. 기봉복군, 신조대선사(寄奉福君, 神照大禪師):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67

첫 번째 시(詩)는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각림사(覺林寺) 당두(堂頭) 원통(圓通) 스님의 축상시에 차운한’ 시로, 『운곡시사』 권1에 실려 있다. 『운곡시사』 권1은 원천석이 20~30대였던 1351년(충정왕 3)부터 1369년(공민왕 18) 사이에 지은 것이며, 이 시는 1365년(공민왕 14)에서 1366년(공민왕 15)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이 시를 통해 고려 말에 각림사에는 원통이라는 스님이 주지로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천석이 각림사와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는 ‘빗속에 술을 보낸 영천사(靈泉寺) 당두(堂頭)에게 고마워하며-나는 각림사(覺林寺)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시이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8) 김혜완, 위의 논문, 2007, 772~774쪽.

빗속에 술을 보낸 영천사(靈泉寺) 당두(堂頭)에게 고마워하며(당시 나는 각림사에 머물고 있었다) (雨中. 謝靈泉堂頭送酒(覺林住持也))

落花春檻雨霏微 꽃 지는 봄 난간에 부슬비 내리는데  
病客無聊獨掩扉 병든 나그네 쓸쓸히 사립문을 닫았네.  
廬岳一壺來慰寂 여악(廬岳)의 술 한 병이 고즈넉한 마음 달래주어  
陶然身世忘機 즐겁게 몸과 세상을 다 잊어 버렸네.

嫣紅掃盡狂風際 미친 바람이 불더니 붉은 꽃 다 쓸어 버리고  
嫩綠初均小雨餘 가랑비 지나가자 부드럽게 푸르러지네.  
賴此麴生攻萬恨 이 술을 힘입어 만 가지 시름 물리치고  
惜春新句等閑書 봄 아끼는 새 시를 한가롭게 지어보리라.<sup>119)</sup>

이 시는 『운곡시사』 권5에 있는 것으로, 『운곡시사』 권5는 원천석이 62세에서 65세였을 때 쓴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391년(공양왕 3)부터 1394년(태조 3)까지에 해당되는데, 이 시는 고려 말인 1391년 3월에 쓴 것이다.<sup>120)</sup>

이 시는 빗속에 술을 보낸 영천사 주지(住持)에게 고마워하며 쓴 것으로, 이때 원천석은 각림사(覺林寺)에 머물고 있었다고 써 놓았다. 당시 원천석은 노쇠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요양을 위해 각림사에 거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121)</sup> 시의 내용 중 ‘병든 나그네’라는 표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 원천석이 영천사의 주지와도 상당한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병든 몸을 각림사에서 요양할 만큼 각림사와 원천석의 관계가 특수하였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시 역시 『운곡시사』 권5에 있는 것으로, 천대(天台) 연(演) 스님이 총리(叢林)에 가는 길에 각림사(覺林寺)를 지나게 되어 원천석을 찾아오자 시를 지어

119)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12. 雨中謝靈泉堂頭送酒, 覺林住持也(이인재·허경진 공역, 『운곡시사(耘谷詩史)』, 원주문화원, 2001, 502~503쪽).

120) 이익주, 「元天錫의 생애와 현실인식 再考-고려 말 지방거주 유교지식인의 삶과 생각-」,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332쪽, 『耘谷詩史』 作品年譜 참고.

121) 김혜완, 앞의 논문, 2007, 763쪽.



준 것이다. 이 시는 1391년(공양왕 3) 9월에서 1392년(공양왕 4) 1월 사이, 즉 조선의 개국(開國) 전에 쓴 것이다.<sup>122)</sup> 이 시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천석이 각림사가 쇠락해져 있음을 적어 놓았고 천대 연 스님이 말이 묵묵하고 움직임이 고요함을 보아 매우 범상치 않으므로 그가 쇠락한 각림사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네 번째 시도 『운곡시사』 권5에 있으며, 세 번째 시와 같은 시기에 쓴 것이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자(深字) 운의 시를 지어 각림사(覺林寺)의 장실(丈室)에 드림(用深字韻呈覺林室)

智海寬仍大 지혜의 바다는 너그럽고도 크며  
 慈門廣且深 인자한 문은 넓고도 깊네.  
 紛華笑城市 분잡한 성시(城市)를 비웃으시고  
 寂靜愛山林 고요한 산과 숲을 사랑하시네.  
 蘿月朝朝鏡 아침마다 담쟁이 달을 거울 삼고  
 松風夜夜琴 밤마다 솔바람을 거문고 삼으시니.  
 上人常燕坐 스님이 언제나 선정에 들어 있는  
 是處豁傳心 그곳이 바로 마음 전하는 곳일세.<sup>123)</sup>

원천석은 심자(深字) 운의 시를 지어 각림사의 장실(丈室)에 드렸는데, 장실은 주지(住持)의 거실, 즉 절의 주지가 거처하는 방을 일컫는다. 당시 각림사의 주지가 누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원천석은 각림사의 주지에 대해 지혜롭고 너그러우며 인자하다고 하고 있다. 즉 원천석은 노쇠하고 병약한 자신이 각림사에서 머무르며 요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 역시 『운곡시사』 권5에 있는데, 1392년(공양왕 4) 1월에서

122)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백관(百官)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即位)한 것은 1392년(태조 1) 7월 17일이었다(『태조실록(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17일 丙申).

123) 『운곡시사(耘谷詩史)』 권5-50, 雨中謝靈泉堂頭送酒, 覺林住詩也(이인재·허경진 공역, 『운곡시사(耘谷詩史)』, 원주문화원, 2001, 526~527쪽).

그해 가을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이 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봉복군(奉福君) 신조대선사(神照大禪師) 앞으로 보낸 것이다. 시의 내용 중 '동국(東國)이 중흥(中興)하는 첫 번째 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천석은 조선의 개국과 동국의 중흥을 찬양하고 있다. 또한 '옛 주인 경영하기를 못내 기다리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조(神照)가 한때 각림사를 경영하였음을 알려주며, 원천석은 조선의 개국에 큰 역할을 한 신조가 각림사를 다시 중창해 주도록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운곡시사』에는 원천석이 지은 다섯 편의 시가 남아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해당한다. 이 시를 통해 당시 각림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각림사와 원천석의 관계 역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조선시대 강무장 운영과 횡성

### 1. 강무장의 운영과 변천

조선시대의 ‘강무(講武)’란 왕의 친림하(親臨下)에 거행되는 군사훈련이면서 수렵해 포획한 금수(禽獸)로써 국가 제사에 쓸 제물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따라서 강무장(講武場)이란 강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 강무제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게 된 것은 1396년(태조 5)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상소하였다. “삼가 역대(歷代)의 강무제도(講武制度)를 상고하옵건대, 주(周)나라 시대에는 봄과 여름에는 군막(軍幕)에서 군병을 훈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군사를 크게 사열(査閱)했다 하오니, 사철 언제나 교련하므로 그 익히는 것이 정(精)하였고, 안팎으로 다 가르치므로 그 쓰기가 이(利)로왔으므로, 이것이 주나라가 나라 지키는 도리를 얻은 것입니다. … 한번이라도 전란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방위를 시켜, 그 활 쏘고 말 타는 법을 미처 가르치지 못하고 강한 적병에게 몰아넣으므로, 이 까닭에 매양 싸울 때마다 항상 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싸움을 시키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니, 그 화패(禍敗)의 원인을 추구하면 광무제(光武帝)가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무(神武)의 자질로 왕업(王業)의 터전을 처음 마련하시와 예문(禮文)의 일은 차례로 마련하시면서 강무(講武)의 일만은 오직 행하지 않으시니, 어찌 성대(盛代)의

궐전(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엿드려 바라옵건대, 중외(中外)에 강무(講武)의 일을 명령하시어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는 계책을 보이시어, 그 강무의 제도와 드물게 하고 자주 하는 절목은 시대와 사세(事勢)가 다르오니, 옛날 제도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사냥하여 강무하는 그림[蒐狩講武圖]을 만들어서, 서울에서는 사철의 끝달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제물로 올리며, 외방에서는 봄·가을 양철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지방의 귀신에게 제사지내게 하면, 무사(武事)가 익숙해지고 신(神)과 사람이 화(和)할 것입니다. 강무할 때를 당해서는 어가(御駕)가 친히 거동하시는 것과 대리로 행하는 의식(儀式)이며, 외방 관원들이 감독하고 성적을 매기는 법을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상정(詳定)하여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sup>124)</sup>

이러한 의흥삼군부의 상소 내용을 보면, 강무는 무예 훈련과 더불어 제물로 쓰기 위한 짐승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과 강무하는 의식을 수수 강무도(蒐狩講武圖)로 만들게 하고 기타 강무와 관련된 여러 의식과 진행 방식을 예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강무의 시기는 경중(京中)에서는 4계절 말에, 지방에서는 춘(春)·추(秋) 두 계절에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강무 시기에 대한 이러한 삼군부의 건의는 즉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태종은 사냥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국왕이 사냥을 행하는 문제로 하여 신하들의 저지를 종종 받게 되었지만 국왕의 사냥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의례와 아울러 제왕이 사냥하는 예식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첨(金瞻)에게 명하여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임금이 장령(掌令) 이관(李灌)을 불러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들이

124)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0, 태조 5년 11월 30일 甲申.

사냥하는 것을 불가하다 하였으니, 그러면 인군(人君)은 사냥을 못하는 것이냐?” 관(灌)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장차 고묘(告廟)하려고 하면서 사냥을 하였기 때문이지, 인군(人君)이 사냥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종묘를 위하여 사냥하는 것이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천자(天子)가 사냥할 때에는 큰 기(大綏)를 내리고, 제후(諸侯)가 사냥할 때에는 작은 기(小綏)를 내린다.’는 것과, ‘상질로 잡은 것(上殺)은 번두(邊豆)에 채우고, 하질로 잡은 것(下殺)은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데에 채운다.’한 것은 어째서 한 말인가? 또 나는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다. 비록 대강 시서(詩書)를 익혀서 우연히 유자(儒者)의 이름은 얻었으나, 실상은 무가(武家)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일찍이 경사(經史)를 보았더니, 참으로 재미가 있어서 하루도 책을 놓지 못하였다. 이것은 근신(近臣)들이 다 함께 아는 바이다. 다만 조용하고 편안한 여가에 어찌 놀며 구경하고 싶은 뜻이 없겠는가? 요새 교외에 기러기 떼가 많이 온다는 말을 들었고, 또 때가 매를 놓기에 좋은 때이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의장(儀仗)을 갖추어 행할 수도 없고, 또 수기(數騎)로 낮에 행할 수도 없다.’고 여겨, 새벽에 나가서 매를 놓고 돌아온 것이었다. 너희들과 간원(諫院)이 서로 잇달아 상소하므로, 곧 아뢴 대로 따른 것이다. 대저 내가 사냥을 하는 것은 심심하고 적적한 것을 달래기 위함이다. 너희들은 예전 사람의 글을 읽어서 강구하기를 반드시 익히 하였을 것이니, 어찌 무일(無逸)의 글을 알지 못하겠는가?”하고, 드디어 친히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잡고 관(灌)에게 보이며 읽게 하니, 관이 토를 떼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 지가 오래면 참으로 읽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의(大意)는 알 수 있다.”하고, ‘유관(遊觀)은 기체(氣體)를 기르는 것이라’는 구절(句節)을 뽑아내어 스스로 읽으며, “이것이 사냥을 금하는 말인가? 예전 사람도 또한 금하지 않았고, 다만 지나치게 즐기 말라는 것뿐이다. 내가 지나치게 즐긴 바가 있는가? 있거든 말하여 보라.”하니, 관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말하는 것은 너와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말하는 것이다.”하니, 관이 말하기를, “신들도 역시 전하께서 사냥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고묘(告廟)하려 하고, 또 언덕과 웅덩이가 험한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관은 물러가도 좋다.”하고,

이어 말하기를, “관은 참으로 겁(怯)이 없는 자이다.”하고, 김첨(金瞻)과 김과(金科) 등에게 명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제왕이 사냥하는 예(禮)를 잘 상고하여 아뢰라.”하니, 과(科)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종묘에 일이 있는데도, 마침내 행하지 않은 것은 대간들이 간(諫)한 잘못 때문이오나, 그러나 바깥 사람(外人)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사냥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신들을 시켜 사냥하는 예(禮)를 강명(講明)하게 하시니, 신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한양에 갈 때에, 내가 만일 재계(齋戒)하는 7일 안에 매(鷹)를 놓았다면, 대간의 말이 옳지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간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책이고, 또 그 마음이 어찌 함부로 간한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을 시켜 사냥하는 예(禮)를 강명(講明)·상고(詳考)하게 하는 것은, 전일에 대간이 나더러 그러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예(禮)를 알고자 하는 것뿐이다. 내가 어찌서 거슬러 탐지(逆探)하여 말하는가.”하고, 첨(瞻)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예제(禮制)를 상정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는 어찌서 상정하지 않는가?”하니, 첨(瞻)이 대답하기를, “사시제(四時祭)에는 모두 마땅히 미리 사냥하여 제사에 쓰지마는, 어찌 바야흐로 제사지내려 하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까?”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네가 상정(詳定)하라.”<sup>125)</sup>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태종 스스로가 본인은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며, 공부를 조금 하기는 하였지만 실상은 무가(武家)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통하여 태종이 사냥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사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매사냥을 위해 아침 일찍 아주 적은 신하만 거느리고 몰래 궁궐을 빠져 나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종이 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세자의 교육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태종이 세자에게 활쏘기를 교육하도록 지시하니 신하들이 반대하자, “옛부터 임금이 곧세고 용감하면 능히 아랫사람을 제압

12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6, 태종 3년 10월 1일 乙巳.

할 수 있었고, 온유하고 나약하면 실패함이 많았다. 무릇 활쏘는 것과 말 달리는 것은 굳세고 용감한 기질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무사(武事)를 익히게 하는 것이 도리에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다.<sup>126)</sup> 즉, 임금이 굳센 기질을 길러야 신하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태종이 강무에 관한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태종의 의사대로 강무에 대한 제도는 바로 정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403년(태종 3) 10월 태종이 좌사간(左司諫) 안노생(安魯生)에게 “강무의 법이 일찍이 상왕(上王)의 때에 세워졌는데, 오직 봄·가을 두 차례뿐이니, 고제(古制)의 사시(四時)의 사냥에 비하면, 오히려 미비(未備)하다”<sup>127)</sup>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사계절 강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유(苑囿)가 있으면 사시(四時)에 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원유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더러 사시의 사냥을 행하라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sup>128)</sup>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사계절 강무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농작물 훼손 등 여러 폐단이 있고, 수확기를 피하여 시기를 잡게 되면 이미 추위가 와서 강무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었다.<sup>129)</sup>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와서 고제(古制)에 의한 사시(四時) 강무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설적인 강무장이 설치되지 않아 실제로는 원칙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상설적인 강무장 설치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상설적인 강무장이 설치되기 전까지의 강무는 황해도 해주, 강원도 철원(세종 16년, 즉 1434년까지는 경기도 소속이었음), 경기도 양주와 광주 등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었다.<sup>130)</sup> 그러다가 1412년(태종 12) 처음으로 철원부의 별관을 강무장으로 설정하면서 사사로운 수렵을 금지하였고,<sup>131)</sup> 곧이어 강무 때에 잡은 금수(禽獸)를 제물로 올리는 의식인 ‘천금의(薦禽儀)’를 정하였다. 또한 1413년(태종 13)에는

12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17, 태종 9년 3월 16일 己未.

12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6, 태종 3년 10월 11일 乙卯.

128) 위와 같음.

129) 위와 같음.

130) 김동진, 「조선전기 강무의 시행과 捕虎政策」, 『조선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104쪽.

13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3, 태종 12년 2월 18일 癸酉.

황해도 해주의 동정(東亭)에서 강무를 시행하면서 우현(牛峴) 이남 지역에 대해서 사적인 수렵과 개간을 금지하여 영구적인 강무장으로 삼도록 하였다.<sup>132)</sup> 이후 전라도의 임실(任實)과 충청도의 순성(尊城 : 현재 충남 당진군 순성면)에 강무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sup>133)</sup> 그러나 신하들의 명분없는 엽유(獵遊)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인지 대호군 이군실(李君實)을 양근·지평·홍천·횡천(횡성)에 보내 금수(禽獸)의 많고 적음을 살피게 하고,<sup>134)</sup> 강무장 설정을 위해서 사렵(私獵)을 금지시켰다.<sup>135)</sup>

이어 총제 유은지(柳殷之)와 대호군 이군실(李君實) 등에게 명하여 원주·횡천 등지에 가서 강무장(講武場)을 조사하도록 하고, 횡천현감(橫川縣監)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장차 강무하러는데, 네가 그 해동(解凍)될 때의 기후와 짐승의 많고 적음을 살피고, 평지의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또 올 곡식을 파종할 때의 기후를 늙은 농부에게 상세히 물어서 가급적이면 2월 보름 전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sup>136)</sup>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 강원도 원주, 횡천(횡성)에서 강무를 하고자 이에 대한 준비를 지시하였다. 태종은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일년에 춘추(春秋) 강무 이외에는 오래도록 깊은 궁중에 있으니, 기운이 퍼질 수가 없다. 또 지난날에 경기에서 강무할 때에는 통행길이 물에 질퍽거리 말에서 떨어져 용의(容儀)를 잃었고, 활을 쏘아 사냥하는 것도 또한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강원도가 비록 먼 길이라 하더라도 원주·횡천이 서울과의 거리가 겨우 6~7식(息) 정도이니, 이제 가고자 한다. 그곳의 행랑(行廊)에 작목(斫木)하는 역사를 면제하여서 강무의 행차에 이바지하게 하라.”<sup>137)</sup>

13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2월 19일 戊辰.  
 13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9월 20일 丙申.  
 13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0월 21일 丁卯.  
 13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1월 6일 壬午.  
 13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1월 8일 癸未.  
 13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5일 乙巳.



라고 하여 강무를 할 원주, 횡천 지역의 나무 베는 역사(役事)를 면제하고 대신 강무 행차 때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강무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면서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태종은 일정한 장소를 정한다면 충청도, 풍해도, 강원도로 정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sup>138)</sup> 특히 강무 행차를 통한 사냥을 좋아하였던 태종은 상설적인 강무장이 없으므로 해서 강무 시행시에 농작물 파종이나 수확 여부 등을 살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자, 사냥하기에 적절한 지역에 강무(講武) 장소(常所)의 설정을 원하였고 태안(泰安)·해주(海州)·횡천(橫川)·광주(廣州) 등지에 장소(常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내었지만 신하들은 모두 일정한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특히 선왕들의 원유(苑圃)가 모두 교외(郊外)의 관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설정한다면 선왕들의 제도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sup>139)</sup> 그러나 가까운 기전(畿甸) 지역은 금수(禽獸)가 적어서 사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곧바로 강무장 설정으로 인해 묵히고 있던 경기도 광주 위유성의 전지 457결을 당초 수전(受田)한 관료들에게 되돌려 주고 대토로 받은 토지는 군자(軍資)에 환속하도록 하였다.<sup>140)</sup> 이후에 강무 장소의 설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1415년(태종 15) 2월에 이르러서는 1차적으로 강무장 설정이 정비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강무 장소로 이용되던 충청도의 순제곶이 [蓴堤串] 내와 전라도의 임실(任實) 등지는 사렵(私獵)과 개간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고, 강원도의 평강(平康)·횡천(橫川)·이천(伊川)·평창(平昌)·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실미원(實美院) 등지와 풍해도(豐海道)의 우봉(牛峯)·대둔산(大菴山)과 경기도의 임강(臨江)·수회(水回)·마성(馬城)·장단(長湍)·칠장(七牆)과 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곶이[筈井串]·덕련동구(德連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13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3월 15일 戊子.

13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26일 丙寅.

14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28일 戊辰.

금지하고 강무장으로 삼도록 하였다.<sup>141)</sup> 또 그해 해주로 강무를 다녀 온 태종은 강무장으로 운영되던 해주곶이(海州岫) 안의 땅을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하였다.<sup>142)</sup>

또한 강무 상소를 의논해서 보고하라는 태종의 지시에 따라 판서, 대언 등이 강원도 횡천(橫川)과 진보(珍寶)로써 한 장소를 삼고, 풍해도 평산(平山)과 영봉(迎鳳)을 한 장소로 삼자고 하였으나 태종은 후대 임금이 영봉에 가게 되면 가까이 있는 해주곶이(태종이 개간과 사냥 금지를 해제한 곳임)에 반드시 가고자 할 것이라 하여 다른 곳으로 정하도록 하자, 강원도 안협(安峽)과 평강(平康)으로 한 장소를 삼아, 경기우도(京畿右道)를 아울러 사렵(私獵)을 금하고, 횡천(橫川)과 방림(芳林)을 한 장소로 삼아, 양근(楊根)·광주(廣州)·풍양(豐壤)·포천(抱川)·장단(長湍)·임강(臨江)도 아울러 사렵(私獵)을 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143)</sup>

이러한 가운데 1416년(태종 16) 횡성(橫城)의 화동(禾洞)과 선암(扇巖) 등지에서 밭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시켰고, 강무장(講武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이주시키게 하였으며,<sup>144)</sup> 충청도 순성(尊城) 강무소(講武所)의 4표(四標)를 설치하고 사렵(私獵)과 벌목(伐木)을 일체 금지하였다.<sup>145)</sup> 곧이어 강무장을 충청도 태안, 강원도 횡천(지금의 횡성)과 평강 세 곳을 정하여 삼소(三所)로 삼고 그 나머지 각처의 강무장은 경종(耕種)을 허락하도록 하였다.<sup>146)</sup> 그러나 곧 태종은 이원(李原)에게 “강무소(講武所)는 횡천(橫川)·평강(平康)·평산(平山) 등지와 작천(鵲川) 이동(以東)지역으로써 영구히 상소(常所)로 삼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원(李原)은 “이 세 곳은 짐승들이 없는 곳이니, 태안과 해주로써 상소(常所)를 삼을 것”을 건의하였으나 태종은,

태안과 해주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을 허용할 만하고, 또 도로가 험하고 멀다. 내가 후세(後世)에 무예(武藝)를 좋아하는 임금이 짐승 쫓기를 싫어하지

14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2월 3일 辛未.

14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5월 27일 癸亥.

14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6월 17일 壬午.

14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3월 9일 辛丑.

14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3월 12일 甲辰.

14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5월 20일 辛亥.

않아 멀리 유일(遊逸)을 일삼을까 두려워한다. 이제부터 백성이 농사짓는 것을 들어주어 한광(閑曠 : 농사를 짓지 않아 묵히는 것)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상소(常所) 이외에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과 곡식을 심는 것을 함부로 금하는 수령(守令)은 논죄(論罪)하겠다.<sup>147)</sup>

라고 하며 강무장 상소에 대한 정리를 강력히 지시하였다. 그러나 강무 장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1416년 7월 태종은 태안곶이 지역에 대한 개간 허용을 지시하는 한편 경기 지역 내에 강무 장소를 다시 정하도록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조말생(趙末生)에게 이르기를, “빨리 충청도 태안곶이[泰安串]에 나무를 베게 하여 인민이 입거(入居)하여 개간하는 것을 허락하라.”하고 인하여 강무를 하면서 멀리 행차하는 폐단이 불가하다는 것을 극론(極論)하여 말하기를, “임금이 만일 멀리 행차하여 강무하면 신하가 비록 그르게 여기더라도 어찌 말릴 수 있겠는가?” … 임금이 “지금 신하 중에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무지한 무인(武人)이 틈을 타서 일을 꾸민다면 화(禍)가 예측하지 못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내가 전일(前日)에 해주(海州)·임실(任實)·태안(泰安)에 간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며, 경기(京圻) 안에 강무할 일정한 장소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였다. 또 병조에 명하여 말하기를, “강무는 폐지할 수가 없다. 나라에 원유(苑囿)가 없기 때문에 근래에 부득이하여 원지(遠地)에서 강무하였다. 고전(古典)에 상고하면 역대(歷代)의 강무한 장소가 모두 근지(近地)에 있다. 미원(迷原)·양주(楊州)·가평(加平)·조종(朝宗)·영평(永平) 등지로 한 곳을 삼고, 평강(平康)·철원(鐵原)·안삭(安朔) 등지로 한 곳을 삼고, 임강(臨江)·우봉(牛峰)·송림(松林)·개성(開城)·해풍(海豐)·강음(江陰) 등지로 한 곳을 삼고, 횡성(橫城) 등지로 한 곳을 삼아 일정한 장소로 정하여 해의 풍흉(豐凶)을 따라 서로 강무하고, 사렵(私獵)은 한결같이 금지하고, 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도 또한 전례(前例)에 의하여 사렵(私獵)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종전에 이미 경작한 전지는 금하지 말고, 다만 새로 개간하고 나무를 베는 것만 금하라.”라고 하였다.<sup>148)</sup>

14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6월 26일 丙戌.

14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7월 5일 甲午.

이러한 태종의 지시를 보면 한편으로는 강무 장소를 정리할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득이 강무를 시행한다면 임금이 행차하기 편리하고 가급적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국왕의 안전 문제였다. 태종이 강무 행차를 하려할 때, 신하들이 이를 말리는 간언을 많이 하는 것을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물론 간관(諫官)들의 말대로 국왕의 강무 행차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강무를 행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점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왕의 낙마 사고나 호위 문제 등 국왕의 신변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후 1420년(세종 2)에는 강무장(講武場)으로 경기도의 광주·양근(楊根) 등지, 철원·안협(安峽) 등지, 강원도의 평강(平康)·이천(伊川) 등지, 황성(橫城)·진보(珍寶) 등지 등 4곳을 설정하고 그 지역 안에는 전부터 거주하던 사람과 이미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 새로운 입거나 개간, 벌목, 사냥 등은 일체 금지하였다. 이듬해에는 회양(淮陽)·통구(通口)·금성(金城)·금화(金化)를 강무장으로 추가 설정하고, 평강(平康)의 수군 37호의 병역을 면제하여 강무장을 지키게 하고, 다른 군(郡)으로 하여금 그 군사의 수를 충당하게 하였다.<sup>149)</sup>

강무를 매우 좋아하였던 태종이 죽은 후 세종은 강무장을 점차 축소하고 새로운 농지 개간을 허용하였다. 1424년(세종 6) 경기도의 연천(漣川)·안협(安峽)·삭녕(朔寧)·임강(臨江)과 강원도의 김화(金化)·금성(金城)·회양(淮陽)과 황해도의 우봉(牛峯) 강무장(講武場)을 혁파하고 개간하여 농사짓는 것을 허용하도록 조치하였으나,<sup>150)</sup> 김화, 금성, 회양은 평강 강무장과는 거리가 60리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병조의 건의에 따라 강무장 해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강무장 축소는 계속되어 1427년(세종 9)에는 철원의 남산(南山)과 북변(北邊)의 수청산(水淸山)·관산(冠山), 평강(平康)의 진의촌(珍衣村), 회양(淮陽)의 경내(境內) 남곡(嵐谷)·성북(星北)·금화산참(金化山站)·말흘천(末訖川), 강릉의 진보역

149)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4월 5일 丁酉.

15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5, 세종 6년 9월 19일 辛卯.

(珍寶驛) 동쪽과 홍계역(洪溪驛) 동구(洞口) 및 이천(伊川)을 비롯하여 황해도의 평산과 해주, 경기도 연천·영평·삭녕, 개성 등지의 강무장(講武場)을 모두 혁파하도록 하였다.<sup>151)</sup>

또한 강무장으로 설정된 지역내에서도 개간이나 경작 금지를 해제하여 1428년(세종 10) 5월에는 경기의 영평(永平)·철원(鐵原)·삭녕(朔寧)·광주(廣州)·양근(楊根)과, 강원도의 평강(平康)·회양(淮陽) 등지의 강무장에서 단지 사사로운 사냥만 금지하도록 하였고,<sup>152)</sup> 1431년(세종 13)에는 강원도 강릉부 방림(方林)·홍계역(洪溪驛) 등지에 있는 강무장 안에 사람이 살 만한 땅에는 백성들이 거주하고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되, 노루·사슴 외에 곰·멧돼지·호랑이·표범 등은 잡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 또 1436년(세종 18)에는 강원도 이천현(伊川縣)의 19처(處)를 강무장(講武場)으로 정하여 벌목과 경전(耕田)을 금하였으나, 이미 개간한 전지는 금하지 말고, 비록 표지를 세운 구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장(驅場)이 아니면 또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였다.<sup>153)</sup>

이후 1448년(세종 30) 12월에는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의 건의에 따라 풍양현, 적성현, 양주, 포천현, 가평현, 원평부, 고양현, 광주(廣州) 등 8개 지역의 48개 산을 강무장으로 선정하고 단지 사냥만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그 이듬해에는 강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군사들이 수렵을 통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왕이 강무하는 곳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강과 철원은 국왕이 직접 강무하는 장소로 운영하고, 삭녕(朔寧)·안협(安峽)·이천(伊川)·김화(金化)·금성(金城)·남곡(嵐谷)·낭천(狼川)·춘천(春川)·홍천(洪川)·횡천(橫川)·방림(芳林)·진부(珍富)·원주(原州)·지평(砥平) 등처는 군사들이 수렵하는 곳으로 삼되 연사(年事)의 풍흉(豐凶)을 막론하고 윤차(輪次)로 운영하도록 하였다.<sup>154)</sup>

그리고 1451년(문종 1)에는 사냥감이 감소된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지역의 여러

15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8, 세종 9년 10월 18일 壬申.

15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40, 세종 10년 5월 26일 丁丑.

153) 『세종실록(世宗實錄)』 권71, 세종 18년 2월 19일 乙卯.

15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3월 6일 丙戌; 권124, 세종 31년 4월 17일 丙寅.

강무장소가 폐지되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회양부(淮陽府) 상수비산(上愁非山)·건자개산(乾者介山)에서 남곡(嵐谷) 지경까지, 하수비산(下愁非山)·소산(所山)의 바깥쪽 고리동산(古里洞山)·귤전현산(藪田峴山)·장두등(長豆等), 천보사동(天寶寺洞) 좌우편 구이동(仇耳洞)의 현산(峴山)·이산(利山)·하지(夏池)·무을파현산(無乙波峴山) 좌우편 저관현(猪串峴), 말흘천(末訖川)·양매야지(陽每也之)·악이산(惡耳山)·천촌두등(川村豆等)·굴점현(崛岫峴)·함현산(檻峴山), 낭천현(狼川縣) 여러 산과 금성현(金城縣) 여러 산과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 등지의 산과 강릉부(江陵府) 대화(大和) 등지의 죽암산(菴巖山)·지두등산(池豆等山)·대덕암산(大德巖山)·구단산(仇短山)·유수산(楡樹山)과 홍천현(洪川縣) 금물산(金勿山), 신당현(神堂峴) 등지의 감물악(甘勿岳), 팔봉산(八峯山) 등지의 사현산(蛇峴山)과 춘천부(春川府) 송압산(松押山)과 금화현(金化縣) 자등산(資燈山)·차산(遮山)·덕점산(德岾山)·술피산(述皮山)·차점산(車岾山)·잠리산(蠶里山)·토이동산(吐耳洞山)·소백지산(小栢枝山)·대백지산(大栢枝山)·마현산(馬峴山)·홍산(紅山)·입장산(笠匠山)·지장산(紙匠山)·노동산(蘆洞山)·방동산(方洞山)·유등동산(柳等洞山)·무차락산(無次落山)·불정현산(佛丁峴山)·교전산(橋田山)·두배대산(豆背大山)·충현산(忠縣山)·보을며산(甫乙跡山)과 평강현(平康縣)의 유점시산(狃岾時山)과 이천현(伊川縣) 내 바깥 여러 산과 안협현(安峽縣) 삼각산(三角山)·엄태산(嚴泰山)·유달이산(鎭達伊山)·울며산(汚跡山) 등지였다.<sup>155)</sup>

이후에도 1452년(단종 즉위년) 7월에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설정하였던 강무장을 임시로 폐지하였고,<sup>156)</sup> 윤 9월에는 강원도 횡성, 원주, 홍천, 강릉의 강무장을 임시로 폐지하도록 하였다가<sup>157)</sup> 1460년(세조 6)에는 강원도의 여러 강무장을 완전히 폐지하고 토지의 경작을 허용하였다.<sup>158)</sup> 이후로도 강무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구역은 최소화되어 갔고, 명종대에 이르러 되면 병암동에 강무하는

155) 『문종실록(文宗實錄)』 권6, 문종 1년 3월 17일 丙辰.

156) 『단종실록(端宗實錄)』 권2, 단종 즉위년 7월 25일 丙辰.

157) 『단종실록(端宗實錄)』 권3, 단종 즉위년 윤9월 10일 己巳.

158) 『세조실록(世祖實錄)』 권22, 세조 6년 11월 6일 戊寅.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묵히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sup>159)</sup>

한편 강무장 설정과 운영은 해당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강무 시행시 강무장 설정지역은 물론 국왕 행렬이 통과하는 각 지역은 강무에 동원되는 많은 인원에 대한 지대(支待)와 강무장의 정비 등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냥 금지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조수 피해, 개간 금지로 인한 폐해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흩어져 이주해 버리는 일이 가속화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횡성(橫城)·홍천(洪川)·이천(伊川)·평강(平康)이 더욱 극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449년(세종 31) 강릉의 유학(幼學) 최진현(崔進賢)이 강무장 폐단을 상서한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학(幼學) 최진현(崔進賢)이 상서(上書)하기를, “강릉부 진부현(珍富縣)을 강무장으로 만들어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은 신이 갖추 아옵니다. 예전 우리 태종께서 여기에 거둥하신 것은 놀고 사냥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온데, 뒤에 드디어 강무하는 곳으로 만드오름은 우리 태종의 본의가 아니옵니다. 근래에 길이 험하고 멀어서, 만승(萬乘)으로 가서 순행할 땅이 아니므로, 강무하는 곳을 고쳐서 망패(網牌)<sup>160)</sup>를 설치하는 장소로 삼아, 새와 짐승의 해를 없애고, 건두(乾豆)의 자료를 준비하게 하여, 공사(公私)가 편리하게 하려고 하였사오나, 해마다 망패가 내려가면, 여염(閭閻)을 침해하여 개와 닭이 편히 쉬지 못하여, 소란스러운 폐단이 대가(大駕)를 공든(供頓)하는 비용보다 심하옵니다. 더구나, 대관령 서쪽은 거민(居民)이 적어서, 본래 새·짐승이 성하게 자라는 곳이 되었으니, 비록 날마다 사냥을 계속할지라도 (새나 짐승의 피해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온데, 이제 백성들이 금령(禁畝)을 두려워하여 감히 사사로 사냥하지 못하오니, 그곳에 있는 새·짐승들이 수백, 수천마리나 떼를 지어 지나가게 되면, 벼곡식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서, 그 피해가 수해나 한해보다 심하오니, 그곳 백성들이 떠나고 읍기는 것이 다른 곳보다 갑절 많은 것도 실로

159) 『명종실록(明宗實錄)』 권31, 명종 20년 3월 25일 壬戌.

160) 조선시대 그물을 가지고 새나 짐승을 잡는 군사로, 매로 사냥을 하는 응패(鷹牌)에 대비되는 말임.

이 때문입니다. 또 경작을 금지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산의 돌밭을 경작하므로, 흙이 말라 힘이 없으니, 한번 심은 땅은 두번 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평원광야(平原廣野)가 아득히 눈에 가득하나, 노루·사슴의 사는 곳이 되고, 백성들은 일구어 농사짓지 못하오니, 비록 새·짐승의 해가 없을지라도, 백성들이 무엇을 경작해 먹고 붙어 살겠습니까. 일에 경중(輕重)이 있사오니 마땅히 살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철원의 강무하는 곳이 건두(乾豆)의 자료에 부족하다면, 진부(珍富) 등처의 소민(小民)들의 해는 족히 헤아릴 것이 못되오나, 그렇지 아니하오면, 이 땅의 백성들만이 태평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신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바른말 듣기를 좋아하시는 마음으로써, 어찌 아시면서 고치지 아니하셨사오리까. 반드시 감히 천총(天聰)에 상달(上達)하는 신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은 최치운(崔致雲)의 아들이옵니다. 신의 아버가 성상의 지우(知遇)를 지나치게 받사와, 전하의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파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이 낮고 천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천위(天威)를 모독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채택해 주옵소서.”하였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강무장의 연고로써 영서(嶺西) 인민들이 태반이 흩어져 읍졌는데, 횡성(橫城)·홍천(洪川)·이천(伊川)·평강(平康)에서 더욱 심하였다.<sup>161)</sup>

이 상서문(上書文)에서 강릉의 유학(幼學) 최진현은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강원도 영서 지역의 산골은 본래부터 야생 조수가 많은 곳이어서 많이 사냥을 하더라도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인데, 국가에서 강무하는 곳으로 만들어 사냥을 일체 금지하게 되자 야생 조수로 인한 피해가 가뭄이나 홍수에 의한 피해보다 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 산골 지역은 돌밭이고 토심이 깊지 않아서 비옥하지 않으므로 연이어 경작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리저리 경작지를 번갈아가며 농사짓기 위해서는 개간지가 많아야 하는데 이를 엄격히 금지하게 되니 이곳의 거주민이 살기 어려워 태반이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16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2월 9일 庚申.



즉, 여기서는 강무를 행하는 과정에서의 요역 동원 문제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사냥 금지나 개간 금지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강무장 운영으로 인하여 사냥을 일체 금지함으로써 조수(鳥獸)가 과다 번식하여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1451년(문종 1) 다음과 같은 집현전 교리 양성지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집현전 교리(校理)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근년에 강무장을 크게 넓히어 금수(禽獸)가 번성하여 화곡(禾穀)을 해치니, 주민의 태반이 유리(流離)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유망(流亡)하였으나 공부(貢賦)는 옛날과 같으니, 가령 1호(戶)가 머물러 살아도 전일 여러 호수의 역(役)을 감당하게 되므로 날로 더욱 조잔(彫殘)하여 백성들이 전전(轉轉)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되므로 노루나 사슴이 인가(人家)의 부엌에 들어와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강원감사 김흔지(金侁之)가 횡성현(橫城縣)에 이르러 부락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 뜰 가운데서 곡성(哭聲)을 듣고 물으니, 말하기를, ‘백성의 밭이 단지 1결(結)이 있는데 화곡(禾穀)이 차츰 익어가서 이를 가지고 처자를 부양하려고 하였는데 어젯밤에 노루와 사슴의 피해를 받아서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으니 백성이 어찌 살겠습니까?’하고, 드디어 크게 울었으므로 김흔지도 슬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군(郡)도 역시 그러하니, 바라옵건대 의정부와 병조에 명하여 의논하여, 철원(鐵原)·평강(平康)·이천(伊川)·양평(楊平)·지평(砥平)·춘천(春川)·홍천(洪川)·횡성 이외에는 헤아려 <공부(貢賦)를> 혁파하여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김흔지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으니, 그 글이 아침이나 저녁에는 이를 것이다. 글이 이르면 즉시 구처(區處)하겠다.”하였다. …<sup>162)</sup>

양성지의 이 건의는 강무장 운영으로 인하여 조수가 과다번식해 농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니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보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건의 내용을 보면 노루나 사슴이 사람이 사는 집에까지

162) 『문종실록(文宗實錄)』 권10, 문종 1년 11월 25일 己未.

들어와서 사람을 만나도 피하지 않을 만큼 많이 번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도라면 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강무에 대해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조수 번식에 따른 피해만이 아니었고, 대규모 강무 행사가 있을 경우 민간에서 기명(器皿) 등의 물건을 거두어 모으거나 요역에 동원되거나 하는 등의 민폐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sup>163)</sup> 이러한 이유로 강무장이 있는 지역의 감사나 수령들은 가급적 강무가 행해지지 않기를 바래서 풍흉에 대한 보고를 흉년쪽으로 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사헌부·사간원이 모두 상소하여 강무를 정지하도록 청하니, 임금인 헌사(憲司)의 상소 중에 나무 열매와 풀을 먹는 사람을 역사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을 역사시키겠느냐? 어느 도 어느 고을이 이렇게 실농하였느냐?”하니, 지평(持平) 오영로(吳寧老)가 대답하기를, “신 등이 아무도 아무 고을이 실농한 것은 알지 못하나, 각도의 감사·수령이 우택(雨澤)은 보고하지 않고 화곡의 결실한 것만 보고하였는데,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5~6월에 비가 오지 않아서 경기(京畿)가 실농하였으니, 다른 도인들 어찌 홀로 풍년이 들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너희들이 끝이든지 않았으면 왜 거짓말로 보고한 감사·수령을 핵실하여 고찰하지 않았는가? 예전에는 사시(四時)에 사냥이 있었으나 지금 나는 다만 봄·가을의 강무만 행하는데, 어찌하여 금하느냐? 참으로 만일 실농하여 나무 열매와 풀을 먹는 데 강무한다면 이것은 무도(無道)한 임금이니, 너희들이 버리는 것이 가하고, 나무 열매와 풀을 먹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것은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니, 너희들의 임금 노릇 하기도 또한 어렵지 않느냐?”하고, 인하여 헌사로 하여금 화곡이 결실하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한 감사·수령을 고찰하고 핵실하여 아뢰라고 하였다.<sup>164)</sup>

태종의 강무 행차를 반대하는 사헌부·사간원 관원들에 대해 태종은 풍흉을 속여서 보고한 감사와 수령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63)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3월 6일 丙戌.

16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9월 21일 乙卯.

한편 강무장의 폐단과 관련하여 강원도·경기도·충청도 지역에는 큰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즉, 철원·안협이 주요 국왕의 강무 장소로 자주 이용되면서 두 고을이 소속된 경기도의 지대(支待)와 요역(徭役)이 과다하다고 하여 철원과 안협을 강원도에 이속시키고, 그 대신 충청도의 죽산현을 경기도로 이속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별(道別) 군수(軍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라도에 소속되어 있던 여산현을 충청도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sup>165)</sup> 지금까지 철원 지역이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당시 강무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구역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2. 태종의 강무에 대한 인식

강무 시행에 대한 제도는 이미 1396년(태조 5)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의 상소로 마련되게 되었지만 강무 행사를 즐기고 강력하게 추진한 왕은 태종이었다. 특히 태종이 강무 장소로 횡성의 각림사 일대(지금은 횡성 지역이나 당시는 원주에 소속된 곳이었음)를 택하게 된 것은 태종이 어렸을 때 공부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추억의 장소를 돌아보고 싶은 심정에서였다. 이는 『태종실록』에 실려 있는 횡성 강무장 운영에 대한 태종의 발언에서 직접 확인된다. 1417년(태종 17) 의정부에서 강무장 운영을 조정하여 충청도 순성(蓴城)을 춘등강무장(春等講武場)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橫城)을 추등강무장(秋等講武場)으로 할 것을 청하자 크게 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횡성은 곧 전일에 정부(政府)와 대간(臺諫)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곳인데, 그때에는 어찌 한 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았느냐? 또한 지금은 강무한다는 명령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내느냐? 이것은 바로

16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6, 세종 16년 12월 24일 丁卯.

나더러 각림사(覺林寺)에 간다고 핑계하여 강무하라는 것 아니냐? 내 어찌 강무하려고 했겠느냐? 그러나, 강무는 옛 제도(古制)인 것인데, 만일 강무하는 것이 그르다고 한다면, 이에 앞서 강무하였을 때에 여러 재상과 대간이 어찌하여 저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곧 임금의 악(惡)을 조장하는 것이다. 원주(原州)의 각림사는 내가 나이 어렸을 적에 유학(遊學)한 곳이므로, 사우(寺宇)와 산천(山川)이 매양 꿈속에 들어오는 까닭에, 한 번 가 보고 싶었을 뿐이지 애초부터 부처(佛)를 위함은 아니었다. 만약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간다면, 반드시 '이를 핑계 삼아 강무한다.'할 것이니, 반드시 눈이 쌓였을 적에 가야한다는 것이냐?"<sup>166)</sup>

이에 대언(代言) 서선(徐選), 승전내관(承傳內官) 최한(崔閑)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조말생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근신하라고 하였으나 이튿날 용서하여 석방하고 조말생은 다시 관직에 나오도록 하였다. 좌의정 박은, 우의정 한상경 등이 궁궐에 나와 태종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제 심도원(沈道源)이 신 등의 뜻을 잘못 아뢰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평강(平康) 강무장은 산이 깊고 눈이 쌓여 반드시 3월 보름을 기다린 뒤에야 눈이 다 녹을 것이고, 또 한 도내(道內)를 일년에 두 번씩 가신다면 민력(民力)이 근고(勤苦)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농사에도 방해가 될 것이므로, 원컨대, 순성(尊城)으로써 또 한 곳을 만드신다면, 금수(禽獸)도 해가 지남에 따라 번식할 이치가 있을 것이요, 민생에 있어서도 고되고 휴식하는 것이 서로 균등하게 하는 뜻이 있게 되어, 전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폐단이 없게 하려는 염려에 거의 합당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sup>167)</sup>

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새로운 강무장으로 충청도 지역을 추가하자고 한 것은 황성, 평강이 모두 강원도에 속해 있어서 해당 도(道)에서 강무할 때 지대하는 것이 과하여 민폐가 될 수 있고, 또 평강은 북쪽이어서 눈이 녹는 시기가 늦어서 자칫

16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己未.

167) 위와 같음.

농사철이 되어 가게 되면 역시 민폐가 될 수 있으니 한 곳을 추가하여 그런 문제도 덜고 여러 곳을 돌아가며 강무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금수(禽獸)의 번식도 더 충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도에서였다.

태종은 이러한 신하들의 말이 옳다고 여기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신하들이 국왕의 강무를 가급적 저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태종이 임금으로서 생각하는 ‘강무’와 신하들의 입장에서 국왕의 강무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연유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태종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시(四時)에 전렵함은 옛 법이다.’하였는데, 이제 봄·가을 두 때만으로 정한 것은 바로 그것을 반으로 꺾은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가지고 ‘임금의 뜻을 봉영(逢迎)하는 것이다.’고 말한다니, 이것은 무슨 마음에서인가? 근일에 조원(趙源)이란 자도 강무하고자 아니하여, 사사로이 서로 헐뜯는 글이 있었고, 또 예조에서 일찍이 고제(古制)를 모아서 아뢰었을 때, ‘천자(天子)도 친히 궁시(弓矢)를 잡는다.’는 귀절을 삭제하였으니, 그 뜻을 따진다면 이 역시 강무를 싫어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 일을 직서(直書)하였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궁시(弓矢)를 차고 치빙(馳騁)하는 것을 달게 여겼겠느냐? 그 의롭지 못함이 대강 이와 같다. 하지만 그 뜻만은 실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단지 그 대체(大體)를 알지 못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가(武家)이어서 무사(武事)를 좋아한다.’고 하나, 태조께서 나에게 학문을 권장하시어 내가 궁시를 잡기 시작한 것은 어렸을 때가 아닌 장년(壯年) 시절이므로, 무사(武事)를 좋아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무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건문제(建文帝) 때에는 사장(詞章)만을 일삼았으므로, 육용(陸顯) 등이 태양 성천자(聖天子)라고 일컬었지만, 결국은 패망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를 거울삼지 않겠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문무(文武)를 아울러 씀이 장구(長久)의 계책이라고 하였으니, 내 문무를 아울러 써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것 뿐이다. 내가 순성(尊城)을 강무할 곳으로 삼지 않는 것은 후세에 국정(國政)을 등한시하고 멀리 사냥 나가 유일(遊逸)을 일삼을까 두려워함에서이다. ...<sup>168)</sup>

168) 위와 같음.

태종은 옛 법도에도 있는 강무 행사를 굳이 신하들이 말리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본인을 가리켜 무가(武家)의 자손이라 무사(武事)를 좋아한다고 일컫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반드시 문무를 겸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충청도 지역에 강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뒤를 잇는 임금이 사냥을 좋아하여 멀리 나가 오래도록 궁궐을 비워두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종의 말은 신하들에게 본인이 강무를 좋아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훗날 세종에게 미리 왕위를 선위하고 본인은 상왕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특히 세종과 함께 직접 강무행사를 수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던 것도 태종의 문무겸비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한 후인 1419년(세종 1)에는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대마도를 정벌하던 시기로 대마도 정벌이 시행된 후 상왕(태종)과 세종이 함께 횡성에서 대규모 강무 행사를 시행한 것은 단순한 사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임금이 야전에서 군사를 통제하는 방법과 야전에서 군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익히는 실질적인 훈련의 성격이었다.

### 3. 횡성 지역에서의 강무

강무는 주로 경기도, 충청도, 풍해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강원도의 경우는 1406년(태종 6) 9월의 강무 노정을 보면 9월 11일 도성을 출발하여 포천 → 철원 신지(新池) → 철원 봉성별 → 평강 → 징파도(澄波渡 : 연천) → 안암동 행진(行殿)을 거쳐 9월 20일 환궁한 10일간의 일정이었으며,<sup>169)</sup> 1412년(태종 12) 봄에는 철원에서, 1414년(태종

16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9월 11일 丁卯; 12일 戊辰; 14일 庚午; 15일 辛未; 18일 甲戌; 20일 丙子.

14) 봄에는 다시 김화(金化)와 평강에서 실시한 바가 있었다. 1414년 가을에 이루어진 태종의 황성 등지에서의 강무는 황성에서 열린 최초의 강무였다. 1414년(태종 14)의 강무 노정은 윤9월 3일 도성을 출발하여 양근, 황성의 사기소 및 각림사, 실미원[황성], 원주, 광주(廣州) 등지에서 유렵(遊獵)하고 윤9월 19일 환궁한 17일간의 일정이었다. 또 1415년(태종 15) 9월 25일경부터 시행된 강무는 양근, 치악산, 대화역, 미면산, 진보역, 방림역, 황성 실미원 등지를 거쳐 10월 12일 환궁하였고, 1417년(태종 17) 2월 27일경부터 시작된 강무는 3월 9일 환궁으로 10여 일 만에 끝났는데, 이 때의 행차는 다른 강무 행사와는 현저히 다른 점이 있었다. 당시 태종은 물이꾼을 동원하기는 하였으나 사냥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바로 각림사로 가서 절의 승려에게 각림사 중창에 대한 뜻을 전하고 물이꾼을 모두 석방하여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서울로 환궁하였다. 이러한 태종의 강무 일정을 보면 당시 태종은 강무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기 보다는 어릴적에 머물며 공부한 각림사를 방문하고 각림사 불사(佛事)에 대한 뜻을 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태종은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각림사에서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少時)적에 놀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토지를 지급하고 중신(重新)하게 한 것이다. 내가 강무(講武)를 핑계하여 태조와 모후(母后) 두 분의 기일 때에 가서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기일은 5월에 있고, 모후의 기일은 9월에 있으니, 5월은 바로 농사철이며 9월은 벼가 무성한 때이다. 만약 연고 없이 간다면 대간(臺諫)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 불법(佛法)은 비록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처를 위하여 한 차례 간다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sup>170)</sup>

이러한 태종의 발언을 보면 태종이 각림사에 꼭 가보고자 한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어릴적 공부하던 곳인 각림사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17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7일 甲申.

둘째는 태조와 모후의 기신재(忌辰齋)를 각림사에서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이 그 당시 각림사에 가서 승려에게 “내 장차 지의(地衣 : 가장자리를 험겚으로 꾸미고 여러 개를 이어서 크게 만든 돛자리)를 주겠고, 또 오는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하였는데,<sup>171)</sup> 9월은 바로 모후의 기일(忌日)이 있는 달이기에 아마 태종은 모후 기일을 염두에 두고 각림사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1417년(태종 17) 황성에서의 강무는 태종이 각림사를 방문하고, 소시적의 인연과 태조, 모후를 위한 불사(佛事)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태종은 1418년 세종에게 선위를 하고 그 이듬해인 1419년(세종 1) 11월 상왕으로서 현 국왕(즉, 세종)을 대동하고 강무를 시행하였다. 이 때의 강무는 이전의 그 어느 강무 행사보다 대규모로 시행되었는데, 종친 및 주요 문무관과 갑사(甲士)·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가 2천여명, 별군 방패(別軍防牌)가 수천 명이었고, 동원된 말이 만여 필이었다. 아울러 연사중·이화영·이춘생·박성양·박실·황상 등을 3군 장수로 삼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 때는 태종이 왕위를 물려준 직후이고, 이종무 등을 보내 대마도 정벌을 단행한 해로 아마 강무 행사를 통해 대대적인 군사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왕의 군사적 통솔력에 대한 과시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던 매우 특별한 강무 행사였다. 11월 3일경 시작된 강무는 지평, 원주 북쪽, 황성 사기소, 황성 화동, 선암동(扇岩洞), 동원(洞原), 충구(葱丘), 소신산(疎薪山), 실미원(實美院), 원주의 서음소(鋤音所), 안장역(安將驛), 천녕현(川寧縣) 동편 교외, 양근(楊根)의 기산(機山), 용진, 양진(楊津) 등지를 거쳐 11월 13일 환궁하였다.

이후에도 1421년(세종 3) 2월 말~3월 12일까지 상왕과 세종이 함께 황성, 원주, 평창 등지에서 강무를 시행하였으며, 태종이 서거한 후인 1426년(세종 8) 2월 또한 황성 등지에서 강무를 시행하였지만 한성부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나서 강무를 멈추고 불과 6일만에 환궁하였다. 이후 강원도내 황성 등지의

17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3월 5일 辛卯.



강무장이 폐지되고 국왕의 강무 행사도 점차 퇴색하면서 황성에서의 강무 행사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다. 각 시기별 황성과 주변 지역에서 있었던 강무 행사 일정을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406년(태종 6) 9월 경기, 강원도에서의 강무 일정

- 태종 6년 9월 11일 : 강원도에서 강무. 철원 주변.
- 태종 6년 9월 12일 : 포천, 철원 등지에서 강무.
- 태종 6년 9월 14일 : 철원 봉성(鳳城)벌에서 강무.
- 태종 6년 9월 15일 : 행차가 평강에 도착.
- 태종 6년 9월 18일 : 징파도(澄波渡)에 감.
- 태종 6년 9월 20일 : 안암동(安巖洞)의 행전(行殿)으로 돌아옴.

■ 1414년(태종 14) 윤9월 강원도 황성 일대에서의 강무 일정

- 태종 14년 윤9월 3일 : 도성 출발. 오로지 지신사(知申事) 이관(李灌)·좌대언(左代言) 유사눌(柳思訥)만이 따라갔고, 2품 이상도 또한 20명을 넘지 않았으며, 시위(侍衛)하고 지응(支應)하는 여러 가지 일도 모두 간약(簡約)하게 함. 군기감(軍器監)에 소속한 잡색군정(雜色軍丁), 시위군(侍衛軍)의 대장(隊長)·대부(隊副), 경기도의 당령선군(當領船軍)·재인(才人)·화척(禾尺)을 징발하여 구군(驅軍)으로 충당하였는데, 총 5천명 동원. 예조의 건의에 따라 사냥해서 잡은 짐승은 날을 가리지 말고 즉시 종묘(宗廟)에 친신(薦新)하고, 만약 삭망일(朔望日)을 만나면 곁하여 친신하도록 함.
- 태종 14년 윤9월 4일 :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이포(梨浦)의 신(神)에게 제사지내도록 함. 병조판서 김승주(金承雱)에게 구마(廐馬) 1필을 내려 주고, 좌대언(左代言) 유사눌(柳思訥)에게 매 1련을 하사함. 종묘에 금수(禽獸)를 친신(薦新)하고, 인하여 전사관(典祀官)에 명하여 사방지신(四方之神)에게 날짐승으로 제사 지내게 함.
- 태종 14년 윤9월 6일 :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양근(楊根)의 성황신(城隍神)과 용문산(龍門山)의 신(神)에게 제사 지냄.
- 태종 14년 윤9월 7일 : 황천(황성) 사기소(砂器所)에 머뭇. 수종(隨從)한 신하와 군사(軍士)들에게 5일간의 식량을 주라고 명함. 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가 말 1필과 매 3련을 바치고,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이승간(李承幹)이 사냥개를 바침.

- 태종 14년 윤9월 9일 : 어가(御駕)가 횡천 화동(현재 횡성 둔내면)에 도착하였는데, 전라도 도관찰사 김정준(金廷雋)이 경력(經歷) 이종화(李種華)를 보내어 말 1필을 바침.
- 태종 14년 윤9월 13일 : 횡천 실미원(實美院)에 머무. 양식이 떨어져 구군(驅軍)을 방환(放還). 태종이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졌으나, 다치지지는 않음.
- 태종 14년 윤9월 14일 : 원주 각림사(覺林寺 : 현재는 횡성군 강림면)에 감. 잠저(潛邸) 때 공부하던 곳이라 하여 절의 승려에게 채단(綵段)·홍초(紅紬)를 각각 3필씩, 쌀과 콩 100석, 전지(田地) 1백 결(結)과 노비(奴婢) 50구(口)를 하사하고, 아울러 절의 노비 등에게 쌀과 콩 30석을 하사함. 당일 내시별감을 보내 원주 치악산신에게 제사 지냄.
- 태종 14년 윤9월 15일 : 풍해도 도관찰사 윤향(尹尙)이 경력(經歷) 이안유(李安柔)를 보내어 매 2런을 바치고, 충청도 도관찰사 김여지(金汝知)가 도사(都事) 김자온(金自溫)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침. 이안우(李安愚)·이승간(李承幹)에게 표리(表裏)를, 경력(經歷) 심도원(沈道源)에게 협의(袂衣) 1벌을 하사함. 내시별감을 보내 여강(驪江)의 신(神)에게 제사 지냄.
- 태종 14년 윤9월 18일 : 어가(御駕)가 광주(廣州) 동정(東亭)에 머물렀는데, 왕세자가 행궁(行宮)에 나옴. 경기 도관찰사 오승(吳陞)에게 표리(表裏)를, 경력(經歷) 신이(辛頤)에게 협의(袂衣) 1벌을 하사함.
- 태종 14년 윤9월 19일 : 환궁함. 이번 강무 행차에서 왕이 사슴 11마리와 노루 3마리를 쏘아 잡음.
- 태종 14년 10월 8일 : 횡천현감(橫川縣監) 정면(鄭綿)이 파면됨. 임금이 횡천(橫川)에 거둥하였을 적에 횡천(橫川) 현리(縣吏) 황상중(黃尙中)이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쏜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 명하였는데, 황상중이 현감에게 하직을 고(告)하지 않은 것에 노하여 그 어미를 가두었으므로, 불공죄(不恭罪)에 연좌되어 의금부(義禁府)에 송치하였는데 마침내 파직됨.<sup>172)</sup>

17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3일 癸卯; 7일 丁未; 9일 己酉; 13일 癸丑; 14일 甲寅; 15일 乙卯; 18일 戊午; 19일 己未.

■ 1415년(태종 15) 황성, 평창 일대에서의 강무 일정

- 태종 15년 8월 20일 : 강무 행차에 대비하여 원주, 평창, 황성, 낭천, 흥천의 조세를 수운하여 납부하지 말고 각각 본 고을에 거두어 축적할 것을 지시함.
- 태종 15년 8월 25일 : 병조에서 강무를 청하니 임금이 너무 이르다고 하며, “내가 강무하고 싶지 않다. 노루·사슴과 꿩은 가을이 되어야 맛이 있다. 제향(祭享)에 생뢰(牲牢)를 쓰기는 하지마는, 내가 야미(野味)를 검하여 올리고자 한다. 마땅히 양근(楊根) 등지로 가야 하겠는데, 오직 산에 오르고 물에 뜨는 짐승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함.
- 태종 15년 9월 19일 : 대간이 강무를 정지할 것을 청함.
- 태종 15년 9월 24일 : 의정부 찬성 유정현(柳廷顯) 등이 흉년을 이유로 교하(交河) 등지로 나가는 상왕(정종을 말함) 행차의 정지를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 태종 15년 9월 25일 : 태종이 강원도에서 강무하면서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용진(龍津)의 신(神)에게 제사함.
- 태종 15년 9월 26일 :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양근(楊根)의 성황(城隍)과 용문산(龍門山)의 신(神)에게 제사함.
- 태종 15년 9월 28일 :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치악산(雉岳山)의 신에게 제사함.
- 태종 15년 9월 29일 : 강릉(江陵) 대화역(大和驛) 서쪽 들에 머무르고, 대가(大駕)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5일 동안의 인마(人馬)의 요속(料粟)을 줌. 강원도(江原道) 경력(經歷) 정환(鄭還)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는데, 일전에 몰이꾼 10명마다 화정(火鼎 : 솥에 불을 때서 식사를 마련하는 사람) 한 명을 정하라는 명을 어기고 임의로 4명을 더한 때문이었음. 이 때에 몰이꾼의 수가 강원도 4천 4백 명, 충청도(忠淸道) 1천 명이었음.
- 태종 15년 10월 1일 : 미면산(米面山)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이날 날짐승 50여 마리를 잡아 대가(大駕)를 따르는 인원에게 나누어 줌.
- 태종 15년 10월 3일 : 대가(大駕)가 진보역(珍寶驛) 남쪽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종묘에 새를 바침. 대가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5일 동안의 인마(人馬)의 요속(料粟)을 줌. 병조에서 임의로 몰이꾼과 화정(火鼎)을 더한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죄를 탄핵하여 청하였으나 논하지 말라고 명하고, 구금하였던 정환(鄭還)을 석방함.

- 태종 15년 10월 4일 : 이귀산이 춘천도호부사 윤개(尹愷)를 행궁지응도차사원(行宮支應都差使員)으로 삼았는데, 임금이 알고 그 고을로 돌려보내라고 명했으나, 윤개가 지체하며 머무르고 있자 구금하였다가 3일만에 석방함.
- 태종 15년 10월 7일 : 방림역(芳林驛) 동쪽 들에 머물면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종친과 도진부(都鎭撫)·대언(代言) 등이 연회에 참여하였으며, 대가(大駕)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술을 하사함.
- 태종 15년 10월 9일 : 황성 실미원(實美院) 들판에 머물러서 물이꾼을 놓아 보냄.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安騰)이 사람을 보내어 술 1백 병을 바침.
- 태종 15년 10월 10일 : 비가 오고 눈이 내림. 이귀산(李貴山)에게 표리(表裏)를, 정환(鄭還)에게 유의(襦衣)를 하사함.
- 태종 15년 10월 12일 : 환궁함.

#### ■ 1417년(태종 17) 황성 각림사 일대 강무 일정

- 태종 17년 2월 10일 : 태종이 각림사로 행차하고자 하니 사간원에서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대호군(大護軍) 초치(趙菑)를 황성에 보내어 강무장에 얼음이 녹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게 하고, 만약 얼음이 녹지 않았다면 강원도와 충청도 기군(騎軍)·보군(步軍)과 역마(驛馬)를 모두 징발하지 말라고 명함.
- 태종 17년 2월 27일 : 태종이 원주 각림사로 행차하여 봄철 강무를 행함. 동원 인원은 황성 등지의 구군(驅軍)·방패(防牌)·섭대장(攝隊長)·섭대부(攝隊副)를 합하여 1천 91명, 별군(別軍) 1백 60명이었고, 강원도의 보군(步軍) 1천 2백 명, 마군(馬軍) 3백 명이었으며, 충청도의 보군 2백 50명, 마군 3백 명이었고, 경기(京畿)가 2백 50명이었음. 도관찰사(都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 고을 수령(守令) 등에게 명하여 행재소(行在所)에 나오지 못하게 함.
- 태종 17년 2월 27일 : 이원(李原)이 충녕대군(忠寧大君)이 편치 못하다 하여 임금이 환궁(還宮)하고자 하였으나 용진도(龍津渡)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음.
- 태종 17년 3월 2일 : 눈이 내림.
- 태종 17년 3월 3일~4일 : 얼음이 얼었음.
- 태종 17년 3월 5일 : 거가(車駕)가 각림사에 이르러 절의 승려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내 장차 지의(地衣 : 가장자리를 힘겹으로 꾸미고 여러 개를 이어서 크게 만든 돛자리)를 주겠고, 또 오는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함. 사냥 물이꾼을 모두 돌아가도록 함.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신상(申商)에게 옷 2벌, 차사원(差使員) 지정선군사(知旌善郡事) 권소(權紹)와 양구현감(楊口縣監) 이백충(李伯忠), 홍천현감(洪川縣監) 송저(宋儲) 등에게는 각각 옷 1벌씩을 하사함.

- 태종 17년 3월 9일 : 환궁함.
- 태종 18년 2월 23일 : 강원도 도관찰사 홍여방(洪汝方)이 횡성(橫城) 선암(扇巖) 등지에 대한 강무장 상소(常所)가 해제되자마자 전 호군(護軍) 최천명(崔天命) 등 10여 인이 즉시 들어가 가옥(家屋)을 지었고 이를 방관한 현감 송저(宋儲)에 대한 처벌을 아뢰자 최천명 등은 논죄하고 현감 송저는 거론하지 말라고 함.

#### ■ 1419년(세종 1) 횡성 일대에서의 강무 일정

- 세종 1년 1월 9일 : 흉년인 까닭에 봄철 강무 행사를 정지하고, 횡성, 진보(珍寶) 등지로 하여금 지공할 문건을 준비하지 말도록 함.
- 세종 1년 10월 28일 : 상왕(태종)이 횡성에 가고 싶다는 뜻을 말하니, 조말생·이명덕·이수(李隨)·유영(柳穎)·원숙(元肅) 등이 모두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된다고 함.
- 세종 1년 10월 29일 : 상왕이 병조좌랑 정여(鄭旅)를 보내어 유정현·박은·이원에게 가서 횡성에 가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물어보게 하고, 마침내 행할 계획을 정하고, 먼저 상호군(上護軍) 이군실(李君實)을 강원도로 보내어,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보게 함. 또 병조에 명하여, 교지대로 받들게 하고, 여러 재추(宰樞)에 명하여 수가(隨駕)하게 함.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동교(東郊)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함. 병조에서 강무 행사 시행을 건의하니 윤허함. 11월 초3일 행차에 사용될 포마(舖馬)를 경기, 황해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각기 서울로 보내도록 함.
- 세종 1년 11월 3일 : 임금이 강무를 떠나기 위해 상왕이 머무는 수강궁에 나아감.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강원도에서 강무하였는데, 양녕대군 이제(李禔), 효령대군 이보(李補), 공녕군(恭寧君) 이인(李裨), 우의정 이원,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 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

판도총제부사(判都摠制府事) 이화영(李和英), 장흥군(長興君) 마천목(馬天牧), 병조판서 조말생, 도총제 이담(李湛), 홍부(洪敷), 광록시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 소경(少卿) 한확(韓確), 총제 유은지(柳殷之)·문효종(文孝宗)·곽승우(郭承祐)·이춘생(李春生)·성달생·진흥(田興)·박실(朴實)·박성양(朴成陽)·이순몽(李順蒙)·원운(元胤)·이교(李皎)·황상(黃象)·문귀(文貴), 병조참판 이명덕, 당성군(唐城君) 홍해(洪海), 지신사 원숙, 좌대언 김익정, 우대언 이수(李隨), 동부대언 유영, 첨지돈녕부사 홍상직(洪尙直), 첨총제(僉摠制) 김월하(金月下)·지백연(池伯淵)·조정(趙定) 등이 어가를 따름.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사금(司禁)·사엄(司嚴) 및 사사로 부리는 반당(伴黨)을 제한 외에도 갑사(甲士)·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를 아울러 2천여 명이었으며, 말이 만여 필이고, 별군방패(別軍防牌)가 수천 명이었는데, 연사중·이화영·이춘생·박성양·박실·황상들로써 3군 장수를 삼음. 이날 평구역(平丘驛) 등처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양주(楊州) 조시배령(曹時背嶺) 남쪽에서 점심을 먹음. 경기감사 조치(曹致)와 경력(經歷) 유사근(柳士根) 등이 와서 알현하고 술과 과일을 올리니, 첨총제 이상을 장전(帳殿) 앞에서 호궐(犒饋)하고, 시위하는 대소 인원에게 술을 하사하도록 함. 드디어 용진(龍津) 남쪽에서 사냥하고, 용진 여울을 건너 남쪽 언덕에 유숙하였는데, 조치가 또 술과 과일을 올리므로, 시위하는 대소 인원에게 나누어 주게 함. 매양 주정(晝停)에서나 숙소에서 반드시 (지방에서) 바치는 술을 시위하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함.

- 세종 1년 11월 4일 : 두 임금이 유다곡(鎭多谷)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지평현(砥平縣) 지덕원(支德院) 들판에서 점심을 먹고 종현(鍾懸) 들판에 도착하여 유숙함.
- 세종 1년 11월 5일 : 두 임금이 길을 가면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원주 북쪽 경계에서 점심을 먹음. 강원도 감사 성엄과 경력 우경부(禹敬夫), 병마절제사 현귀명(玄貴命), 경력 이명보(李明保) 등이 와서 알현하고, 성엄이 술과 과일을 올림. 저물녘에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비가 왔는데, 어가가 황성 사기소(沙器所)에 도착하여 유숙함.
- 세종 1년 11월 6일 : 두 임금이 화동(禾洞)에서 점심을 먹고 북쪽 산에서 사냥함. 충주도 및 원주도 물이꾼 9천여 명이 어가를 따라온 군졸과 함께 산에 올라 물이하는데, 북과 피리 소리가 하늘을 흔드니, 짐승이

사장(射場)에 내려오자 두 임금의 친히 짐승을 쫓아서 각각 사슴 한 마리씩을 쏘아 맞힘. 이어 화동에 도착하여 잤는데, 날씨가 매우 춥다. 상왕이 서울로 돌아갈 것을 권유함. 조말생·하경복(河敬復)·연사중은 돌아갈 것을 아뢰었으나 이명덕은 충청도 물이꾼이 벌써 방림(芳林)에 도착하였고, 또 추위와 따뜻함이 서로 이어 오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따뜻할 것이라 하여 강릉으로 갈 것을 청하였으나 상왕이 강무는 본래 종묘에 짐승을 바치려는 것인데, 이제 바칠 짐승을 잡았으니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물이꾼 6천여 명을 놓아 보내게 함.

- 세종 1년 11월 7일 : 두 임금이 선암동(扇岩洞)에서 낮잠을 먹고 동원(洞原)에 도착하여 잤는데, 도성에 머물러 있던 재추(宰樞)들이 참찬 변계량을 보내서 문안하고, 술과 과일을 올림.
- 세종 1년 11월 8일 : 황해도 관찰사 이숙묘(李叔畝)가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진상하고, 성엄·현귀명(玄貴命) 등도 또한 방물과 말 1필씩을 진상하였는데, 방물은 시위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줌. 총구(葱丘)에서 점심을 먹고, 소신산(疎薪山)에서 사냥을 하고 실미원(實美院) 냇가에서 유숙함.
- 세종 1년 11월 9일 : 물이꾼 3천여 명을 놓아 보내도록 하고 원주의 서음소(鋤音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관원주목사 조계생(趙啓生)이 마중 와서 알현함. 어가가 기대리(岐大里)에 도착하여 잤는데, 상왕이 활과 화살통 하나씩을 여러 절제사 및 사복관(司僕官)에게 주고, 활쏘기 내기를 하게 함. 함길도 관찰사 안망지(安望之)는 사람을 보내서 방물을 진상하고, 충청도 관찰사 정진(鄭津)도 사람을 보내서 말과 방물을 진상하니 방물은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게 함. 원주의 기로(耆老) 정정(鄭政)·유선보(劉善寶) 등 10여 명이 와서 알현하므로, 상왕이 <그들에게> 술을 주도록 하고, 선보에게 이르기를,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 내가 일찍이 너의 사위 인시경(印時敬)을 장군에 임명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문함.
- 세종 1년 11월 10일 : 두 임금이 연로(沿路)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안장역(安將驛) 앞 냇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조치(曹致)가 맞이하여 알현함. 어가가 여흥(驪興) 금당천(金堂川) 가에 도착하여 잤는데, 도성에 머물러 있던 재추가 이조판서 윤곤(尹坤)을 보내어 문안하고 술과 과일을

올렸으며, 황해도 병마절제사도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침.

- 세종 1년 11월 11일 : 두 임금이 연로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찬녕현(川寧縣) 동편 교외지역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양근(楊根)의 기산(機山)에 도착하여 유숙함.
- 세종 1년 11월 12일 : 어가가 용진 여울을 건너서 매사냥을 하고 여울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판관주목사(判廣州牧事) 문계종(文繼宗)이 마중 나와서 알현함. 어가가 여울가에서 유숙할 때, 상왕이 추위가 대단하므로, 도성을 지키는 여러 신하에게 마중 나오지 말게 하고, 또 두 임금에게 대한 풍정(豊呈 : 임금 내외에게 경사가 있을 때 경하하기 위해 신하들이 음식이나 예물을 바치는 것)도 정지하도록 함.
- 세종 1년 11월 13일 : 양진변(楊津邊)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러 부마(駙馬)가 와서 알현함. 날이 저물녘에 환궁하였으며, 도성에 머물러 있던 여러 신하는 수강궁(상왕의 궁)에 문안한 다음 창덕궁(세종의 궁)에 문안함.
- 세종 1년 12월 19일 : 봄철 평강과 이번의 횡성 강무에 대해 불평한 부사직(副司直) 장월하(張月下 : 여진에서 귀화한 사람임)를 문초하고 의금부에 하옥함.

#### ■ 1421년(세종 3) 경기도, 강원도 횡성 등지에서의 강무 일정

- 세종 3년 2월 25일 : 상왕이 풍양으로부터 장차 강원도 진부(珍富) 등처에서 강무하려 할 때, 임금이 광효전에 고하고 따라가고, 우의정 이원(李原)과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김승주(金承霏) 등이 거가(車駕)를 호위함. 두 임금이 양주(楊州) 초두(草豆) 등지에서 만나니, 경기관찰사 성엄(成揆), 경력 이숙치(李叔時), 광주목사 이육(李穡), 판관 김종서(金宗瑞), 양주목사 홍이(洪理) 등이 조복 차림으로 와서 알현함. 두 임금이 장전(帳殿)에서 주연을 베풀니, 효령대군 이보(李補), 경녕군(敬寧君) 이비, 공녕군(恭寧君) 이인(李廔),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 평양군(平壤君) 조대립(趙大臨), 찬성사(贊成事) 조연(趙涓), 참찬 최윤덕(崔閔德), 도총제(都摠制) 권희달(權希達)·이징(李澄)·이담(李湛), 동지돈녕(同知敦寧) 문귀(文貴)·이교(李皎)·이명덕·김익정·성엄이 시연(侍宴)함. 사냥해서 잡은 새를 종묘·광효전·공정대왕 혼전에 천신하여 올리고, 용진(龍津)을 건너서 저녁에 거가(車駕)가 용진 동쪽 언덕에 머뭄.



- 세종 3년 2월 26일 : 상왕이 용문산(龍門山)에서 사냥할 때 손수 사슴을 쏘아서 잡음. 임금은 거상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활과 화살을 잡지 아니하고 효령대군 이보와 함께 한 모퉁이에 말을 세우고 상왕이 짐승 잡는 것을 관람함. 예전에 봉상시(奉常寺)에서 제사에 쓰는 저린 고기를 올리는데, 주군(州郡)에서 진상한 노루고기를 쓰므로, 혹은 냄새가 나서 못 쓸 것이 있었는데, 상왕이 듣고 강무해서 잡은 것을 쓰도록 하니, 이때 잡은 사슴 12마리를 봉상시에 보내어 절이게 함. 저녁에 양근(楊根) 남교(南郊)에 머물.
- 세종 3년 2월 27일 : 여흥(驪興) 팔대숲(八代叢)에서 점심을 먹는데 술을 차리니, 효령대군 이보, 우의정 이원 등이 시연(侍宴)함. 거가(車駕)가 원주(原州) 금당천(金堂川)에 이르니,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 목진공(睦進恭), 경력(經歷) 유사근(柳士根), 원주목사 차지남(車指南), 판관 김사정(金士棖)이 평복으로 알현하니, 병조에서 공복(公服)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 치죄할 것을 아뢰었으나 상왕이 윤허하지 않음. 목진공이 말과 궁시(弓矢)와 토산물을 상왕에게 바침.
- 세종 3년 2월 28일 : 거가가 사천(蛇川)에 머물며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으며, 저녁에 원주 북교(北郊)에 머물렀는데, 도로가 수치(修治)되지 아니하였고, 조석 공궤가 갖추어지지 못함.
- 세종 3년 2월 29일 : 거가가 회현(檜峴)을 넘어서 저녁에 안흥역(安興驛) 아래에 머무르니, 전라도 관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말과 궁시(弓矢)를 상왕에게 바치고, 음식물을 임금에게 바침.
- 세종 3년 3월 1일 : 진눈깨비가 내림. 거가가 독령(秃嶺)을 넘어가는데, 길이 매우 험하고, 또 진눈깨비로 인하여 길이 질어, 짐꾼들이 넘어지는 자가 열에 8, 9명이 되었고, 말이 지쳐서, 호종하는 사람이 모두 애를 먹음. 상왕이 고개 위에서 군졸과 짐꾼이 넘어진 것을 보고 말을 멈추고 내시에게 명하여 이들을 신고 가게 함. 저녁에 행차가 강릉 방림역(方林驛)들에 머물.
- 세종 3년 3월 2일 : 진눈깨비가 내림. 인부 2천 명을 동원하여 놀두산(訥豆山)에서 짐승을 몰이하고, 저녁에 행차가 대화역(大和驛)의 들에 머물. 서울에 있는 여러 신하가 참찬 변계량을 보내어 문안하고, 술과 과일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땃새에 한 번씩 문안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이레나 되어서 오느냐.”하니, 계량이 대답하기를, “좌의정 박은(朴崧)이 늦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지난달 29일에 술을 봉하여 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함. 상왕이 내신(內臣)에게 명하여 술을 내리고, 사슴 2마리를 주면서 말하기를, “뒤에 문안하러 오는 자는 비록 길에서 만나더라도 내가 데리고 서울로 돌아가라.”고 함.

- 세종 3년 3월 3일 : 구단산(仇段山)에서 몰이함. 상왕이 사슴을 많이 쫓았는데, 사슴 두 마리가 달아나다 상왕의 말에 부딪쳐, 말이 넘어지면서 낙마함. 저녁에 대화역(大和驛)의 들에 돌아와서 시종한 각급 신하와 군사에게 급료를 나누어 줌.
- 세종 3년 3월 4일 : 행차가 모로현(毛老峴)을 넘어 진부역(珍富驛)의 미면촌(未耨村)에 이룸. 함길도 감사가 사람을 보내어 방물(方物)과 매를 상왕에게 올림.
- 세종 3년 3월 5일 : 행차가 진부에 머무름. 장막에서 술자리를 마련함. 효령대군 이보와 우의정 이원 등과 관찰사 목진공(睦進恭)이 상왕을 모시고 오전산(五錢山)에서 몰이하는데, 비가 내림. 상왕이 우비를 입고 또 신당산(神堂山)에서 몰이를 하는데, 시종한 무신이 상왕의 포위망 안에서 말을 달리며 짐승을 쏘니 상왕이 화를 내므로, 임금이 효령대군 이보에게 명하여 짐승 쏘던 자를 쫓아가게 함. 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이 그 화살을 주워 올렸는데, 곧 침총제 심보(沈寶)·김월하(金月下)·이원길(李原吉)·상호군 양춘무(楊春茂) 등 일곱 사람의 화살이었음. 임금은 그들에게 갓을 벗고 걸어 가게 하였고, 환관 엄영수(嚴永守)와 유실(兪實)도 말을 달리며 짐승을 쫓았으므로, 상왕이 갓을 벗기고 손을 묶으라고 지시함. 임금이 상왕이 심히 노하셨을까 염려하여 친히 근시(近侍)들을 거느리고 짐승을 몰이하여 상왕 앞으로 나아가고, 또 병조에 명하여 보(寶) 등을 곤장으로 치라 하니, 상왕이 그를 용서하도록 함. 상왕이 영수(永守) 등을 장막 앞에 묶어 들여 곤장을 치려 하다가 곧 석방하고, 사람을 보내 잡은 짐승을 종묘와 원묘(原廟 : 종묘를 세운 다음에 다시 세운 廟를 原廟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태조의 묘를 말하는 것임)에 제사드리게 함.
- 세종 3년 3월 6일 : 행차가 진부에 머무. 송동산(松洞山)에서 몰이를 하는데, 상왕은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아니하여, 활과 화살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다만 개를 놓아 짐승을 잡는 것만 구경함.
- 세종 3년 3월 7일 : 행차를 서울로 돌림. 모로현을 넘어 대화(大和)의 옛 현(縣) 자리에 머무. 잡은 짐승을 의정부와 육조에 나누어 주고, 아울러 술을 하사함. 상왕이 경쾌한 방패를 만들어 짐승을 포위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여, 병조와 대언사(代言司)에 의논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상왕이 방패를 장막 앞으로 가져 오라고 하여 구경함.

- 세종 3년 3월 8일 : 행차가 독현(禿峴)을 넘어 횡성현(橫城縣)에 머뭇. 장막 안에서 술상을 차리고 호종한 이원과 김승주(金承雱) 등 시종한 사람 40여 명을 위로하고, 아래로 군사에게까지 모두 술과 고기를 하사함.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 주지(主持) 석휴(釋休)가 와서 알현하니, 쌀 2백 석을 하사하였는데, 각림사는 상왕이 임금되기 전에 공부하던 곳이며, 휴(休)는 일찍이 시종을 든 공로가 있었음.
- 세종 3년 3월 8일 : 행차가 횡성현 남교(南郊)에 머뭇.
- 세종 3년 3월 9일 : 병조판서 조말생이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로 와서 의복을 올리고 문안을 드림. 강원도 관찰사가 술을 올리니, 군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함. 호종한 신하와 군사에게 급료를 나누어 주도록 함.
- 세종 3년 3월 10일 : 행차가 지평(砥平) 상발산(上鉢山)에 도착하니 황해도 관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올리고, 평안도 관찰사는 사람을 보내어 매를 올림.
- 세종 3년 3월 11일 : 행차가 용진(龍津)을 건너서 서쪽 강가에 머뭇.
- 세종 3년 3월 12일 : 낮에 독음포(禿音浦)에 머물러 장막에서 술자리를 차렸는데, 효종대군 이보(李補), 우의정 이원(李原) 등이 참석함. 상왕은 풍양의 이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서울로 돌아오니,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문안을 드림.

#### ■ 1426년(세종 8) 횡성 등지에서의 강무 일정

- 세종 8년 2월 13일 : 강원도 횡성(橫城) 등지에서 강무함. 이날 행차가 출발하여 묘적사(妙寂寺)의 북쪽 산에서 물이하였으며, 경기감사 심도원(沈道源)·도사(都事) 배권(裴權)·찰방 이길배(李吉培)·양질(楊秩)·양주부사 권맹손(權孟孫)이 마중나와 뵈고, 감사가 술을 올림. 낮참에 시우동(時雨洞)에 머물렀는데, 경녕군(敬寧君) 이비(李), 공녕군(恭寧君) 이인(李頤), 신의군(愼宜君) 이인(李仁),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 의성군(誼城君) 이용(李容), 좌의정 이원(李原), 우의정 조연(趙涓) 등이 입시(入侍)함. 관례에 따라 행차에 따라온 여러 신하와 미천한 사람에게까지 음식을 먹이고, 군사들에게도 술과 안주를 나누어 줌. 시우현(時雨峴) 아래의 동구에서 물이하고, 용진(龍津)을 건너서 머뭇.

광주목사 민심언(閔審言)과 판관 이죽(李茁)이 마중나와 뵈고, 함길도 감사 이종선(李種善), 병마도절제사 하경복(河敬復), 충청도 감사 최사강(崔士康) 등이 사람을 보내어 매와 개와 방물을 올림.

- 세종 8년 2월 14일 : 행차가 지평(砥平)의 지덕원(祇德院) 냇가에 이르러 주정(晝停)하니, 따라온 종친과 두 의정(議政)과 병조판서 조말생(趙末生)이 입시(入侍)함. 명하여 문무 대신과 대언 등에게 음식을 접대함. 저녁에 종현(鍾懸) 들에 머무르니, 지평현감 권심(權審)이 마중나와 알현함.
- 세종 8년 2월 14일 : 강원도 관찰사 정귀진(鄭龜晉), 도사 배소(裴素), 횡성현감 오경지(吳敬之)와 구군차사원(驅軍差使員)인 간성병마사(杆城兵馬使) 정극근(丁克勤), 제천현감(堤川縣監) 원욱(元郁) 등이 마중나와 알현함. 저녁에 사기소(沙器所)에서 머뭄.
- 세종 8년 2월 15일 : 한성부에서 불이 나서 경시서(京市署) 및 북쪽의 행랑 1백 16칸과 중부(中部)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함.
- 세종 8년 2월 15일 : 한성부 화재 소식을 듣고 임금의 이번 행차가 천심에 합당하지 않아서 생긴 재변이라 하며 환궁을 결정하고 물이꾼을 돌려보내도록 함. 그대로 사기소(沙器所)에 유숙함.
- 세종 8년 2월 16일 : 한성부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여 전옥서와 인가 2백여 호 등이 불탄. 환궁할 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의장, 절차를 생략하고, 세자의 교의 마중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함.
- 세종 8년 2월 17일 : 눈이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붐. 저녁에 행차가 돌아오다가 흥덕원(興德院) 아랫들에 이르러 주정(晝停)함. 강원감사 정귀진(鄭龜晉)과 도사 배소(裴素)에게 의복 한 벌씩을 내림. 저녁에 지덕원(祇德院) 냇가에 머물렀는데, 호조판서 안순(安純)이 와서 문안드리고, 중궁이 내사(內史) 한길문(韓吉文)을 보내어 문안드림.
- 세종 8년 2월 18일 : 행차가 돌아오다가 낮참에 양근(楊根) 앞 냇가에 이르러 머무르고, 용진(龍津)을 건너 저녁에 강변에 머뭄.
- 세종 8년 2월 19일 : 행차가 건원릉 아랫들에 이르러 주정(晝停)하였으며, 경기감사 심도원(沈道源)과 도사 배권(裴權)에게 의복 한 벌씩을 하사함. 신시(申時)에 궁궐로 돌아옴.



## 조선 태종대(太宗代)의 각림사

### 1. 태종(太宗)의 불교정책(佛敎政策)과 각림사 중창(重創)

고려 말 성리학(性理學)을 받아들인 신진사대부들은 조선 건국 후 불교의 폐단을 극력 진언하고, 불교의 배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도첩제(度牒制)<sup>173)</sup> 시행 건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개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는 자초(自超, 무학(無學))를 왕사(王師)로, 1394년(태조 3)에는 천태종(天台宗) 승려 조구(祖丘)를 국사(國師)로 삼기도 하였다.

또한 태조는 궁중에서 승려에게 반식(飯食) 공양을 하기도 하였고, 연복사(演福寺) 탑의 낙성에 친히 행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광명사(廣明寺)에서 자신의 부모의 제삿날에 반승(飯僧)하였으며, 『법화경(法華經)』 3부를 금 글씨로 써서 고려 왕씨(王氏) 종족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1396년(태조 5)에는 흥천사(興天寺)를 세우게 하였으며, 1398년(태조 7)에는 강화도 선원사(禪源寺)에서 대장경판(大藏經版)을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 태조의 재위 7년 동안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전하는 불교 행사만도 대장인경(大藏印經) 12회, 소재회(消災會) 14회, 불사법석(佛事法席) 35회, 반승(飯僧) 9회 등에 이른다.<sup>174)</sup>

정종(定宗)의 뒤를 이어 즉위한 조선의 3대 임금 태종(太宗)은 모든 불사를

173) 도첩(度牒)은 '허도승급첩(許度僧給牒)'의 줄인 말로 승려가 되는 것을 국가에서 허가하고 또 그 신분을 인정·보장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174) 김영태, 『불교』, 『한국사』 26-조선 초기의 문화 I, 국사편찬위원회, 1995, 266쪽.

폐지케 하여 즉위 초부터 배불(排佛)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1405년(태종 5)에는 의정부(議政府)의 요청에 의하여 사사(寺社)의 전도와 노비를 혁파하여 국가에 예속시켰다. 1406년(태종 6)에는 중앙과 지방에 남겨둔 사사(寺社)의 수를 정하는 동시에 각 사찰별로 속전(屬田)과 노비의 수를 차등있게 정하였다.

각림사(覺林寺) 역시 절에 소속된 노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태종의 사사(寺社) 노비 혁파의 과정에서 노비들이 혁파 당했음이 확인된다. 즉 후대의 기록이지만 『성종실록(成宗實錄)』에 ‘태종께서 사사(寺社)의 노비를 혁파할 때 각림사는 바로 태종께서 소년 시절에 독서하던 곳인데도 오히려 아울러 혁파시켰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sup>175)</sup> 이를 보면 태종의 사사 노비 혁파는 자신이 수학했던 각림사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종은 도첩제(度牒制) 등의 정비를 통해 출가(出家)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부녀자들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태종은 강력한 척불억승(斥佛抑僧)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1406년(태종 6)에는 전국에 남겨진 사원의 총수는 11종(宗) 242사(寺)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407년(태종 7)에는 11종이던 종단마저 7종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세종대가 되면 7종의 교단은 선종(禪宗)과 교종(教宗)의 양종(兩宗)으로 종단이 폐합되었다. 따라서 태종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의 억불정책(抑佛政策)이 일단 실현되었고, 이후 이러한 억불정책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종의 척불정책(斥佛政策) 아래에서도 왕실의 불사(佛事)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태종은 대조에 의해 행해졌던 종전의 국행불사(國行佛事)를 폐지하였지만, 1401년(태종 1) 왕실에서는 여전히 건성사(乾聖寺)에서 제석예참(帝釋禮懺)을 베풀고 진관사(津寬寺)와 관음굴(觀音窟)에서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었다.<sup>176)</sup> 태종은 궁중의 부녀들이 자손의 수명연장을 바라고 행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금하고자 하나 아직 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손을 위해 왕비가 베푸는 불사법석(佛事法席)은 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또한 1401년에는 태상왕(太上王) 태조

175)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3, 성종 2년 11월 22일 庚申.

176) 김영태, 『불교』, 『한국사』 26-조선 초기의 문화 1, 국사편찬위원회, 1995, 269쪽.

(太祖)가 예전에 살던 집 동쪽에 터를 정하여 흥덕사(興德寺)를 창건하게 하였다.

특히 1408년(태종 8)에 태조가 사망하자 태종은 불교 의식에 의한 49재와 여러 가지 법석을 베풀고 산릉(山陵)에는 개경사(開慶寺)를 세워 재궁(齋宮)으로 삼았다. 그리고 1409년(태종 9)에는 모후의 제릉(齊陵)에 세워져 있던 연경사(衍慶寺)를 개창하게 하여 그 이듬해인 1410년(태종 10)에 완공하였으며 사재로 법의(法衣)와 법발(法鉢)을 갖추고 법화경법회(法華經法會)를 베풀어 낙성하였다. 그렇지만 태종은 이러한 왕실 불사를 행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은 불교를 싫어한다는 뜻을 신하들에게 밝히고 그 입장을 변명하였다.<sup>177)</sup> 이처럼 척불정책이 시행되면서도 왕실의 불사와 사원 중창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 왕족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원찰(願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태종의 척불정책과 왕실의 불사가 병행되던 중에 『조선왕조실록』에 각림사와 관련된 기사(記事)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향(香)을 내렸다.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중[僧] 석초(釋超)가 주지(住持)로서 간다고 하직하니, 향(香)을 주어 보냈다.<sup>178)</sup>

이 기사는 1410년(태종 10) 12월 20일(임자)에 해당하는데,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에 석초(釋超)라고 하는 스님이 주지(住持)로 간다고 태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자, 태종이 특별히 향(香)을 내려 준 것이다. 그리고 태종이 향을 내려준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각림사에서 글을 읽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석초라는 스님이 각림사의 주지로 내려갔음을 알 수 있는데, 석초가 각림사의 주지로 갈 때 태종에게 하직 인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태종이 각림사 또는 석초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7) 김영태, 「불교」, 『한국사』 26-조선 초기의 문화 1, 국사편찬위원회, 1995, 270쪽.

17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0, 태종 10년 12월 20일 壬子.

더불어 석초의 각림사 주지 임명은 최소한 태종의 뜻이 반영되었거나 또는 태종이 각림사의 주지를 임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179)</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는 태종의 척불정책이 계속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408년(태종 8) 태조 이성계의 사망 이후 왕실의 불사가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태종실록(太宗實錄)』에 공식적으로 각림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러한 왕실 불사의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후 각림사는 태종이 잡저에 있을 때 독서하던 곳이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대신 및 관료들의 왕실 불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마하는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다.

석초가 주지로 내려간 2년 뒤인 1412년(태종 12)에는 각림사가 중창(重創)되어 낙성(落成)을 보게 되었다. 『태종실록』 태종 12년 10월 17일(기사)에 ‘이 절은 방금 중창되어 낙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각림사가 중창되어 낙성된 것은 1412년 10월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 절은 방금 중창(重創)되어 낙성(落成)을 보게 되었는데, 중관(中官)을 보내어 부처에게 현훈폐(玄纁幣) 1필을 각각 바치고, 중들에게는 면포(綿布)·주포(紬布) 합계 10필, 마포(麻布) 50필, 저화(楮貨) 2백 장(張)을 내려 주었으니, 임금이 잡저에 있을 때 독서(讀書)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sup>180)</sup>

석초가 각림사의 주지로 내려간 것은 1410년 12월 20일이고, 각림사가 ‘중창낙성(重創落成)’된 것은 1412년 10월 이전이므로, 각림사는 석초가 주지로 내려간 직후 중창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사찰의 중창은 왕실의 허가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종은 석초를 각림사의 주지로 보내어 각림사를 중창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태종은 각림사가 중창되어 낙성되자, 중관(中官)을 보내어 부처에게 현훈폐(玄纁幣)<sup>181)</sup> 1필을 각각 바치고, 각림사의 중들에게는 면포·주포 합계 10필, 마포

1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림사(覺林寺) 항목에는 태종(太宗)이 석초(釋超)를 주지로 임명하고 향을 하사한 것으로 써 놓았다(<http://encykorea.aks.ac.kr>).

18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10월 17일 己巳.

181) 검은 것과 붉은 것의 두 가지 폐백.



50필, 저화 2백 장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각림사의 중창과 부처에게 폐백을 올리고 각림사의 중들에게 물품을 하사한 것 역시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글을 읽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음이 『태종실록』에는 강조되어 있다.

한편 각림사가 중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각림사의 승도(僧徒)들이 전세(田稅)를 후하게 거두어 문제가 되었다.

명하기를 원주목사(原州牧使)에게 각림사(覺林寺) 중이 수조(收租)한 일을 핵문(覈問)하지 말게 하였다. 원주 각림사(覺林寺) 주지(住持) 석휴(釋休)가 와서 아뢰었다. “완우(頑愚)한 승도(僧徒)들이 신이 서울에 나아갔을 때, 전세(田稅)를 후하게 거두어서 전객(佃客)이 관(官)에 고소하였고, 또 요역(徭役)도 다단(多端)합니다.” 승정원에 명하여 원주(原州)에 치서(馳書)하기를, “후하게 거두어들인 일은 핵문하지 말라.”하고, 이어 요역을 건감(蠲減)하였다.<sup>182)</sup>

즉 각림사에서는 소작인에게 정해진 전세(田稅) 이외에 더 많이 거두어들여서, 이에 불만을 가진 소작인이 각림사의 중들을 원주관아(原州官衙)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각림사는 원주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원주의 지방행정 책임자였던 원주목사(原州牧使)는 이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고, 소작인에게 과도하게 전세를 거둔 각림사의 승도들을 처벌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에 당시 각림사의 주지였던 석휴(釋休)가 태종에게 와서 아뢰기를 ‘어리석은 승도들이 자신이 서울에 가서 없을 때 전세를 후하게 거둔 것’이라고 변명하였고, 이와 함께 각림사 승려들에 대한 요역(徭役)도 많다고 호소한 것이다. 당시 각림사의 주지는 석휴라고 나타나는데, 석휴는 태종 이방원이 각림사에서 수학할 때 태종 이방원을 보살폈던 스님이었다. 석휴는 석초 다음의 각림사 주지로 생각된다. 석휴의 각림사 주지 임명은 석휴와 태종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역시 태종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재가가 있었을 것이다.

18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10월 17일 己巳.

태종은 자신과 오랜 인연이 있었던 각림사의 주지 석휴가 직접 와서 원주목사의 각림사에 대한 조사를 호소하고, 또 각림사 중들에 대한 부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자,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원주목사에게 각림사가 전세를 후하게 거두어 들인 일은 그 실정을 조사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림사 중들에 대한 부역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태종이 원주목사에게 각림사의 중들이 수조(收租)한 일의 조사를 중지시키고, 더불어 요역을 건감(蠲減)하게 한 일을 통해 자신이 어릴 적 공부하였던 각림사에 대해 각별한 대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태종은 각림사의 주지였던 석초와 석휴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각림사의 중창(重創) 역시 태종의 후원과 지원 아래 이루어졌으며, 중창 후 중관(中官)을 보내어 여러 물품을 수여하고, 각림사에 대한 고소 사건 문제 처리 및 요역의 감면 등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태종은 각림사가 중창된 2년 뒤인 1414년(태종 14)에는 각림사에 직접 행차하기도 하였다.

## 2. 태종의 횡성(橫城) 강무(講武)와 각림사 행차(行次)

태종이 처음 각림사에 행차한 것은 강무(講武)와 관련해서이다. 강무란 국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정 지역에 출동, 그 지역에서 사냥하고 복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지만, 국왕의 사냥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동원된 사람들이 일정한 명령 체계를 유지하며, 사냥을 위해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군사 훈련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sup>183)</sup> 강무의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로, 강무는 전근대 시기 국왕의 주도 아래 시행되었던 대규모 국가행사로 군사 훈련과 사냥을 통해 이루어졌다.<sup>184)</sup> 강무는 사냥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군사 훈련의

183) 이현수,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軍史』 45, 2002, 235쪽.

184) 이규철, 「역사 속의 메가 이벤트-조선시대 강무(講武)」,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하계학술대회, 2018, 3쪽.

성격이 강하였고, 국왕이 주체가 되어 위엄있게 치리진다면 그만큼 국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강했다.<sup>185)</sup>

강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태종이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던 1403년(태종 3) 이후부터였고, 그 다음해 봄부터는 매년 강무를 시행하였는데, 강무의 시기는 농사철을 피하고 추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봄과 가을로 정하였다.<sup>186)</sup> 태종은 태조의 상중(喪中)이었던 2년간(태종 8년과 9년)을 제외하고는 즉위 3년째부터 거의 매년 봄과 가을에 강무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 지휘체계를 점검하며, 지방 수령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민심을 살피는 기회로 활용하였다.<sup>187)</sup>

태종의 강원도에서의 강무는 1406년(태종 6) 가을에 강원도 철원(鐵原)과 평강(平康)에서, 1412년(태종 12) 봄에는 철원에서, 1414년(태종 14) 봄에는 다시 김화(金化)와 평강에서 실시된 바가 있었다. 1414년 가을에 이루어진 태종의 ‘횡천(橫川)<sup>188)</sup> 강무’는 횡성에서 열린 최초의 강무로, 횡성을 단일 지역으로하여 시행되었으며, 윤9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태종의 ‘횡천 강무’는 1414년 가을에 처음 실시되었지만, 앞서 강무의 상소(常所)를 정할 때 태종이 태안·해주·횡천·광주 등지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아, 횡성 지역이 강무로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태종은 실제로 1413년(태종 13) 10월에는 양근(楊根)·지평(砥平)·횡천(橫川) 등지에 사렵(私獵)을 금지하라고 명하였고,<sup>189)</sup> 대호군 이군실(李君實)에게 양근·지평·홍천(洪川)·횡천에 가서 금수(禽獸)의 많고 적음을 살피게 하였다.<sup>190)</sup> 이후 11월에는 다시 양근·원주(原州)·횡천 등지에 사렵(私獵)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하였으며,<sup>191)</sup> 총제(摠制) 유은지

185)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0, 2009, 226쪽.

186) 이현수,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軍史』 45, 2002, 236쪽.

187) 이현수, 위의 논문, 2002, 241쪽.

188) 횡성(橫城)의 옛 이름으로 1416년(태종 16) 횡천(橫川)에서 횡성(橫城)으로 바꾸었다(『태종실록(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8월 10일 己巳).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1414년(태종 14)에 횡천과 홍천(洪川)이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횡성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세종실록(世宗實錄)』 권153, 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원주목(原州牧) 횡성(橫城);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강원도(江原道) 횡성현(橫城縣) 건치연혁(建置沿革)).

18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0월 10일 丙辰.

19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0월 21일 丁卯.

19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1월 6일 壬午.

(柳殷之)·대호군(大護軍) 이군실(李君實) 등에게 명하여 원주·횡천 등지에 가서 강무장(講武場)을 조사하게 하였다.<sup>192)</sup>

1414년(태종 14) 1월에도 총제 유은지와 대호군 조치(趙蓄)를 강원도에 보내어 사냥할 장소를 살피게 하는 동시에 횡천현감(橫川縣監)에게 '내가 장차 강무하려고 하니, 네가 그 해동(解凍)할 때에 기후와 짐승의 많고 적음을 살피고, 평지(平地)의 넓고 좁음을 헤아려서 가급적이면 2월 보름 전에 와서 보고하도록' 전지(傳旨) 하였다.<sup>193)</sup> 그리고 거듭 횡천 등지의 사렵을 금지하라고 명하였으며,<sup>194)</sup> 그해 8월에는 원주·횡천의 주민들에게 나무 베는 일을 중지시키면서 '강원도가 비록 먼 길이라 하더라도 원주·횡천이 서울과의 거리가 겨우 6·7식(息) 정도이니 이제 가고자 하므로, 그곳의 행랑(行廊)에 작목(斫木)하는 역사를 면제하여 강무의 행차에 이바지하게 하라'<sup>195)</sup>고 하여 추등강무(秋等講武)를 원주·횡성 지역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대호군 이군실(李君實)과 호군(護軍) 지함(池含)을 강원도 횡천에 보내어 강무할 곳의 풀을 베게 하였다.<sup>196)</sup> 이를 통해 태종은 사실상 횡성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지역 추등강무(秋等講武)를 확정하였다.

이윽고 태종은 1414년 윤9월 3일(계묘)에 강원도 횡성에서 강무하였는데, 오로지 지신사(知申事) 이관(李灌)·좌대언(左代言) 유사눌(柳思訥)만이 따라갔고, 2품 이상도 또한 2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시위(侍衛)하고 지응(支應)하는 여러 가지 일도 모두 간략하게 하였다.<sup>197)</sup> 태종은 '폐(弊)가 농민에게 미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당시 군기감(軍器監)에 소속한 잡색군정(雜色軍丁) 시위군(侍衛軍)의 대장(隊長)·대부(隊副), 경기의 당령선군(當領船軍)·재인(才人)·화척(禾尺)을 징발하여 구군(驅軍), 즉 몰이꾼으로 충당하는데, 모두 5천 명이었다.

태종은 횡성에서 사냥한 짐승들을 말을 달려서 보내어 종묘(宗廟)에 먼저 올리게 하고, 사방지신(四方之神)에게 날짐승으로 제사지내게 하였고,<sup>198)</sup> 양근(楊根)의

19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11월 24일 庚子.

19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1월 8일 癸未.

19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1월 24일 己亥.

19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5일 乙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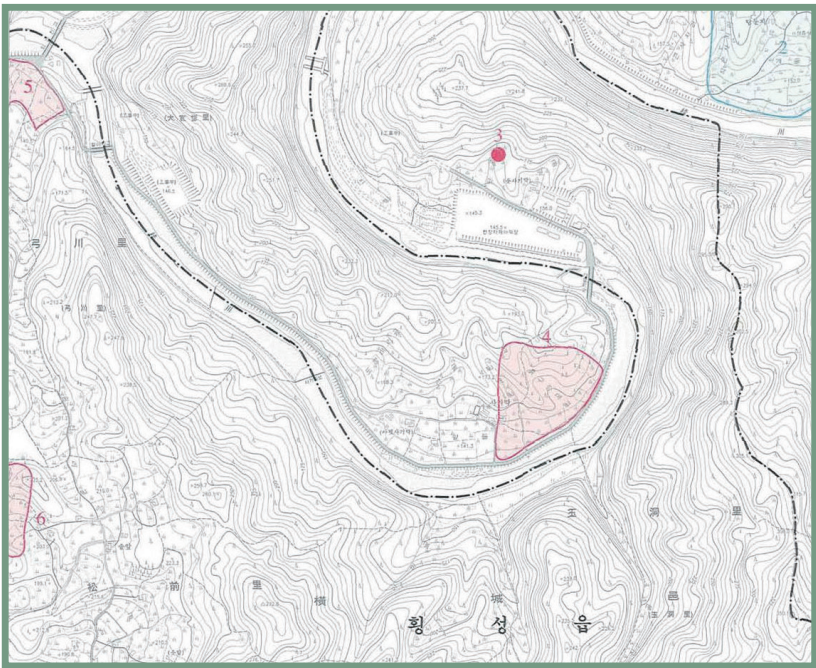
19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9월 10일 庚辰.

19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3일 癸卯.

19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4일 甲辰.

성황신(城隍神)과 용문산(龍門山)의 신(神)에게도 제사지냈다.<sup>199)</sup>

그리고 태종은 강무를 하던 중 그해 윤9월 7일에는 횡천(橫川) 사기소(砂器所)에 머물렀다.<sup>200)</sup> 횡천 사기소에서 수종(隨從)한 신하와 군사(軍士)들에게 5일간의 식량을 주었는데, 이때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이안우(李安愚)가 말 1필과 매 3련을 바쳤고,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이승간(李承幹)이 사냥개(田犬)를 바쳤다. 이 사기소는 현재 ‘횡성 대관대리(橫城 大官垞里) 가마터(대관대리 요지 [窯址] 또는 대관대리 사기막, 갑천면 대관대리 25번지)’일 가능성이 높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편(砂器片)이 발견되었고, 각종 자기편(磁器片)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sup>201)</sup>



〈횡성 대관대리(大官垞里) 가마터 분포도(4번으로 표시된 부분)〉<sup>202)</sup>

19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6일 丙午.

20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7일 丁未.

201) 강원도·횡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361쪽;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311쪽.

202)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143쪽.

특히 이곳에서는 도로와 민간 사이의 축대 사이사이에서 인화문분청사기편(印花文粉靑沙器片)과 접시, 발(鉢), 그리고 원통형도지미 등이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모두 조선 전기인 15세기에 흔하게 출토되는 기종들이다.<sup>203)</sup>

태종의 어가(御駕)는 이틀 뒤인 윤9월 9일에 횡천(횡성) 화동(禾洞)에 이르렀는데,<sup>204)</sup> 화동은 현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屯內面) 화동리(禾洞里)이다. 4일 뒤인 윤9월 13일에 돌아와서 횡천(횡성) 실미원(實美院)에 머물렀는데, 태종의 말이 뛰는 바람에 태종이 떨어졌으나, 다치지지는 않았다.<sup>205)</sup> 실미원은 횡성현(橫城縣)의 동쪽 50리에 있었는데<sup>206)</sup> 현재 횡성군 안흥면(安興面) 안흥리(安興里)이다.<sup>207)</sup> 태종이 실미원에 머물렀던 날 구군(驅軍), 즉 몰이꾼을 풀어주었는데, 양식(糧食)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sup>208)</sup>

그리고 태종은 다음날인 윤9월 14일 각림사에 행차하였다. 각림사에 행차한 것은 실미원에서 머물며 몰이꾼들을 풀어준 이후였는데, 결국 강무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행차하였으니, 옛날 잠저(潛邸) 때 공부하던 곳이였다. 절의 중에게 채단(綵段)·홍초(紅綃)를 각각 3필씩 내려 주고,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고, 전지(田地) 1백 결(結)과 노비(奴婢) 50구(口)를 더주고, 절의 노비 등에게 쌀과 콩 아울러 30석을 내려 주었다.<sup>209)</sup>

태종이 각림사에 행차한 것은 1414년(태종 14)으로, 각림사가 중창된지 2년 만의 일이었다. 태종의 각림사 행차 이유는 역시 잠저 때 공부하던 곳이였기 때문

203)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311쪽.

20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9일 己酉.

20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3일 癸丑.

20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강원도(江原道) 횡성현(橫城縣) 역원(驛院).

207) 안흥면(安興面)은 본래 실미원(實美院)의 이름을 따서 실미면(實美面)이라 하였다가, 조선시대에 정곡(井谷)의 이름을 따서 정곡면(井谷面)으로 개명되었다. 이후 1937년 안흥역(安興驛)의 이름을 따서 안흥면으로 불렀다. 안흥면 안흥리에는 실미원지(實美院址)가 있다(강원도·횡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360쪽).

20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3일 癸丑.

20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4일 甲寅.

이었다. 태종은 각림사에 행차하여 각림사의 중에게 채단과 홍초 각 3필, 쌀과 콩 1백 석을 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지(田地) 1백 결과 노비(奴婢) 50명을 더 주었으며, 아울러 절의 노비 등에게도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였다.

태종이 강무할 때 각림사에 행차했던 사실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확인된다.

- 각림사(覺林寺, 치악산 동쪽에 있는데, 고을에서 40리 거리이다. 선종(禪宗)에 붙이었고, 전지 3백 결(結)을 주었다.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 때 글을 읽던 곳이다. 일찍이 황성에서 강무(講武)하다가, 이 절에다 연(輦)을 머무르고, 고로(古老)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절에 밭과 노비를 주고,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세금을 면제하여 구휼하게 하였다.<sup>210)</sup>
- 각림사(覺林寺, 치악산의 동쪽에 있다.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여기서 글을 읽었다. 뒤에 황성에서 강무(講武)할 때, 임금의 수레를 이 절에 멈추고 고로(古老)들을 불러다 위로하였다.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고을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구휼하게 하였다.<sup>211)</sup>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태종이 황성에서 강무할 때 각림사에 행차하였고, 특히 각림사에 행차하였을 때 고로(古老)들을 불러 위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로들은 역시 태종이 각림사에서 수학할 때 어린 태종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태종은 각림사에 대해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고을 관원으로 하여금 각림사에 대한 조세 및 부역 등을 면제하고 구휼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계속해서 『관동지(關東誌)』, 『원주읍지(原州邑誌)』, 『여지도서(輿地圖書)』, 『강원도지(江原道誌)』 등의 읍지(邑誌)나 지리지(地理志)에 계속해서 쓰여졌다.<sup>212)</sup>

21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53, 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원주목(原州牧).

21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강원도(江原道) 원주목(原州牧) 불우(佛宇).

212) 『관동지(關東誌)』 권1, 원주(原州) 사찰(寺刹) 각림사(覺林寺); 『원주읍지(原州邑誌)』 불우(佛宇); 『여지도서(輿地圖書)』 원주(原州) 사찰(寺刹); 『강원도지(江原道誌)』 권5, 사찰(寺刹) 영월(寧越).

태종이 조선의 개국 이후, 또 자신의 즉위 이후 각림사에 직접 행차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또한 1403년(태종 3)부터 봄과 가을의 강무를 실시한 이래 황성에서의 강무 역시 이때가 처음이었다. 특히 태종은 황성 지역에서 강무를 실시하면서, 강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림사를 방문하였다. 결국 태종의 황성 강무 실시는 마지막 일정으로 태종의 각림사 행차를 이미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태종은 어렸을 때에 각림사에서 수학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각림사 주지(住持)인 석초·석휴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각림사의 중창은 태종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각림사 중창 후 황성에서의 강무가 처음 실시되면서 강무의 마지막에는 태종의 각림사 방문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각림사의 중창 이후 태종이 직접 각림사에 행차한 것은 태종의 각림사에 대한 대우가 매우 특별하였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림사에 행차했던 태종은 같은 날인 윤9월 14일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치악산(雉岳山)의 신(神)에게 제사지내고, 호종(扈從)한 신하와 군사(軍士)들에게 3일 양식(糧食)을 주었다.<sup>213)</sup> 태종은 윤9월 15일에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여강(驪江)의 신(神)에게 제사지냈는데<sup>214)</sup> 이를 보아 태종의 어가(御駕)는 남한강(南漢江)의 여주(驪州)에 머물렀던 것 같다.<sup>215)</sup> 이후 윤9월 18일에는 어가(御駕)가 경기도 광주(廣州) 동정(東亭)에 머물렀다가<sup>216)</sup> 윤9월 19일 환궁(還宮)하였는데, 태종은 이번 행차에 사슴 11마리와 노루 3마리를 쏘았다고 한다.<sup>217)</sup> 이로써 1414년(태종 14) 윤9월 3일부터 19일까지 황성에서 이루어진 태종의 추등 강무는 마무리되었다.

21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4일 甲寅.

21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5일 乙卯.

215) 여강(驪江)은 여주(驪州)를 흐르는 강이라 하여 붙여진 남한강(南漢江)의 이름이다.

21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8일 戊午.

21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9일 己未.



### 3. 태종의 강무소(講武所) 지정과 각림사

1415년(태종 15) 태종이 춘등(春等) 강무를 시행하려 하자, 사간원(司諫院)의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이맹균(李孟詢)은 상소하여 강무를 정지하도록 청하였다.<sup>218)</sup> 이맹균은 태종이 1413년(태종 13) 봄에는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에서, 가을에는 전라도(全羅道) 임실(任實)에서, 1414년(태종 14) 봄에는 강원도 횡천(橫城)에서 강무를 하여 경기도(京畿道) 이외의 지방에서 수렵하는 일이 해마다 잦았다고 하였고, 그 음식을 이바지하고 군량을 운송하느라고 백성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는 자도 간혹 있었다(其供億飛輓之際, 民之蹙額者)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재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아 금년에 흉년이 들 것을 알 수 있으니 몸을 돌이켜 반성하고 백성을 긍휼(矜恤)히 여겨야 할 때라며 강무를 권도(權道)로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태종은 이맹균의 상소 내용 중 ‘백성들이 이맛살을 찌푸린다(민유蹙額(民有蹙額))’는 말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다. 즉 태종은 ‘이맛살을 찌푸린다’고 한 것에 대해 ‘후세의 사람으로 이 사실을 보게 한다면 어찌 봄·가을의 강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만 하겠느냐’며 자신이 강무하는 것에 대해 후세에 이 말 때문에 잘못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태종은 봄·가을의 강무에 모두 대언(代言)들을 데리고 갔음에도 그때는 대간(臺諫)들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종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를 내려 강무소(講武所)를 정하게 된다.

강무소(講武所)를 정하였다. 병조에 전지를 내리기를, “충청도의 순재곶(專堤岬) 내와 전라도의 임실(任實)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하지 말고,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게 하라. 강원도의 평강(平康)·횡천(橫川)·이천(伊川)

21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1월 18일 丁巳.

· 평창(平昌)·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실미원(實美院) 등지와 풍해도(豐海道)의 우봉(牛峯)·대둔산(大芻山)과 경기(京畿)의 임강(臨江)·수회(水回)·마성(馬城)·장단(長湍)·칠장(七牆)과 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곳이[筈井申]·덕련동구(德連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지하여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sup>219)</sup>고 하였다.

처음에 강무장은 일정한 곳이 없어서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경기도(京畿道) 양주(楊州)·마전(麻田)·광주(廣州)·금천(衿川)·부평(富平), 강원도(江原道) 횡성(橫城)·평강(平康), 충청도(忠淸道) 태안(泰安), 전라도(全羅道) 임실(任實) 등 전국 각지에서 강무가 행해졌다.<sup>220)</sup>

1414년(태종 14)에 대간(臺諫)에서 ‘강무(講務)는 마땅히 일정한 장소를 정(定)해야 하며 삼가 먼 곳으로 행행(行幸)하지 마소서’라는 청을 들고 태종은 ‘옛날 인군(人君)이 세 곳을 정하였으니, 만약 일정한 장소를 정한다면 충청도·풍해도(황해도)·강원도로써 장소를 정하겠다’고 한적이 있었다.<sup>221)</sup>

그리고 육조판서(六曹判書)·대간(臺諫)·참찬(參贊) 이숙번(李叔蕃) 등을 불러서 강무(講武)할 장소로 태안(泰安)·해주(海州)·횡천(橫川)·광주(廣州) 등지를 상소(常所)로 정하여 강무할 장소로 삼도록 의논하기도 하였지만, 모두 ‘강무하는 장소를 반드시 정할 것이 없다’고 하여 이를 중지한 바 있었다.<sup>222)</sup> 그렇지만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재차 강무(講武)의 장소를 정하도록 상소하였는데, 사간원에서는 강무의 장소를 경기도로 한정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sup>223)</sup>

1415년(태종 15) 태종이 병조에 전지를 내려 강무소(講武所)를 정한 것을 보면, 우선적으로 충청도의 순제곳이 나와 전라도의 임실 등지는 사렵을 금지하지 말고

21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2월 3일 辛未.

220) 이현수, 앞의 논문, 2002, 237쪽.

22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3월 15일 戊子.

22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26일 丙寅.

22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30일 庚午.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여 사실상 이곳들에서 강무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즉 앞서 사간원(司諫院)에서 강무의 장소를 경기도로 한정할 것을 주장한 것과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이맹균(李孟晫)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너무 먼 거리의 곳은 강무소에서 배제한 것이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평강·횡천(횡성)·이천·평창·강릉의 진보·방림·대화와 원주의 각림사·실미원 등지, 풍해도(황해도)의 우봉·대둔산, 경기의 임강·수회·마성·장단·칠장, 유후사(留後司)<sup>224)</sup>의 태정곶이·덕련동구·안협·광주·양근 등지는 사립을 금지하여 강무하는 장소로 하도록 하였다. 즉 경기도 이외더라도 경기도와 가깝고 강무를 이미 시행하여 강무하기 적당한 장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너무 먼 충청도와 전라도는 강무소에서 제외시키고, 경기도 이외라 할지라도 경기도와 가까운 곳은 강무소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태종이 강무소로 정한 곳에는 횡천(횡성) 지역과 각림사·실미원 등지가 있음이 주목된다. 태종은 1년 전인 1414년(태종 14) 가을에 횡성에서 강무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때 실미원에서 머무르고, 각림사에 행차한 적이 있었다. 또한 각림사의 경우는 실제 강무가 행해지는 장소라기보다는 사찰이다. 즉 각림사는 강무소(講武所)인 횡성 지역 안에 있는 사찰이며, 강무소를 정하면서 각림사가 언급된 것은 태종이 횡성에서 강무할 경우 자신이 수학했던 각림사에 갈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태종은 1415년(태종 15) 춘동강무를 해주(海州)로 다녀와서는 해주곶이(海州串) 안의 땅을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허락하라고 명하였다.<sup>225)</sup> 태종은 곶이(串) 안의 강무(講武)하는 곳은 땅이 기름져서 일찍이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명했으며, 오늘날 벌써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일세(一世)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세(萬世)의 이익이 될 것이므로 새나 짐승들이 사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경작하는 것이 좋겠다며 빨리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 살게 하라고 하였다.

224) 조선 초기, 개성(開城)을 통치하기 위하여 두었던 지방 관청.

22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5월 27일 癸亥.

그리고 태종은 재차 풍해도(황해도)와 충청도에 공문을 보내 해주곶이 내와 순제(尊堤) 등처에 백성들이 들어가 경작하도록 허용하고,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게 하였으며, 또한 사냥할 일정한 장소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였다.<sup>226)</sup> 이에 판서(判書)와 대언(代言) 등은 강원도 횡천(횡성)과 진보(珍寶)로 한 장소를 삼고, 풍해도(황해도) 평산(平山)과 영봉(迎鳳)을 한 장소로 삼을 것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태종이 영봉이 해주곶이 내에서 거리가 멀지 않다고 반대하여 다른 곳을 정하게 하여 안협(安峽)과 평강(平康)으로 한 장소를 삼아, 경기우도(京畿右道)를 아울러 사렵(私獵)을 금하고, 횡천(횡성)과 방림(芳林)을 한 장소로 삼아, 양근(楊根)·광주(廣州)·풍양(豊壤)·포천(抱川)·장단(長湍)·임강(臨江)도 아울러 사렵(私獵)을 금하였다. 결국 당시 황해도 안협과 평강, 강원도 횡천(횡성)과 방림, 두 곳이 상설(常設) 강무소(講武所)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414년(태종 14) 태종이 횡성에서 처음 강무를 행한 이래, 이후 강무소를 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횡성을 그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횡성 강무 때에 방문하였던 각림사와 실미원을 언급하였으며, 마침내 1415년(태종 15)년 강무의 상소(常所)를 대신들과 공식적으로 정하면서 횡성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횡성에서 강무를 하게 되면 다시 각림사 등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4. 1415년(태종 15) 가을 강무와 횡성

1415년(태종 15) 8월 태종은 원주(原州)·평창(平昌)·횡성(橫城)·낭천(狼川)·홍천(洪川)의 조세를 운반하여 납부하지 말고 각각 본 고을에 거두어 축적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는 강무(講武)의 행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27)</sup> 당시 강무를 정지하라는 진언(陳言) 등이 있자, 태종은 ‘내가 본래 횡성(橫城) 등지에서 강무하고자

22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6월 17일 壬午.

22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8월 20일 甲申.

하지 않았다. 경기도 양근(楊根) 등지에 나가서 4~5일이면 족하다고 하였다.<sup>228)</sup> 또한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대간(臺諫)들의 강무 정지 청원은 계속되었다.<sup>229)</sup> 그렇지만 태종은 그해 9월 25일 강원도에서의 강무를 시행하는데,<sup>230)</sup> 이때 강무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2일로 총 18일간이었다.

태종은 서울의 용진(龍津)을 거쳐, 경기도 양근(楊根)과 용문산(龍門山)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sup>231)</sup> 9월 28일에는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치악산(雉岳山)의 신에게 제사한 것으로 미루어 이날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雉嶽山)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32)</sup> 다음날인 9월 29일에는 강릉(江陵) 대화역(大和驛) 서쪽 들에 머물렀으며,<sup>233)</sup> 10월 1일에는 미면산(米面山)에서 물이하여 날짐승 50여 마리를 잡아 대가(大駕)를 따르는 인원에게 나누어 주었다.<sup>234)</sup> 10월 3일에는 어가(御駕)가 진보역(珍寶驛) 남쪽에 이르렀고,<sup>235)</sup> 7일에는 돌아오다가 방림역(芳林驛) 동쪽 들에 머물러서 종친(宗親)과 도진무(都鎭撫)·대언(代言) 등에게 술자리를 베풀기도 하였다.<sup>236)</sup>

그리고 10월 9일에는 횡성(橫城) 실미원(實美院) 들에 머물러서 물이꾼을 놓아 보냈다.<sup>237)</sup> 당시 동원된 물이꾼의 수는 강원도(江原道)가 4천 4백 명, 충청도(忠淸道)가 1천 명, 모두 5천 4백 명이였다.<sup>238)</sup> 이후 10월 12일 환궁(還宮) 함으로써 강무를 끝마치게 되었다.<sup>239)</sup>

1415년(태종 15)에 이루어진 강무는 주로 오늘날의 평창과 강릉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강무장으로 이동하면서 태종은 원주의 치악산을

22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8월 25일 己丑.

22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9월 19일 癸丑; 21일 乙卯.

23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9월 25일 己未.

23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9월 25일 己未; 26일 庚申.

23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9월 28일 壬戌.

23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9월 29일 癸亥.

23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10월 1일 乙丑.

23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10월 3일 丁卯.

23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10월 7일 辛未.

23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10월 9일 癸酉.

23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9월 29일 癸亥.

23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10월 12일 丙子.

경유하였고, 돌아올 때는 횡성을 거쳐서 환궁하였다. 특히 횡성의 실미원은 1414년(태종 14) 강무 때에 머물렀던 곳이며 각림사와는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태종이 각림사에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1415년에 횡성 지역을 강무소로 정한 이후 자신이 수학하였던 각림사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 치악산과 횡성의 실미원을 2년에 걸쳐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종은 1415년(태종 15) 가을 강무 때 원주의 치악산과 횡성의 실미원을 경유한 이후, 1416년(태종 16) 3월에는 횡성(橫城)의 화동(禾洞)과 선암(扇巖) 등지에서 밭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게 하면서,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강무장(講武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때에 이접(移接)시키되, 만약 철이 늦어 이사하기에 곤란한 자는 아직 그대로 살게 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리기도 하였다.<sup>240)</sup>

또 1416년 5월에는 병조(兵曹)와 의정부(議政府)·삼공신(三功臣)·제조(諸曹)·삼군도총제(三軍都摠制)·예문관(藝文館)·대간(臺諫)에서 같이 의논한 것을 받아들여 강무장(講武場)을 세 곳으로 정하였다.<sup>241)</sup> 즉 충청도의 태안(泰安), 강원도의 횡천(橫川)과 평강(平康) 등 세 곳을 정하여 3소(三所)로 삼고, 그 나머지 각처는 백성들이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다음 달인 6월에 태종은 태안과 해주(海州)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農耕)을 허용할 만하다는 이유로 태안의 강무소(講武所)를 폐하고, 강무소(講武所)는 횡천(橫川)·평강(平康)·평산(平山) 등지와 작천(鵲川) 이동으로써 영구히 상소(常所)로 삼으라고 명하였다.<sup>242)</sup>

그리고 다시 7월에는 경기(京圻) 안에 강무할 일정한 장소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면서 미원(迷原)·양주(楊州)·가평(加平)·조종(朝宗)·영평(永平) 등지로 한 곳을 삼고, 평강(平康)·철원(鐵原)·안삭(安朔) 등지로 한 곳을 삼고, 임강(臨江)·우봉(牛峰)·송림(松林)·개성(開城)·해풍(海豐)·강음(江陰) 등지로 한 곳을 삼고, 횡성

24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3월 9일 辛丑.

24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5월 20일 辛亥.

24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6월 26일 丙戌.

(橫城) 등지로 한 곳을 삼아 일정한 장소로 정하여 풍흉(豐凶)을 따라 서로 강무하며, 사렵(私獵)을 금지하도록 하였다.<sup>243)</sup> 요컨대 태종은 경기도 안에도 강무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원·양주·가평·조종·영평 등지의 한 곳, 평강·철원·안산 등지의 한 곳, 임강·우봉·송림·개성·해풍·강음 등지의 한 곳, 횡성 등지의 한 곳 등 총 4곳의 강무소를 정한 것이다. 또한 8월에는 강무장에 경계를 정하여 표(標)를 세우도록 하였지만,<sup>244)</sup> 9월에는 강무(講武)하는 장소에 곡식을 경작하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기도 하였다.<sup>245)</sup>

이처럼 태종 때 강무장을 정하면서 그 대상 지역은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횡성 지역의 강무장은 항상 빠짐없이 태종의 강무장으로 선정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태종의 횡성에서의 강무와 각림사 방문 이후 횡성 지역은 태종의 강무장으로 확정되어 온 것이다.

## 5. 태종대(太宗代) 각림사의 재중창(再重創)

조선의 개국 이후 각림사는 1412년(태종 12)에 중창되었고, 태종은 1414년(태종 14) 윤9월에 횡성 지역에서 강무를 하면서 각림사에 직접 행차하였다. 1415년(태종 15) 2월에는 태종이 직접 강무소(講武所)를 정하면서 각림사와 실미원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6월에는 다시 강무소를 정하면서 횡성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그해 가을 평창과 강릉에서 강무를 행하면서는 원주 치악산과 횡성의 실미원을 경유하였다.

이후 1416년(태종 16) 4월에 태종은 각림사의 중창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

24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7월 5일 甲午.

24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8월 21일 庚辰.

24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9월 5일 癸巳.

- 명하여 철(鐵) 1천 근(斤)을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주니, 사승(寺僧)으로서 중창(重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sup>246)</sup>
- 강원도(江原道)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명하여 각림사(覺林寺)를 중창(重創)하는 재목(材木) 1천 주(株)를 주고, 도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폐단없이 운반하여 들이도록 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본궁(本宮)의 쌀·콩 합하여 1백 석을 군자감(軍資監)에 바치고, 충청도(忠淸道) 제천(堤川) 창고의 쌀·콩을 바꾸어 각림사(覺林寺)에 주라.”하였다.<sup>247)</sup>

즉 태종은 각림사에 철(鐵) 1천 근을 주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은 절의 중들이 중창(重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각림사는 1412년(태종 12)에 이미 중창한 바 있으므로, 이는 재중창(再重創)이라고 할 수 있다. 각림사의 재중창에 대한 지원은 태종이 1414년(태종 14) 횡성 지역에서 강무를 하면서 각림사에 행차한지 2년 뒤의 일이었다. 또한 1415년(태종 15) 평창과 강릉 지역에서 강무를 행하면서 원주의 치악산과 횡성의 실미원을 경유한지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이 각림사의 중창을 지원한 것은 절의 중들이 중창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태종이 무려 철 1천 근을 주도록 명한 것을 보면, 각림사의 재중창 역시 태종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태종은 4개월 뒤인 1416년(태종 16) 8월에는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명하여 각림사를 중창하는 재목(材木) 1천 주(柱)를 주도록 명하였고, 이 1천 주의 재목을 강원도 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폐단 없이 운반하여 들이도록 하였다. 즉 태종은 각림사의 중창을 위하여 강원도의 재목 1천 주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강원도 군현에 골고루 나누어 마련하고, 재목의 운반 역시 강원도 도관찰사의 책임 아래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태종은 각림사에 철 1천 근과 재목 1천 주를 주도록 하여 각림사의 재중창을 적극 지원한 것이다.

24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4월 28일 庚寅.

24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8월 23일 壬午.



그리고 본궁(本宮)의 쌀·콩 1백 석을 군자감에 바치고, 충청도 제천 창고의 쌀·콩을 바꾸어 각림사에 주도록 하였다. 즉 본궁의 쌀·콩 1백 석을 군자감에 주고, 군자감이 가지고 있는 제천 창고의 쌀·콩 1백 석을 서로 바꾼 것인데, 이는 각림사와 가까운 제천의 군자감 창고에서 각림사에 쌀·콩을 먼저 주도록 한 조치였다.

이렇듯 각림사는 태종의 지원으로 재증창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1417년(태종 17) 4월에 각림사는 재증창이 이루어져 낙성(落成)되었다.<sup>248)</sup>

## 6. 태종의 횡성 강무와 각림사 재행차(再行次) 논란

태종은 각림사가 낙성되기 전, 즉 증창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각림사에 대한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각림사는 1417년 4월에 낙성되었으므로, 그해 2월 말이면 재증창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아마도 태종은 각림사의 증창과 관련된 진행 사항을 확인받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각림사의 증창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별도의 시간을 내어 각림사에 방문하는 것은 신료들이 반대할 것이므로, 각림사가 완전히 증창되진 않았어도 춘등강무(春等講武)를 대신해서 각림사에 갈 계획을 가졌던 것 같다. 이에 태종은 의정부(議政府)와 대간(臺諫)과 횡성 지역에서의 춘등강무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sup>249)</sup>

그렇지만 태종의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신료들의 반대가 시작된 것 같다. 먼저 의정부의 좌의정(左議政) 박은(朴崧)·우의정(右議政) 한상경(韓尙敬)이 강무할 곳을 올렸는데, 충청도 순성(尊城)<sup>250)</sup>을 춘등강무장(春等講武場)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을 추등강무장(秋等講武場)으로 청한 것이다.<sup>251)</sup>

24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4월 2일 戊午.

24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己未.

250) 충청남도(忠淸南道) 태안(泰安)의 옛 지명.

25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己未.

의정부 좌의정 박은(朴堧)·우의정 한상경(韓尙敬)이 강무할 곳을 올렸는데, 사인(舍人) 심도원(沈道源)을 시켜 아뢰기를, “충청도 순성(尊城)을 춘등강무장(春等講武場)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橫城)을 추등강무장(秋等講武場)으로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횡성은 곧 전일(全日) 정부(政府)와 대간(臺諫)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곳인데, 그때에는 어찌 한 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았느냐? 또한 지금은 강무한다는 명령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내느냐? 나더러 각림사(覺林寺)에 간다고 핑계하여 강무하라는 말이나? 내 어찌 강무하고자 했겠느냐? 그러나, 강무는 옛 제도(古制)인 것이다. 만일 강무하는 것을 그르다고 한다면, 이 앞서 강무하였을 때에 여러 재상과 대간이 어찌하여 저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곧 임금의 악(惡)을 조장하는 것이다. 원주(原州)의 각림사는 내가 나이 어렸을 적에 유학(遊學)한 곳이므로, 사우(寺宇)와 산천(山川)이 매양 꿈속에 들어오는 까닭에, 한 번 가보고 싶었을 뿐으로 애초부터 부처를 위함은 아니었다. 만약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간다면, 반드시 ‘이를 핑계 삼아 강무한다.’ 할 것이니, 모름지기 눈이 쌓였을 적에 가야겠다.”<sup>252)</sup>

태종은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한상경의 청(請)에 대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나타난다. 태종이 노한 이유는 이미 전일에 의정부와 대간이 함께 의논하여 횡성을 춘등강무장으로 정할 때에 신료들이 반대하지 않다가 갑자기 뒤늦게 충청도 순성을 춘등강무장으로, 강원도 횡성을 추등강무장으로 하도록 청하였기 때문이다.

추측하건대, 대신들은 태종이 각림사의 중창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강무를 겸해 각림사에 행차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들은 태종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춘등강무를 횡성으로 정하였지만, 각림사의 중창 중에 태종이 각림사에 행차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횡성에서의 강무를 가을로 미루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종은 ‘나더러 각림사에 간다고 핑계하여 강무하라는 말이나? 내 어찌 강무하고자 했겠느냐?’며 강무보다는 각림사에 가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5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己未.

즉 강무를 핑계로 각림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하여 태종이 각림사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태종이 말한것처럼 ‘각림사는 내가 나이 어렸을 적에 유학한 곳이므로 사우와 산천이 매양 꿈속에 들어오는 까닭에 한 번 가보고 싶었을 뿐으로 애초부터 부처를 위함이 아니었다’고 하여 각림사는 어렸을 때 자신이 공부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어 가는 것이지 결코 부처를 숭상하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또한 ‘만약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간다면 반드시 이를 핑계로 강무한다할 것이니 모름지기 눈이 쌓였을 적에 가야겠다’며 각림사 행차를 강행할 뜻을 피력하였다.

태종이 노하자,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한상경은 직접 예궐(詣闕)하여 태종이 지난 1416년(태종 16) 가을에 평창 지역에서 강무를 행한 것을 말하고, 다시 1417년(태종 17) 봄에 횡성 지역에서 강무한다면 한 도내(道內)를 일 년에 두 번씩 가는 것이라서 민력(民力)이 근고(勤苦)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농사에도 방해가 될 것이므로 봄의 강무를 충청도 태안으로 하면 백성들의 고되고 혈함이 서로 균등하게 하는 뜻이 있게 되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폐단이 없게 하려는 염려에 합당할 것이라 여겼다고 변명하였다.<sup>253)</sup>

요컨대 태종은 자신이 어렸을 때 수학했던 각림사를 방문하는 것을 굳이 꺼리지 않았지만, 대신들은 국왕이 사찰 행차를 목적으로만 했을 경우 신료들의 비판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강무를 행할 때 각림사를 방문하도록 원했던 것 같다.

태종은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한상경의 변명을 옳게 여겼지만, 결국 춘등강무(春等講武)를 정지하고, 1417년 2월 27일에 각림사로 행차하려고 하였다.

춘등강무(春等講武)를 정지하고, 27일에 각림사(覺林寺)로 행행하고자 하였다.  
 태 종 : (갑자기 전지(傳旨)하기를) “땅도 해동(解凍)하지 않고 눈도 녹지 않았으나, 각림사로 행행하고자 함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보이려는 까닭이요, 강무하려는 본의(本意)가 아니다.”  
 조말생 : “강무하는 법은 고전(古典)에 실려 있어 폐할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25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일 己未.

강무(講武)라고 고쳐 구전(口傳)하소서.”

태종 : “강무라고 구전(口傳)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말을 꺼려서가 아니라 진실한 내 뜻이다.”

조말생 : “강무하는 것은 만세(萬世)의 성헌(成憲)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폐지하려 하십니까?”<sup>254)</sup>

즉 태종이 1403년(태종 3)부터 매년 빠짐없이 행해오던 봄·가을 두 차례의 강무 중 춘등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로 행차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당시 태종이 반드시 각림사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태종은 재차 ‘땅도 해동(解凍)하지 않고 눈도 녹지 않았으나 각림사로 행행하고자 함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보이려는 것이고 강무하러는 본의(本意)가 아니다라고 하여 강무보다는 각림사 방문이 목적임을 다시 밝혔다. 그렇지만 당시 지신사(知申事)<sup>255)</sup>였던 조말생(趙末生)은 ‘강무하는 법은 고전에 실려 있어 폐할 수 없으며, 강무라고 고쳐 말로 전하도록 아뢰었다. 이에 대해 태종은 ‘강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말을 꺼려서가 아니라 진실한 내 뜻이라며 실제로는 각림사를 가면서 강무라고 핑계 대며 가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언급하였다. 다시 조말생은 ‘강무하는 것은 만세의 성헌(成憲), 즉 법을 이룬 것인데 전하께서 어찌 폐지하려 하냐며 공식적으로는 강무라 칭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결국 태종은 강무라고 굳이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각림사에 가지 않을 것이고, 각림사의 방문은 자신이 어렸을 때 수학했던 곳에 가는 것이므로 각림사에 간다고 떳떳이 밝히며 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승지(都承旨, 당시 지신사)였던 조말생은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에 가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년 시행하던 춘등강무라 칭하고 정상적인 강무를 행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태종이 뜻을 굽히지 않자 마침내 사간원에서는 각림사로의 거동(舉動)을 중지하고 강무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25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6일 癸亥.

255) 고려·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직으로 1401년(태종 1) 도승지(都承旨)를 지신사(知申事)로 개정하였다가 1433년(세종 15) 지신사를 다시 도승지로 고쳤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소(疏)에 말하기를, “신 등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거동(舉動)은 임금의 대절(大節)이므로 명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보니,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옛 제도를 본받아 매양 봄·가을에 강무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예(禮)로써 거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도로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覺林寺)로 행차하고자 하니, 신 등은 아직 알지 못하겠으나, 무슨 일 때문에 부도(浮圖)의 처소에 행행하려 합니까? 또 전하의 일신(一身)은 자손만세(子孫萬世)가 취하는 바가 되므로 더욱 명분 없이 거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번 각림사에 행차하심을 정지하고, 특별히 강무한다는 명령을 내리시어 상소(常所)에 순행(巡幸)하심으로써 법을 후세에 드리우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호군(大護軍) 조치(趙菑)를 횡성(橫城)에 보내어 강무장(講武場)에 얼음이 녹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게 하고, 이어서 명하였다. “만약 얼음이 녹지 않았다면 본도(本道)와 충청도 기군(騎軍)·보군(步軍)과 역마(驛馬)를 모두 징취(徵聚)하지 말라.”<sup>256)</sup>

1403년부터 태종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친 강무를 정례화하였는데, 사간원 등은 두 차례 시행되는 강무에 대해 자주 백성들에 대한 폐해가 있다면 그 정지나 축소 등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1407년 춘동강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시행을 주장하였다. 즉 사간원은 ‘임금이 거동에는 명분이 없을 수 없다면서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옛 제도를 본받아 매양 봄·가을에 강무하는 일을 행한 것은 예(禮)로써 거동한 것’이라며 이전에 강무를 정지하거나 축소하도록 한 그들의 청(請)과는 다른 언급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권도로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로 행차하는 것은 부처의 처소에 행차하는 것이므로 임금의 대절(大節), 즉 대의(大義)에도 어긋나며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었다. 더구나 ‘전하의 일신(一身)은 자손만세(子孫萬世)에 취하는 바가 되므로 명분 없이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각림사에 행차하는 것을 정지하고 특별히 강무한다는 명령을 내려 강무장으로 정한 상소(常所)에 정상적인 순행을 하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고 후세에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25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10일 丁卯.

태종은 사간원의 상소를 듣지 않았으나, 대호군 조치를 횡성에 보내어 강무장의 얼음이 녹았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얼음이 녹지 않았으며 강원도와 충청도의 기병과 보병, 역마(驛馬)를 모두 징집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태종은 아직 횡성에서의 강무에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얼음이 녹지 않았으면 횡성에서의 강무를 정지할 것이고, 얼음이 녹아 있으면 강무를 시행할 여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태종은 이 논란을 통해 자신의 강무에 대해 자주 비판을 하는 신료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강무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수용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라고 사료된다. 수용할 수 없는 지나친 비판이 계속 되면 정기적인 강무를 정지하고, 그 대신에 각림사에 행차하는 것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여 차후 자신의 강무 시행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후 태종은 다시 본궁(本宮)의 쌀·콩 1백석을 바꿔 제천현(堤川縣) 창고의 쌀·콩 1백석을 각림사에 주었다.<sup>257)</sup> 또한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원(李原)과 강무에 대해 의논하면서 ‘완산군(完山君)<sup>258)</sup>의 병이 위독하다며 이번 행행(行幸)은 정지하려 하는데, 만약 이 시기를 지난다면 3월 20일 이후는 바로 농사 때에 당하므로 강무할 수가 없으나 구금(驅禽), 즉 짐승을 몰이하는 것이 아니니, 단지 수기(數騎)만 거느리고 갔다 오려 한다고 하였다.<sup>259)</sup> 즉 태종은 완산군의 병을 핑계로 강무를 정지하는 것이며, 어차피 3월 20일 이후에는 농사철이어서 강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지금의 행차는 몰이해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수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각림사에 갔다 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5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2일 己卯.

258) 이천우(李天祐, ?~1417년)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백형 이원계(李元桂)의 아들이다. 이성계 휘하에서 왜구 토벌 등 공을 세웠으며, 조선 개국 후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李芳遠)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이 되고 완산후(完山侯)에 봉해졌다. 제2차 왕자의 난 때도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고, 1403년(태종 3)에는 완산군(完山君)에 봉해졌다.

25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4일 辛巳.

## 7. 태종의 각림사 재행차와 황성에서의 강무

앞서의 논란 끝에 1417년(태종 17) 2월 27일 어가(御駕)가 각림사에 행차하였는데, 춘등강무(春等講武)를 겸한 것이었다.

거가(車駕)가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로 행행(幸行)하니, 겸하여 춘수(春蒐)를 강(講)하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각림사에서 글을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少時)적에 놀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급전(給田)하고 중신(重新)하게 한 것이다. 내가 강무(講武)를 핑계하여 태조(太祖)와 모후(母后) 두 분의 기일(己辰) 때에 가서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기일은 5월에 있고 모후의 기일은 9월에 있으니, 5월은 바로 농사철이며 9월은 벼가 무성한 때이다. 만약 연고 없이 간다면 대간(臺諫)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 불법(佛法)은 비록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中國)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처를 위하여 한 차례 간다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 대언(代言) 등이 “강무(講武)로 인해 한 번 행행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꼭 가서 봐야겠다.”하였다.<sup>260)</sup>

태종은 ‘내가 어렸을 때 각림사에서 글을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적에 놀던 것과 같다’며, ‘그러므로 내가 토지를 주고 새롭게 한 것’이라 하였다. 즉 태종은 자신이 어렸을 때 글을 읽었던 곳이므로 중창하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각림사의 중창에 태종의 뜻이 반영되었고, 태종의 지원으로 각림사의 중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종은 ‘내가 강무를 핑계하여 태조와 모후 두 분의 기일 때에 가서 보고자 했다’고 하면서도 ‘태조의 기일 5월은 농사철이고, 모후의 기일 9월은 곡식이 익는 때이므로’ 가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태종은 이러한 명분도 없이 각림사에 가면 대간들이 반드시 부처를 숭상한다고 비판하며 막을 것이라고

26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7일 甲申.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태종은 ‘불법은 비록 믿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처를 위해 한 차례 간다 하더라도 좋을 것’이라고 각림사의 행차를 천명하였다. 태종의 이 언급은 결국 부처는 믿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 들어온 지 오래라서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쯤은 불교를 위해 각림사에 가는 것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언(代言), 즉 당시 승지(承旨) 등이 ‘강무로 인해 한 번 행행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라고 하여, 강무시에 한번쯤 가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태종이 그 전인 1414년(태종 14)에 황성에서 강무할 때 각림사를 방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무를 겸해서 각림사를 방문하는 것 역시 괜찮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태종은 ‘내가 꼭 가서 보아야겠다’고 하여 각림사의 방문 의지를 확고히 하고, 마침내 각림사에 행차하였으며, 겸하여 춘등강무를 황성에서 시행하였다.

태종이 각림사 행차와 춘등강무를 겸한 것은 각림사만을 방문하였을 때는 결국 신료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종도 결국 자신의 강경한 뜻을 완화해서 강무를 겸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강무의 규모는 황성 등지의 놀이꾼·방패(防牌)·섭대장(攝隊長)·섭대부(攝隊副) 합쳐서 1천 91명, 별군(別軍) 1백 60명, 강원도의 보군(步軍) 1천 2백 명, 마군(馬軍) 3백 명, 충청도의 보군 2백 50명, 마군 3백 명, 경기(京畿)의 2백 50명, 총 3,551명이었다. 그리고 강원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 고을 수령(守令) 등에게 명하여 임금이 멀리 거동할 때에 머무르는 행재소(行在所)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보면 태종은 각림사 행차와 황성에서의 춘등강무를 겸하면서 백성들의 폐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출발 다음날인 2월 28일 충녕대군(忠寧大君)<sup>261</sup>이 편치 못하다 하여 환궁(還宮)하고자 하였으나, 용진도(龍津渡)<sup>262</sup>에 하루 머물렀다가<sup>263</sup> 3월 5일에는

261) 뒤의 세종(世宗).

262) 양근(楊根) 남쪽의 용진나루.

26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8일 乙酉.



각림사에 이르렀다.<sup>264)</sup> 태종은 각림사에서 절의 중에게 ‘내 장차 지의(地衣)<sup>265)</sup>를 주겠고, 또 오는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불사란 흔히 사찰의 건조, 불상의 조상, 불화의 조성 등을 가리키나 넓게는 승려에 대한 공양이나 각종 불교 행사 일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태종은 각림사가 아직 중창 중이므로 각림사의 중창이 완성된 후 9월에 이를 기념하는 낙성(落成) 법회(法會)를 국가적으로 베풀어주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태종은 각림사에 행차한 날(3월 5일) 물이꾼들을 모두 놓아 보냈는데,<sup>266)</sup> 사실상 제대로 된 강무를 실시하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3월 2일에는 눈이 내렸고, 3일에는 얼음이 얼어서<sup>267)</sup> 날씨가 춥고 기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태종실록(太宗實錄)』에는 태종의 이렇다 할 강무 시행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태종은 3월 9일에 환궁함으로써<sup>268)</sup> 각림사 행차를 마무리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태종은 강무보다는 각림사에 행차하고자 하였던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 8. 각림사의 중창과 낙성법회(落成法會)

태종은 각림사에서 돌아온 후, 화원(畫員) 이원해(李原海) 등 15인을 각림사에 보내록 명(命)하고 채색(彩色)을 하사하였는데, 각림사에서 이때 낙성(落成)을 알렸기 때문이었다.<sup>269)</sup> 이를 통해 각림사의 중창이 1417년(태종 17) 4월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화원은 도화서(圖畫署) 소속일 수밖에 없고, 도화서는 조선시대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도화서 화원들이 각림사에

26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3월 5일 辛卯.

265) 형검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든 돛자리로 주로 제사(祭祀) 등에 사용하였다.

26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3월 5일 辛卯.

26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3월 2일 戊子; 3일 己丑.

26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3월 9일 乙未.

26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4월 2일 戊午.

과건되었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화원들이 보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원과 채색을 보낸 것은 역시 각림사의 단청(丹青) 등을 위해서였다.

후에 변계량(下季良)은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에서 ‘각림사가 성은(聖恩), 즉 임금의 은혜로 이름 있는 사찰이 되었는데, 썩은 것을 바꾸고 빠진 것을 보수하려 기쁜 마음으로 시주(施主)할 인연들을 모아서 크고 높은 승방(僧房)과 불우(佛宇)가 반년 만에 고쳐졌다’고 하였다.<sup>270)</sup> 이를 보면 각림사에 태종이 철 1천 근과 재목 1천 주를 하사한 이후에도 각림사는 여러 사람들의 시주를 받았고, 본격적인 중창을 시도한 지 반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계량은 ‘사찰이 기울고 비좁으니 어찌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이에 경영(經營)을 명하고 또한 단청(丹青)을 베풀어 주셨으며, 전지(田地)와 노비(奴婢)를 하사하여 부처와 스님을 공양하도록 하였다’고 쓴 바가 있다.<sup>271)</sup> 즉 각림사가 기울고 좁으며 낡았으므로 태종이 각림사의 보수와 중창을 명하였고, 낙성에 맞추어서는 도화서의 화원들을 과건하여 단청을 하도록 베풀었으며, 각림사에는 별도로 전지와 노비를 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종은 각림사의 낙성(落成) 법회(法會)를 돕기 위해 각림사 중의 청(請)을 받아들여 사곡(私穀) 2백 석을 각림사의 근처 제천(堤川) 창고의 쌀 1백 석과 바꾸도록 허락하였다.<sup>272)</sup> 즉 각림사가 소유한 목은 곡식 2백 석을 제천 창고의 쌀 1백 석과 바꾸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태종은 ‘각림사는 내가 어렸을 때 유학한 곳이라서 지금도 꿈속에서 가끔 가므로 중수(重修)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를 좋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각림사의 중창은 불교를 숭상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학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밝히고 있다.

270)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3, 소(疏)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

271)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3, 소(疏), 동전(同前), 변계량(下季良).

27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7월 5일 戊午.

그리고 태종은 ‘중들은 본래 성질이 지리(支離)<sup>273</sup>하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 간사승(幹事僧)<sup>274</sup>으로 하여금 나를 빙자하여 범람(汎濫)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태종은 1417년(태종 17) 3월 5일 각림사에 행차하였을 때,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하여 각림사의 낙성 법회를 사실상 자신이 개최해준다고 공언한바 있었다. 그렇지만 낙성 법회의 일을 주관하는 승려가 자신을 빙자해서 횡포를 부리거나 지나친 불사를 행할 경우를 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태종은 ‘연안부(延安府)의 본궁(本宮) 곡식 2백 석을 연안부의 창고에 들이고, 충청도 제천의 창고 쌀 1백 석과 경원창(慶源倉)<sup>275</sup>의 보리 20석을 각림사에 주라’고 전지(傳旨)하였다. 즉 황해도 연안부의 곡식 2백 석과 충청도 제천 창고의 쌀 1백 석 및 충주 경원창의 곡식 20석을 바꾸어 각림사에 주도록 한 것이다.

태종이 각림사의 단청(丹青)을 위해 도화서(圖畫署)의 화원(畫員)을 파견한 것이나 각림사가 소유했던 사곡(私穀)을 제천 창고의 쌀로 바꾸어 준 것이나 제천의 창고와 충주 경원창의 곡식을 각림사에 하사한 것은 모두 각림사의 낙성 법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낙성 법회는 태종이 약속한 것이었다. 마침내 각림사는 태종의 약속대로 1417년(태종 17) 9월 15일 낙성 법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에게 명하여,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가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고(皇考)·황비(皇妣)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화엄경(華嚴經)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각림사가 완성되매 이 경(經)을 보내고, 또 유창에게 내향(內香)과 소(疏)를 주어 법회(法會)를 베풀어 낙성(落成)하였다.<sup>276</sup>

273) 불뿔이 흩어지는 것, (말이나 글이) 무질서한 것, 불완전한 것, 조리가 없는 것 등의 뜻이다.

274) 나라에서 역사(役事)에 승려들을 동원할 때에, 그 일을 맡아서 지휘·감독하던 승려.

275) 조선시대 충청도(忠淸道) 충주(忠州) 지역에 설치한 조창(漕倉)으로 고려의 덕흥창(德興倉)을 개칭한 것이다. 충청도 정주 서쪽 10리에 있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경상도(경상도)의 공부(貢賦), 즉 곡물과 세금을 거두어 받는 곳’이었다(『세종실록(世宗實錄)』 권149, 지리지(地理志) 충청도(忠淸道) 충주목(忠州牧)).

27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9월 15일 丁卯.

태종은 옥천부원군 유창(劉敞)<sup>277</sup>을 각림사에 가게 하였는데, 이것은 각림사의 낙성 법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태종은 황고(皇考)와 황비(皇妣), 즉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아버지인 환조(桓祖)로 추존된 이자춘(李子春)과 태조의 어머니 의혜왕후(懿惠王后)에 추존된 최씨(崔氏)<sup>278</sup>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엄경(華嚴經)<sup>279</sup>을 만들었는데, 각림사가 낙성되자 이 화엄경을 보냈다. 또한 유창에게 내향(內香)<sup>280</sup>과 소(疏)를 주어 법회를 베풀었는데, 각림사는 이를 통해 성대한 낙성을 보게 되었다.

이때 태종이 내려준 소(疏)는 바로 변계량(下季良)이 지은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라고 생각한다. 변계량이 지은 것은 각림사의 중창을 축하하는 법회에 대한 소이기 때문에 이때 쓰여진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변계량이 지은 ‘원주각림사중창 경찬법화법석소’는 다음과 같다.

**원주각림사 중건을 축하하는 법화법석의 소(原州覺林寺重創慶讚法華法席疏)**

각림정사(覺林精舍)는 일찍이 임금께서 임어(臨御)하셨던 곳이고, 법화진전(法華眞筵)은 실로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땅에 좋은 자리를 피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어 이름난 사찰로 머물게 되었으니, 낡은 것을 바꾸고 훼손된 곳을 보수하고자 모연(募緣)을 수희(隨喜)하였더니, 승방(僧寮)과 불우(佛宇)가 크고 높아지고

277) 유창(劉敞, ?~1421년)은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개국공신으로 강릉유씨(江陵劉氏)의 시조이다.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였고, 1392년 7월 태조가 조선을 세울 때 공을 세워 개국공신 2등으로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이성계(李成桂)와 일찍부터 사귀어 이성계에게 경사(經史)를 강론했었다. 1410년 김주도 칠리사(吉州道察理使)로 나갔다가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등을 지낸 뒤 1413년 세자이사(世子貳師)가 되고, 1416년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에 진봉되었다.

278) 태조 이성계는 건국 후 사대(四代)의 존호(尊號)를 사후(死後)에 올렸는데, 고조고(高祖考)는 목왕(穆王)이라고 하고, 비(妣) 이씨(李氏)는 효비(孝妃)라 하였으며, 증조고(曾祖考)는 익왕(翼王)이라고 하고, 비(妣) 최씨(崔氏)는 정비(貞妃)라 하였으며, 조고(祖考)는 도왕(度王)이라고 하고, 비(妣) 박씨(朴氏)는 경비(敬妃)라 하였으며, 황고(皇考)는 환왕(桓王)이라고 하고, 비(妣) 최씨(崔氏)는 의비(懿妃)라 하였다(『태조실록(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8일 丁未). 원래 황고(皇考)는 선고(先考), 즉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일컫는 선고(先考)의 높임말이고, 황비(皇妣)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일컫는 선비(先妣)의 높임말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근거로 황고(皇考)는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 황비(皇妣)는 이자춘의 부인 의혜왕후(懿惠王后) 최씨(崔氏)로 보았다.

279) 화엄경(華嚴經)은 석가모니가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설법했다는 대승 경전의 정화(精華)로 부처의 만행과 만덕을 칭양하고 있다. 원명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며, 우리나라 화엄종(華嚴宗)의 근본 경전이다.

280) 내향(內香)은 나라의 제사 때에 임금의 향과 축문을 몸소 헌관에게 전하는 궁내의 향을 말한다.

반년 만에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지신(地祇)과 천룡(天龍)이 옹호하여 임금님의 꿈속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체로 전생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님께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이에 낙성(落成)의 불사(梵刹)를 베풀어서 무상(無上)의 불경(靈編)을 올립니다., 한 자루의 천향(天香)은 널리 여러 방면의 세계(世界)에 퍼지고, 삼관(三觀)의 오묘한 뜻은 모든 법의 강령을 밝힐 것입니다. 감통(感通)은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는 듯하고, 공덕(功德)은 항하(恒河)의 모래로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해와 달이 항상 솟아오르듯 하고 만년토록 누리어 하늘과 땅처럼 유구하게 하소서. 중전(中殿)께서도 융성한 복을 많이 받으시고, 세자(儲宮)께서도 길이 길하고 건강하소서. 육기(六氣)가 조화를 이루고 바람과 비가 때에 맞으며, 오병(五兵)을 거두어서 조정과 초야가 안정되게 하소서.<sup>281)</sup>

변계량은 당시 예조판서(禮曹判書)이자, 국가의 의례에 관한 제도를 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의 제조(提調)로,<sup>282)</sup> 당시 왕실 불사와 관련된 글들을 맡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은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식적인 불교 행사를 위해 쓴 것이다. 또한 이 글은 태종이 비록 각림사의 낙성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림사의 낙성식을 위해 태종이 내려준 글이다.

이 글은 처음에 각림사는 일찍이 태종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각림사는 보배스러운 곳이라서 성스러운 법회를 열 만하다고 하였다. 또한 태종의 은혜로 각림사는 이름 있는 절이 되었고, 각림사를 중창하고자 시주를 널리 받아서 반 년 만에 승방과 법당이 높이 세워졌다고 하였다. 또한 땅의 지신과 하늘의 천룡이 옹호하여 태종의 꿈속에 각림사가 자주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종과 중전, 그리고 세자의 복됨과 무병을 기원하고 세상의 태평과 안정을 소원하였다.

281)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3, 소(疏)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

28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7월 27일 庚辰; 9월 17일 己巳; 12월 4일 乙酉.

각림사와 관련된 소(疏)는 위의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역시 변계량이 지은 것이며 다음과 같다.

보찰(寶刹)을 건립한 것은 옛날에 유학(遊學)하였던 일을 기념한 것이고, 진진(眞詮)을 펼쳐 올린 것은 명복(冥福)을 빌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정성을 다하여 부처[白毫]를 앙독(仰瀆)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치악산(雉岳山)의 각림사(覺林寺)는 젊었을 때 머물러서 세월이 많이 지나 오래되었어도 잊지 못하여 여러 번의 행차도 마다하지 않았습시다. 산천(山川)은 완연히 어제와 같았고 수목(樹木)은 울창하게 그들이 우거졌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고 배회하면서 진실로 감동하여 옛날을 생각하였는데, 사찰이 기울고 비좁으니 어찌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보수(經營)를 명하고 또 단청(丹青)을 베풀었으며 전지(田地)와 노비를 하사하여 부처와 스님을 공양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전생의 인연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낙성(落成)의 법회에 기대어 부지런히 선조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자 이에 화개(花叢)의 깨끗한 무리를 모집하여 범화경(蓮經)의 은미한 뜻을 말하게 하니, 광명(光明)한 글자마다 모든 부처의 근본이고, 반만(半滿)의 말씀들은 천경(千經)을 관할(管轄)하였습니다. 의발(衣鉢)을 끌고루 나누어 주고 향등(香燈)을 널리 켜 놓았습니다. 이 1백 명의 정근(精勤)이 삼보(三寶)를 감동시켜 소상히 살피실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업보의 장애를 영원히 제거하고 참된 근본을 깨닫게 하여 만법(萬法)의 묘리로 일심(一心)을 밝혀 친히 관음보살(觀音菩薩)을 만나보고, 허상에 실상(實相)을 체득해 항상 정묘부인(淨妙夫人)을 따르게 하소서. 길이 상서를 발하여 후손들이 번창하여 대업이 끝없이 이어지고 중생을 무궁토록 구제하게 하소서. 무릇 성정(性情)을 갖춘 모든 것들이 도움을 받게 하소서.<sup>283)</sup>

이 소(疏)는 ‘원주각림사중창(原州覺林寺重創) 경찬법화법석소(慶讚法華法席疏)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어져 있고, 변계량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태종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다. 즉 이 글의 문장은 변계량이 지었지만 태종의 생각과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83)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113. 소(疏), 동전(同前), 변계량(卞季良).

내용을 보면 각림사의 중창은 옛날에 태종 자신이 유학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법화법석의 불사는 선왕들의 명복을 빌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림사는 태종이 젊었을 때에 거처하던 곳이어서 세월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아 여러 번 행차하였으며, 그때 위아래를 훑어보고 배회하여 옛날의 감흥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절이 허물어지고 기울었으며 좁고 누추하기 때문에 험 것을 고쳐 새롭게 하고, 단청을 베풀고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여 부처와 중들을 공양하게 하니,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다[今余心之載寧]'고 하여 태종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각림사의 낙성 법회에 선조들의 영령을 천도하고자 맑고 깨끗한 중들을 모아 법화경을 강론하였음을 말하면서, 길이 상서롭게 하여 후손들이 번창하고 국가의 기초가 세워지며 중생을 무궁토록 구제해 주도록 기원하였다.

그리고 각림사의 낙성 법회 때에는 각림사의 정문에 대장경(大藏經)이 안치된 듯하다. 변계량은 각림사의 낙성 법회에 직접 참석하여 '각림사정문안치대장경연화문(覺林寺正門安置大藏經緣化文)'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림사 정문에 대장경의 안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찬술한 것이었다.

雄岳爲山名海東	치악산이 해동에 유명한데
山之寶刹覺林最	산중의 보찰로 각림사가 최고이니
雲煙崑壑幾千年	구름과 안개 암학에 서린 지 몇 천 년이던가.
地靈擁衛天龍會	지령이 웅위하고 천룡이 모였어라.
至尊昔日此遊學	지존께서 옛날 여기에서 지내며 배웠으니
其爲福地尤昭晰	복된 땅임이 더욱 분명하여
乃命重營不日成	이에 중건을 명하니 금방 이루어져
峩峩澗谷輝金碧	높디높은 산골짜에 단청이 빛났어라.
殿中旣安無量佛	대웅전에 무량불을 안치하고
持香祝釐晨與夕	조석으로 향을 사르고 복을 빈다.
山野誓願成大藏	백성들이 서원하여 대장경을 이루어
置諸門樓時轉閱	문루에 안치하고 때로 넘겨보려 하니
惟願尊卑各隨喜	오직 존비가 각기 보시하기 바라느바

功利無邊不可說	공리가 끝이 없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祖聖仙遊登樂方	태조께서는 신선되어 즐거운 곳에 오르고
吾王享壽彌萬億	우리 임금은 수를 누려 억만년에 이르며
中壺齊年福日增	중전도 함께하여 복이 날로 더하고
儲宮孝友崇厥德	세자도 효성과 우애가 있어 그 덕을 높이며
年登國阜兵革戢	풍년이 들고 나라가 부유하여 전쟁이 그치고
太平朝野歌熙洽	태평한 조야에 빛나고 화락한 정사를 구가하리라. <sup>284)</sup>

이 연화문의 앞의 4행(치악산이 해동에 유명한데 ~ 지령이 웅위하고 천룡이 모였어라)은 변계량의 시로 알려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춘정집(春亭集)』에 실려있다.<sup>285)</sup> 또한 『관동지(關東誌)』, 『원주읍지(原州邑誌)』, 『여지도서(輿地圖書)』, 『강원도지(江原道誌)』 등에도 앞의 4행이 실려 있을 정도로 각림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sup>286)</sup> 그리고 이 4행은 변계량의 대표적인 시로 소개되어 왔다.<sup>287)</sup>

그렇지만 이 시는 ‘각림사정문안치대장경연화문(覺林寺正門安置大藏經緣化文)’의 일부분이며, 이 연화문을 보면, 치악산이 해동(海東)에서 유명한데, 산중의 보찰로는 각림사가 최고라고 하였다. 또한 지존, 즉 태종이 옛날 여기에서 지내고 배워서 복된 땅이 분명하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태종이 중건을 명하였는데, 금방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중건한 각림사는 산골짜기에서도 단청이 빛났으며, 대웅전(大雄殿)에는 무량불(無量佛)을 안치하였고, 밤낮으로 향을 사르고 복을 빌었다고 한다. 또한 백성들이 소원하여 대장경을 만들어서 각림사의 문루(門樓)에 안치하고 넘겨보려고 하니 귀하고 천한 것에 관계없이 보시하기를 엄원하였다. 태조의 명복을 빌고,

284)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연화문(緣化文), 각림사정문안치대장경연화문(覺林寺正門安置大藏經緣化文).

28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강원도(江原道) 원주목(原州牧) 불우(佛宇); 『춘정집(春亭集)』 권4, 시(詩), 각림사(覺林寺).

286) 『관동지(關東誌)』 권1, 원주(原州) 사찰(寺刹) 각림사(覺林寺); 『원주읍지(原州邑誌)』 불우(佛宇); 『여지도서(輿地圖書)』 원주(原州) 사찰(寺刹); 『강원도지(江原道誌)』 권5, 사찰(寺刹) 영월(寧越).

287) 임종욱 엮음, 『산사에 가면 시가 보이네』, 이회문화사, 2001, 142쪽; 이종찬 역주, 『韓國漢詩大觀』 14-卞季良/柳方善, 이회문화사, 2002, 128쪽.



우리 임금, 즉 태종의 장수를 축원하였으며, 중전과 세자의 복과 덕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년과 나라의 안녕 및 태평을 소원하였다.

한편 윤희(尹淮)<sup>288)</sup>가 지은 ‘만덕산백련사중창기(萬德山白蓮社重創記)’를 보면, 백련사(白蓮社)를 중창했던 ‘천태영수(天台領袖) 도대선사(都大禪師) 호공(乎公)’이 각림사의 낙성 법회를 주관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89)</sup> 즉 ‘만덕산백련사중창기’에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sup>290)</sup>께서 일찍이 치악산(雉岳山) 각림사(覺林寺)를 지으시고 대회를 베풀어 낙성하는데, 선사(禪師)의 명망을 듣고 불러서 그 자리를 주관하게 하였고, 또 장령산(長嶺山) 변한소경공(卞韓昭頃公)<sup>291)</sup> 묘소 곁에 대자암(大慈庵)을 짓고 명하여 주지를 삼았었다’고 되어 있다. ‘천태영수 도대선사 호공’은 바로 행호(行乎)<sup>292)</sup>이며, 행호는 불교의 엄격한 수도와 계행(戒行)으로 묘법(妙法)을 통달하여 천태종(天台宗)의 영수가 된 대승(大僧)이었다. 원래 각림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태종계의 사찰이었다. 따라서 태종은 당시 천태종의 영수였던 행호를 불러 각림사의 낙성 법회를 성대하게 주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9. 태종과 원천석의 만남에 대한 이견(異見) 소개

태종은 자신의 재위 기간에 황성에서의 강무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414년(태종 14) 추등강무 시에는 재위 중 각림사에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1415년

288) 윤희(尹淮, 1380년~1436년)는 1401년(태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작정언, 이조·병조좌랑 등을 역임하고, 1417년에는 승정원의 대언(代言)이 되어 왕을 보좌하였다.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이 설치되자 1422년에 부제학으로 발탁되어 그곳의 학사들을 총괄하였다. 주로 예문관제학·대제학과 같은 문한직(文翰職)을 역임하였다. 벼슬은 병조판서에 올랐다.

289) 『동문선(東文選)』 권지(卷之)81, 기(記), 만덕산백련사중창기(萬德山白蓮社重創記).

290) 태종(太宗)의 시호는 공정성덕신공무광효대왕(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로 이것을 줄인 것이다. 태종의 시호가 나타나므로 윤희(尹淮)가 지은 만덕산백련사중창기(萬德山白蓮社重創記)는 태종 사후에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91) 성녕대군(誠寧大君, 1405년~1418년)으로 태종의 넷째 아들이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흥역으로 죽었는데, 태종은 경기도 고양 북산에 있는 묘소 남쪽에 대자암(大慈庵)을 세우고 불공을 올리게 하였다. 변한소경공(卞韓昭頃公)에 추증되었다.

292) 행호(行乎, 생몰년 미상)는 해주최씨(海州崔氏)로 최충(崔冲)의 후손인데, 어려서 출가하여 계행(戒行)이 뛰어났고 효행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법화경』의 이치를 깨달아 천태종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세종 때는 판천태종사(判天台宗事)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태종 15)에는 재차 횡성에서 추등강무를 시행하였다. 1417년(태종 17)의 춘등강무는 사실상 각림사에 행차하기 위한 것으로 강무를 겸한 것이었다. 따라서 두 차례는 실질적인 강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 강무는 각림사 행차와 추위 때문에 제대로된 강무가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태종은 이렇듯 세 차례에 걸쳐 횡성 지역을 왕립하였고, 이 중 두 차례는 각림사에 행차하였다.

그런데 태종은 즉위 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원천석(元天錫)을 불렀으나 원천석이 나오지 않았고, 태종이 횡성 지역에 왕립하였을 때 원천석을 만나보려 했지만 원천석이 태종을 피해 숨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려(高麗)가 망하자 (원천석은) 치악산(雉岳山)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태종(太宗)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으니, 임금이 그 의리를 고상하게 여겼다. 동쪽 지방을 순행할 적에 그의 집에 거둥하였으나 선생은 피하여 숨고 만나 주지 않았다. 임금이 시냇가 바위 위로 내려가 집을 지키는 노파를 불러 상을 후하게 내리고 그 아들인 형(澗)에게 벼슬을 주어 기천감무(基川監務)로 삼았다. 후인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고 부르는데, 대는 치악산 각림사(覺林寺) 옆에 있다.<sup>293)</sup>
-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일찍이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그가 즉위하여 여러 번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이 동쪽 지방에 나갔다가 그 집을 방문하니 공은 피하고 보이지 않았다. 태종이 계석(溪石) 위에 내려와서 그 집 여종을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돌아와서 그의 아들 원형(元涇)에게 벼슬을 주어 기천(基川 : 지금의 풍기(豊基)이다) 감무(監務)를 삼았다. 후대 사람이 그 돌을 ‘태종대(太宗臺)’라 이름지었다. 그 대는 치악산 각림사(覺林寺) 곁에 있다.<sup>294)</sup>

이를 보면 고려가 망하자 원천석이 치악산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태종이 스승인 원천석을 여러 차례 불렀어도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태종이 원천석이 의리를 지키는 것을 고상하게 여겼으며, 동쪽 지방을

293) 「기언(記言)」 권18, 중편(中篇), 구묘(丘墓) 2, 운곡선생명(耘谷先生銘).

294)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 태조고조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 고려수절제신부(高麗守節諸臣附) 원천석(元天錫).

순행할 때 그의 집에 거둥하였지만 원천석은 태종을 피하여 숨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태종이 시냇가 바위로 내려가 집을 지키는 노파를 불러 상을 주고, 원천석의 아들인 원형(元澗)을 기천감무로 삼았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이 태종이 원천석을 기다렸던 시냇가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고 불렀는데, 태종대는 각림사 옆에 있다는 것이다.

태종대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치악산 동쪽 기슭인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있다. 비각의 명칭은 태종대이지만 비각 안에 있는 비석(碑石)에는 ‘주필대(駐蹕臺)’라고 각인되어 있다. ‘주(駐)’는 ‘말이나 수레가 머무른다’는 뜻이고 ‘필( )’은 ‘왕의 수레’라는 뜻으로, ‘왕이 나들이할 때 어가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는다’는 뜻이다.<sup>295)</sup> 이 태종대 곧 주필대는 태종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원천석이 은거하였던 고깔 모양의 바위인 변암(弁巖)에는 암각된 글자가 여러 자 있는데, 이와 관련있는 암각된 글자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변암에 암각된 글자들이다.

弁巖	변암
太宗臺東二十里	태종대는 동쪽으로 20리이다.
開穿石井常澆渴	돌 우물 뚫어 항상 물을 축이고
收拾山蔬且慰貧	산나물 거두어 가난 달랜다.
耘谷先生諱天錫	운곡선생의 이름은 천석이다.
麗末隱居此山下	고려 말에 이 산 아래에서 은거하셨다.
我太宗以甘盤舊恩	우리 태종께서 옛 스승의 은혜 때문에
累召不至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이르지 않았다.
行其廬	친히 그의 초막에 가셨으나
先生避入于此	선생은 피하여 이곳에 들어오셨다.
崇祿後八十癸卯	승록후팔십(1723년) 계묘년

295)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제4권 고려시대, 2012, 611쪽.

後孫 尙中識

후손 상중이 쓰다.

不起上高其

출사하지 않았으나 임금께서 그의 의를 높게 여겼다.<sup>296)</sup>

변암의 안쪽 벽면에는 ‘변암(弁巖)’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옆으로는 ‘태종대가 동쪽으로 20리이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바깥 벽면에는 ‘돌 우물 뚫어 항상 목을 축이고 산나물 거두어 가난 달랜다’라는 시구가 새겨져 있다. 옆쪽 바위 아래면에는 ‘운곡선생의 이름은 천석이다. 고려 말에 이 산 아래에서 은거하였다. 우리 태종께서 옛 스승의 은혜 때문에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이르지 않았다. 친히 그의 초막에 가셨으나 선생은 피하여 이곳으로 돌아오셨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바로 그 아래에 ‘송록후팔십(崇禎後八十) 계묘(癸卯), 즉 1723년에 후손 상중(尙中)이 썼다고 새겨놓았으며, 그 아래에 ‘출사하지는 않았으나 임금께서 그의 의를 높게 여겼다’는 글씨가 더 새겨져 있다.

또한 태종대 남쪽 계곡을 보면 주위가 온통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종대 자체가 기암괴석임을 알 수 있다. 기암괴석 암벽 하단부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다.

太宗臺

태종대

先生事蹟略記 弁巖

선생사적약기 변암

太宗大王訪菴谷先生

태종대왕이 운곡선생을 찾아왔으나

自覺林避入弁巖

각림사에서 피하여 변암으로 들어가자

上駐輦于此

임금께서 이곳에 가마를 대고 머물렀다.

官其子賞其婢而返駕

그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시녀에게 상을 주고  
어가를 돌려 돌아가자

後人因以名之

후대의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이곳을 태종대라  
이름하였다.

崇禎後八十癸卯夏刻

송록후팔십(1723년) 계묘년 여름에 새기다.<sup>297)</sup>

296) 『강원도사』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제4권 고려시대, 2012, 612쪽).  
297) 위와 같음.

태종대 계곡 아래 암벽 하단부에 ‘태종대(太宗臺)’라는 글씨가 있고, 그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선생사적약기 변암이, 왼쪽에 세로로 ‘태종대왕이 운곡선생을 찾아 왔으나 각림사에서 피하여 변암으로 들어가자 임금께서 이곳에 가마를 대고 머물렀다. 그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시녀에게 상을 주고 어가를 돌려 돌아가자 후대의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이곳을 태종대라 이름하였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마지막에는 ‘승록후팔십(1723년) 계묘년 여름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원천석이 각림사에 있다가 태종을 피해 변암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있어서 태종이 원천석을 찾아왔을 때 그가 각림사에 있었고, 각림사에서 태종을 피해 변암으로 들어갔다고 적어 놓았다. 원천석은 말년에 병에 시달리면서 각림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태종이 원천석을 찾았을 때 그가 각림사에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태종대 전경(강원도청 제공, 2010)〉

한편 강림리 일대에는 태종대 뿐만 아니라 태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전해 온다.<sup>298)</sup> 원천석은 태종이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치악산을 피하면서 개천에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누가 나를 찾거든 저쪽으로 갔다고 하라고는, 본인은 반대

298) 관련 전승은 위의 『강원도사』에 실려 있는 내용을 발췌 수록하였음.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할머니는 원천석이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왕을 속였으므로 죄책감에 개천에 투신하여 죽었는데, 할머니가 투신한 개천을 노구소(老嫗沼)라고 부르며, 할머니가 잘못 가르쳐준 곳에 위치한 바위를 횡지암(橫指岩)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또한 노구소 옆 바위에 ‘구연(嫗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 노구소에서 남쪽 산 중턱에 노구사가 세워져 있다. 강림면에서 노파의 충정과 님을 기리고자 2005년부터 노구소가 바라보이는 곳에 사당을 건립하고 강림면과 제례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양력 10월 21일에 노구문화제를 거행하고 있다.



〈노구사 전경(강원도청 제공, 2010)〉

또한 태종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스승인 원천석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산을 향해 절을 한 산이라고 하여 배향산(拜向山)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고,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여 원통해 하면서 넘었다는 원통고개(冤痛峴), 태종이 수레를 타고 고개를 넘었다 하여 수레너미재 등의 전설에 얽힌 산 이름과 고개 이름도 있다.

그런데 태종이 즉위 후 스승인 원천석을 만나려 하였고, 원천석이 태종을 피해 숨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견이 몇몇 문집에 보이고 있다.

○ 원성(原城) 치악산(雉岳山) 동쪽에 각림사(覺林寺)가 있다. … 헌릉(獻陵 태종의 능으로 태종을 지칭)이 즉위하기 전에 오가며 머물렀다. 절 남쪽으로 3~4리쯤에 용추(龍湫)가 있고 그 위에 대암(臺巖, 대바위)이 산에 기대어 서 있는데, 헌릉이 때때로 책을 끼고 바위 위에서 읊조렸다 한다. 등극(登極)한 후에 특별히 명을 내려 고쳐 짓게 하여 드디어 큰 절이 되었으며, 주민은 대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 불렀다. …<sup>299)</sup>

299) 『대동야승(大東野乘)』, 이기(李暨), 『송와잡설(松窩雜說)』.

○ 고려 말, 진사(進士) 원천석(元天錫)은 나의 외조부의 고조로 호는 운곡(耘谷)이다.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해박하였는데, 원주(原州) 변암촌(弁巖村)에 살았다. 고을 동북쪽 5리쯤에 영천(靈泉)이라는 절이 있었다. 현릉이 즉위하기 전에 이 절에 묵으면서, 공에게 자문(咨問)하여 공의 깨우침(啓沃)이 자못 많았다. 대개 평창군(平昌郡)은 목조(穆祖)의 외가(外家) 고을이고, 고비(考妣)의 능(陵)이 삼척(三陟)에 있었으므로, 현릉이 가끔 삼척에 왕래하였던 것이다. 현릉이 즉위하자, 역말(驛馬)을 달려보내, 공의 안부를 물으니, 공은 죽은 지 벌써 오래였고, 공의 아들 원통(元侗)이 있었다. 편전(便殿)으로 불러와서 특별히 기천현감(基川縣監)에 제수하였으니, 성주(聖主)께서 스승의 옛 정을 잊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sup>300)</sup>

이기(李璽, 1522~1600)는 『송와잡설(松窩雜說)』에서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각림사에 머물렀다고 하면서 절 남쪽으로 3~4리쯤에 용추(龍湫)가 있고 그 위에 대암(臺巖, 대바위)이 산에 기대어 있는데, 태종이 때때로 책을 끼고 바위 위에서 읊조렸던 곳이라고 하였다. 태종이 즉위 후에 각림사를 고쳐 짓게 하여 각림사가 큰 절이 되었고, 주민들은 태종이 공부하던 대바위를 태종대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또 원천석은 자신의 외조부의 고조임을 밝히면서 태종이 영천(靈泉)이라는 절에 묵으면서 원천석에게 자문하여 깨우침이 많았는데, 태종이 즉위하자 역말을 달려보내 원천석의 안부를 물었으나, 원천석이 죽은 지 벌써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천석의 아들 원통(元侗)을 불러 특별히 기천현감을 제수하였는데, 이것은 태종이 스승의 옛 정을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시각은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도 나타난다.

세상에 전하기를 “원운곡(元耘谷) 천석(天錫)이 치악산(雉巖山)에 숨어 살 적에 태종(太宗)이 친히 가서 방문했으나 피하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운곡은 고려 말기의 진사로서 원주(原州) 변암(弁巖)에

300) 『대동야승(大東野乘)』, 이기(李璽), 『송와잡설(松窩雜說)』.

살았으며, 처음 목조(穆祖)가 전주로부터 영동(嶺東)으로 이거한 것은 그 외가(外家)가 평창(平昌)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고비(考妣)의 능(陵)이 삼척(三陟)에 있었는데 지금 나라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종이 영동을 왕래하게 되었는데 길이 원주를 경유하게 되므로 그를 찾아 자문한 바 있었고 지금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는 태종대(太宗臺)가 있는데 태종이 등극하기 이전에 책을 끼고 다니며 휴식하던 곳이며, 신씨(辛氏) 부자와 최영(崔瑩) 장군의 죽음에 그가 다 시를 지어 곡(哭)한 적이 있었고, 태종이 즉위해서는 감반(甘盤, 사제간)의 옛 정의로 역마(驛馬)를 달려 방문한바, 그때는 운곡이 이미 사망한 뒤이므로, 그 아들 형(澗)을 불러 특별히 기천현감(基川縣監)에 제수한 것이다.<sup>301)</sup>

이익은 '세상에 전하기를 원천석이 치악산에 숨어 살 적에 태종이 친히 가서 방문했으나 피하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익은 태종이 원주를 경유하면서 원천석을 찾아 자문한 바가 있어 태종과 원천석은 감반(甘盤), 즉 사제지간이라고 하면서도 각림사 옆의 태종대는 태종이 등극하기 전에 책을 끼고 다니며 휴식하던 곳이라고 하였다. 특히 태종이 즉위해서 사제간의 옛 정의로 역마를 달려 방문하였지만 원천석이 이미 사망한 뒤여서 태종은 원천석을 만나볼 수 없었으므로 대신 그 아들 원형(元澗)을 불러 특별히 기천현감을 제수하였다는 것이다.

『운곡시사(耘谷詩史)』에 실려 있는 원천석의 시는 65세 때까지만 남아 있어 이후 원천석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sup>302)</sup> 이에 원천석이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원천석이 62~65세에 노쇠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요양을 위해 각림사에 거처하고 있는 모습 등으로 보아 65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60대 후반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에 이기의 『송와잡설』과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태종이 스승인 원천석을 찾았으나, 원천석이 이미 세상에 없었다고 쓴 것이 보다 정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01) 『성호사설(星湖僿說)』 권12, 인사문(人事門), 원운곡(元耘谷).

302) 이인재, 「高麗末 元天錫의 生涯와 社會思想」,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운, 2007, 208쪽.



한편 『해동악부(海東樂府)』에는 태종과 원천석의 만남에 대한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태종이 상왕이 되었을 때 특명하여 공을 부르니, 공이 흰 옷을 입고 와서 뵈었다. 궁중에 불러 들여 옛정을 말한 다음 여러 왕자들을 불러서 나와 보게 하고는 묻기를, “우리 자손들이 어떠하오?”하였더니, 공이 세조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조부를 몹시 닮았으니, 아아 모름지기 형제를 사랑하라.”하였다.<sup>303)</sup>

『해동악부』에는 태종이 상왕이 되었을 때 원천석을 부르니 흰 옷을 입고 와서 태종을 뵈었으며, 태종이 궁중에 들여 옛 정을 말한 다음 여러 왕자들을 보게 하였더니, 원천석이 세자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조부를 몹시 닮았다’고 하였다고 쓰여 있다. 이 『해동악부』의 기록을 믿는다면 원천석은 90여 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할 수 있으며, 태종이 황성까지 가서 원천석을 찾으려 했고, 원천석이 태종을 만나기를 피해 숨었다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황성에서 태종을 피했던 원천석이 상왕이 된 태종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

303) 『해동악부(海東樂府)』.

## 세종대(世宗代)·문종대(文宗代)의 각림사

### 1. 세종(世宗)의 즉위와 횡성에서의 강무

1417년(태종 17) 3월 각림사에 행차했다가 돌아온 태종은 ‘유독 이 강무하는 법만이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을 일으키니, 내 실로 이를 염려한다’며 ‘이제부터는 강무하는 상소(常所)를 없애어, 백성으로 하여금 풀을 베고 논밭을 갈게 하며, 사렵(私獵)도 금(禁)하지 말라’고 하였다.<sup>304)</sup> 즉 태종이 상실 강무장을 폐지하려 한 것은 강무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렇지만 태종이 강무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그해 8월에는 추등강무(秋等講武) 장소를 평강(平康)으로 정하기도 하였다.<sup>305)</sup> 9월에는 평강에서의 강무를 정지하고,<sup>306)</sup> 근기(近畿)에서 강무를 경기도 미원(迷原) 등지에서 시행하였다.<sup>307)</sup>

태종은 경기도 미원 등지에서 강무한 뒤인 그해 10월에는 ‘봄·가을에 강무(講武)하는 것이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히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경기 밖에 강무하는 것은 절단코 다시 행하지 않을 것이고, 경기 안에서 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각 고을의 구군(驅軍)을 조발하지 않으며, 방패(防牌) 등 1천 명을 내고 또 이 같은 무리 1천 명을 쇄출(刷出)하여 합해서 2천 인이면 족하다’고 하여 강무시에 몰이하는 구군의 수를 정하려 하였다.<sup>308)</sup> 태종의 이러한 조치 역시

30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3월 22일 戊申.

30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8월 1일 甲申.

30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9월 18일 庚午.

30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9월 28일 庚辰; 9월 29일 辛巳.

30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10월 8일 庚寅.

강무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1417년 태종이 강무의 상소(常所)를 혁파하여 백성들에게 나무 베고 경작하도록 허락하자, 강무장에 들어가 자신들의 사전(私田)으로 삼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강원도의 횡성(橫城)·선암(扇巖) 등지에서 전(前) 호군(護軍) 최천명(崔天命) 등 10여 인이 강무장의 상소를 혁파한다는 교지(教旨)를 내린지 얼마 안 되어 즉시 들어가 가옥(家屋)을 지은 것이 10여 호여서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홍여방(洪汝方)이 이들을 죄주도록 청하였다.<sup>309)</sup>

한편 태종의 강무는 세자(世子)의 폐위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품행이 자유분방하고 색을 밝혀 잦은 문제를 일으켰던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은 1416년(태종 16) 태종의 강원도 평강(平康)에서의 추등강무(秋等講武) 때 서울을 몰래 빠져나가 부평(富平)에서 유숙하고, 철관포(鐵串浦)에서 매사냥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sup>310)</sup> 이에 더하여 그동안 세자의 행실이 문제가 되었는데, 세자는 어리(於里)라는 여자를 몰래 들였다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태종의 노여움을 샀다.<sup>311)</sup> 결국 '사람됨이 광폭(狂暴)하고, 미혹(迷惑)하고, 음란하고, 오락을 즐기고, 말을 달리기를 좋아하고, 유생(儒生)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학문(學問)을 일삼지 않았다고 평가받았으며,<sup>312)</sup> 마침내 1418년(태종 18) 6월 세자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을 세자로 삼았다.<sup>313)</sup> 이후 두 달 뒤인 8월 8일에는 세자 충녕대군에게 국보(國寶)를 주고 선위(禪位)하였고, 세종(世宗)이 8월 11일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였다.<sup>314)</sup>

세종은 즉위한 다음해인 1419년(세종 1)부터 태종과 같이 춘추강무(春秋講武)를 실시하였는데, 횡성 지역 역시 강무의 대상지 중에 하나였다. 세종은 흥년이 들었다며 춘등강무(春等講武)를 정지하고, 횡성(橫城)·진보(珍寶) 등지로 하여금

30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5, 태종 18년 2월 23일 甲辰.

31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4월 11일 丁卯.

31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15일 壬申; 권35, 태종 18년 3월 6일 丙辰.

31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5, 태종 18년 5월 30일 己卯.

31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5, 태종 18년 6월 2일 辛巳; 3일 壬午.

314)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6, 태종 18년 8월 8일 乙酉; 8월 10일 丁亥;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 세종 즉위년 8월 11일 戊子.

그에 지공(支供)할 물건을 준비하지 말도록 하였는데,<sup>315)</sup> 이를 보아 1419년 봄에 실시하는 강무를 횡성 또는 평창에서 실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419년 3월 춘등강무가 철원(鐵原) 등지에서 실시되었는데, 이때 세종은 상왕(上王)인 태종(太宗)과 노상왕(老上王)인 정종(定宗)을 배종(陪從)하였다.<sup>316)</sup> 또한 상왕 태종은 강원도감사(江原道監司) 하연(河演)을 불러 도내(道內)의 금년 풍흉을 물었는데, 이것은 강무(講武)할 곳을 정하려고 함이었다.<sup>317)</sup> 그러나 노상왕 정종의 병이 그해 9월에 위중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강무를 정지하였다.<sup>318)</sup>

상왕 태종은 노상왕 정종이 9월에 죽고 난 뒤 상사(喪事)를 마치자,<sup>319)</sup> 그해 10월 '명년 봄에 변고가 있을지 모르고, 또 경기(京畿)는 산릉(山陵)에 따른 여러 가지 일로 요역이 심히 번거롭다. 이제 상사(喪事)가 이미 마쳤으므로, 횡성(橫城)에 가고 싶은데 어떻겠소?'라고 하여 횡성에서 춘등강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다.<sup>320)</sup> 노상왕 정종이 죽고 상사를 마친 시점에서 상왕 태종이 '명년 봄에 변고가 있을지 모른다'고 운운한 것은 자신도 곧 형 정종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종의 상사로 강무 시기가 늦어졌지만 강무를 강행하고 그 장소도 자신이 원한 횡성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종이 횡성에서의 강무 시행에 대해 언급하자, 조말생(趙末生)·이명덕(李明德)·이수(李隨)·유영(柳穎)·원숙(元肅) 등의 대신들은 '지금 이미 길복(吉服)으로 돌아갔으니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태종의 말에 동의하였다. 즉 정종의 상사 때문에 강무가 정지되었지만, 상례(喪禮)를 마쳤으니 늦게라도 강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태종의 뜻에 맞추어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횡성 지역에서의 강무 실시도 사실상 동의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한다.

31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 세종 1년 1월 9일 甲寅.

31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 세종 1년 3월 10일 甲寅.

31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8월 23일 乙未.

31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9월 21일 癸亥.

319) 정종(定宗)은 1419년(세종 1) 9월 26일 사망하였다(『세종실록(世宗實錄)』 5권, 세종 1년 9월 26일 戊辰).

32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10월 28일 己亥.

태종은 병조좌랑(兵曹佐郎) 정여(鄭旅)를 당시 삼정승(三政丞)인 유정현(柳廷顯)·박은(朴崧)·이원(李原)에게 보내어 횡성에 거동하는 것의 가부를 물어보게 하였는데, 삼정승들이 ‘좋습니다’고 대답하자, 드디어 행행할 계획을 정하였다.<sup>321)</sup> 태종이 삼정승들에게 가부를 물어보게 한 것은 정종의 상사 후 대신들의 뜻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태종은 상호군(上護軍) 이군실(李君實)을 먼저 강원도로 보내어, 강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보게 하고, 여러 재추(宰樞)들에게 수가(隨駕), 즉 어가(御駕)를 따르게 하였다.

이어 병조(兵曹)에서 ‘이제 이미 상제(喪制)도 끝났으니, 옛날 중동(仲冬, 음력 11월)에 대열(大閱, 대규모 열병)한다는 전거에 따라 옛날의 제도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고 하여 강무 실시를 품계하였고, 태종이 ‘그대로 윤택한다’고 함으로써 강무를 공식적으로 거행하도록 정하였다.<sup>322)</sup>

그리고 마침내 1419년 11월 3일 상왕 태종은 세종과 함께 강원도에서 강무를 실시하려 서울을 출발하였다.<sup>323)</sup> 추등강무를 이때 실시한 것은 그해 9월에 노상왕(老上王)인 정종(定宗)이 죽어 상사(喪事)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추등강무에는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공녕군(恭寧君) 이인(李裨), 우의정(右議政) 이원(李原),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 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 판도총제부사(判都摠制府事) 이화영(李和英), 장흥군(長興君) 마천목(馬天牧), 병조판서(兵曹判書) 조말생(趙末生), 도총제(都摠制) 이담(李湛)·홍부(洪敷), 광록시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 소경(少卿) 한확(韓確), 총제(摠制) 유은지(柳殷之)·문효종(文孝宗)·곽승우(郭承祐)·이춘생(李春生)·성달생(成達生)·전흥(田興)·박실(朴實)·박성양(朴成陽)·이순몽(李順蒙)·원윤(元胤)·이교(李皎)·황상(黃象)·문귀(文貴), 병조참판(兵曹參判) 이명덕(李明德), 당성군(唐城君) 홍해(洪海), 지신사(知申事) 원숙(元肅), 좌대언(左代言) 김익정(金益精), 우대언(右代言) 이수(李隨), 동부대언(同副代言) 유영(柳穎), 첨지돈녕부사(僉知敦

32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10월 29일 庚子.

32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10월 29일 庚子.

323)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3일 癸卯.

寧府事) 홍상직(洪尙直), 첨총제(僉摠制) 김월하(金月下)·지백연(池伯淵)·조정(趙定)이 어가를 따랐다.

당시 많은 인원이 배종하였고, 그 규모는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사금(司禁)·사엄(司嚴) 및 사사로 부리는 반당(伴黨)을 제한 외에도 갑사(甲士)·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를 아울러 2천여 명이었으며, 말이 1만여 필이고, 별군방패(別軍防牌)가 수천 명이였다.

11월 3일 상왕인 태종 일행은 경기도 양주(楊州)의 평구역(平丘驛) 등처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양주(楊州) 조시배령(曹時背嶺) 남쪽에서 점심을 먹었고, 용진(龍津) 남쪽에서 사냥하고, 용진 여울을 건너 남쪽 언덕에 유숙하였다. 다음 날인 11월 4일에는 두 임금(태종과 세종)이 유다곡(鎬多谷)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지평현(砥平縣) 지덕원(支德院) 들[野]에서 점심을 먹고 종현(鍾懸) 들[野]에 도착하여 잤다.<sup>324)</sup> 11월 5일에는 두 임금이 길을 가면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원주(原州) 북쪽 경계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어가(御駕)가 횡성(橫城) 사기소(沙器所)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sup>325)</sup> 이 횡성의 사기소는 태종이 1414년(태종 14) 9월에 횡성에서 강무할 때 머물렀던 곳이다.

11월 6일에는 두 임금이 횡성 화동(禾洞)에서 점심을 먹고 북쪽 산에서 사냥하였는데, 충주도(忠州道) 및 원주도(原州道, 강원도) 몰이꾼 9천여 명이 어가를 따라온 군졸과 함께 산에 올라 몰이하어 북과 피리 소리가 하늘을 흔들었고, 짐승이 사장(射場)에 내려오자, 두 임금이 친히 짐승을 쫓아서 각각 시슴 한 마리씩을 쏘아 맞혔다.<sup>326)</sup> 그리고 그날 화동에서 잤는데, 날씨가 매우 추워지자 태종은 서울로 돌아가자고 하였고, 몰이꾼 6천여 명을 놓아 보내게 하였다.

11월 7일에는 두 임금이 선암동(扇岩洞)에서 낮참을 먹고 동원(洞原)에 도착하여 잤으며,<sup>327)</sup> 8일에는 총구(葱丘)에서 점심을 먹고 소신산(疎薪山)에서 사냥을

32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4일 甲辰.

32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5일 乙巳.

32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6일 丙午.

32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7일 丁未.

하고 실미원(實美院) 냇가에 유숙하였다.<sup>328)</sup> 실미원은 현재 횡성군 안흥면(安興面) 안흥리(安興里)로 1414년(태종 14) 9월에 횡성에서 강무할 때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던 곳이며, 1415년(태종 15) 8월 강릉과 평창에서 강무할 때도 실미원을 경유한 적이 있었다.

11월 9일에는 몰이꾼 3천여 명을 놓아 보내고, 원주의 서음소(鋤音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으며, 기대리(岐大里)에 도착하여 잤는데, 이날 원주의 기로(耆老) 정정(鄭政)·유선보(劉善寶) 등 10여 명이 와서 알현하였다.<sup>329)</sup> 상왕 태종은 기로들에게 술을 주도록 명하고, 유선보에게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 내가 일찍이 너의 사위 인시경(印時敬)을 장군에 임명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묻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태종이 13살 때 각림사에서 거처하며 수학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1월 10일에는 두 임금이 연로(沿路)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안장역(安將驛) 앞 냇가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여흥(驪興) 금당천(金堂川) 가에 도착하여 잤다.<sup>330)</sup> 다음날인 11일에는 연로에서 역시 매사냥을 관람하고 천녕현(川寧縣) 동편 들녘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으며 양근(楊根)의 기산(機山)에 도착하여 머물렀다.<sup>331)</sup> 12일에는 용진(龍津) 여울을 건너서 매사냥을 하고 여울가에서 점심을 먹었으며,<sup>332)</sup> 13일에 양진변(楊津邊)을 거쳐 환궁(還宮)하였다.<sup>333)</sup> 이로써 총 11일에 걸친 횡성 지역에서의 추등강무를 마무리 하였다.

1419년(세종 1) 11월에 이루어진 횡성에서의 추등강무는 사실상 상왕인 태종이 주도하였다. 이때 횡성에서 강무하면서 태종과 세종이 각림사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각림사와 가까운 곳에서 두 임금이 강무를 하면서 태종은

32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8일 戊申.

329)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9일 己酉.

33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10일 庚戌.

33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11일 辛亥.

33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12일 壬子.

333)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13일 癸丑.

어렸을 때의 추억과 소회들을 세종에게 언급하였을 것이다. 당시 두 임금이 원주에서 기로(耆老)들의 알현을 받자, 태종은 유선보(劉善寶)에게 ‘내가 13살 때 각림사에서 거처하였고, 너의 집에 갔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태종은 각림사에서 수학하는 동안 각림사 뿐만 아니라 치악산 일대 및 횡성과 원주 지역을 두루 돌아보았음에 틀림없고, 당시 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집 역시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세종대(世宗代) 강무장(講武場) 지정과 강무시 횡성 경유

세종은 1420년(세종 2) 2월 1일 황해도 해주 등지에서 상왕인 태종과 함께 춘등강무(春等講武)를 실시하였고, 2월 22일 강무를 마치고 돌아와 경기도(京畿道)의 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 철원(鐵原)·안협(安峽) 등지, 강원도(江原道)의 평강(平康)·이천(伊川) 등지, 횡성(橫城)·진보(珍寶) 등지를 강무장(講武場)으로 결정하고 그 지역 안에는 전부터 거주하던 사람과 이미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 새로 오거나, 개간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사냥하는 등의 일을 일체 금지시켰다.<sup>334)</sup> 즉 1417년(태종 17) 태종이 강무의 상소(常所)를 폐지한 이래, 다시 강무장을 정한 것이고, 이때 다시 횡성은 강무장으로 재차 정해진 것이다.

1420년 추등강무(秋等講武)는 태종의 아내이자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가 7월 10일 사망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421년(세종 3) 춘등강무는 상왕이었던 태종이 철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때 세종은 상제(喪制)가 다하지 못하였다며 사양하였으나 태종은 동행을 종용하여 두 임금이 강무에 나서게 되었다.<sup>335)</sup> 그해 2월 13일 두 임금은 날이 저물어서 양주(楊州) 동존(東存) 들에 도착하였는데, 다음날(2월 14일) 큰 비 때문에 하루를 더 머물렀으나

33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7, 세종 2년 2월 22일 庚申.

33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13일 丙午.



임우(霖雨)<sup>336)</sup>로 냇물이 넘치고 길이 질퍽거리고, 양주 동쪽에 하천이 흘러 넘쳐 거의 건너지 못할 정도여서 두 임금의 함께 풍양궁(豐壤宮)<sup>337)</sup>으로 돌아왔다.<sup>338)</sup>

이에 다시 1421년(세종 3) 2월 25일에 강원도 진부(珍富) 등지에서 강무를 실시하려 두 임금이 양주(楊州) 초두(草豆)에서 만났고, 용나루(龍津)를 건너서 저녁에 거가가 용나루 동쪽 언덕에 머물렀다.<sup>339)</sup> 다음날 26일에는 상왕 태종이 용문산(龍門山)에서 사냥하였으며, 저녁에는 양근(楊根) 남교(南郊)에 머물렀다.<sup>340)</sup> 27일에는 여흥(驪興) 팔대숲(八代藪)에서 점심을 먹고, 어가가 원주(原州) 금당천(金堂川)에 이르렀고,<sup>341)</sup> 28일에는 뱀내(蛇川)를 지나 저녁에 원주 북교(北郊)에 머물렀으며,<sup>342)</sup> 29일에는 회현(檜峴)을 넘어서 저녁에 안흥역(安興驛) 아래에 머물렀다.<sup>343)</sup>

3월 1일에는 독령(禿嶺)을 넘어 강릉(江陵) 방림역(方林驛)들에 머물렀고,<sup>344)</sup> 다음날인 2일에는 인부 2천 명을 동원하여 늘두산(訥豆山)에서 짐승을 몰이하고, 저녁에 대화역(大和驛)의 들에 머물렀다.<sup>345)</sup> 3일에는 구단산(九段山)에서 몰이하였고, 저녁에는 다시 대화역(大和驛)의 들에 돌아왔다가<sup>346)</sup> 4일에는 어가(御駕)가 모로현(毛老峴)을 넘어 진부역(珍富驛)의 미면촌(未麵村)에 이르렀다.<sup>347)</sup> 5일에는 진부(珍富)에 머무르면서 오전산(五錢山)·신당산(神堂山)에서 몰이하였고,<sup>348)</sup> 6일에도 진부에 머무르며 송동산(松洞山)에서 몰이하였다.<sup>349)</sup> 7일에는 행차를 서울로

336) 주로 여름철에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 장마를 뜻한다.

337) 풍양궁(豐壤宮)은 태종이 서울 근처에 세운 이궁(離宮) 가운데 하나로 왕이 사냥할 때나 광릉에 참배할 때 숙소로 사용하던 궁의 이름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33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15일 戊申.

339)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25일 戊午.

340) 이때 세종(世宗)은 상을 마치지 않아 활과 화살을 잡지 않았다(『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26일 己未).

34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27일 庚申. 금당천(金堂川)은 여주(驪州) 동쪽 10리 원주(原州)의 경계에 있다고 되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京畿) 여주목(驪州牧) 산천(山川)).

34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28일 辛酉.

343)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29일 壬戌.

34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1일 癸亥.

34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2일 甲子.

34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3일 乙丑.

34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4일 丙寅.

34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5일 丁卯.

349)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6일 戊辰.

돌렸는데, 모로현(毛老峴)을 넘어 대화(大和)의 옛 현(縣) 자리에 머물렀다.<sup>350)</sup>

8일에는 어가가 독현(秃峴)을 넘어 횡성현(橫城縣)에 머물렀는데, 이때 각림사의 주지(住持) 석휴(釋休)가 와서 알현하였다.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의 주지(住持) 석휴(釋休)가 와서 알현하니 쌀 2백 석을 주었다. 각림사는 상왕(上王)이 잠저(潛邸) 때에 유학(遊學)한 곳이며, 석휴는 일찍이 세목(洗沐)의 공로가 있었다.<sup>351)</sup>

석휴는 1412년(태종 12)에 이미 각림사의 주지였는데, 각림사의 승도(僧徒)들이 전세(田稅)를 후하게 거두어 문제가 되었을 때, 직접 태종에게 아뢰어 이 일을 무마시킨 적이 있었다.<sup>352)</sup> 1421년(세종 3)에 석휴가 각림사의 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림사가 태종의 지원으로 중창되고 낙성 법회를 개최하였을 때도 각림사의 주지였을 것이다. 각림사 주지였던 석휴는 태종과 세종이 진부 등지에서 강무를 하고 돌아가다가 횡성현에 이르자 두 임금을 알현한 것이다. 그런데 석휴는 태종이 잠저 때에 각림사에서 유학할 때 세목(洗沐), 즉 태종의 머리를 감고 몸을 깨끗이 씻긴 공로가 있다고 하고 있어 각림사에 있던 젊은 이방원(후의 태종)의 시중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진부 등에서 강무를 행한 태종과 세종이 횡성을 경유하면서 각림사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각림사의 주지였던 석휴가 두 임금을 알현하였다는 것은 옛 정을 생각한 태종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종은 자신의 형 정종과 아내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였고, 자신도 늙고 병약해져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어릴 적에 각림사에서 함께 지냈고 자신의 머리를 감기고 목욕시키며 시중들었던 석휴와의 만남을 바랬을 것이다. 어쩌면 강원도 진부로 강무를 시행한 것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속이라도 보고 싶던 횡성의 산천들을

35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7일 己巳.

35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8일 庚午.

35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10월 17일 己巳.

지나가고 오며 보고 싶은 염원이 반영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강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바램대로 당시 각림사의 주지로 있던 석휴와의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석휴의 알현을 받았던 태종과 세종은 다음날인 1421년(세종 3) 3월 9일 황성현 남교(南郊)에 머물렀다가<sup>353)</sup> 10일에는 지평(砥平) 상발산(上鉢山)에 도착하였고,<sup>354)</sup> 11일에는 용진(龍津)을 건너서 서쪽 강가에 머물렀으며,<sup>355)</sup> 12일에는 독음포(禿音浦)를 거쳐 태종은 풍양궁으로, 세종은 서울로 돌아왔다.<sup>356)</sup> 이로써 17일간에 걸친 춘등강무를 마쳤는데, 진부 등지에서 강무하면서 왕복 노정 중 황성 지역을 두 차례나 경유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강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시 각림사의 주지였던 석휴의 알현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왕이었던 태종은 1421년 춘등강무 후 ‘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멀리 나가 강무(講武)하지 않으려고 하나, 매[鷹] 날리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며 그해 추등강무를 사실상 정지하였고,<sup>357)</sup> 실제로 1422년(세종 4) 5월 10일 사망할 때<sup>358)</sup> 까지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매사냥을 하거나 관람하는 등 강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1421년 진부 등지에서의 강무가 태종의 마지막 강무였으며, 이때 왕복 노정에서 황성을 두 차례 경유한 것이 태종의 마지막 황성 행차였다. 이후 태종의 상(喪)을 당한 세종은 1424년(세종 6) 9월 추등강무까지 강무를 정지하였다.

353)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9일 辛未.

35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10일 壬申.

35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11일 癸酉.

35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3월 12일 甲戌.

35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3, 세종 3년 8월 3일 癸巳.

35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 5월 10일 丙寅.

### 3. 세종의 불교정책과 각림사

세종은 1419년(세종 1) 정종(定宗)이 사망하자 흥덕사(興德寺)·흥복사(興福寺)·흥천사(興天寺)·장의사(藏義寺)·진관사(津寬寺)·개경사(開慶寺) 등에서 7재(齋)<sup>359</sup>를 베풀었고, 어머니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와 태종(太宗)이 사망하였을 때도 이들 사찰 등에서 역시 7재를 베풀었다. 요컨대 세종은 상왕 태종의 불교정책을 계승해서 종래 왕실의 관례적인 불사들을 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은 상왕이었던 태종의 사망 이후 태종 시기보다 강력한 억불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태종은 전국에 남겨져 있던 사원을 11종(宗), 이후 다시 7종으로 축소한 바 있었는데, 1424년(세종 6) 세종은 7종의 교단을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양종(兩宗)으로 통합하였다.<sup>360</sup> 곧 예조(禮曹)에서는 ‘석씨(釋氏)의 도는 선(禪)·교(敎) 양종(兩宗)뿐이었는데, 그 뒤에 정통과 방계가 각기 소업(所業)으로써 7종으로 나누어졌다고 하였고,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寺社)를 세워, 각 종(宗)에 분속(分屬)시켰는데, 그 수효가 엄청나게 많으나, 중들이 사망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즙(修葺)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계(曹溪)·천태(天台)·총남(攄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宗)으로, 화엄(華嚴)·자은(慈恩)·중신(中神)·시흥(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敎宗)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중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을 아뢰었다.

예조는 이 36개소의 절에 전지를 넉넉하게 급여하고 우거(寓居)하는 중의 인원을 정하며, 교단 통제 기구였던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는 한편 서울에 있는 흥천사(興天寺)를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로, 흥덕사(興德寺)를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로 하여, 양종의 행수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중들의 일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였다.

359)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올리는 제.

36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그리고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사사(寺社)와 우거하는 중의 정원과 급여할 전지의 결수(結數)를 가지고 낱낱이 아뢰었는데, 다음과 같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천 2백 50결입니다. 서울 흥천사는 원속전(元屬田)은 1백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恒居僧)은 1백 20명입니다. 유후사(留後司) 숭효사(崇孝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명이며, 연복사(演福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명이며, 개성 관음굴(觀音窟)은 원속전이 45결인데, 이번에 1백 5결과 수륙위전(水陸位田)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이며, 경기 양주(楊州) 승가사(僧伽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입니다. 개경사(開慶寺)는 원속전이 4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명이며, 회암사(檜巖寺)는 원속전이 5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 50명이며, 진관사(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륙위전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고양(高陽) 대자암(大慈菴)은 원속전이 1백 52결 96복(卜)인데, 이번에 97결 4복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충청도 공주(公州) 계룡사(鷄龍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 진주(晉州) 단속사(斷俗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경주(慶州) 지림사(祇林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전라도 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태인(泰仁) 흥룡사(興龍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 고성(高城) 유점사(楡岾寺)는 원속전이 2백 5결인데, 이번에 95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50명이며,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는 원속전이 3백결이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황해도 은율(殷栗) 정곡사(亭谷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함길도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는 원속전이 2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교종(敎宗)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천 7백 결입니다. 서울 흥덕사는 원속전이 2백 50결이고, 거승은 1백 20명이며, 유후사 광명사(廣明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신암사(神巖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개성(開城) 감로사(甘露寺)는 원속전이 40결인데, 이번에 1백 6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경기 해풍(海豐) 연경사(衍慶寺)는 원속전이 3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주고, 거승은 2백명이며, 송림(松林) 영통사(靈通寺)는 원속전이 2백결이고, 거승은 1백명이며, 양주(楊州) 장의사(藏義寺)는 원속전이 2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이며, 소요사(逍遙寺)는 이번에 속전이 1백 50결이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충청도 보은(報恩) 속리사(俗離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1백 4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충주(忠州) 보련사(寶蓮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 거제(巨濟) 견암사(見巖寺)는 원속전이 50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1백 2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입니다. 전라도 창평(昌平) 서봉사(瑞峯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전주(全州) 경복사(景福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 회양(淮陽) 표훈사(表訓寺)는 원속전이 2백 1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황해도 문화현(文化縣) 월정사(月精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는 원속전이 2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평안도 평양(平壤) 영명사(永明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sup>361)</sup>

이 중 선종에 예속된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250결이었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24년(세종 6) 선종에 예속된 절과 전지, 항거승>

(단위 : 결, 명)

사찰명	원속전(元續田)	추가 전지(田地)	항거승(恒居僧)	총 결수
흥천사(興天寺)	160	90	120	250
송효사(崇孝寺)	100	100	100	200
연복사(演福寺)	100	100	100	200
관음굴(觀音窟)	45	205	70	250

36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승가사(僧伽寺)	60	90	70	150
개경사(開慶寺)	400		200	400
회암사(檜巖寺)	500		250	500
진관사(津寬寺)	60	190	70	250
대자암(大子巖)	152.96	97.04	120	250
계룡사(鷄龍寺)	100	50	70	150
단속사(斷俗寺)	100	100	100	200
지림사(祇林寺)	100	50	70	150
화엄사(華嚴寺)	100	50	70	150
흥룡사(興龍寺)	80	70	70	150
유점사(楡岾寺)	205	95	150	300
각림사(覺林寺)	300		150	300
정곡사(亭谷寺)	60	90	70	150
석왕사(釋王寺)	200	50	120	250
합 계	2,822.96	1,427.04	1,970	4,250

이 표를 보면 각림사의 원속전은 300결이었는데, 당시 선종 18개의 사찰 중 각림사 보다 원속전이 많은 곳은 개경사와 회암사뿐이었다. 즉 개경사가 400결, 회암사가 500결로 각림사의 300결 보다 많지만, 개경사와 회암사를 제외하면 각림사가 가지고 있는 원속전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역시 태종대 각림사가 많은 우대를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각 사찰에 추가 전지를 주었음에도 역시 회암사 500결, 개경사 400결, 각림사 300결로 각림사가 전국의 18개 사찰 중 세 번째로 많은 결수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향거승 역시 회암사 250명, 개경사 200명, 각림사와 유점사가 150명으로 선종 18개 사찰 중 세 번째로 많은 향거승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각림사의 전결의 총수와 향거승의 수를 당시 선종 사찰의 규모와 비교해 보아도 각림사에 대한 국가의 각별한 배려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당대 최고의 사찰로 거듭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세종은 이후 승려의 도성 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연소한 자의 출가를 금하는 등 억불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세종은 중년 이후 불교를 신봉하여 경전을 가까이하고 불사를 일으켰으며,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대궐 안에 불당을 세우기까지 하였다. 또한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편찬·간행하게 하였다.

한편 1426년(세종 8) 사헌부(司憲府)에서 각림사의 주지 중호(中皓) 등을 탄핵하였다.<sup>362)</sup> 사헌부에서는 개경사(開慶寺) 주지(住持) 설우(雪牛)와 각림사 주지 중호(中皓)와 대선사(大禪師) 해초(海超)·이인(以仁)·학녕(學寧) 등이 조계종(曹溪宗)의 은으로 만든 그릇을 없애려 하여 지난해 4~5월에 녹여서 덩어리로 만든 것을 관가에 바치지 않았다고 논박하였다. 이어서 나머지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은 밤에 모두 녹여 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누어 집어넣고, 또 금과 은을 간직했던 게 하나도 간곳이 없어졌다며 관련된 중들의 적첩을 빼앗고 철저히 추궁하도록 아뢰었다.

당시 개경사 주지였던 설우는 조말생(趙末生, 1370년~1447년)의 동생으로, 법명은 법유(法乳)였으며 판조계종사(判曹溪宗事)를 역임하였다.<sup>363)</sup> 또한 각림사 주지 중호는 판선종사사(判禪宗事事)를 역임하였다.<sup>364)</sup> 즉 설우는 1424년(세종 6) 7종의 교단을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으로 통합하기 전에 조계종을 이끌던 고승이고, 중호는 선종과 교종을 통합한 이후 선종을 이끌던 고승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위 '김도련(金道鍊) 회뢰(賄賂)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처음에 철원호장(鐵原戶長) 김생(金生)이 간성호장(杆城戶長)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김송(金松)과 김진의(金珍衣) 등을 낳고, 도망하여 함흥부(咸興府)의 홍원현(洪原縣)에서 살았는데, 여러 대(代)의 자손이 남너 426명이나 되었다. 김도련(金道鍊)의 아버지 김원룡(金元龍)이 장사를 하던 중 김진의의 집에 머무르다가, 김생의 아들 김송의 이름자와 조상 내력 등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도망한 종(奴) 허송(許松)의 소생(所生)이라고 하고 고려 말 임견미(林堅味)의 세력에 의지하여 문천(文川)의 관청에 알리어 공초(供招)를 받아 이들을 모두 천인(賤人)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견미가 참형(斬刑)을

36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3월 9일 癸卯.

363) [조말생신도비문(趙末生神道碑文)]; 『세종실록(世宗實錄)』 권48, 세종 12년 4월 20일 庚寅.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설우(雪牛)가 조말생의 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말생신도비문(趙末生神道碑文)]에는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36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7, 세종 7년 1월 25일 丙申.



당한 뒤에는 다시 양인(良人)이 되어 군역(軍役)을 정했는데, 김도련과 일족(一族)인 손봉(孫鳳)·이안(李安) 등이 또 이들을 노비(奴婢)로써 추핵(推覈)하여 판결을 얻기 위해, 권세가(權勢家)에게 노비를 증여한 것이었다.<sup>365)</sup>

결국 1426년(세종 8) 3월 현직 우의정을 비롯하여 병조판서 등 조정의 고관대작들이 김도련에게서 뇌물을 받고 노비(奴婢) 변정(辨正)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탄로 나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때 그들이 받았다는 뇌물이 많게는 수십 명에 달하는 노비들이었다.<sup>366)</sup> 즉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조견(趙狷)에게 17명, 우의정 정탁(鄭擢 : 당시 사망)에게 7명, 우의정 조연(趙涓)에게 6명,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에게 7명, 이원(李原)에게 4명, 고 참의(參議) 조승덕(曹崇德)에게 8명, 조말생에게 36명, 정주목사(定州牧使) 남궁계(南宮啓)에게 2명, 총제 이흥발(李興發)에게 4명, 지의천군사(知宜川郡事) 윤간(尹諫)에게 14명,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김이공(金理恭)에게 3명, 소경(少卿) 최득비(崔得非)에게 1명, 대호군 이을화(李乙和)에게 1명, 전 정랑(正郎) 오비(吳備)에게 1명, 전 사정(司正) 신득지(申得止)에게 8명, 변귀생(卞貴生)에게 12명, 전 판사(判事) 이열(李烈)에게 1명이었다.

이 중 조말생에게 가장 많은 36명이 뇌물로 바쳐졌는데, 당시 조말생이 승정원(承政院)에서 형방승지(刑房承旨)여서 김도련 편에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 챙기고, 형조 관리들을 포섭해 승소를 이끌어내어 김생의 후손 426명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으며, 그들의 재산은 모두 김도련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조말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청렴하기만 한 줄 알았던 조말생은 매관매직(賣官賣職) 등으로 엄청난 재산을 불린 탐관오리(貪官汚吏)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김도련 회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말생의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조말생의 동생 개경사의 주지 설우 등에 대한 불법 행위도

36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2, 세종 8년 4월 26일 己丑.

36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3월 4일 戊戌.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관조계종사를 역임한 개경사의 주지 설우와 판선종사사를 역임한 각림사의 주지 중호 등이 조계(曹溪)·천태(天台)·총남(攄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宗)이 된 상황에서 옛 조계종의 은그릇을 녹이고 합친 것을 관에 바치지 않고 사취(詐取)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 금은이 조말생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으로 조말생과 관련된 비리를 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1416년(태종 16) 각림사의 주지(住持) 의유(義遊)가 백은(白銀)을 당시 지신사(知申事)였던 조말생에게 증여한 것이 발각되어 의유의 직첩이 거두어졌고, 의유를 붙잡아 추핵하도록 하였다.<sup>367)</sup> 또한 설우와 중호 등이 은을 녹여 합친 것도 조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사헌부에서는 설우를 탄핵하였으며, 조말생을 파출(罷黜)하도록 청하였다.<sup>368)</sup> 결국 조말생은 김도련에게 노비 36명을 받은 것 이외에도 중(僧) 상혜(尙惠)·의유(義遊) 등의 은(銀)과 그 형인 중 설우(雪牛)가 밤에 불기(佛器)를 녹인 은(銀)을 받아 쓴 것 등에 대한 탄핵을 받아 직첩이 회수당하였으며, 조말생은 황해도 평산(平山)으로 귀양보내지게 되었다.<sup>369)</sup>

한편 이 사건은 각림사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우선 각림사가 중앙 조정과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조말생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태종의 총애를 받았던 권신(權臣)으로 세종 때에도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다. 조말생에게 각림사의 주지가 은을 증여할 만큼 각림사는 중앙 조정의 인맥과 상당히 두터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각림사는 당시 선종계를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조계종사를 역임한 개경사의 주지 설우와 세조(世祖) 때 『월인석보(月印釋譜)』의 편찬에 참여

36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2, 세종 8년 4월 9일 壬申.

36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2, 세종 8년 5월 5일 戊戌.

369)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5, 세종 9년 1월 7일 丙申; 권48, 세종 12년 4월 20일 庚寅. 1430년(세종 12) 4월 20일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 등이 상소한 조말생의 장오죄(贓汚罪)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녀(良女)인 삼가(三嘉)·사덕(四德) 등이 낳은 인구를 천인(賤人)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부린 것. 2. 김도련(金道鍊)·양민(梁敏) 등이 준 노비(奴婢) 36명을 공공연하게 받은 것. 3. 부거(富居) 사람인 보충군(補充軍) 서철(徐哲)이 은병(銀瓶)과 비단(段子)을 뇌물로 준 때문에 근무한 날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참람하게 관직을 준 것. 4. 중(僧) 상혜(尙惠)·의유(義遊) 등의 은(銀)과 그 형인 중 설우(雪牛)가 밤에 불기(佛器)를 녹인 은(銀)을 그 실정을 알면서 받아 쓴 것. 5. 양주목사 송흥(宋興)에게 청탁하여 그 고을 사람 임우(任友)의 시위군(侍衛軍) 병역을 면제한 후에 관직을 주고서 임우의 밭을 차지하였으며, 또 홍충(洪忠)과 허충(許忠)의 밭을 받고서 모두 관직을 준 것. 6. 한미(寒微)한 친척 한희(韓翬)가 전조(田租)를 바치지 않는다고 마침내 그 전지를 빼앗은 것. 7. 웅진(襄津)·순위(巡威) 등 수령에게 사사로 편지를 보내어 그 배삯(船價)을 받은 것.

하는 대선사(大禪師) 해초(海超) 등이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당시 각림사의 주지는 판선종사사(判禪宗事事)를 역임한 중호였다. 판선종사사는 세종의 불교계 통합으로 조계·천태·총남 3종이 합쳐져 선종(禪宗)이 된 이후 선종을 대표하는 위치였다. 물론 각림사가 중앙 조정의 인맥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종을 대표하는 위치에 오른 것은 태종이 잠저 때에 각림사에서 공부하였던 인연으로 각림사에 대한 중창 등 후원을 한 것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는 석휴(釋休) 이후 중호(中皓)와 의유(義游) 등 각림사의 주지를 맡았던 스님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석휴는 태종이 젊었을 때 각림사에서 공부하던 것을 시종들었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각림사의 주지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각림사의 중창과 왕실의 후원 아래 천태종 또는 선종 중에서 명망 있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각림사의 주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각림사가 터만 남아 있고, 자료의 부족으로 그 법맥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 단편적이지만 각림사의 역사와 법맥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세종의 숭불(崇佛)과 각림사

세종은 상왕 태종의 사망 이후 강력한 억불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중년 이후로는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불사를 일으켰다. 또한 세종은 말년에는 더욱 불교에 심취하여 대궐 안에 불당을 세웠으며,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찬하고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짓기도 하였다.

세종 때에 천태종의 행호(行乎) 스님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는데, 행호는 전라도 강진(康津)의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寺)를 중수하였다. 또한 행호는 세종의 명으로 흥천사(興天寺) 등에 머물기도 하였다. 시문집인 『천봉집(千峰集)』을 남겼다고 하는 만우(卍雨) 역시 세종대의 명승(名僧)으로,

세종대에 회암사(檜巖寺)의 주지를 지냈는데, 세종은 왕명으로 만우를 흥천사로 옮겨 머물게 하였다.

양주(楊州)에 있던 회암사는 무학(無學)대사가 주지가 되어 머물렀으며,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수도 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효령대군(孝寧大君)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또한 회암사에는 세종의 어머니이자 태종의 부인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수불(繡佛)이 있었다.<sup>370)</sup> 회암사는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이라고 할 만큼 원속전(元續田)이 500결, 항거승(恒居僧)이 25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1424년(세종 6) 7종의 교단을 선종(禪宗)과 교종(教宗)의 양종(兩宗)으로 통합할 당시 가장 큰 규모였다.

회암사는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왕후의 원불(願佛)이 걸려있는 곳이었던 때문에 사찰이 기울어지자 효령대군이 중수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료들과 유생들의 반대가 있었다. 세종은 태조와 태종이 연경사(衍慶寺)·흥천사(興天寺)·각림사(覺林寺)를 중수하거나 우대하였던 예를 들며 신료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회암사의 중건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생(館生)과 집현전(集賢殿)에서 함께 상서(上書)하기를, ‘회암사(檜巖寺)의 중수(重修)를 금하기 청합니다.’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그러나 암자를 짓고 부처를 공양하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였다. 따라서 우리 태조·태종께서는 연경사(衍慶寺)·흥천사(興天寺)·각림사(覺林寺) 등에서 혹은 법연(法筵)을 베풀어 그 교를 받드셨고, 나도 또한 강법(講法)하는 절에 가끔 향(香)을 내려 주었다. 더구나 회암사는 태조께서 믿고 존중히 여기시던 곳이며, 또 대비(大妃)의 원불(願佛)이 걸려 있는 곳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기울어지고 퇴락하여지매,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중수(重修)하고자 생각하고 그 까닭을 고(告)하기에, 내가 곡식과 김(穀) 약간을 내려 주어 이바지(供億)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였더니, 중(僧徒)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속인(俗人)들을 권유(勸誘)하여 널리 재화(財貨)를 모은다 하니, 이는 비록 내가 시킨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37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4월 10일 丁巳. 수불(繡佛)은 수를 놓아 만든 부처의 형상을 말한다.

반드시 나를 가지고 허물할 것이요 동시에 공의(公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부고(府庫)의 전재(錢財)를 내어 불사(佛事)에 이바지함이 어떨까.”하였다.<sup>371)</sup>

세종은 성균관 유생과 집현전 신료들이 회암사의 중수를 금하도록 청하자, 암자를 짓고 부처를 공양하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태조와 태종이 연경사·흥천사·각림사 등에서 불법(佛法)을 강설(講說)하는 자리를 베풀어서 불교를 받들었고, 자신도 또한 강법하는 절에 가끔 향(香)을 내려 주었다고 하였다. 결국 세종은 태조와 태종의 연경사·흥천사·각림사 중건 및 불사(佛事), 불법 강설 등을 예로 들며 회암사의 중건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종은 회암사는 태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고, 또한 자신의 어머니인 원경왕후의 원불(願佛)이 있는 곳이므로, 기울어지자 효령대군이 중수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들이 속인들을 권유하여 널리 재화를 모은다고 하므로 차라리 관청의 재물을 내어 불사에 이바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결국 세종은 태종이 각림사에 대한 불사와 불법 강설 등을 예로 들며 신하들의 불사 금지 요구를 무마하고 회암사에 대해 쌀을 하사하는 등 불교의 중흥을 묵인하였으며, 효령대군의 회암사 중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세종은 흥천사(興天寺)의 탑전(塔殿)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태종이 각림사의 중창을 권유하였던 예를 따라 권문(勸文)을 짓게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흥천사(興天寺)의 탑전(塔殿)을 수리하려 하여 호조판서 안순(安純)에게 의논하니, 순이 말하기를, ‘대개 승도(僧徒)들은 공가(公家)에서 불려서 역사를 시키면 반드시 싫어하고 꺼리고, 스스로 서로 불러 모이면 즐겁게 일에 나간다고 하니, 그 말이 옳을 것 같다. 옛날에 태종께서, 각림사(覺林寺)가 예전에 노시던 땅이므로, 친히

37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4월 13일 庚申.

권문(勸文)에 수결(手決)두시어 간사(幹事)하는 중에게 주어 중창(重創)을 권유(勸誘)하였는데, 제도가 극히 장려하여 홍천사 탐전의 개조(改造)에 비하면 재력(財力)이 10배뿐이 아니겠는데, 그때의 중들이 국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쉽게 영건(營建)하고 경찬회(慶讚會)까지 베풀었다. 지금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교서(敎書)의 권문(勸文)에 인(印)을 찍어 행신보(行信寶)로써 간사(幹事)하는 중에게 주어, 중들을 불러 모아 수리하게 하되, 효령대군(孝寧大君)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려 한다. …”하였다.<sup>372)</sup>

이를 보면, 태종은 각림사가 예전에 머물렀던 곳이므로 각림사를 중창하면서 친히 이를 권한는 글에 수결(手決)<sup>373)</sup>하여 중창을 맡은 중에게 주어 각림사의 중창을 권유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태종이 각림사의 중창에 관한 권문에 수결함으로써 각림사의 중창은 홍천사 탐전의 수리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것이었지만, 그때의 중들이 국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영건(營建)하고 경찬회(慶讚會)<sup>374)</sup>까지 베풀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종은 태종 때 각림사를 중창하였던 옛 일의 고사를 근거를 삼아, 홍천사의 탐전을 수리하는 교서(敎書)의 권문(勸文)에 인(印)을 찍어 행신보(行信寶)<sup>375)</sup>로써 일을 맡은 중에게 주어서 중들을 불러 모아 수리하게 하고, 효령대군(孝寧大君)으로 하여금 일을 주관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세종은 동부승지 권채(權採)에게 홍천사의 탐전을 수리하는 권문을 짓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러 승지들이 교서나 권문을 내리는 것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므로, 세종은 영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노한(盧閑)·호조판서 안순(安純)을 불러 이 일을 의논하였다. 여기서도 태종 때 각림사의 중창과 관련된 일을 거론하였다.

37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8, 세종 17년 5월 20일 辛卯.

373) 자기 성명이나 직함 아래 도장 대신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로 수압(手押)이라고도 한다.

374)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는 법회.

375)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말한다. 조선초기에는 국왕문서에 사용할 국새(國璽)의 대체 어보(御寶)인 신보와 행보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인문(印文)은 각각 '국왕신보(國王信寶)'·'국왕행보(國王行寶)'였다. 이것은 명(明)으로부터 책봉(冊封)과 함께 받은 국새의 문구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으로 국내의 일에 쓰기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때부터 전해 오던 옛 제도에 따라 신보와 행보를 새로 제작하고, 국새는 사대(事大) 문서에 국한하였던 것이다.

“흥천사(興天寺)의 탑전(塔殿)을 층각(層閣)을 헐어 버리고 따로 앞 전각(前閣)을 짓도록 내가 이미 계획을 정하였다. 옛날에 각림사(覺林寺)를 중창(重創)할 때에 국가의 재력이 어찌 넉넉하지 못할까마는, 태종께서 친히 권문(勸文)에 수결(手決)하여 간사(幹事)하는 중들에게 주었는데, 두어 달이 못되어 완성되었다. 이듬해에 내가 강무(講武)하는 일로 인하여 이 절을 지나게 되어서 보니, 제도가 장려(壯麗)하였다. 또 개경사(開慶寺)도 역시 승도(僧徒)들을 시켜 지었는데 불우(佛宇)와 승당(僧堂)이 또한 굉장하였다. 대개 각림사는 태종께서 예전에 노시던 땅이라 하여 중수하였고, 개경사(開慶寺)는 능실(陵室) 때문에 지은 것인데, 하물며 흥천사 탑전은 태조께서 지으시고 수리 보완(補完)하여 폐하지 말 것을 태종께 부탁하셨고, 태종이 또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지금 탑전이 썩어서 기울어졌다는 말을 듣고 어찌 무심히 이를 보고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국가의 재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태종께서 각림사를 중수하신 예(例)에 의하여, 또 승도들을 불러 모아 영조(營造)하려고 하는데, 권문(勸文)이나 교서(敎書)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는가. 내가 여러 승지(承旨)에게 의논하여 보았는데 모두 불가하다 하므로, 내가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卿)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sup>376)</sup>

세종은 흥천사의 탑전을 수리하는 것에 있어서, 역시 각림사를 중창할 때 태종이 친히 권문에 수결하여 일을 맡은 중들에게 주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리고 각림사의 중창은 이 덕분에 두어 달이 못되어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이듬해에 강무하는 일로 각림사를 지나게 되어서 보니, 제도가 장려(壯麗)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세종은 각림사를 중창한 이유가 태종께서 옛날에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이며, 각림사를 중창하면서 태종이 권문에 친히 수결한 것은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다. 흥천사의 탑전 수리 역시 국가의 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태조·태종의 유시를 지키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태종이 각림사를 중수한 예에 의하여 승도들을 불러 모아서 영조(營造)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37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8, 세종 17년 5월 21일 壬辰.

이를 보면 각림사는 태종 때 중창 이후 여러 사찰의 개보수 및 중창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가 되었고, 왕실의 불교 행사 및 불교 사원 지원에 있어서도 하나의 근거로 작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수륙재(水陸齋)와 각림사

1440년(세종 22) 세종은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여 주인(鑄印) 1개를 각림사에 내려 주게 하였는데, 장차 수륙재(水陸齋) 때에 쓰고자 함이었다.<sup>377)</sup> 각림사의 수륙재와 관련된 기록은 이것뿐이지만, 이를 통해 각림사에서 수륙재가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메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佛法)을 강설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베푸는 불교행사이다.<sup>378)</sup> 수륙재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불교행사였는데, 오늘날 이 의례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하기 위해 지금도 불교계에서는 설행하고 있다. 현재 수륙재는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의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수륙재의 기원은 인도의 사아귀회(施餓鬼會)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에 전래된 후 중국의 양무제(梁武帝)가 처음 수륙재를 설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고려에 전파된 수륙재는 조선 전기에 국행의례(國行儀禮)로 설행되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찰에서 행하던 기신재(忌辰齋)를 수륙재로 통합하였다.<sup>379)</sup>

조선에서 수륙재를 처음 실시한 것은 1395년(태조 4)으로 관음굴(觀音窟)·

37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88, 세종 22년 2월 17일 庚寅.

378) 안계현, 『불교행사의 성행』,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75, 131쪽.

379) 강호선,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 2017, 486~487쪽.



현암사(見巖寺)·삼화사(三和寺)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여 고려 왕씨들을 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80)</sup> 당시 관음굴은 개성에, 현암사는 거제에, 삼화사는 삼척에 있었는데, 이것은 1394년(태조 3) 모반죄로 몰려 강화, 삼척, 거제 등지에서 참수되거나 수장당한 고려 왕씨 일족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 수륙재를 거행한 것이었다. 결국 이 세 사찰에서 거행된 수륙재는 비명에 간 왕씨 일족 전체의 넋을 위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일족이 몰살당하였기에 따로 제사상을 차려 줄 후손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천도를 빌어줌으로써 조선이라는 국가에 재역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81)</sup>

이후 1396년(태조 5) 성문 밖 세 곳에 수륙재를 베풀어 역부(役夫)로서 죽은 자의 혼령을 위로하였고,<sup>382)</sup> 1398년(태조 7)에는 서울에 있는 진관사(津寬寺)에 수륙재를 설행하였다.<sup>383)</sup> 그런데 진관사의 수륙재는 그 목적이 조상의 추복과 개국 과정에서 희생된 무주고혼의 천도에 있었고, 특히 이 이후 역사적 전개로 볼 때 진관사는 확실히 이성계의 조상을 비롯하여 왕실의 추모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수륙재 전담 사찰이었다.<sup>384)</sup>

따라서 조선 초기의 수륙재는 고려 왕씨 일족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지만, 이후 불특정·특정 망자들을 위한 천도의례로 변화하였으며, 더구나 조선 왕실과 관련있는 특정 망자들의 천도를 위해 설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점차 망자 천도와 무관한 특정인의 수명 연장 또는 특정인의 구병 등을 목적으로 설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 국상(國喪)과 관련된 의례는 주로 불교식으로 행해졌다. 즉 초재부터 7일마다 모두 7회 열리는 칠칠재(49재), 사망 후 100일째에 행해지는 백일재, 1주년 때의 소상재(小喪齋), 2주년 탈상 때의 대상재(大喪齋), 대상재 이후

380)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2월 24일 戊子.

381) 민순의, 「조선전기 수륙재의 내용과 성격-천도의례(薦度儀禮)의 성격 및 무차대회(無遮大會)와의 개념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불교문예연구』 9, 2017, 207~208쪽.

382)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2월 27일 乙卯.

383)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1월 6일 甲寅.

384) 민순의, 앞의 논문, 2017, 211~212쪽.

매년의 기일마다 행해지는 기신재(忌晨齋)가 그것이다. 조선은 태조의 국상 때부터 칠칠재, 백일재, 소상재, 대상재에서는 법석과 재를 함께 설행하였으며, 1420년(세종 2)에는 원경왕후(元敬王后)의 국상 때 법석을 폐지하고 추천재(칠칠재, 백일재, 소상재, 대상재)와 수륙재를 합설(合設)하였다. 불교식 상제례인 추천재를 수륙재의 형식으로 설행한다는 것은, 특정 망자의 추천의식에서 무주고혼과 육도윤회의 중생 모두를 거두어 먹이는 재차를 의도적으로 삼입한다는 뜻이고, 그럼으로써 그 공덕을 추천재의 주인공이 되는 망자에게 회향하고자 하려는 것이다.<sup>385)</sup>

왕실의 추천재와 기신재를 수륙재로 통합하였다는 것은 전통적인 불교식 기신재와 천도재를 국가가 규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추천재와 기신재가 수륙재로 합설된 것은 기신재와 천도재 등 각종 의식을 간소화하려 한 동시에 왕실 상례 뿐 아니라 일반 사대부들의 상례에서 불교의식을 분리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기신재와 추천재가 수륙재로 설행되면서 한편으로 수륙재는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sup>386)</sup> 당시 수륙재의 성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효령대군(孝寧大君)이 7일 동안 한강에서 수륙재를 개설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효령대군 이보가 성대하게 수륙재를 7일 동안 한강에서 개설하였다. 임금이 향을 내려 주고, 삼단(三壇)을 쌓아 중 1천여 명에게 음식 대접을 하며 모두 보시를 주고, 길가는 행인에게 이르기까지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날마다 백미(白米) 두어 섬을 강물 속에 던져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베풀었다. 나부끼는 깃발과 일산이 강(江)을 덮으며, 북소리와 종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니, 서울 안의 선비와 부녀(婦女)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양반의 부녀도 또한 더러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가지고 와서 공양하였다. 중의 풍속에는 남녀(男女)가 뒤섞여서 구별이 없었다. 전판관(判官) 길사순(吉師舜)이 글을 올려 〈중지하라고〉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sup>387)</sup>

385) 민순의, 앞의 논문, 2017, 223쪽.

386) 강호선, 앞의 논문, 2017, 507~508쪽.

38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2월 14일 癸卯.

1432년(세종 14) 효령대군은 7일 동안 한강에서 성대하게 수륙재를 개설하였는데, 세종이 향을 내려 주었으며, 중 1천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길가는 행인에게 이르기까지 음식을 대접하였다. 또한 날마다 백미 두어 섬을 강물 속에 던져 물고기에게 먹이를 베풀었으며, 서울 안의 선비와 부녀가 구름같이 모였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수륙재는 성행하게 되었지만, 처음 수륙재를 설행했던 강원도 삼척의 삼화사에서 수륙재는 오대산 상원사(上院寺)로 바뀌어 있었다. 즉 1401년(태종 1)에는 천재(天災)를 없애기 위해 수륙재를 대산(臺山)의 상원사(上元寺)에 베풀었고,<sup>388)</sup> 1414년(태종 14)에는 관음굴(觀音窟)·진관사(津寬寺)·대산 상원사(上元寺)·거제(巨濟) 현암사(見庵寺)에 매년 2월 15일에 수륙재(水陸齋)를 행하였는데, 금후로는 정월 15일에 행하는 것으로서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였다.<sup>389)</sup> 이를 보면 삼척의 삼화사에서 오대산 상원사로 수륙사(水陸社)가 대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424년(세종 6) 세종의 선교양종 통합 때 선종 중 수륙위전(水陸位田)을 추가로 받은 곳은 개성의 관음굴과 서울의 진관사뿐이었으며,<sup>390)</sup> 1425년(세종 7) 강원도의 수륙사(水陸社)였던 상원사가 화재를 당하자 세종은 '이 절의 수륙재는 고려 왕씨를 위한 것이다. 또 경상도에 현암(見庵)이 있었는데, 이 절도 이미 화재를 입었으니 혁파하라'<sup>391)</sup>고 하여 세 곳의 왕씨 수륙재 설행 사찰 중 개성의 관음굴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왕실의 기신제가 수륙재로 통합되고, 왕실 상례 뿐 아니라 일반 사대부의 상례에서 불교 의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식의 간소화는 수륙재의 성행을 불러왔다. 따라서 강원도의 사찰 중 당시 가장 융성하였던 각림사가 왕실의 기신제 및 일반 사대부들의 수륙재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림사는 태종이 어렸을 때 유학하였던 곳이며, 그러한 이유로 태종의 후원 아래

388)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 태종 1년 10월 2일 丁巳.

38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2월 6일 庚戌.

39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39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 12월 19일 甲申.

크게 증창하여, 원속전 3백 결과 항거승 150명이 머물렀던 큰 사찰로 성장하였으므로, 당시 강원도에서의 수륙재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은 각림사만한 곳이 없었을 것이다. 이에 세종은 강원도에서의 수륙재 설행을 위해 1440년(세종 22) 수륙재 때에 쓸 주인(鑄印) 1개를 각림사에 내려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림사가 증창했을 때 열린 중창경찬회는 수륙재라는 특정 단어 표현은 없지만, 이것은 천도재의 성격을 가지며, 범화법석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수륙재와 같다는 주장도 있다.<sup>392)</sup> 각림사에서 수륙재가 직접적으로 행해진 기록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지만, 세종이 각림사에 수륙재 때 쓸 주인 1개를 내려준 사실에서 수륙재가 설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6. 세종의 횡성 강무와 문종(文宗)의 강무장 혁파

세종의 즉위 초에는 상왕이었던 태종의 주도로 강무(講武)가 시행되었다. 즉 1419년(세종 원년)부터 1421년(세종 3)까지 실시된 4차례의 강무는 모두 태종이 주도한 것이었다. 태종이 사망하자 강무는 중지되었으나, 세종은 1424년(세종 6) 추등강무를 시작으로 매년 춘추강무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 세종대에는 세종의 병이 심하였던 말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강무가 행해져 세종 재위 31년간 총 30회의 강무를 실시하였다.<sup>393)</sup>

세종은 1419년 11월에 상왕인 태종과 함께 횡성 화동(禾洞) 등지에서 역시 강무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또한 1421년 2월에 상왕 태종과 함께 강원도 진부(珍富) 등지에서 강무를 실시하면서 횡성을 경유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태종이 죽자 한 동안 강무를 정지하다가 1424년(세종 6) 9월 철원(鐵原)과 평강(平康) 등지에서의 추등강무를 시작으로 강무를 재실시하였다.

392) 홍주민, 「조선 초기 각림사의 변창과 그 의미」, 『횡성문화』 제29호, 횡성문화원, 2014, 30쪽.

393) 이현수,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軍史』 45, 2002, 242쪽.

세종은 1425년(세종 7) 춘등강무를 황천(황성)에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sup>394)</sup> 다시 철원과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였고,<sup>395)</sup> 그해 추등강무는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실시하였다.<sup>396)</sup> 세종은 1426년(세종 8) 춘등강무를 다시 황성에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전국의 한재(旱災)로 인하여 농사가 실패하자 황성에서의 춘등강무를 정지하고 경기도에서 4~5일로 축소해서 실시할 것을 언급하였다.<sup>397)</sup> 그러나 병조판서(曹判書) 조말생(趙末生), 병조참의(兵曹參議) 유연지(柳衍之), 총제(摠制) 이군실(李君實) 등이 경기도의 한재가 가장 심하고 강원도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의 강무를 정지하고 강원도에서 강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세종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듬해인 1426년(세종 8) 춘등강무를 황성에서 실시하였다.<sup>398)</sup> 세종의 황성에서의 강무는 1419년 이래 7년 만의 일이었다, 1421년 황성을 경유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세종은 1426년 2월 13일 서울을 출발하여, 이날 묘적사(妙寂寺)의 북쪽 산에서 몰이하였다가, 시우동(時雨洞)에서 잠시 머물러 쉬고 시우현(時雨峴) 아래의 동구에서 다시 몰이하였다.<sup>399)</sup> 다음날인 14일에는 지평(砥平)의 지덕원(祇德院) 냇가에 이르러 주정(晝停)<sup>400)</sup>하였다가, 저녁에는 종현(鍾懸)의 들에서 머물렀다.<sup>401)</sup> 15일에는 강원도 황성에 들어왔는데, 이때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정귀진(鄭龜晉)·강원도 도사(都事) 배소(裴素)·황성현감(橫城縣監) 오경지(吳敬之) 등이 마중 나와 뵈었으며, 저녁에는 황성의 사기소(沙器所)에서 머물렀다.<sup>402)</sup>

그런데 이날 서울인 한성부(漢城府)에서는 큰 불이 일어나 경시서(京市署) 및 북쪽의 행랑 1백 16칸과 중부(中部)의 인가 1,630호, 남부(南部)의 350호, 동부

39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6, 세종 6년 11월 15일 丙戌.

39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7, 세종 7년 3월 9일 己卯.

39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9월 28일 甲子.

39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 12월 15일 庚辰.

39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3일 丁丑.

399)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3일 丁丑.

400) 조선 시대에 왕이 나들이를 했다가 잠깐 머물러 낮수라를 들던 곳.

40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4일 戊寅.

40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5일 己卯.

(東部)의 1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으로, 어린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sup>403)</sup> 당시 서울에 있던 중궁(中宮 : 중전)이 ‘돈과 식량이 들어 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화재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는 ‘오늘의 재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전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다음날인 16일, 한성부의 화재를 보고 받은 세종은 크게 놀라며 병조판서 조말생 등에게 ‘이번 길은 본시 내가 오고 싶지 않은 것을 경(卿) 등이 굳이 나에게 가져다 청하였고, 또 어제 길에서 폭풍이 심히 불고, 몸이 불편하여 나는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경 등이 또 청하므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이번 길이 천심(天心)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재변이 이렇게 생긴 것인 줄로 생각하고 깊이 후회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내일 환궁(還宮)할 터이니, 물이꾼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였고, 그대로 사기소에 유속하였다.<sup>404)</sup>

마침내 1426년 2월 17일, 세종은 횡성에서 서울로 환궁하였으며, 흥덕원(興德院) 아랫들을 거쳐 저녁에는 지덕원(祗德院) 냇가에 머물렀다.<sup>405)</sup> 18일에는 양근(楊根) 앞 냇가에 이르러 머무르고, 용진(龍津)을 건너 저녁에 강변에 머물렀다가<sup>406)</sup> 19일에 건원릉(健元陵) 아랫들을 거쳐 궁으로 돌아왔다.<sup>407)</sup> 결국 세종의 횡성 강무는 1426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이었지만, 한성부의 큰 화재로 강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세종은 다시 1426년 10월 평강에서의 추동강무를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 양주(楊州), 철원 등지에서 거의 매년 춘추강무를 실시하였다. 세종은 횡성에서의 강무를 고려하기도 하였지만,<sup>408)</sup> 횡성에서의 강무 시행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403)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5일 己卯.

40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6일 庚辰.

405)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7일 辛巳.

406)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8일 壬午.

407)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9일 癸未.

40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1, 세종 15년 윤8월 29일 己卯; 9월 5일 甲申.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조판서(史曹判書)였던 허조(許稠)의 언급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금년 가을의 강무를 황성(橫城)을 버리고 평강(平康)으로 옮긴 것은 비단 신만이 기뻐할 뿐이 아니오라 사람마다 기뻐하옵니다. 평강은 이미 강무의 상례 장소로 되어 있고 도로도 평탄하온데, 황성은 큰 재를 넘어야 하고 도로도 험난하오며, 또 상례 장소도 아니오니, 아주 황성을 제외하여서 폐단을 덜게 하옵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평강이 상례 장소이고 황성이 상례 장소가 아닌 것은 나의 알 바가 아니고, 또 황성을 내왕하는 도로는 내가 이미 아는데 별로 큰 재는 없으니, 어찌 경의 말을 기다린 연후에 알겠는가.”하고, 허조가 나가매, 임금이 말하기를, “평강과 황성의 왕래에 접대하는 폐단이 차이가 있는가.”하니, 좌승지(左承旨) 김중서(金宗瑞)가 아뢰기를, “평강이나 황성이나 접대에 관한 일은 한가지이오나, 조의 말은 황성을 폐지하고 단지 평강만을 강무하는 장소로 삼자는 것뿐입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겠다.”하였다.<sup>409)</sup>

1433년(세종 15) 세종은 추등강무를 황성에서 실시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그 장소를 평강으로 바꾸었는데, 이에 대해 허조는 평강으로 장소를 옮긴 것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기뻐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평강은 강무의 상례 장소로 되어 있고 도로가 평탄한데 비해서 황성은 큰 재를 넘어야 하고 도로가 험난하며 상례 장소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허조는 더 나아가 이런 이유로 아예 강무의 상례 장소에서 황성을 제외하자는 주장까지 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종은 강무장이 상례 장소인 것은 나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세종은 황성에서 강무를 실시한 적도 있었고, 강무를 하면서 황성을 경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아는 바에 의하면 황성에는 큰 재가 없다고 하였다. 세종은 허조가 나간 뒤에 평강과 황성에서의 왕래 시 접대에 대한 폐단의 차이가 있는지 물었으나, 김중서의

409)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1, 세종 15년 9월 25일 甲辰.

대답은 평강이나 횡성이나 접대에 관한 일은 같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당시 서울에서 평강으로 가는 도로가 횡성으로 가는 도로보다 훨씬 좋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왜냐하면 1426년 이후 평강에서의 강무는 자주 이루어졌던 반면 횡성에서의 강무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1449년(세종 31)에는 유학(幼學) 최진현(崔進賢)이 강릉부(江陵府) 진부현(珍富縣)을 강무장(講武場)으로 만든 폐단을 상소하였다.<sup>410)</sup> 진부의 강무장은 1421년(세종 3)에 강무가 실시된 이래로 28년 간 강무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금령(禁畵)이 두려워 감히 사사로이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천백 마리나 때 지어 다니는 새와 짐승들로 인해 벼와 곡식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강무장의 폐단은 강원도 영서(嶺西) 지역인 횡성(橫城)·홍천(洪川)·이천(伊川)·평강(平康)에서 더욱 심하였다. 이에 도진무(都鎭撫) 정효전(鄭孝全)은 삭녕(朔寧)·안협(安峽)·이천(伊川)·김화(金化)·낭천(狼川)·횡성(橫城)·방림(芳林)·진부(珍富)·남곡(嵐谷)·금성(金城)·원주(原州)·춘천(春川)·홍천(洪川)·지평(砥平) 등지는 군사들의 수렵(蒐獵)을 훈련하는 곳으로 삼자고 청하기도 하였으며,<sup>411)</sup> 세종은 의정부(議政府)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무장(講武場)에 새와 짐승이 곡식을 해치니 백성에게 잡기를 허락해 주기도 하였다.<sup>412)</sup>

문종이 즉위한 후에도 중추원사(中樞院使) 안숭선(安崇善)이 삭녕(朔寧)·안협(安峽)·토산(兔山)·이천(伊川) 등지를 강무장으로 정하였으나, 야수(野獸)가 번식하여 겨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것을 모두 먹어서 손상시켰음에도 금령 때문에 야수들을 잡지 못하는 폐단을 상소하였다.<sup>413)</sup>

이윽고 문종은 경기도 지평현(砥平縣)·연천현(漣川縣), 강원도 회양부(淮陽府)·낭천현(狼川縣)·금성현(錦城縣)·원주부(原州府)·강릉부(江陵府)·홍천현(洪川縣)·

410)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2월 9일 庚申.

41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3월 6일 丙戌.

412)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5, 세종 31년 7월 18일 丙申.

413) 『문종실록(文宗實錄)』 권4, 문종 즉위년 10월 10일 庚辰.



춘천부(春川府)·금화현(金化縣)·평강현(平康縣)·이천현(伊川縣)·안협현(安峽縣), 황해도 신계현(新溪縣)·토산현(兔山縣)의 여러 산 등지에서 백성들이 살기 편하고 노루와 사슴이 적은 곳은 강무장을 모두 혁파하게 하였는데, 이때 각림사(覺林寺) 등지의 산들도 혁파 대상에 포함되었다.<sup>414)</sup>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임시적인 조치였던 것 같다. 1452년(단종 즉위년) 의정부는 원주·홍천·강릉의 강무장을 임시로 혁파하자 금수(禽獸)가 모두 강원도 횡성현의 강무장(講武場)에 모여서 곡식을 해침이 심하다며 횡성의 강무장도 임시로 혁파할 것을 아뢰었고, 단종은 이를 승인하였다.<sup>415)</sup> 이는 『국조보감(國朝寶鑑)』의 단종조(端宗朝)에 ‘횡성현의 강무장을 혁파한 것은 짐승들이 곡식을 망치기 때문이었다’고 기록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416)</sup>

각림사 등지 및 횡성의 강무장이 언제 정식으로 혁파되었는지는 정확하진 않다. 그러나 각림사 등지 및 횡성의 강무장은 점차 강무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짐승들이 불어나 곡식을 해치게 되면서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혁파되었다가 조선왕조의 강무 시행이 점차 사라져가면서 강무장 역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14) 『문종실록(文宗實錄)』 권6, 문종 1년 3월 17일 丙辰.

415) 『단종실록(端宗實錄)』 권3, 단종 즉위년 윤9월 10일 己巳.

416) 『국조보감(國朝寶鑑)』 권9, 단종조(端宗朝) 즉위년(即位年).

## 세조대(世祖代)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과 각림사

김시습(金時習)의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에는 ‘숙각림사(宿覺林寺)’라는 시가 전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시 각림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宿覺林寺

自笑清寒謝鹿迹  
 年來自有看山癖  
 關西千里曾飛筇  
 又向關東曳雙屐  
 覺林自是古招堤  
 松檜陰中聳樓閣  
 玉筍巍峨插高鐘  
 珠簾淅瀝搖雲窓  
 丈夫未死愛遠遊  
 豈肯兀坐如枯椿  
 且窮勝景作平生  
 其氣萃崔何曲降

### 각림사에 묵으며

스스로 청한(淸寒) 비웃다 속세 행적 끊고나서  
 요즈음 산 보는 버릇 생겼다.  
 관서(關西) 땅 천리 길 일찍이 지팡이 날렸는데  
 또 관동 향해 두 신짚 끄누나.  
 각림사 오래된 절  
 송회(松檜) 그늘 속에 누각 솟아있다.  
 아름다운 종각 높은 곳 귀한 종 쫓혔는데  
 구슬발 스삭거리 구름 창 흔든다.  
 장부 아직 죽지 않아 멀리 떠도는 일 좋아해  
 어찌 곳곳이 말뚝처럼 앉았으리.  
 또 좋은 경치 두루 보기 평생토록 작정하여  
 그 기상 높는데 무엇 때문에 굽히리.<sup>417)</sup>

417)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지(卷之)10, 유관동록(遊關東錄) 숙각림사(宿覺林寺); 강원도, 『국역 매월당전집』, 2000, 483쪽.

김시습의 생몰년은 1435년(세종 17)~1493년(성종 24)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벽산청은(碧山淸隱)·취세옹(贅世翁)이며,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서울 출생으로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이다.<sup>418)</sup>

서울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난 김시습은 1437년(세종 19) 3살 때부터 외조부로 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5세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아 한시를 지을 줄 아는 천재였다고 알려졌으며, 그가 신동(神童)이라는 소문이 당시 국왕인 세종에게 까지 알려져 세종이 승지를 시켜 시험을 해보고는 장차 크게 쓸 재목이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고 선물을 내렸다고 하여 ‘오세(五歲, 5세)라는 별호를 얻게 되었다.

김시습은 21세 때인 1455년(세조 1) 수양대군(首陽大君, 후의 세조[世祖])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을 하고는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사른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산사를 떠나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사육신(死六臣)이 처형되던 날 밤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세조의 전제정치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거리에서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람에 주섬주섬 담아가 노량진 가에 임시 매장한 사람이 바로 김시습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후 그는 관서(關西) 지방을 유람하며 역사의 고적을 찾고 산천을 보면서 많은 시를 지었다.

26세 때인 1460년(세조 6)에는 관동(關東) 지방을 유람하여 지은 시를 모아 『탕유관동록(宕遊關東錄)』을 엮었고, 29세인 1463년(세조 9) 때에는 호남 지방을 유람하여 『탕유호남록(宕遊湖南錄)』을 엮었다. 31세 때인 1465년(세조 11) 봄에 경주로 내려가 경주의 남산인 금오산(金鰲山)에 금오산실(金鰲山室)을 짓고 칩거하였는데, 이곳에서 37세(1471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비롯한 수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遊金鰲錄)』에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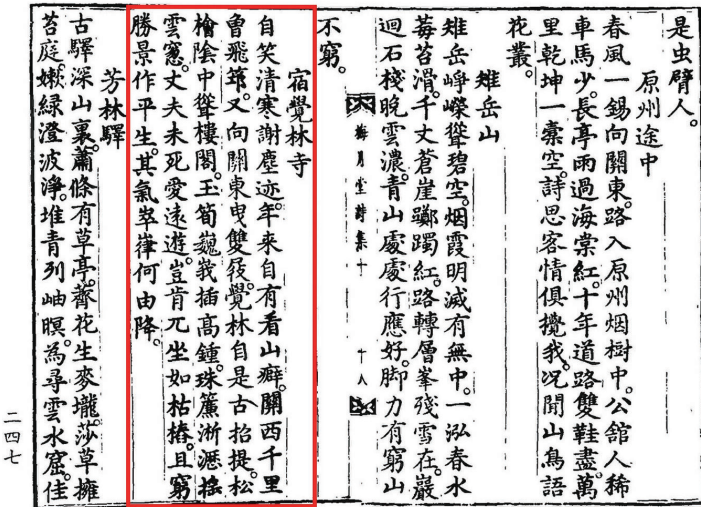
1471년(성종 2) 37세에 서울로 올라와 이듬해 성동(城東) 폭천정사(瀑泉精舍),

418) 이하 김시습의 생애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http://encykorea.aks.ac.kr/>).

수락산 수락정사(水落精舍) 등지에서 10여 년을 생활하였으나, ‘폐비윤씨사건(廢妃尹氏事件)’이 일어나자, 다시 관동 지방 등지로 방랑의 길에 나섰다. 50대에 이르러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충청도 홍산(鴻山) 무량사(無量寺)에서 1493년(성종 24) 59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김시습의 ‘각림사에서 묵으며[숙각림사]’라는 시는 『매월당시집』 권지(卷之)10, 유관동록(遊關東錄)에 실려 있는 것으로, 이는 김시습이 26세 때인 1460년(세조 6) 관동 지방을 유람하여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김시습이 1458년(세조 4)에 유관서록(遊關西錄)을 엮었고, 1460년 유관동록(遊關東錄)을 엮었으므로 이 시는 그가 1458년부터 1460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각림사에서 묵으며[숙각림사]’ 앞의 시는 ‘원주 가는 도중에서[원주도중(原州途中)]’과 ‘치악산(雉岳山)’이다. 김시습은 ‘원주 가는 도중에서[원주도중]’에서 ‘봄 바람에 석장(錫杖) 짚고 관동 가다가 가는 길에 원주 고을 연수(烟樹)에 들렀다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지(卷之)10, 유관동록(遊關東錄) 숙각림사(宿覺林寺)〉

[春風一錫向關東 路入原州烟樹中<sup>419)</sup>]고 하였고, ‘각림사에서 묵으며[숙각림사]’에서는 ‘관서 땅 천리 길 일찍이 지팡이 날렸는데 또 관동 향해 두 신작 끄누나[關西千里曾飛筇 又向關東曳雙屐]’라고 하고 있어 김시습이 관동으로 가는 길에 원주를 지나 치악산을 들렀고, 그리고 각림사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각림사에서 묵으며[숙각림사]’를 보면 ‘각림사는 오래된 절이라고 하고 있어 그 유래와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김시습도 알고 있었다. 또 ‘송회(松檜) 그늘 속에 누각 솟아있다고 하고 있어 각림사와 그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와 전나무(또는 노송나무)가 있었고 그 사이에 누각이 솟아있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림사에는 아름다운 종각(鐘閣)이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각림사에 관련된 이 시를 통해 각림사의 경치가 상당히 아름다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김시습은 각림사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장부의 기상과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

419)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지(卷之)10, 유관동록(遊關東錄) 숙각림사(宿覺林寺); 강원도, 『국역 매월당전집』, 2000, 483쪽.

## 성종대(成宗代)의 각림사

### 1. 각림사에 대한 소금 전수(轉輸)와 지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각림사와 관련된 기사는 문종 이후 성종 때에 와서 나타난다. 즉 『단종실록(端宗實錄)』과 『세조실록(世祖實錄)』에는 각림사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다가 『성종실록(成宗實錄)』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기사는 1470년(성종 1) 강원도 관찰사 예승석(芮承錫)이 아뢰는 것으로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에 소금을 전수(轉輸)<sup>420</sup>하는 일에 관련된 것이었다.

병조(兵曹)에서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예승석(芮承錫)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에 소금을 전수(轉輸)하는 일입니다. 본 절에는 해마다 소금 40석(碩)을 주는데, 이보다 앞서는 절의 중(僧)들이 전수(轉輸)하였으나, 병술년(丙戌年)부터는 역리(驛吏)로 하여금 강릉부(江陵府)에 주어서 절에 전수(轉輸)하게 하였으니, 꼬불꼬불한 길이 60여 리(里)이므로 우마(牛馬)가 많이 죽습니다. 만약 그 양(量)이 축난 것이 있으면 징수하여 독촉하는 것이 잇따르니,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 절에는 소와 말을 많이 기르며 40석(碩)의 소금을 또한 일시에 다 쓸 수가 없으니, 유수(遊手)의 무리들로 하여금 점차로 운수(運輸)하게 하여서 역로(驛路)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sup>421</sup>

420) 수송되어 온 물건을 다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

421) 『성종실록(成宗實錄)』 권6, 성종 1년 7월 9일 乙酉.

이를 보면 강원도 관찰사였던 예승석은 각림사에 소금을 운반하는 폐단에 대해서 아뢴 것을 알 수 있다. 각림사에는 해마다 소금 40석을 주었는데, 원래 이것은 절의 중들이 운반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병술년인 1466년(세조 12) 부터는 역리로 하여금 강릉부에 주어서 절에 전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강릉부에서 각림사까지는 꼬불꼬불한 길이 60여 리이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우마가 많이 죽었고, 만일 소금의 양이 축난 것이 있으면 징수하여 독촉하는 것이 잇따라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각림사에서는 소와 말을 많이 기르고 있으며, 소금 40석도 일시에 다 쓸 수 없으니, 하는 일 없이 노는 무리들로 하여금 점차로 운수하게 하여 각림사로 소금을 운반할 때 발생하는 역로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성종이 강원도 관찰사 예승석의 건의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각림사에 매년 소금 40석을 주었음을 알 수 있고, 1466년부터는 강릉부에서 주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각림사가 소와 말을 많이 길렀다고 하고 있어서 당시에도 상당한 규모였던 것이 확인된다.

이로부터 17년이 지난 1487년(성종 18)의 『성종실록』을 보면, 국가에서 각림사에 매년 소금을 주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 김수손(金首孫)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 국가에서 1년에 반승(飯僧)하는 비용을 관찰하면, 개경사(開慶寺)는 소금이 53석 5두, 회암사(檜巖寺)는 소금이 60석, 진관사(津寬寺)·장의사(莊義寺)는 소금이 모두 20석, 정업사(淨業寺)·정인사(正因寺)는 소금이 모두 60석, 연경사(衍慶寺)·복천사(福泉寺)는 소금이 93석 5두, 숭효사(崇孝寺)·보은사(報恩寺)는 소금이 모두 50석, 각림사(覺林寺)·대자사(大慈寺)·용문사(龍門寺)는 소금이 모두 1백 20석, 내불당(內佛堂)은 소금 5석, 말장(末醬) 5석 5두, 쌀 31석 2두, 마포(麻布) 8필, 면포 10필, 봉선사(奉先寺)는 소금 1백 석, 말장 6석 5두, 황두(黃豆) 48석, 쌀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원각사(圓覺寺)는 소금 10석, 말장 6석 5두, 황두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연굴암(演窟菴)·복세암(福世菴)은 소금이 모두 10석 6두, 말장 5석,

쌀 27석 6두, 양종(兩宗)은 소금이 모두 40석이고 선승(選僧)하는 해는 쌀이 모두 30석, 황두가 30석이니,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은 데 이릅니다. 10년을 합하여 보면 소금이 총계 6천 2백 20석 10두, 말장이 2백 30석, 황두가 1천 2백 30석, 쌀이 1천 7백 4석, 마포 2백 80필, 면포 5백 필이며, 20년을 쌓으면 소금·쌀·말장·황두가 총계 1만 8천 7백 60석이 넘고 마포·면포가 1천 5백 60필인데 공불(供佛)하는 비용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 ”하였다.<sup>422)</sup>

1487년 사간원 대사간 김수손 등은 제왕(帝王)이 행할 만한 도(道)와 국가에서 없앨 만한 폐단을 모아 상소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에서 1년에 사찰에 주는 소금과 곡식 등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김수손 등은 각 사찰에 반승(飯僧)<sup>423)</sup> 하는 규모를 나열한 후 그 비용이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으며, 10년을 합하면 소금이 총 6,220석 10두, 말장이 230석, 황두가 1,230석, 쌀이 1,704석, 마포 280필, 면포 5백 필이고, 20년을 합하면 소금·쌀·말장·황두가 총 18,760석이 넘고, 마포·면포가 1,560필이므로 그 비용이 대단히 많다고 하였다.

이에 김수손 등은 이 비용으로써 적(敵)을 방어하면 무슨 적인들 이기지 못하겠으며, 성(城)을 지키면 어느 성인들 튼튼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였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데 쓴다면 수십 만의 굶주린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를 대적하는 데 쓴다면 수십 년간의 청구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김수손 등이 각 사찰별로 반승하는 비용을 열거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422)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99, 성종 18년 1월 23일 甲子.

423) 승려를 공경하는 뜻에서 재식(齋食)을 베푸는 행사 또는 그 일.



〈1487년(성종 18) 사찰별 반승(飯僧) 규모〉

사찰명	소금	말장	쌀	황두	마포	면포
개경사(開慶寺)	53석 5두					
회암사(檜巖寺)	60석					
진관사(津寬寺)	20석					
장의사(藏義寺)	20석					
정업사(淨業寺)	60석					
정인사(正因寺)	60석					
보은사(報恩寺)	60석					
각림사(覺林寺)	120석					
대자사(大慈寺)	120석					
용문사(龍門寺)	120석					
내불당(內佛堂)	5석	5석 5두	31석 2두		8필	10필
봉선사(奉先寺)	100석	6석 5두	48석	48석	10필	20필
원각사(元覺寺)	10석	6석 5두		48석	10필	20필
연굴암(演窟庵)	10석 6두	5석	27석 6두			
복세암(福世庵)	10석 6두	5석	27석 6두			
양종(兩宗) [선종과 교종]	40석					
양종(兩宗) [선종과 교종]			30석 (選僧하는 해)	30석 (選僧하는 해)		
합계	869석 7두	28석 5두	134석 4두 (選僧하는 해 30석 추가)	96석 (選僧하는 해 30석 추가)	28필	50필

이를 보면 개경사·회암사·진관사·장의사·정업사·정의사·보은사·각림사·대자사·용문사·내불당·봉선사·원각사·연굴암·복세암 및 선·교 양종이 각각 소금, 말장, 쌀, 황두, 마포, 면포 등을 해마다 지급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중 각림사·대자사·용문사 등이 매년 소금 120석을 받고 있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즉 각림사는 성종대에 들어와서도 다른 사찰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종 이후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 시기를 지나 성종 시기가 되었어도 국가에서의 지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사찰 중 국가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림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470년(성종 1)에 매년 국가로부터 받는 소금이 40석이었다. 그렇지만 17년이 지난 1487년(성종 18)에는 국가로부터 받는 소금이 120석으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성종 시기 각림사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많아졌을 정도로 각림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상당히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각림사에 대한 전세(田稅) 징수 문제

1484년(성종 15) 성종은 호조(戶曹)에 장의사(藏義寺)·대자사(大慈寺)·각림사(覺林寺)의 전세(田稅)는 관(官)에서 3분의 2를 징수하도록 전교를 내렸다.<sup>424)</sup>

원래 사사전에 대한 수세법(收稅法)은 1402년(태종 2)에 처음 세워졌다.<sup>425)</sup> 처음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면서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의 각 1결에 2두(斗)를 세(稅)로 하여 국용(國用)에 충당하였지만, 공신들에게 내려 준 공신전(功臣田)과 사찰이 소유한 사사전에는 납세를 불허해왔다. 그렇지만 태종은 시간원이 '십분(十分)에 일분(一分)을 세(稅)로 받는 것이 천하 고금의 공통된 법칙'이라는 상소를 올리자, 당시 공신전(功臣田) 31,240결과 사사전(寺社田) 4,680여 결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총 37,300여 결을 과전(果田)의 예에 의하여 모두 그 세(稅)를 받아들여 세입 3,700여 석을 군자(軍資)로 삼도록 하였다.

또한 태종은 외방에 있던 사사전(寺社田)을 혁파하여 군자(軍資)에 소속시켰으나,<sup>426)</sup> 이후 사사전의 수조(收租)를 반으로 견감하거나 면제하기도 하였다.<sup>427)</sup> 태종의 사사전 과세에 대한 우대가 있자 불교를 비판하는 관료들의

424)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6, 성종 15년 5월 10일 丙申.

425)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 태종 2년 2월 5일 戊午.

426)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 태종 2년 4월 22일 甲戌.

42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18, 태종 9년 10월 13일 辛亥, 11월 11일 己卯.

반대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이에 세종 때에는 사사전(寺社田)의 납세(納稅)도 각 품 과전의 예에 의하여 수납하게 하였으며,<sup>428)</sup> 예종 때에는 사사전(寺社田) 1결(結)마다 18부(負) 3속(束)<sup>429)</sup>을 적출(摘出)하여 국용세미(國用稅米)의 수입으로 충당하게 하였다.<sup>430)</sup>

성종 때에는 대간(臺諫)들이 사사전을 혁파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다.<sup>431)</sup> 대간들의 사사전 혁파는 곧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세를 받고 있는 사사전에도 관(官)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국용(國用)에 충당하자는 것이었다. 즉 1484년(성종 15) 호조에서는 군자(軍資)와 국용(國用)이 부족하니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에 있는 수륙위전(水陸位田)과 원각사(圓覺寺), 양종(兩宗) 외의 사사전(寺社田)은 전부 거두자고 청하였던 것이다.<sup>432)</sup> 이에 대해 성종이 거듭 난색을 표하자, 마침내 지평(持平) 정이교(鄭以僑)는 ‘지금 공신전(功臣田)·직전(職田)의 세(稅)는 모두 관(官)에서 징수하면서 사사전(寺社田)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신(臣)은 사람들이 성상(聖上)께서 중들을 보호함이 사대부(士大夫)보다 지나치다고 할까 염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sup>433)</sup>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은 마침내 1484년(성종 15) 5월 호조(戶曹)에 ‘장의사(藏義寺)·대자사(大慈寺)·각림사(覺林寺)의 전세(田稅)는 관(官)에서 3분의 2를 징수하라’고 전교하였던 것이다.<sup>434)</sup> 이것은 그동안 면세를 받던 사사전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걷자고 하는 신료들의 요구를 성종이 부득이 일부 받아들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의 이러한 조치는 모든 사사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장의사·대자사·각림사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3분의 2만을 걷도록 한 것이었다.

428)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6, 세종 6년 12월 4일 乙巳; 권27, 세종 7년 2월 20일 庚申.

429) 1파 또는 한 줌을 기준 면적으로 하여 10줌을 1속(束) 또는 한 단, 10속을 1부 또는 한 짐, 100부를 1결 또는 1목이라 하였다.

430) 『예종실록(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10월 15일 辛丑.

431) 『성종실록(成宗實錄)』 권96, 성종 9년 9월 3일 辛酉; 4일 壬戌; 20일 戊寅; 24일 壬午; 29일 丁亥; 권117, 성종 11년 5월 19일 戊戌; 권162, 성종 15년 1월 4일 壬辰.

432)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2, 성종 15년 1월 27일 乙卯.

433)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6, 성종 15년 5월 7일 癸巳.

434)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6, 성종 15년 5월 10일 丙申.

그러나 사헌부(司憲府)를 중심으로 한 신료들은 이러한 성종의 조치에도 거둬 반대를 표명하고 있었다.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안윤손(安潤孫)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의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신전(功臣田)과 직전(職田)의 1만여 결(結)의 조세(租稅)를 관(官)에서 징수하면서 사사전(寺社田)의 세는 다만 대자사(大慈寺)·장의사(藏義寺)·각림사(覺林寺)만 3분의 2를 감하고 나머지는 옛날대로 하는데, 대체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사사전은 선왕이 모두 중하게 여긴 것이어서 경솔하게 혁파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세 사전(寺田)만을 감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sup>435)</sup>

사헌부 지평 안윤손은 나라의 경비가 부족하여 공신전과 직전의 1만여 결의 조세를 관에서 징수함에도 사찰이 소유한 사사전의 조세는 다만 대자사·장의사·각림사만 징수하면서 그마저도 3분의 2만을 징수하여 감하였고, 나머지 사찰의 사사전은 옛날처럼 면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사사전은 선왕들이 모두 중하게 여긴 것이므로 경솔하게 혁파할 수 없어서 다만 세 사찰의 토지만을 감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 문제를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노공필(盧公弼)은 ‘만일 사사전(寺社田)이 선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가벼이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신전이나 직전만은 선왕께서 설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라며 ‘과단성 있게 조치하여 사사전을 모두 개혁해서 경비를 보충하고 백성의 의혹을 풀어 후세의 빈축을 막게 하소서’라며 비판하였다.<sup>436)</sup> 또한 노공필은 연일 ‘사사전만은 특별히 감손되지 않았으니, 전하께서 불교에 현혹되지 않았다 함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할 것이라며 ‘꽤히 결정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빨리 사사전을 혁파하여 여망에 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37)</sup>

435)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6, 성종 15년 5월 13일 己亥.

436)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6, 성종 15년 5월 15일 辛丑.

437)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6, 성종 15년 5월 16일 壬寅; 17일 癸卯; 18일 甲辰.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안침(安琛) 등도 ‘불씨(佛氏)의 무리로 말하면 일하지 않고 놀며 먹으므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 심한데도 백성의 조세를 먹는다며 참으로 옳지 않다’고 하면서 ‘해마다 가물고 흉년이 들어서 국용(國用)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직전(職田)의 조세를 관가에서 죄다 거두고 공신전에도 그 반을 관에서 거두는데, 다만 사사전에 대해서는 진관사(津寬寺)·장의사(藏義寺)·각림사(覺林寺)에서 3분의 2를 거두는 것 외에는 다 미치지 않았으니 옳지 못하다며 사사전을 죄다 관에서 거둘 것을 주장하였다.<sup>438)</sup>

대사헌(大司憲) 이극균(李克均) 역시 ‘한 해의 국용이 44만 석이고, 군수(軍需)가 50여 만 석’이라며 ‘사사전은 삼사(三寺, 각림사·대자암·장의사)에서만 3분의 2로 걷고 그 나머지 사사전은 그대로 두었으니 매우 미편(未便)하다’고 하였다.<sup>439)</sup> 이에 성종이 ‘사사전은 선왕(先王)께서 내리신 것으로 하루아침에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극균은 각림사(覺林寺)·대자암(大慈庵)·장의사(藏義寺)의 전토(田土)도 선왕께서 내리신 것인데 이미 임시로 줄였으니, 그 밖의 사사전도 전부 거두지 않더라도 반을 거두도록 청하였다. 이후에도 신료들이 사사전에 대한 조세 부과를 거듭 요청하고 대신들도 찬성하면서 결국 성종은 사사전의 세를 반감(半減)하도록 하였다.<sup>440)</sup> 그렇지만 불교를 반대하는 신료들의 반대 속에 사사전의 혁파 문제는 성종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438)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7, 성종 15년 6월 8일 癸亥.

439)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69, 성종 15년 8월 3일 丁巳.

440)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84, 성종 16년 10월 8일 乙酉; 27일 甲辰.

## 숙종대(肅宗代) 각림사에 대한 위전(位田) 문제

한편 1687년(숙종 13) 지평(持平) 이정익(李楨翊)은 각림사(覺林寺)의 위전(位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지평(持平) 이정익(李楨翊)이 상소하기를, “... 각림사(覺林寺)의 위전(位田)은 이미 향교(儒宮)의 예전 것이므로 내탕(內帑)의 사저(私儲)로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전하(殿下)께서 유생(章甫)들의 상소에 대하여 오직 고집하시고 윤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당하지 않은 분부를 내리시므로, 신(臣)은 그욕이 개탄스럽게 여겨집니다. 또한 원컨대 전하(殿下)께서 특령(特令)으로 환급(還給)하시어 도(道)를 지키는 성의(盛意)를 보이소서.”하였다. ... 임금이 위전의 일을 따르지 않았다. ...<sup>441)</sup>

이정익의 상소 내용을 보면 각림사의 위전은 이미 예전부터 향교의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전은 특별 목적으로 설치된 전토(田土)를 말하는데,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를 말한다. 위전에는 보통 관아, 학교, 사원, 역원, 능·원·묘 등의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토지 등이 있었다.

441) 『숙종실록(肅宗實錄)』 권18, 숙종 13년 8월 12일 戊午.

유학(幼學) 유승탄(兪升坦)이 상소에서 ‘절에 위전을 두는 것은 그 중[沙門]을 상주어 선왕(先王)의 명복(冥福)을 올리고 임금의 수명[聖壽]의 만년을 축원하며, 석씨(釋氏)의 욕심이 적음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sup>442)</sup>’이라고 한 것처럼, 국가에서 절에 토지를 주는 것은 사찰에서 국왕들의 사후 명복을 빌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후 망자의 천도 등과 관련한 사찰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국가의 토지 지급 우대 사항이었다. 수륙재(水陸齋)를 실시하는 사찰에 대해 수륙위전(水陸位田)을 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능침사찰이나 왕실원당(王室願堂) 등을 수호하는 승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한 거승위전(居僧位田, 승위전[僧位田])도 마찬가지였다.

1424년(세종 6) 각림사의 원속전(元續田)은 300결로 나타나고 있고, 1440년(세종 22) 세종은 수륙재 때에 쓸 주인(鑄印) 1개를 각림사에 내려주었다. 이에 각림사가 수륙재를 지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또한 성종 때에는 각림사의 사사전(寺社田)에 대한 전세 징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각림사는 태종이 잠저 때에 공부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태종 때에 크게 중창된 후 조선 최대의 사찰이라고 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고, 국가에서의 대우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각림사가 사실상 수륙위전 등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속전과 사사전 등 시기별로 그 이름을 달리하지만, 각림사가 소유하거나 국가로부터 받은 전토가 상당히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찰이 소유한 사사전의 혁파 문제와 함께 사찰 위전에 대한 혁파 논의 역시 불거져 왔다. 사사전과 위전에 대한 혁파 논의는 성종과 연산군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성종 때에는 사사전을 적당히 감하거나 모두 수탈(收奪)하여 향교(鄕校)에 주게 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443)</sup>

마침내 중종은 “수륙재를 맡은 절과 능침(陵寢)을 맡은 절의 위전(位田) 외에 나머지 각 절의 위전은 아울러 혁파하라<sup>444)</sup>”는 전지(傳旨)를 내린 바가 있었다.

442) 『성종실록(成宗實錄)』 권203, 성종 18년 5월 10일 己酉.

443) 『성종실록(成宗實錄)』 권236, 성종 21년 1월 12일 乙丑; 17일 庚申.

444) 『성종실록(成宗實錄)』 권1, 중종 1년 10월 15일 庚申.

중종의 이러한 조치는 대비(大妃)가 불교를 옹호하는 자지(慈旨)<sup>445</sup>를 내리자 곧 철회되었지만,<sup>446</sup> 이후 위전의 폐지 주장은 계속되었고, 사찰의 위전을 학교에 이속(移屬)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sup>447</sup>

결국 명종은 거듭된 신료들의 주장 속에서 호조가 '각도 사찰의 위전(位田)과 수세전(收稅田)을 빠짐없이 추쇄(推刷)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할 것'을 건의하자, '능침(陵寢)의 사찰과 내원당사찰(內願堂寺刹)<sup>448</sup>에 소속된 이외의 나머지 위전 등은 빠짐없이 추쇄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sup>449</sup> 그리고 마침내 1566년(명종 21) 능침의 사찰 이외의 위전은 추쇄하고 내원당의 전답은 내수사로 이속시키게 하였다.<sup>450</sup> 사실상 능침의 사찰 이외의 위전은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찰 위전은 여러 가지 국용의 토지로 전환 또는 대체되어 갔는데, 사찰의 위전 등이 향교나 역원 및 기타 관청의 필요 경비를 충당하는 위전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의 발발은 사찰 위전뿐만 아니라 향교나 기타 관청들의 위전에 대한 혼란과 변경을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전쟁으로 많은 사찰과 서원·향교, 관청 등이 불타고, 각기 소속된 위전을 미처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후기에는 일반 위전이 축소되는 대신 왕실 외척이나 권세 있는 관청 등의 토지 소유가 매우 확대되었다.

앞서 지평 이정익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즉 각림사에 지급되었던 위전은 향교의 위전이 되었다가, 다시 내탕(內帑), 즉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인 내수사(內需司)의 소유가 된 것이다. 각림사의 위전이 언제 폐지되고, 그것이 언제 향교의 위전으로, 또 언제 내수사의 위전으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진 않다. 1687년(숙종 13) 당시에 '각림사의 위전이 이미 향교의 예전 것(舊物)'이라는 말에서 보듯 상당히 오래 전에 바뀌었을 것이다. 아마도 1566년(명종 21) 명종이

445) 임금 어머니의 전교(傳敎).

446) 『중종실록(中宗實錄)』 권1, 중종 1년 10월 22일 丁卯; 권2, 중종 2년 1월 7일 辛巳.

447) 『명종실록(明宗實錄)』 권11, 명종 6년 1월 12일 庚子.

448) 왕실에서 부처에게 공양하고 불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불당.

449) 『명종실록(明宗實錄)』 권33, 명종 21년 7월 11일 庚子.

450) 『명종실록(明宗實錄)』 권33, 명종 21년 7월 14일 癸卯.



능침의 사찰 이외의 위전을 추쇄할 때이거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의 혼란한 상황 때이거나, 혹은 각림사의 폐사(廢寺)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687년 각림사의 위전이 향교 위전으로, 또 내수사의 소유로 된 것과 관련한 문제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에는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으로 기록하고 있다.<sup>451)</sup>

---

45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 3월 18일 丙申; 20일 戊戌; 22일 庚子; 4월 3일 庚戌; 4일 辛亥; 5일 壬子; 9일 丙辰; 10일 丁巳; 11일 戊午; 12일 己未; 13일 庚申; 16일 癸亥; 17일 甲子; 21일 戊辰; 322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 5월 12일 己丑.

## 각림사의 폐사(廢寺) 시기 문제

각림사는 태종 때 중창되어 조선의 최대 사찰이라 할 만큼 크게 번창하였다. 즉 각림사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 때까지 자주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국가와 왕실의 지원을 많이 받아왔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도 각림사와 관련된 기록이 한 건 남아있지만, 이는 각림사가 폐사(廢寺)된 이후 각림사의 위전(位田)이 향교의 것이 되었다가 내수사의 소유로 바뀐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는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이라 적고 있어 각림사가 1687년(숙종 13) 이전에 폐사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승정원일기』에는 '각림폐사의 위전'이 향교로 바뀐 것에 대해 '경난구원지후(經亂久遠之後)', '경난지후(經亂之後)'라고 적고 있고, '기사년간(己巳年間)'부터 '각림폐사의 위전'이 향교로 옮겨졌다고 적고 있다.<sup>452)</sup>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년),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전의 기사년은 1629년(인조 7)과 1689년(숙종 15)인데, 1687년 전의 기사년은 1629년(숙종 13)년 밖에는 없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보면 각림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후 폐사되었고, 적어도 1629년 전후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림사의 폐사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각림사의 폐사 및 그 시기 문제 등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45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 3월 18일 丙申; 4월 13일 庚申; 322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 5월 12일 己丑.

우선 이기(李璽)가 쓴 『송와잡설(松窩雜說)』에는 각림사에 대해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절은 다 타서 없어졌으나 대마위(大巖, 태종대[太宗臺])는 우뚝 솟아 있다 [壬辰倭賊之亂, 寺盡焚蕩而臺岩猶屹然立焉]’고 써 놓았다.<sup>453)</sup>

이기의 생몰은 1522년(중종 17)~1600년(선조 33)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고향은 원주(原州)였다.<sup>454)</sup> 이기의 자(字)는 가의(加依), 호(號)는 송와(松窩), 시호(諡號)는 장정(莊貞)이며, 죽은 뒤 1603년(선조 36)에 2품 이상 재신(宰臣)을 청백리(淸白吏)로 뽑는데 녹선(錄選)되었고, 그 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이기는 1546년(명종 1)에 생원(生員)이 되었다가, 1555년(명종 10)에 문과(文科)에 합격한 뒤, 장령(掌令), 수찬(修撰), 전한(典翰),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였다. 1572년(선조 5) 이기가 좌승지(左承旨)로 있을 때 모친(母親)의 병환으로 고향인 원주에 귀성(歸省)하기를 청하자, 선조는 강원감사(江原監司, 강원도 관찰사)에게 식물(食物, 먹을거리)을 주도록 하였으며, 이기에게 유자(柚子) 50개를 주어 모친에게 드리도록 하였다.<sup>455)</sup> 그리고 다음해인 1573년(선조 6)에는 강원감사가 되었다.<sup>456)</sup>

이기가 60세 때인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선조가 파천(播遷)하면서 왕자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 근왕병(勤王兵)을 불러 모아 회복을 도모하게 하였는데, 임해군(臨海君)은 함경도(咸鏡道)로 가게 하면서 김귀영(金貴榮)·윤탁연(尹卓然)을 수행토록 하였고, 순화군(順和君)은 강원도(江原道)로 가게 하면서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 황정욱(黃廷彧)과 그의 아들 전 승지 황혁(黃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기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기가 순화군을 수행한 것은 원주(原州)에 살았기 때문에 함께 보냈던 것이지만, 이기는 강원도에 이르러 병을 핑계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왜적이 강원도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순화군도 재를 넘어 북쪽을 향하여 임해군과 동행하게 되었다.<sup>457)</sup>

453) 『대동야승(大東野乘)』, 이기(李璽), 『송와잡설(松窩雜說)』.

454)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선조실록(宣祖實錄)』 권6, 선조 5년 12월 26일 戊寅.

455) 『선조실록(宣祖實錄)』 권6, 선조 5년 12월 26일 戊寅.

456) 『선조실록(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4월 25일 甲戌.

457)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4월 14일 癸卯.

이기가 병을 핑계하고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당시 60세의 고령이었던 이기는 순화군과 강원도에서 의병(義兵)을 모집하다가 병이 들었고, 왜적이 강원도로 침입하였을 때 미처 순화군을 따라 함경도로 향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송와잡설』은 잡설(雜說)이라는 제목 그대로 저자인 이기가 듣고 본 것과 자신의 생각을 차례없이 뒤섞어 기록한 것이다. 총 130여 장이 기록되었는데, 기자조선(箕子朝鮮) 때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살았던 선조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만 7년 동안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은 의외로 소략하다.

그렇지만 이기는 원주가 고향이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순화군을 수행하여 강원도에 와서 의병을 모집하였고, 왜적이 강원도에 침입하였을 때는 병이 들어 미처 순화군을 따라 함경도로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당시 보고 들었던 내용이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기가 『송와잡설』에서 각림사에 대해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절은 다 타서 없어졌다'고 쓴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재 경상북도 달성(達城郡)에 있는 용연사(龍淵寺)의 석가여래 사리탑의 내력을 기록한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龍淵寺釋伽如來浮屠碑)」<sup>458)</sup>를 보면, 각림사가 임진왜란 이후에도 존재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석가여래의 사리(舍利)는 대개 여덟 섬 네 말이라고 한다.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서쪽으로 천축(天竺, 인도)을 돌아보고 사리 몇 과(顆)를 받들어 동쪽으로 돌아와 양주(梁州,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通度寺)에 봉안했다고 한다. 모두 두 함에 함마다 각각 2과였다. 만력(萬曆) 임진(壬辰)의 난리에 왜적이 탑을 훼손하고 사리를 꺼냈는데,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이

458) 용연사(龍淵寺) 석가여래부도(釋伽如來浮屠)는 보물 제539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지정 명칭은 용연사석조계단(龍淵寺石造戒壇)이다. 이 불사리탑은 계단형 사리탑으로 실제 계(戒)를 수여하는 계단의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통도사(通度寺)의 금강계단 양식을 모방하였다(홍성익, 『浮屠形 佛舍利塔에 대한 연구』, 『전북사학』 43, 2013, 66~67쪽).

격문을 들어 화복(禍福)으로써 유도하니 왜적이 두려워하여 완전하게 해놓고 돌아갔다. 송운대사가 받들어 금강산에 가서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년)에게 물으니 휴정이 탄식해 말하기를 “자장은 신인(神人)이다. 그 처음 봉안한 것은 단혀 있지 않음이 없었는데 끝내는 드러남을 면하지 못하였다. 대개 비장한 것은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하였다. 마침내 한 함은 문인 선화(禪和) 등에게 주어 태백산(太白山)의 보현사(普賢寺)에 봉안하게 하고 또 한 함은 송운대사에게 주어 통도사에 돌아가 탑을 개수하여 봉안하게 하였으니 대개 그 근본을 잊지 않은 것이다. 그때 영남에 새롭게 병화(兵火)가 일어나 모두 새나 쥐처럼 숨어드는 바가 되어 공사를 일으킬 틈이 없었다. 그런데 송운대사가 일본에 어명을 받아 갈 일이 생겨 이에 원불(願佛)을 받들어 돌아가게 되자 송운대사는 그 함을 치악산(雉岳山) 각림사(覺林寺)에 두도록 했다. 그 제자인 청진(淸振)이 비슬산(毘瑟山)의 용연사(龍淵寺)에 옮겨 봉안하니 후에 대중들이 서로 의논하여 탑을 만들어 안장하기로 하였다. 또 두 대사의 남긴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1과를 받들어 통도사에 돌아가 봉안하고 1과는 남겨 용연사 북쪽 기슭에 봉안하도록 하니 때는 계축년(현종 14, 1673년) 5월 5일에 탑이 이루어졌고 높이가 5자 5치였다. 절의 승려 광헌(廣憲)과 광륜(廣倫) 등이 북으로 7백 여리를 달려와 서울에 이르러 나를 찾아와 일의 처음과 끝을 말하고 비명을 지어 줄 것을 청하였다. ... 승정기원후 병진(숙종 2, 1676년) 4월 일 세움<sup>459)</sup>

이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를 보면, 본래 신라의 승려 자장(慈藏)<sup>460)</sup>이 천축(天竺, 인도)을 돌아보고 석가(釋迦)의 진신사리(眞身舍利) 몇 과(顆)를 받들어 돌아와 통도사(通度寺)에 봉안했는데, 모두 두 함에 함마다 각각 2과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통도사에 왜적이 침입하여 탑을 훼손하고 보관되어 있던 사리를 꺼냈는데,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 1544~1610년)이 격문(檄文)으로 화복(禍福)으로써 유도하자 왜적이 두려워하여 그 사리함을 놓고 돌아갔다. 그리고 유정이 금강산(金剛山)으로 가서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에게 이 일을

459)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龍淵寺釋伽如來浮屠碑)」

460) 선덕여왕(善德女王) 때의 고승(高僧)으로 중국에서 부처의 사리를 들여와 통도사(通度寺) 등에 불사리탑을 세웠다.

상의하였고, 마침내 한 함은 태백산(太白山) 보현사(普賢寺)에 봉안하게 하고, 다른 한 함은 통도사에 돌아가 탑을 개수하여 봉안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영남(嶺南)에서 병화(兵火)가 일어나’, 즉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생하여 모두 새나 쥐처럼 숨어들었기 때문에 통도사에서 탑을 개수하고 사리함을 봉안하는 공사를 일으킬 틈이 없었다. 또한 유정이 일본에 어명을 받아 갈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함을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림사에 두었던 사리함을 제자였던 청진(淸振)이 비슬산(毘瑟山)<sup>461)</sup>의 용연사(龍淵寺)에 옮겨 봉안하였는데, 후에 대중들이 서로 의논하여 탑을 만들어 안장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유정과 휴정이 보현사와 통도사에 봉안하고자 하였던 뜻에 어긋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사리함에 있던 사리 2과 중 1과는 통도사에 돌려보내 봉안하고 나머지 1과는 그대로 용연사에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유정은 임진왜란 때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이 되어 의승군(義僧軍)을 모아 평양성(平壤城) 탈환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고, 여러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다. 또한 1594년 4월부터 1597년 3월 사이에 적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와의 4차례 협상 회담에 참여했다. 그리고 1604년(선조 37)에는 왕명(王命)을 받고 일본과 강화를 맺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에 유정이 일본에 어명을 받아 가게 되어 사리함을 각림사에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유정이 일본에 간 것은 1604년이므로, 이 기록에 의하면 각림사가 이때까지도 남아있었다는 것이 된다. 앞서 본 이기의 『송와잡설』에는 각림사가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절은 다 타서 없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불에 다 타서 없어진 각림사에 사리함을 보관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 『송와잡설』과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에 나타난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의 내용만을 두고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도 각림사가 폐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민(覺敏)은 ‘출가하여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 있던 유정(惟政)의 제자

---

461) 경상북도 달성군(達城君)에 있는 산.

한한(寒漢)을 은사로 삼아 득도하였다고 한다.<sup>462)</sup> 이와 관련해서 『동사열전(東師列傳)』에는 각민이 ‘치악산 각림사로 들어가 송운(松雲 : 四溟)의 아우뻘 되는 한계(寒溪) 대사를 은사로 하여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다.<sup>463)</sup> 또 『동사열전』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인명사전(韓國佛敎人名辭典)』에는 각민이 ‘치악산 각림사에서 사명 유정(四溟 惟政)의 사제인 한계(寒溪)를 은사로 득도했다고 되어 있다.<sup>464)</sup>

이를 통해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의 제자 또는 사제였던 한한(寒漢) 또는 한계(寒溪) 대사가 각림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한한 또는 한계 스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각민(覺敏)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의 생몰년은 1596년(선조 29)~1675년(숙종 1)이고, 성은 노씨(盧氏), 호는 송파(松坡)였다. 충청도(忠淸道) 충주(忠州) 출신으로, 소년이었을 때 각림사에서 출가하였고, 이후 가야산(伽倻山), 비슬산(毘瑟山), 구천동(九千洞), 금강산(金剛山) 등에서 공부하였다. 당대의 종장들이 그에게 찾아와 배우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의 공부는 깊은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한다.

각민은 1596년(선조 29) 3월 3일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의 출가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그가 소년이었을 때 각림사에 출가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진왜란 이후, 또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도 각림사는 역시 폐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림사에는 사명당 유정의 제자 또는 사제였던 한한 또는 한계 대사가 있을 정도이며, 각민이 새롭게 출가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의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와 함께 각민의 출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도 각림사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한편 「동여비고(東輿備攷)」에 나타난 강원지역의 사찰(寺刹)을 검토한 연구가 있어 각림사의 폐사 시기를 유추하는데 참고가 된다.<sup>465)</sup> 여기에서는 「동여비고」의

46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각민(覺敏).

463) 각민(覺岸), 『동사열전(東師列傳)』 권2, 송파대사전(松坡大師傳); 범해 찬, 김윤세 역, 『東師列傳-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재원, 1991, 181~183쪽.

464) 이정 편, 『한국불교인명사전(韓國佛敎人名辭典)』, 불교시대사, 1993, 9쪽, 각민(覺敏).

465) 홍성익, 「東輿備攷에 나타난 강원지역 寺刹 검토」, 『강원문화연구』 32, 2013, 참고.



『동여비고(東輿備攷) 동서주군총도(東西州郡總圖)』<sup>466)</sup>  
 (원 안에 각림사이다. 각림사는 사찰명만 보이고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건물이 그려지지 않고, 사찰명만 보이고 있어 당시 폐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지도 참고).

마지막으로 각림사는 『여지도서(輿地圖書)』, 『관동지(關東誌)』, 『관동읍지(關東邑誌)』 등에 ‘금폐(今廢)’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18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廢寺)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67)</sup>

또한 『홍길동전(洪吉童傳)』에서 홍길동이 중이 되었을 때 각림사에 기거하고 있다고 하였고 하며, 김병연(金炳淵)도 『김삿갓 방랑기』에 의하면 변계량(卞季良)의 시를 보고 다른 절은 못 보더라도 각림사만은 꼭 보고 싶다고 하여 10여 일을 각림사에서 머문 적이 있다고 한다.<sup>468)</sup> 그렇지만 번성했던 각림사가 임진왜란 때

편찬연대를 1699년에서 1720년으로 보며, 「동여비고」에는 사찰명을 표기하면서, 현재 경영되고 있는 사찰은 대체로 건물의 모습을 그렸지만, 폐사된 사찰은 사찰명만 표기한 경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폐사(廢寺) 현황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각림사의 경우

466) 황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20쪽의 지도를 수정하여 재수록.  
 467) 강원도·황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178쪽.  
 468) 김동정, 『황성지역 향토사료 발굴 조사를 다녀와서』, 『황성문화』 29, 2014, 82쪽.





『여지도서(輿地圖書)』 원주목(原州牧) 지도의 각림사(覺林寺)

소실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중창하여 19세기까지는 존속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69)</sup>

『홍길동전』과 『김삿갓 방랑기』에 각림사가 언급된다는 것은 각림사의 폐사 시기와는 별개로 각림사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sup>470)</sup> 즉 각림사는 태종 이방원이 잡저 때에 수학했으며 태종 즉위 후에는 크게 중창하여 사찰 중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토지와 중이 있을 정도로 번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전승되어 17~20세기가 되었어도 각림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469) 위와 같음.

470) 『홍길동전』은 허균(許筠, 1569~1618)이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까지 110여 편에 달하는 이본(異本)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10여 편에 달하는 이본 대부분은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김병연(金炳淵, 김삿갓, 1807~1863)을 주인공으로 하는 『김삿갓 방랑기』는 김용제(金龍濟)가 해방 이후 발표한 것이고, 『김삿갓 방랑기』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72년 지방도(地方圖)」 원주목지도(原州牧地圖)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동여비고(東輿備攷)」 이후 만들어진 조선 후기, 특히 18~19세기지도들에는 각림사의 사찰명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1872년 지방도」 원주목지도에는 각림사의 사찰명이 나타나고, 건물도 그려져 있다. 더구나 ‘태종대왕(太宗大王)이 독서(讀書)하던 땅’이라는 설명까지 되어 있다. 각림사에 대한 이러한 표기 등은 18~19세기 다른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다. 결국 각림사의 폐사 여부에 관계없이 각림사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현재 각림사가 존재하진 않지만 계속 계승되어 갈 것이다.



「1872년 지방도(地方圖)」 원주목지도(原州牧地圖)<sup>471)</sup>  
 (네모칸이 각림사이다. 태종대왕이 독서하던 땅이라고 쓰여 있다.)

47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 각림사와 태종대(太宗臺) 및 관련 유적

### 1. 각림사지

각림사지는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의 주천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각림사와 관련된 역사는 앞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지(寺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 강림우체국터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강림중학교 주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림면사무소터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이 각림사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지금 황성군 강림면으로 행정구역이 편제되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원주목 수주면으로 편제되어 있던 곳이다. 지금은 도로가 황성군 안흥면, 영월군 무릉도원면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원주에서 보면 먼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지만 과거의 도보 노정으로 보면 원주 행구동에서 치악산 비로봉과 향로봉 사이에 있는 고둔치(혹은 고든치)를 넘어가면 부곡리를 거쳐 바로 다다르는 곳이어서 원주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특히 이곳은 주천강을 따라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울에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직로상의 안흥역(현재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주천강을 따라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주천(지금은 영월군에 속하나 조선시대에는 원주에 속한 곳임)을 거쳐 영월로 연결되는 곳이다. 또 이곳은 원주 소초면 학곡리의 한다리골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면 매화산 서남쪽에 수레너미재가 있는데 이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바로 다다르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의 수레너미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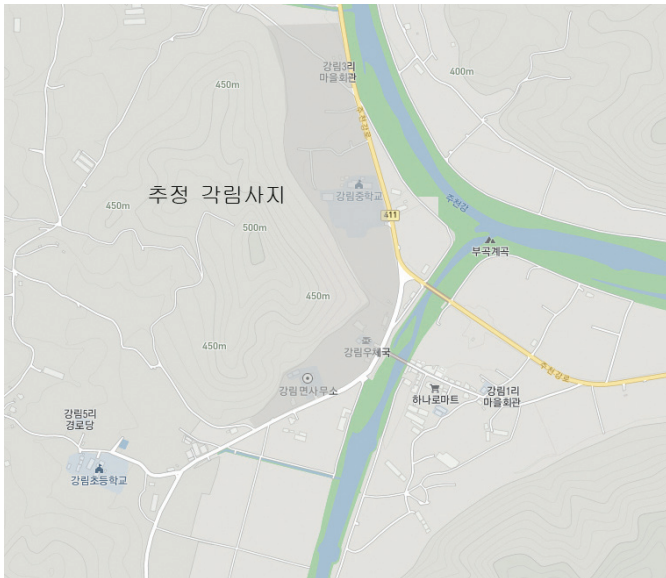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차유령(車踰嶺)”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태종이 타고 온 수레가 각림사로 가기 위해 이 고개를 경유하여 갔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sup>472)</sup>

각림사지의 경우 건물지 유구가 지표상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가람 배치를 짐작하기 어려우나 주민들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강림교회를 짓기 전에는 이곳이 주변보다 상당히 높게 대지(臺地)가 형성되어 있었고 전면에는 축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강림교회와 강림우체국터가 있는 곳이 각림사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각림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태종 때에 전지(田地)와 노비 50구(口), 사찰을 중창하기 위한 철 1천 근, 목재 1천 주를 하사한 바 있고, 또 1424년(세종 6) 당시 전지(田地)가 300결, 승려가 150명이었는데 이것은 고성 유점사와 같은 규모였다는 것을 볼 때 각림사의 건축물 규모도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sup>473)</sup> 특히 세종이 “옛날에 각림사(覺林寺)를 중창(重創)할 때에 국가의 재력이 어찌 넉넉하지 못할까마는, 태종께서 친히 권문(勸文)에 수결(手決)하여 간사(幹事)하는 중들에게 주었는데, 두어 달이 못되어 완성되었다. 이듬해에 내가 강무(講武)하는 일로 인하여 이 절을 지나게 되어서 보니, 제도가 장려(壯麗)하였다.”라고<sup>474)</sup> 하여 각림사 규모가 “장려(壯麗)”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규모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강림중학교터에서부터 강림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구역에서 외편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아마 각림사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기존에 “각림사가 한창 번창하였을 때는 그 규모가 최소한 남북축이 약 1km, 동서축이 250m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사찰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였는데, 사찰이 현재 도로의 서쪽편 산아래 부지라고 본다면 동서축은 가장 넓은 곳이 약 200m 정도이다.

472) 『여지도서(輿地圖書)』 상(上), 강원도(江原道), 방리(坊里), 산천(山川). 「車踰嶺在官門東六十里雉岳山北麓世傳太宗大王駕幸覺林寺路由此嶺故取而爲名云」

47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4일 甲寅; 권31, 태종 16년 4월 28일 庚寅; 권32, 태종 16년 8월 23일 壬午; 『세종실록(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474) 『세종실록(世宗實錄)』 권68, 세종 17년 5월 21일 壬辰.



강림면 강림리의 추정 각림사지(Daum 지도 편집)

예전에 각림사지에 대한 조사 보고가 있는데,<sup>475)</sup> 대체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와편 등의 유물과 조선시대 기록을 바탕으로 각림사는 정확한 초창연대(初創年代)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창건된 사찰이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까지 번창한 사찰로 보았다. 그러나 폐철 시기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에 발간된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 『관동지(關東誌)』, 『관동읍지(關東邑誌)』 등의 기록에 모두 폐철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18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廢寺)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기(李堃)의 『송와잡설(松窩雜說)』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 사찰이 소실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476)</sup> 또 『승정원일기』를 보면 1687년(숙종 13)에 이미 '각림폐사(覺林廢寺)'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어 폐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sup>477)</sup>

475) 신종원·정민화, 「橫城郡內 寺址調査」, 『강원문화연구』 3, 1983; 강원도·횡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476) 『대동야승(大東野乘)』, 『송와잡설(松窩雜說)』.

477)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3월 18일(병신).

현재 각림사터의 강림우체국 바로 옆에는 황성군에서 세운 표지석과 표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석에는

### 각림사(覺林寺)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추측되며 절터에 산재한 와편들을 보면 고구려시대 이전 와편이 발견되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초기까지 번창하여 18세기 말 전후에 폐사(廢寺)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3대 태종대왕이 어린시절 이성계와 함께 잠저(潛邸)에 있을 때 여기서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학문을 배웠던 곳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고, 표석에는,

### 覺林寺 옛터

이곳은 통일신라에 창건되어 고려·조선을 거쳐 18세기말까지 번성했던 각림사의 옛터로 조선3대 임금인 태종이 어린시절 운곡 원천석선생께 공부하였던 곳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각림사지 표지석



각림사지 전경(강림우체국 주변 모습)



각림사지 전경(강림면사무소쪽에서 강림우체국 방향으로 촬영)



각림사에서 발견되는 기와편

## 2. 태종대

이 유적은 황성군 강림면(講林面) 강림리(講林里)에서 부곡리로 진입하는 입구의 개천가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변 절벽 위에는 비각이 있고 비각 안에는 「주필대(駐蹕臺)」라고 각자(刻字)된 비(碑)가 있는데, 이 비석은 본래 바로 앞쪽 암반 위에 홈을 파고 세워 놓았던 것을 비각을 지으면서 비각 안으로 옮겨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절벽 아래에는 암벽에 「태종대(太宗臺)」라고 크게 각자(刻字)되어 있고, 주변에 운곡(耘谷) 원천석 선생과 조선왕조 태종에 관한 사적이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본래 현재 「태종대」라고 각자되어 있는 오른쪽 석벽에도 각자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곳 암벽에는 “태종대” 암각자 보다 후대에 새긴 작은 암각자가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先生事蹟略記弁岩太宗臺  
 太宗王訪耘谷元先生自覺  
 林避入弁岩上駐輦于此官其子賞其婢  
 而返篤後人因以名之  
 崇禎後八十年癸卯夏刻

선생의 사적인 변암(弁岩), 태종대(太宗臺)를 대략 기록하건대, 태종 임금께서 찾아오시니 운곡 원천석 선생께서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숲속으로 피해 변암으로 들어가시었다. 상(임금)께서 이곳에 타신 수레를 멈추시고 그의 아들을 불러 관직을 주고, 그의 비(婢 : 여종)에게는 상을 주시고 돌아가시었다. 후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이름하게 되었다. 승정(崇禎) 후 80년 계묘 여름에 새기다.

이 작은 글씨로 새겨진 암각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승정후팔십년계묘(崇禎後八十年癸卯)”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승정 연호가 끝나는 1644년부터 기산(起算)하면 1723년(경종 3)이다. 그리고 『관암전서(冠巖全書)』(冊 22, 記, 駐蹕臺記)에는 “後人名其石曰太宗臺 英宗壬戌 改以駐蹕 大刻于巖”(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기를 ‘태종대’라 하였는데 영종 임술년에 ‘주필’로 고치고 바위에 크게 새겼다)라고 하여 “태종대”라고 불리던 이곳은 영조 임술년(1742) “주필대(駐蹕臺)”로 개칭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바위에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8세기 중반경 편찬된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강원도, 원주목, 고적(古跡))에도 실려있다.

고려말 사처사(四處士)의 한 사람인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은 조선왕조 제3대 임금인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의 스승이었다. 운곡은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고려왕조를 붕괴시킨 후 신왕조인 조선을 세우고,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본격화하면서 세상이 의리도 도덕도 없는 난세(亂世)가 계속되자, 세상사에 깊은 회의를 느낀 나머지 모든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開城)을 떠나 이곳 부곡리에 은거하게 되었다. 태종 이방원이 국왕이 된 다음에 스승인 운곡 선생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1977년 간행된 『문화유적총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태종(太宗)이 왕위(王位)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겼던 원천석을 찾아 이곳에 이르렀는데 원천석은 은거하고 있던 정낭골에서 태종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상면(相面)을 피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가면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行先)을 거짓으로 알리게 하고 오른편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태종이 이르러 노파에게 그의 행방을 묻자 노파는 반대편 골짜기의 바위쪽을(이후로 그 바위를 횡지암이라고 한다고 함) 가리키므로 태종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며 노파는 왕(王)에게 거짓말을 아뢰는 것을 죽음으로 사죄하기 위해 소(沼)에 몸을 던져 자결하므로 이곳을 노고소(老姑沼)라 하는(구연(媼淵)이란 각자(刻字)가 남아있다) 전설이 있고, 태종이 머물렀던 곳에 주필대(駐蹕臺)란 비(碑)가 있다. 1918년 정각(亭閣)을 중건하였다.<sup>478)</sup>

태종이 임금이 된 다음에 스승으로 모셨던 운곡 원천석을 찾아 왔으나 운곡 선생이 태종을 피해 가서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로, 그 과정에 빨래하는 노파가 등장하고 있고, 당시 태종이 머물렀던 곳에 '주필대(駐蹕臺)'라는 비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태종이 각림사를 방문하기 위해 이곳을 왔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태종 본인이 어릴적 각림사에서 공부하던 추억을 그리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운곡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각림사에서 공부를 하였고 때문에 당대의 유명한 유학자인 운곡 선생이 근처에 와서 은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그후 이곳을 「주필대(駐蹕臺)」라고 불러 오다가 태종이 서거하고 묘호(廟號)가 “태종(太宗)”으로 정해지면서 이후부터 태종대(太宗臺)라 부르고 비석과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송와잡설(松窩雜說)』(이기(李璽)에 의하면 이곳은 태종이

47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상권, 1977, 384~385쪽.

각림사에 공부할 때, 대암(臺巖 : 대바위)이라 불리는 이곳에 때때로 책을 끼고 와서 바위 위에서 읊조렸다고 한다.

원천석은 고구려 때 좌명공신(佐命功臣), 금영광록대부(金榮光祿大夫),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한 원경(元鏡)의 19대 손이며, 충숙왕(忠肅王) 17년에 종부시령(宗簿事令)을 지낸 윤신(允神)의 차자(次子)로 원주원씨(原州元氏)의 중시조로 고려의 멸망과 조선왕조 태조(太祖)의 왕가 형제간의 살육을 통탄하여 무저항적 저항운동을 한 고려말의 은사(隱士)로서 조선시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의 「고려수절제신부(高麗守節諸臣附)」편에는 문장과 지식이 해박했다고 적혀 있으며 단 한번의 과거응시에 급제했고 정계를 떠난 후 향리인 이곳에 내려와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시문으로 난국지세를 한탄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방원이 임금이 된 후 다시 운곡을 부르자 어명을 어길 수 없어 입궐하였지만 상제처럼 흰 옷을 입고 들어가서 태종의 형제간 살육 등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서 무언의 비판을 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그는 고려 왕정 복고를 위하여 반기를 든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이며, 이양소(李陽昭), 남을진(南乙珍), 서견(徐甄)과 더불어 고려 사처사(四處士)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원주시 행구동에 그의 묘소가 있고 칠봉서원(七峰書院 : 현재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에 주향(主享)으로 봉안되었다.

부곡리를 비롯한 강림리 등지에는 태종의 수레가 넘었다 하여 「수래너미」라 부르는 고개, 구연(婁淵 : 노구소(老嫗沼라고도 함)·횡지암·변암·누줄재 등 곳 곳마다 운곡과 태종에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태종대(太宗臺)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6호이며, 1984년에 해체 복원하고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했다.



태종대 주필대비와 비각



주필대비(駐蹕臺碑)



태종대 암각자

### 보조자료 : 운곡 원천석 선생과 태종에 얽힌 이야기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에는 조선왕조 초기 치악산에 은거한 운곡 원천석을 찾아왔던 태종에 얽힌 이야기를 비롯하여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 등 많은 전승 이야기가 채집된다. 물론 이런 구비전승은 반드시 부곡리에 한정하여 전해져 오는 것은 아니고, 강림리, 부곡리를 비롯하여 원주·횡성 일대에 두루 퍼져 있는 유사한 테마가 많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적·물적교류권역내에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구비전승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은 태종과 운곡의 사연이 얽힌 태종대·노구소·변암·횡지암·누줄재 등 여러 유적지가 있는 곳인 만큼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인근의 그 어느 곳에서도보다 상세히 전해 내려 오고 있다.

### 〈운곡을 찾은 태종 이야기〉

강림리, 부곡리는 물론이고 강림·안흥을 비롯한 황성 일대와 원주 지역에는 태종 이방원이 불사이조(不事二朝)의 절의(節義)를 지키며 치악산에 은거한 운곡 원천석을 찾아왔던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강림면 강림초등학교에서 부곡리로 가다보면 강림천변 절벽위에 있는 태종대(太宗臺)를 비롯하여 노구소(老媪沼), 횡지암(橫指岩), 치악산에 있는 변암(弁巖 : 갯바위)과 누줄재(陋拙齋)터 등 태종이 운곡 원천석을 찾아왔던 이야기와 관련된 유적, 또는 운곡의 은거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이 개국된 후, 1·2차 왕자의 난을 통하여 실세를 완전히 장악한 정안대군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태종은 1414년 그의 옛 스승 운곡을 만나기 위해 이곳 황성 강림으로 행차하게 된다. 운곡은 높은 관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태종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피신하게 된다. 운곡은 냇가에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누가 찾아와서 나의 행방을 묻거든 내가 간 길과 반대쪽을 알려 줄 것을 부탁하고는 치악산 속으로 들어갔다. 태종이 마을에 도착하여 운곡의 행방을 물으니 노파는 운곡이 부탁한 대로 영뚱한 방향을 알려 주었다. 태종은 결국 운곡을 찾지 못하고 옛 스승이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냥 한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태종이 운곡을 만나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 바로 부곡리로 들어가는 입구의 강림천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 태종대이며, 이곳을 지나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노파가 길을 영뚱한 방향으로 가르쳐 준 횡지암(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운곡이 제자를 잘못 가르쳤다고 한탄했던 바위라고도 전함)이 있고, 국왕인 줄 모르고 운곡이 부탁한 대로 길을 잘못 알려 준 것을 비판하여 투신자결하였다는 노구소가 있다. 또 변암과 누줄재는 모두 운곡이 치악산 속에 은거할 당시 머물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태종과 운곡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하는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다소 사실과는 다르게 전해 내려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허황된 전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윤곡이 진실로 태종 이방위를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기록이 없어 분명치 않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종이 잠저시(潛邸時 : 왕이 되기 이전 시기를 말함)에 이곳 황성 강림리 각림사(覺林寺)에서 글공부를 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학자로서 잘 알려진 윤곡에게 글을 배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태종이 이곳 부곡리·강림리에 행차하였던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는 당시 태종이 주로 각림사에 들리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414년(태종 14)과 1417년(태종 17) 두 차례에 각림사를 방문하였다.

태종이 윤곡을 찾았던 이야기는 1414년(태종 14) 각림사에 행차하였을 때로 생각 되는데, 당시 태종은 자신이 잠저시(潛邸時)에 공부하던 곳이라 하여 많은 예단과 미두(米豆)·전지(田地)·노비(奴婢)를 하사하고 돌아갔다.<sup>479)</sup> 또 1417년(태종 17)의 경우는 단순히 각림사에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일대에서 강무(講武)를 겸하였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대동하였다.<sup>480)</sup> 실록에 의하면 태종은 국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어려서 놀던 각림사를 매우 그리워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태종은,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각림사에서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少時)적에 놀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토지를 지급하고 중신(重新)하게 한 것이다. 내가 강무(講武)를 핑계하여 태조와 모후(母后) 두 분의 기일 때에 가서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기일은 5월에 있고, 모후의 기일은 9월에 있으니, 5월은 바로 농사철이며 9월은 벼가 무성한 때이다. 만약 연구 없이 간다면 대간(臺諫)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 불법(佛法)은 비록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처를 위하여 한 차례 간다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sup>481)</sup>

479)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윤9월 14일 甲寅.

48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7일 甲申.

481)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2월 27일 甲申.

라고 하였으며, 대언(代言) 등이, “강무(講武)로 인해 한 번 행행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라고 하니 태종은 “내가 꼭 가서 보아야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로 볼 때 두번째 각림사 행차도 강무를 핑계하고 있지만 실은 각림사를 가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태종의 발언을 보면 태종이 각림사에 꼭 가보고자 한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어릴적 공부하던 곳인 각림사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태조와 모후의 기신재(忌辰齋)를 각림사에서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이 그 당시 각림사에 가서 승려에게 “내 장차 지의(地衣 : 가장자리를 험겚으로 꾸미고 여러 개를 이어서 크게 만든 돛자리)를 주겠고, 또 오는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하였는데,<sup>482)</sup> 9월은 바로 모후의 기일(忌日)이 있는 달이기에 아마 태종은 모후 기일을 염두에 두고 각림사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시대 국왕이 강무 시행을 위해 횡성을 방문한 것은 1414년(태종 14), 1415년(태종 15), 1417년(태종 17), 1419년(세종 1), 1421년(세종 3), 1426년(세종 8) 등 총 6 회였다. 이 가운데 태종이 참여한 것이 5회, 태종이 상왕이 되어 세종과 함께 방문한 것이 2회, 세종이 방문한 것이 1회이다. 특히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하고 상왕이 되어 시행한 1419년, 1421년 강무 행사는 두 임금이 함께 참여하는 강무 행사였던 만큼 이례적인 대규모 행사였고, 특히 1419년 강무는 이전의 그 어느 강무 행사보다 대규모로 시행되었는데, 종친 및 주요 문무관과 갑사(甲士)·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가 2천여 명, 별군방패(別軍防牌)가 수천 명이었고, 동원된 말이 1만여 필이나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강무행사였다. 아울러 연사종·이화영·이춘생·박성양·박실·황상 등을 3군 장수로 삼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때는 태종이 왕위를 물려준 직후이고, 이종무 등을 보내 대마도 정벌을 단행한 해로 아마 강무 행사를 통해 대대적인 군사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왕의 군사적 통솔력에 대한 과시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던 매우 특별한 강무 행사였다. 횡성을 비롯한 두 임금의 행차가 지나는 고을에 이러한 대규모

482)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3월 5일 辛卯.



강무 행사가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3. 횡지암(橫指岩)

구연(媼淵 : 또는 노구소)에서 올라와 태종대를 지나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곳으로 노구(老媼)가 선생이 변암으로 가신 줄 알면서 이쪽을 가리켰다고 하여 「횡지암(橫指岩)」이라고 하였다고도 하고, 이방원이 그를 못만나고 되돌아간 후, 제자인 이방원이 포악무도하게 정권을 탈취한 것은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橫智岩)이라고 한탄한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4. 노구소(老媼沼 : 媼淵이라고도 함)

강림면 강림 2리 하천의 깊은 소(沼)를 말한다. 이곳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태종대가 있다. 지금도 2미터 이상되는 깊은 소(沼)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沼)에 연접한 바위에는 각자(刻字)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구연(媼淵)”이라고 새겨져 있다. 운곡이 태종의 행차를 미리 알고 강가에서 빨래하던 노구(老媼)에게 손님이 와서 나의 간 곳을 묻거든 이 강물을 따라 갔다고 대답하라고 부탁하고 사실은 은거하던 변암쪽인 좌측으로 꺾어져 올라 갔다. 노구는 태종에게 운곡이 부탁하던 대로 가르쳐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태종의 거동이라 임금을 속였음을 알고 그대로 강물에 투신자살하니 이곳을 「노구소(媼淵)」라고 불러왔다고 전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 문신인 홍경모의 문집 『관암전서(冠巖全書)』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公)의 이름은 천석(天錫)이며, 운곡(耘谷)은 호(號)이다.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는데, 원주의 치악산에 은거하며 몸소 농사지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 태종대왕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서 독서(讀書)하시었고, 또한 일찍이 원천석 선생에게 수업(受業)하였다. 보위(寶位 : 왕위를 말함)에 오르시게 되자 누차 불렀으나 가지 않았고, 후에 황성에서 강무(講武)하면서 각림사에 주필(駐蹕)하였는데 친히 그의 집에 가셨으나 원천석은 피해가서 만나지 못하였다. 태종이 냇가 바위 위에서 오두막집을 지키는 할미를 불러 후하게 물품을 하사하고 그의 아들 형(洞)에게는 관직을 주어 기천감무(基川監務)로 삼았다.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말하기를 ‘태종대’라 하였다. 영조 임술년에 주필대(駐蹕臺)로 개칭하고 바위에 크게 각자(刻字)하였다.<sup>483)</sup>

여기에서 보면 태종이 운곡 선생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였으나 운곡 선생은 이미 태종을 피해 갔으므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운곡 선생이 살고 있던 오두막집을 지키고 있던 할미(아마 운곡 선생과의 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고 여겨짐)에게 후하게 물품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sup>484)</sup> 물론 태종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빨래하던 노구(老嫗)”는 별개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어느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길이 없다.

노구소가 있는 서쪽 산기슭에는 지난 2005년~2010년까지 노구사(老嫗祠) 건립사업으로 사당과 삼문, 조형물, 안내표지석 등이 설치되었다.

483) 홍경모, 『관암전서(冠巖全書)』 책(冊)22, 기(記), 주필대기(駐蹕臺記). 「公名天錫耘谷號也 舉進士 隱居於原之雉嶽山 躬耕不出 我太宗大王在邸時讀書於山之覺林寺 亦嘗受業于天錫 及登寶位 屢召不至 後講武橫城 駐蹕于寺 親枉其家 天錫避不見 太宗臨溪石上 召守廬 媼厚賜之 官其子洞爲基川監務 後人名其石曰太宗臺 英宗壬戌 改以駐蹕 大刻于巖」

484) 이러한 내용은 『기언』 제18권, 중편, 구묘(丘墓) 2, 운곡선생묘명(耘谷先生墓銘)에도 실려 있음.



노구사(老嫗祠) 정면 모습



노구사(老嫗祠)와 주변 전경

## 5. 변암(弁岩 : 갯바위)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하는 갯바위로서 부곡리 치악산 기슭 비로봉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300여 미터 아래에 있는데 생긴 모습이 고깔 처럼 생겼다고 하여 「변암(弁岩)」이라 한다. 바위 아래는 수십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은데 그 옆에는 돌우물이 있어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다. 운곡 선생은 이곳에 온돌을 만들고 고사리와 나무 열매로 식사를 대신하였다고 한다.

변암 안쪽 벽면에는 언제 새겨진 것인지 모르나 “변암(弁岩)”이란 두 글자가 있고 그 옆으로 “太宗東二十里”라는 문구가 있다. 또 바깥 벽면에는 “石井澆湯收拾山蔬且慰右先生居止所詠”이라는 문구가 있고, 옆쪽 바위 아래면에도 다음과 같이 운곡 선생이 변암에 은거하게 된 연유가 새겨져 있다.

“耘谷元先生 諱天錫麗末隱居此山下 我太宗 以甘盤(舊)累召不至幸其虛  
先生避入于此 崇禎後八十年癸卯後孫尙中識 不口上高其(義)”

한편 운곡선생이 변암에 거주하고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시가 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쪽 기슭에 숲 정자 한 곳을 새로 개척하다〉

짧은 산 기슭에 작은 정자를 세우고 보니  
땅이 외지긴 하나 마음 수양하기엔 알맞어라  
물맑은 숲 밖엔 가슴이 씻은 듯하고  
바람 지나는 봉우리 위엔 귀를 기우릴 만하네  
부슬비 앞은 연기는 가까운 들을 메우는데  
흰 구름 푸른 산은 새 병풍을 두르는데  
산 과일이 막 익어서 굶주림을 잊고  
바위 샘이 차가와 같증을 풀 수 있다네  
세속의 시끄러움을 피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찌 기리기 길의 멀고 아득함을 알 건가  
가엾구나 늙어가는 내 평생 일이  
두어 소나무 그늘에 한 권의 경서로세.



변암(弁岩 : 강원도청, 2011)

## 6. 누출재(陋拙齋)터

강림면 부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변암으로 오르는 길목 작은 산등성이에 「운곡원 선생유지(耘谷元先生遺址)」라는 비석이 있는데, 현재 이곳을 누출재지라고 하고 있으나 조사자의 생각으로는 이곳을 누출재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비석 동쪽 구릉으로 50~60m 지점에 1.5평 정도의 정방형 움막이 있어 이 곳이 누출재터로 보여진다. 온돌형식과 화장실터가 남아있고 움막 앞뒤에 텃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운곡시사(耘谷詩史)』에 의하면 「지난번 변암 남쪽 봉우리 밑에 새로 초가 한 칸을 세우니 지형이 험하고 외진데다가 집 구조마저 아름답지 못하며, 또 향배와 왕복이 다 마땅하지 않고 매우 누추하고도 웅졸한가라고 하면, 그 주인은 몸 가짐이 도(道)에 어긋나고 뜻 세움이 세상에 맞지 않으며 또 모든 처사가 우월한데다가 거처마저 쓸쓸하여 그 누추하고 웅졸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 집이 누추하고 웅졸한 것이 주인이 누추하고 웅졸한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집 이름을 누졸재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이에 대해 시를 지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으로 깊은 시내를 향해 띠 집을 세우고  
 나의 여생을 거기에서 보내려 하니  
 처세하는 지모(智謀)도 과연 웅졸하거니와  
 수신(修身)하는 사업이 옳을 것 없어 부끄러워라  
 창문열고 마주 대하면 푸른 솔 빛나고  
 땅을 쓸어 사르다 보면 백출(白朮) 향내가 풍기네  
 이 경계의 이 사람이라 향배를 어겼으니  
 길가는 사람도 아마 방향을 모른다고 비웃으리

서리 뒤 산초(山椒)는 푸른빛이 짙어가고  
 한 그루 전나무와 두어 그루 소나무라  
 천년을 겪은 너희들은 냉략한 지조가  
 십년 동안 늙어가는 내 얼굴을 대해 쥐 사랑스럽군  
 멀리는 마을 터의 길고 짧은 피리를 듣고  
 가까이 이웃 절이 아침 저녁 종소리를 듣네  
 이 사이에 띠를 벨 생각이 간절하니  
 일 없는 사람 보고 소식을 전하지 말라

항상 도(道) 있는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기뻐서  
 이 늙은 몸을 끌고 밝은 창에 기대어  
 가슴 풀고서 날마다 책을 읽고

때로는 술 향아리 대해 번민을 제거하기도 하며,  
누워선 조각조각 일어나는 구름을 보고  
앉자선 쌍쌍이 우는 새 소리를 듣네  
세상 정과 속된 일을 다 잊었으나  
다만 시마(詩魔)가 아직 행복하지 않다네.

자갈밭 초갓집 광문(廣文)의 처소인들  
그 누추하고 웅졸함이 어찌 운곡의 집과 같으랴  
그래도 몸을 용납하니 마음이 우선 만족하고  
지혜의 여유가 없으니 세상을 깔보지 않네  
한 시내의 바람과 달의 정(情)은 끝이 없고  
십리의 구름과 연기는 그림도 그럴 수 없구나  
길이 막히고 땅이 외져 늙고 병든 자에겐 적당하나  
다만 찾는 친구들이 드물어 유감이라네.

어딜 가나 한가한 몸 붙여 살기는 무방한 것  
원래 하늘 땅 사이에 한 산민(散民)이니까  
풀 우거진 초당은 각아지른 산록에 의지하고  
쓸쓸한 옛 절을 이웃 삼아 지내노라  
돌 샘을 뚫어서 항상 갈증을 풀고  
산나물 캐와 가난을 위로하네  
잘 살건 못 살건 백년이 그 얼마인가  
죽은 사람 산 사람을 한 번 세어 보시라

붉고 푸른 봉우리 속에 살고 있으니  
한 평생 행지가 증처럼 한가해라  
산 허리에 비긴 해는 몸을 기울여 보내고  
집 꼭대기에 나는 구름은 손을 뻗어 잡으며  
허술한 울타리는 보는 대로 수리하고  
오래된 글귀를 다시 꺼내 고치기도  
바깥 사람 오지 않고 가시 사립은 고요한데  
책을 낀 아이들만 자주 오락가락 하네.



누출재터(강원도청, 2011)



## 각림사 관련 사료

-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1410) 12월 20일(임자)  
각림사에 향을 내려준다.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향(香)을 내렸다.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중 석초(釋超)가 주지(住持)로서 간다고 하직하니, 향(香)을 주어 보냈다.

-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1412) 10월 17일(기사)  
각림사 중들이 전세를 많이 거두어 고소당한 사건을 덮어 두라고 명하다.

명하기를 원주목사(原州牧使)에게 각림사(覺林寺) 중이 수조(收租)한 일을 핵문(覈問)하지 말게 하였다. 원주 각림사(覺林寺) 주지(住持) 석휴(釋休)가 와서 아뢰었다. “완우(頑愚)한 승도(僧徒)들이 신이 서울에 나아갔을 때, 전세(田稅)를 후하게 거두어서 전객(佃客)이 관(官)에 고소하였고, 또 요역(徭役)도 다단(多端)합니다.” 승정원에 명하여 원주(原州)에 치서(馳書)하기를, “후하게 거두어 들인 일은 핵문하지 말라.”하고, 이어 요역을 견감(蠲減)하였다. 이 절은 방금 재건되어 낙성(落成)을 보게 되었는데, 중관(中官)을 보내어 부처에게 현훈폐(玄纁幣) 1필을 각각 바치고, 중들에게는 면포(綿布)·주포(紬布) 함께 10필, 마포(麻布) 50필, 저화(楮貨) 2백 장(張)을 내려 주었으니,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독서(讀書)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 윤9월 14일(갑인)  
각림사에 미두·전지·노비를 내려준다.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거둥하였으니, 옛날 잠저(潛邸) 때 공부하던 곳이었다. 절의 중에게 채단(綵段)·홍초(紅綃)를 각각 3필씩 내려 주고,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고, 전지(田地) 1백 결(結)과 노비(奴婢) 50구(口)를 더주고, 절의 노비 등에게 쌀과 콩 아울러 30석을 내려 주었다.

-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1415) 2월 3일(신미)  
각림사 등지에서 사렵을 금지하고 강무할 장소를 정하다.

강무할 장소를 정하였다. 병조에 전지를 내렸다. “충청도의 순제곶이(尊堤串) 내와 전라도의 임실(任實)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지하지 말고,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게 하라. 강원도의 평강(平康)·횡천(橫川)·이천(伊川)·평창(平昌)·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실미원(實美院) 등지와 풍해도(豐海道)의 우봉(牛峯)·대둔산(大菴山)과 경기(京畿)의 임강(臨江)·수회(水回)·마성(馬城)·장단(長湍)·칠장(七牆)과 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곶이(笞井串)·덕련동구(德連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지하여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1416) 4월 28일(경인)  
철 1천 근을 각림사에 주다.

명하여 철(鐵) 1천 근(斤)을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주니, 사승(寺僧)으로서 중창(重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1416) 8월 23일(임오)  
각림사의 중창에 재목 1천 주와 미두 100석을 제공하게 하다.

강원도관찰사(江原都觀察使)에게 명하여 각림사(覺林寺)를 중창(重創)하는 재목(材木) 1천 주(株)를 주고, 도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폐단없이 운반하여

들이도록 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본궁(本宮)의 쌀·콩  
합하여 1백 석을 군자감(軍資監)에 바치고, 충청도(忠淸道) 제천(堤川)  
창고의 쌀·콩을 바꾸어 각림사(覺林寺)에 주라.”하였다.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2일(기미)  
대신들이 춘등강무를 횡성에서 순성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임금의  
진노하다.

의정부 좌의정 박은(朴崧)·우의정 한상경(韓尙敬)이 강무할 곳을  
올렸는데, 사인(舍人) 심도원(沈道源)을 시켜 아뢰기를, “충청도  
순성(尊城)을 춘등강무장(春等講武場)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橫城)을  
추등강무장(秋等講武場)으로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횡성은 곧 전일에 정부(政府)와 대간(臺諫)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곳인데, 그때에는 어찌 한 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았느냐? 또한  
지금은 강무한다는 명령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내느냐?  
나더러 각림사(覺林寺)에 간다고 핑계하여 강무하라는 말이나? 내 어찌  
강무하고자 했겠느냐? 그러나, 강무는 옛 제도(古制)인 것이다. 만일  
강무하는 것을 그르다고 한다면, 이 앞서 강무하였을 때에 여러 재상과  
대간이 어찌하여 저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곧 임금의 악(惡)을 조장하는  
것이다. 원주(原州)의 각림사는 내가 나이 어렸을 적에 유학(遊學)한  
곳이므로, 사우(寺宇)와 산천(山川)이 매양 꿈속에 들어오는 까닭에, 한  
번 가보고 싶었을 뿐으로 애초부터 부처를 위함은 아니었다. 만약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간다면, 반드시 ‘이를 핑계 삼아 강무한다.’할  
것이니, 모름지기 눈이 쌓였을 적에 가야겠다.” 대언(代言) 서선(徐選),  
승전내관(承傳內官) 최한(崔閑)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니, 서선 등은  
지난 가을에 정했던 강무장을 을미년의 일이라고 했으므로, 임금이, “나를  
속였다.”하여, 가두도록 명했다. 또 조말생(趙末生)에게 명하여, “집으로  
돌아가라.”하였다가, 이튿날 용서하라고 명하니, 서선(徐選)·최한(崔閑)  
등도 각기 그 집으로 돌아갔다. 조말생을 불러 직책에 나오게 하니,  
박은·한상경 등이 예궐(詣闕)하여 아뢰었다. “어제 심도원(沈道源)이 신

등의 뜻을 잘못 아뢰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평강(平康) 강무장은 산이 깊고 눈이 쌓여 반드시 3월 보름을 기다린 뒤에야 눈이 다 녹겠고, 또한 도내(道內)를 일년에 두 번씩 가신다면 민력(民力)이 근고(勤苦)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농사에도 방해가 될 것이므로, 원컨대, 순성(尊城)으로써 또 한곳을 만드신다면, 금수(禽獸)도 해를 거듭함에 따라 번식할 이치가 있을 것이요, 민생에 있어서도 고되고 혈함이 서로 균등하게 하는 뜻이 있게 되어, 전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폐단이 없게 하려는 염려에 거의 합당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조금 있다가 대언 등을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전일에 서선과 최한을 가둔 것은 정승(政丞)의 말을 꺼려서가 아니다. 지난 가을 강무할 곳을 의논하여 결정할 때, 서선은 그 일을 전장(專掌)하였고, 최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납(出納)하였으나, 모두 기억하지 못한 까닭에 하옥하라고 명한 것이다. 대저 옥(獄)이란 하루라도 유숙(留宿)할 수 없는 곳이고, 근신(近臣)을 경솔히 하옥함이 불가한 것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특히 뒷사람을 경계한 것뿐이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름철은 묘(苗)를 위하여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머지 3시(三時)에도 모두 뜻이 있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무사(無事)하다고 사냥하지 아니함은 불경(不敬)한 것이다.’하였다. 이 말을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일事は 군례(軍禮)·빈례(賓禮)·상례(喪禮)·흉례(凶禮)에 출입하는 일이다.’라 하였으니, 무사하다고 해도 사냥함이 옛 제도인 것이다. 지금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이 모두 강무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옛 법을 말하니 특히 하나의 버릇이 되고 말았다. 또 근자에 구언(求言)했을 때, 재신(宰臣) 남실(南實)이 강무의 폐단을 극언(極言)하였는데, 그 말이 임금을 엄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다가, 구언(求言)하고서 도리어 그 말이 적중하지 못함을 책망할 수 없는 까닭에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전조(前朝)의 말년에 구언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부처(佛)를 헐뜯어 말하므로 조정의 의논이 그를 국문(鞫問)하려 하였다.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가 말하기를, ‘구언하고서 그에게 죄 줄 수는 없습니다.’하여, 곧 죄를 면한 일이 있었기에, 사실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를 내버려두고 묻지 않은 것은

또한 이런 뜻에서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시(四時)에 전렵함은 옛 법이다.’하였는데, 이제 봄·가을 두 때만으로 정한 것은 바로 그것을 반으로 꺾은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가지고 ‘임금의 뜻을 봉영(逢迎)하는 것이다.’고 말한다니, 이것은 무슨 마음에서인가? 근일에 조원(趙源)이란 자도 강무하고자 아니하여, 사사로이 서로 비훼(非毀)하는 서신이 있었고, 또 예조(禮曹)에서 일찍이 고제(古制)를 모아서 아뢰었을 때, ‘천자(天子)도 친히 궁시(弓矢)를 잡는다.’는 귀절을 삭제하였으니, 그 뜻을 따진다면 이 역시 강무를 싫어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 일을 직서(直書)하였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궁시(弓矢)를 차고 치빙(馳騁)하는 것을 달게 여겼겠느냐? 그 의롭지 못함이 대강 이와 같다. 하지만 그 뜻만은 실지로 나를 사랑함인데 단지 그 대체(大體)를 알지 못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모두 나더러, ‘무가(武家)이어서 무사(武事)를 좋아한다.’고 하나, 태조(太祖)께서 나에게 학문(學問)을 권장하셨으니, 내가 궁시를 잡기 시작한 것은 어렸을 때가 아닌 장년(壯年) 시절이므로, 무사(武事)를 좋아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무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건문제(建文帝) 때에는 사장(詞章)만을 일삼았으므로, 육옹(陸顛) 등이 매양 성천자(聖天子)라고 일컬었지만, 결국은 패망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를 거울삼지 않겠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문무(文武)를 아울러 씬이 장구(長久)의 계책이라고 하였으니, 내 문무를 아울러 써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뿐이다. 내가 순성(尊城)을 강무할 곳으로 삼지 않는 것은 후세에 국정(國政)을 등한시하여 멀리 사냥 나가 유일(遊逸)을 일삼을까 두려워함에서이다. 백성들이 나무를 베고 밭갈이하는 것을 들어 주어, 미록(麋鹿)으로 하여금 번식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록 유일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6일(계해)  
 춘등강무를 정지하고, 27일에 각림사로 행행하고자 하다.

춘등강무(春等講武)를 정지하고, 27일에 각림사(覺林寺)로 행행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전지(傳旨)하기를, “땅도 해동(解凍)하지 않고 눈도

녹지 않았으나, 각림사로 행행하고자 함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보이려는 까닭이요, 강무하려는 본의(本意)가 아니다.”하니, 조말생(趙末生)이 아뢰기를, “강무하는 법은 고전(古典)에 실려 있어 폐할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강무(講武)라고 고쳐 구전(口傳)하소서.”하였다. 임금이, “강무라고 구전(口傳)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말을 꺼려서가 아니라 진실한 내 뜻이다.”하니, 조말생이 아뢰었다. “강무하는 것은 만세(萬世)의 성헌(成憲)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폐지하려 하십니까?”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10일(정묘)  
 시간원에서 각림사로의 행행을 정지하고 강무를 순행할 것을 상소하다.

시간원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소(疏)에 말하기를, “신 등이 그욕이 생각하건대, 거동(舉動)은 임금이 대절(大節)이므로 명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보니,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옛 제도를 본받아 매양 봄·가을에 강무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예(禮)로써 거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도로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覺林寺)로 행차하고자 하니, 신 등은 아직 알지 못하겠으나, 무슨 일 때문에 부도(浮圖)의 처소에 행행하려 합니까? 또 전하의 일신(一身)은 자손만세(子孫萬世)에 취하는 바가 되는 즉 더욱 명분 없이 거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번 각림사에 행차하심을 정지하고, 특별히 강무한다는 명령을 내리시어 상소(常所)에 순행(巡幸)하심으로써 법을 후세에 드리우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호군(大護軍) 조치(趙齒)를 횡성(橫城)에 보내어 강무장(講武場)에 얼음이 녹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게 하고, 이어서 명하였다. “만약 얼음이 녹지 않았다면 본도(本道)와 충청도 기군(騎軍)·보군(步軍)과 역마(驛馬)를 모두 징취(徵聚)하지 말라.”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22일(기묘)  
 제천현 창고의 쌀·콩 100석을 각림사에 주다.

제천현(堤川縣) 창고의 쌀·콩 1백 석을 각림사(覺林寺)에 주니, 본궁(本宮)의 쌀·콩 1백 석과 바꾼 것이었다.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27일(갑신)  
각림사로 행행하니, 겸하여 봄철 강무를 하기로 하다.

거가(車駕)가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로 행행(幸行)하니, 겸하여 춘수(春蒐)를 강(講)하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각림사에서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少時)적에 놀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급전(給田)하고 중신(重新)하게 한 것이다. 내가 강무(講武)를 핑계하여 태조(太祖)와 모후(母后) 두 분의 기일(己辰) 때에 가서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기일은 5월에 있고 모후의 기일은 9월에 있으니, 5월은 바로 농사철이며 9월은 벼가 무성한 때이다. 만약 연구 없이 간다면 대간(臺諫)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 불법(佛法)은 비록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中國)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처를 위하여 한 차례 간다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 대언(代言) 등이, “강무(講武)로 인해 한 번 행행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꼭 가서 봐야겠다.”하였다. 횡성(橫城) 등지의 구군(驅軍)·방패(防牌)·섭대장(攝隊長)·섭대부(攝隊副) 합쳐서 1천 91명, 별군(別軍) 1백 60명이었고, 강원도의 보군(步軍) 1천 2백 명, 마군(馬軍) 3백 명이었으며, 충청도의 보군 2백 50명, 마군 3백 명이었고, 경기(京畿)의 2백 50명이었다. 도관찰사(都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 고을 수령(守令) 등에게 명하여 행재소(行在所)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3월 5일(신묘)  
거가가 각림사에 이르자 장차 지의를 주고 불사할 계획을 말하다.

거가(車駕)가 각림사에 이르자 절의 중(僧)에게 진지(傳旨)하기를, “내 장차 지의(地衣)를 주겠고, 또 오는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하였다.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4월 2일(무오)  
각림사에서 낙성을 알려오자, 화원 이원해 등 15인을 각림사에 보내다.

명하여 화원(畫員) 이원해(李原海) 등 15인을 각림사(覺林寺)로 보내니, 절에서 낙성을 알린 때문이었다. 또 여러 채색(彩色)을 내려 주었다.

-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1417) 7월 5일(무오)  
각림사 중이 사곡을 바꾸도록 청하니 허락하고, 각림사의 낙성 법회를 돕게 하다.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의 중이 사곡(私穀) 2백 석을 근처 제천(堤川) 창고의 쌀 1백 석과 바꾸도록 청하니, 허락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각림사는 내가 젊었을 때에 놀던 땅이다. 지금도 꿈 속에서 가끔 간다. 그러므로 중수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를 좋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중들은 본래 성질이 지리(支離)하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 간사승(幹事僧)으로 하여금 나를 빙자하여 범람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하고, 그 뒤에 또 전지하기를, “연안부(延安府)의 본궁(本宮) 곡식 2백 석을 그 부(府)의 창고에 들이고, 충청도(忠淸道) 제천(堤川) 고을의 창고 쌀 1백 석과 경원창(慶源倉)의 보리 20석을 각림사에 주라.”하니, 대개 낙성(落成)한 법회(法會)를 도운 것이다.

-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1417) 9월 15일(정묘)  
유창에게 명하여 각림사에 화엄경을 보내고, 법회를 베풀어 낙성하게 하다.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에게 명하여,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가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고(皇考)·황비(皇妣)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화엄경(華嚴經)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각림사가 완성되매 이 경(經)을 보내고, 또 유창에게 내향(內香)과 소(疏)를 주어 법회(法會)를 베풀어 낙성(落成)하였다.



-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1419) 11월 9일(기유)  
원주 서음소에서 점심을 들고 기대리에 도착하여 잤는데,  
원주 기로 정정 등이 알현하다.

… 물이꾼 3천여 명을 놓아 보내도록 명하고 원주의 서음소(鋤音所)에 이르러 점심을 들었는데, 관원주목사 조계생(趙啓生)이 마중 와서 알현하였다. 이가가 기대리(岐大里)에 도착하여 잤는데, 상왕이 활과 화살통 하나씩을 여러 절제사 및 사복관(司僕官)에게 주고, 활쏘기 내기를 하게 하였다. 함길도관찰사 안망지(安望之)는 사람을 보내서 방물을 진상하고, 충청도관찰사 정진(鄭津)도 사람을 보내서 말과 방물을 진상하였다. 방물은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원주의 기로(耆老) 정정(鄭政)·유선보(劉善寶) 등 10여 명이 와서 알현하므로, 상왕이 〈그들에게〉 술을 주도록 명하고, 신보에게 이르기를,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 내가 일찍이 너의 사위 인시경(印時敬)을 장군에 임명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하였다.

-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1421) 3월 8일(경오)  
원주 각림사 주지 석휴가 와서 알현하니, 쌀 2백 석을 하사하다.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 주지(主持) 석휴(釋休)가 와서 알현하니, 쌀 2백 석을 하사하였다. 각림사는 상왕이 임금되기 전에 공부하던 곳이며, 휴는 일찍이 시중드는 공로가 있었다.

-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1424) 4월 5일(경술)  
불교의 7종을 선·교 양종으로 나누고, 각림사 등 36개소의 절만을 남겨두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석씨(釋氏)의 도는 선(禪)·교(敎) 양종(兩宗)뿐이었는데, 그 뒤에 정통과 방계가 각기 소업(所業)으로써 7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잘못 전하고 거짓을 이어받아, 근원이 멀어짐에 따라 말단(末端)이 더욱 갈라지니 실상 그 스승의 도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寺社)를 세워, 각 종(宗)에 분속(分屬)시켰는데,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나, 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증(修葺)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계(曹溪)·천태(天台)·총남(攄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宗)으로, 화엄(華嚴)·자은(慈恩)·중신(中神)·시흥(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敎宗)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중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를 넉넉하게 급여하고 우거하는 중의 인원을 작정하며 무리지어 사는 규칙을 작성하여, 불도(佛道)를 정하게 닦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興天寺)를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로, 흥덕사(興德寺)를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중들의 일을 살피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사사(寺社)와 우거하는 중의 정원과 급여할 전지의 결수(結數)를 가지고 낱날이 아됩니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천 2백 50결입니다. 서울 흥천사는 원속전(元屬田)은 1백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恒居僧)은 1백 20명입니다. 유후사(留後司) 숭효사(崇孝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1백 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 명이며, 연복사(演福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1백 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 명이며, 개성 관음굴(觀音窟)은 원속전이 45결인데, 이번에 1백 5결과 수륙위전(水陸位田) 1백 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이며, 경기 양주(楊州) 승가사(僧伽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입니다. 개경사(開慶寺)는 원속전이 4백 결이고, 항거승이 2백 명이며, 회암사(檜巖寺)는 원속전이 5백 결이고, 항거승이 2백 50명이며, 진관사(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륙위전 1백 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고양(高陽) 대자암(大慈菴)은 원속전이 1백 52결 96복(卜)인데, 이번에 97결 4복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충청도 공주(公州) 계룡사(鷄龍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 진주(晉州) 단속사(斷俗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1백 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명이며, 경주(慶州)

지림사(祇林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전라도 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태인(泰仁) 흥룡사(興龍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 고성(高城) 유점사(楡岾寺)는 원속전이 2백 5결인데, 이번에 95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50명이며,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는 원속전이 3백 결이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황해도 은율(殷栗) 정곡사(亭谷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함길도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는 원속전이 2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교종(教宗)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천 7백 결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1426) 3월 9일(계묘)  
개경사·각림사의 주지 등이 금·은을 사취한 죄로 직첩을 뺏고 추궁케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개경사(開慶寺) 주지 설우(雪牛)와 각림사(覺林寺) 주지 중호(中皓)와 대선사(大禪師) 해초(海超)·이인(以仁)·학녕(學寧) 등이 조계종(曹溪宗)의 은으로 만든 그릇을 없애려 하여, 지난해 4·5월에 녹여서 덩어리로 만든 것을 많이 관가에 바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은 밤에 모두 녹여 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누어 집어넣고, 또 금과 은을 간직했던 궤 하나도 간곳이 없어졌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상의 중들은 직첩을 빼앗고 철저히 추궁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1426) 4월 9일(임신)  
조말생에게 백은을 증유한 각림사 주지 의유의 직첩을 거두고 추핵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병신년에 각림사(覺林寺) 주지(住持) 의유(義游)가 백은(白銀)을 그 때의 지신사 조말생(趙末生)에게 증유(贈遺)했으니,

청컨대 의유의 직첩을 거두고, 잡아와서 추핵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1434) 4월 13일(경신)  
회암사 중수를 정지시켰으나, 태종이 각림사에서 법연을 베풀어  
우대하였음을 지적하다.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생[館生]과 집현전(集賢殿)에서 함께 상서(上書)하기를, ‘회암사(檜巖寺)의 중수(重修)를 금하기 청합니다.’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그러나, 암자를 짓고 부처를 공양하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였다. 따라서 우리 태조·태종께옵서는 연경사(衍慶寺)·흥천사(興天寺)·각림사(覺林寺) 등에서 혹은 법연(法筵)을 베풀어 그 교를 받드셨고, 나도 또한 강법(講法)하는 절에 가끔 향(香)을 내려 주었다. 더구나, 회암사는 태조께서 믿고 존중히 여기시던 곳이며, 또 대비(大妃)의 원불(願佛)이 걸려 있는 곳이라. 세월이 오래 되어 기울어지고 퇴락하여지매,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중수(重修)하고자 생각하고 그 까닭을 고(告)하기에, 내가 곡식과 집穀削 약간을 내려 주어 이바지(供億)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였더니, 중[僧徒]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속인(俗人)들을 권유(勸誘)하여 널리 재화(財貨)를 모은다 하니, 이는 비록 내가 시킨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가지고 허물할 것이요 동시에 공의(公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부고(府庫)의 전재(錢財)를 내어 불사(佛事)에 이바지함이 어떻까.”하였다. … 또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를 공양하고 중이 재를 올리는 것이 무슨 허물이 있으리오.”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청상(聖上)의 허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사옵니다. 이단(異端)으로써 성명(聖明)한 조정에 섞으심은 어찌 오늘날의 실수만 되겠나이까. 앞드려 바라옵건대, 유의(留意)하옵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노라.”하고 드디어 일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1435) 5월 20일(신묘)

태종이 각림사를 증수하였던 고사에 의하여 흥천사의 탑전 수리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흥천사(興天寺)의 탑전(塔殿)을 수리하려 하여 호조판서 안순(安純)에게 의논하니, 순이 말하기를, ‘대개 승도(僧徒)들은 공가(公家)에서 불러서 역사를 시키면 반드시 싫어하고 꺼리고, 스스로 서로 불러 모이면 즐겁게 일에 나간다.’고 하니, 그 말이 옳을 것 같다. 옛날에 태종께서, 각림사(覺林寺)가 예전에 노시던 땅이므로, 친히 권문(勸文)에 수결(手決) 두시어 간사(幹事)하는 중에게 주어 중창(重創)을 권유(勸誘)하였는데, 제도가 극히 장려하여 흥천사 탑전의 개조(改造)에 비하면 재력(財力)이 10배뿐이 아니겠는데, 그때의 중들이 국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쉽게 영건(營建)하고 경찬회(慶讚會)까지 베풀었다. 지금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교서(敎書)의 권문(勸文)에 인(印)을 찍어 행신보(行信寶)로써 간사(幹事)하는 중에게 주어, 중들을 불러 모아 수리하게 하되, 효령대군(孝寧大君)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행신보(行信寶)를 공사(公幹)에 시행하고 탑전을 개조하는 데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도서(圖書)로써 인행(印行)하려고 하는데, 교서를 지어서 인행할 것인가, 권문을 지어서 인행할 것인가. 너희들은 모두 유생(儒生)이니 오론(迂論)하여 아뢰지 말라.”하였다. …

○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1435) 5월 21일(임진)

태종이 각림사를 증수한 고사에 의거하여 흥천사 탑전 수리 문제를 의논하다.

영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노한(盧閑)·호조판서 안순(安純)을 불러 도승지(都承旨) 신인손(辛引孫)을 시켜 의논하기를, “흥천사(興天寺)의 탑전(塔殿)을 층각(層閣)을 헐어 버리고 따로 앞 전각(前閣)을 짓도록 내가 이미 계획을 정하였다. 옛날에 각림사(覺林寺)를 중창(重創)할 때에 국가의 재력이 어찌 넉넉하지 못할까마는, 태종께서 친히 권문(勸文)에

수결(手決)하여 간사(幹事)하는 중들에게 주었는데, 두어 달이 못되어 완성되었다. 이듬해에 내가 강무(講武)하는 일로 인하여 이 절을 지나게 되어서 보니, 제도가 장려(壯麗)하였다. 또 개경사(開慶寺)도 역시 승도(僧徒)들을 시켜 지었는데 불우(佛宇)와 승당(僧堂)이 또한 굉장하였다. 대개 각림사는 태종께서 예전에 노시던 땅이라 하여 중수하였고, 개경사(開慶寺)는 능실(陵室) 때문에 지은 것인데, 하물며 흥천사 탑전은 태조께서 지으시고 수리 보완(補完)하여 폐하지 말 것을 태종께 부탁하셨고, 태종이 또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지금 탑전이 썩어서 기울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어찌 무심히 이를 보고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국가의 재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태종께서 각림사를 중수하신 예(例)에 의하여, 또 승도들을 불러 모아 영조(營造)하려고 하는데, 권문(勸文)이나 교서(敎書)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는가. 내가 여러 승지(承旨)에게 의논하여 보았는데 모두 불가하다 하므로, 내가 계책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卿)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였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교서와 권문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저 승도들이 권문에 한 재상(宰相)의 이름만 얻어도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피는데, 만일 전하께서 친히 수결(手決)하시어 이를 주신다면, 대소 신민들로서 누가 향응(響應)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큰 폐단이 생기어 전하의 후회를 끼칠 것이오니, 원컨대, 본사(本寺)의 중으로 하여금 예조(禮曹)에 보고하게 하고, 예조는 위에 아뢰어 도첩(度牒)이 없는 승도들을 불러 역사시키고, 재목과 기와의 공급은 관가에서 판비(辦備)하여 주면 일이 온당하게 될 것입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태종의 고사(古事)에 의하여 행하려고 하였더니, 지금 경들의 의논이 좋으니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하였다.

-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1440) 2월 17일(경인) 수륙재에 쓸 주인 1개를 각림사에 내려주다.

예조에 전지하여 주인(鑄印) 1개를 각림사(覺林寺)에 내려 주게 하였는데, 장차 수륙재(水陸齋) 때에 쓰고자 함에서였다.

○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원주목

… 각림사(覺林寺)【치악산 동쪽에 있는데, 고을에 가기 40리이다. 선종(禪宗)에 붙이었고, 전지 3백 결(結)을 주었다.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 때 글을 읽던 곳이다. 일찍이 황성에서 무예를 연습하다가, 이 절에다 연(簫)을 머무르고, 옛 늙은이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를 주고, 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였다.】 …

○ 문종실록 권6, 문종 1년(1451) 3월 17일(병진)

각림사 등지 및 각도에 정해져 있던 강무장을 혁파하다.

의정부에서 원유제조(苑囿提調)의 올린 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도 강무장(講武場) 안에 경기도 지평현(砥平縣) 여러 산과 삭녕군(朔寧郡) 평현(平峴)·시현(柴峴)·현벽기(懸壁岐)·장군사산(將軍寺山), 연천현(漣川縣) 재궁산(齋宮山)·마말기(馬末岐)·아현산(牙峴山), 강원도 회양부(淮陽府) 상수비산(上愁非山)·건자개산(乾者介山)에서 남곡(嵐谷) 지경까지, 하수비산(下愁非山)·소산(所山)의 바깥쪽 고리동산(古里洞山)·귤전현산(蕨田峴山)·장두등(長豆等), 천보사동(天寶寺洞) 좌우편 구이동(仇耳洞)의 현산(峴山)·이산(利山)·하지(夏池)·무을파현산(無乙波峴山) 좌우편 지관현(猪串峴), 말흘천(末訖川)·양매야지(陽每也之)·악이산(惡耳山)·천촌두등(川村豆等)·굴점현(窟岾峴)·남현산(檻峴山), 낭천현(狼川縣) 여러 산과 금성현(金城縣) 여러 산과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 등지의 산과 강릉부(江陵府) 대화(大和) 등지의 죽암산(葦巖山)·지두등산(池豆等山)·대덕암산(大德巖山)·구단산(仇短山)·유수산(楡樹山)과 홍천현(洪川縣) 금물산(金勿山), 신당현(神堂峴) 등지의 감물악(甘勿岳), 팔봉산(八峯山) 등지의 사현산(蛇峴山)과 춘천부(春川府) 송암산(松押山)과 금화현(金化縣) 자등산(資燈山)·차산(遮山)·덕점산(德岾山)·술피산(述皮山)·차점산(車岾山)·잠리산(蠶里山)·토이동산(吐耳洞山)·소백지산(小栢枝山)·대백지산(大栢枝山)·마현산(馬峴山)·홍산(紅山)·입장산(笠匠山)·지장산(紙匠山)·노동산(蘆洞山)·방동산(方洞山)·유등동산(柳等洞山)·무차락산(無次落山)·불정현산(佛丁峴山)

·교전산(橋田山)·두배대산(豆背大山)·충현산(忠縣山)·보을머산(甫乙赫山)과 평강현(平康縣)의 유점시산(狹岾峙山)과 이천현(伊川縣) 내 바깥 여러 산과 안협현(安峽縣) 삼각산(三角山)·엄태산(嚴泰山)·유달이산(鎭達伊山)·오며산(汚沓山)과 황해도 신계현(新溪縣) 여러 산과 토산현(兔山縣) 여러 산 등지에는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고 노루와 사슴이 적으니, 모두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성종실록 권6, 성종 1년(1470) 7월 9일(을유)  
병조에서 각림사에 소금 운반할 때의 폐단을 아뢰자 점차로 운수하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예승석(芮承錫)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에 소금을 전수(轉輸)하는 일입니다. 본 절에는 해마다 소금 40석(碩)을 주는데, 이보다 앞서서 절의 중(僧들이 전수(轉輸)하였으나, 병술년부터는 역리(驛吏)로 하여금 강릉부(江陵府)에 주어서 절에 전수(轉輸)하게 하였으니, 꼬불꼬불한 길이 60여 리(里)이므로 우마(牛馬)가 많이 죽습니다. 만약 그 양(量)이 축난 것이 있으면 징수하여 독촉하는 것이 잇따르니,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 절에는 소와 말을 많이 기르며 40석(碩)의 소금을 또한 일시에 다 쓸 수가 없으니, 유수(遊手)의 무리들로 하여금 점차로 운수(運輸)하게 하여서 역로(驛路)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1471) 11월 22일(경신)  
태종이 각림사의 노비를 혁파한 것을 예를 들며 사찰에 시납한 노비를 개정하도록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 헌납(獻納) 최한정(崔漢禎)이 아뢰기를, “신씨(申氏)가 사찰(寺刹)에 시납(施納)한 노비(奴婢)는 개정(改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부인(婦人)이 지아비(夫)가 죽었다 하여 중(尼)이 되는 것도 옳지 못하거든, 더구나 처녀(處女)이겠습니까? 근자에



홍경손(洪敬孫)의 누이(妹)가 처녀로서 중이 되고, 지금은 또 홍경손의 누이의 딸도 또한 처녀로서 중이 되었으니, 이런 풍속을 조장할 수 없습니다. 청간대 금후로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그 가장(家長)을 죄주게 하소서.”하였다. 영사(領事)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태종(太宗)께서 사사(寺社)의 노비(奴婢)를 혁파할 때 각림사(覺林寺)는 바로 태종께서 소년 시절에 독서(讀書)하던 곳인데도 오히려 아울러 혁파시켰습니다. 이제 신씨(申氏)가 시납(施納)한 노비(奴婢)는 마땅히 개정하여야 합니다.”하고,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말엽에 사사(寺社)의 노비(奴婢)와 중(僧)이 뒤섞여 거처하여, 사고가 많았고 추(醜)한 소문이 있었으니, 이제 시납(施納)하는 것을 통렬하게 금함이 편하겠습니다. 부녀(婦女)가 중(僧)이 되는 것은 중(僧)과 잡처(雜處)함이니, 내외(内外)의 금방(禁防)이 없으므로 최한정(崔漢禎)의 말이 옳습니다. 청납(聽納)하심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참작하여 헤아리겠다.”하였다.

- 성종실록 권166, 성종 15년(1484) 5월 10일(병신)  
 장의사·대자사·각림사 등의 전세는 3분의 2만 징수하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장의사(藏義寺)·대자사(大慈寺)·각림사(覺林寺)의 전세(田稅)는 관(官)에서 3분의 2를 징수하라.”하였다.
- 성종실록 권166, 성종 15년(1484) 5월 13일(기해)  
 지평 안윤손이 각림사 등의 전세 징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안윤손(安潤孫)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의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신전(功臣田)과 직전(職田)의 1만여 결(結)의 조세(租稅)를 관(官)에서 징수하면서 사사전(寺社田)의 세는 다만 대자사(大慈寺)·장의사(藏義寺)·각림사(覺林寺)만 3분의 2를 감하고 나머지는 옛날대로 하는데, 대체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사사전은 선왕이 모두 중하게 여긴 것이어서 경솔하게 혁파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세 사전(寺田)만을 감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 성종실록 권167, 성종 15년(1484) 6월 8일(계해)  
부제학 안침이 각림사 등의 사사전 징세를 청하다.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안침(安琛)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공신(功臣)은 국가에 훈로(勳勞)가 있으므로 백성의 조세를 먹고, 조사(朝士)는 관가에 직수(職守)가 있으므로 백성의 조세를 먹으나, 불씨(佛氏)의 무리로 말하면 일하지 않고 놀며 먹으므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 심한데도 백성의 조세를 먹으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제 해마다 가물어 흉년이 들기 때문에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직전(職田)의 조세를 관가에서 죄다 거두고 공신에게 내린 전지(田地)에서도 그 반을 관가에서 거두는 것은 대개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다만 사사전(寺社田)에 대하여는 진관사(津寬寺)·장의사(藏義寺)·각림사(覺林寺)에서 3분의 2를 거두는 외에는 다 미치지 않았으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간(臺諫)이 말이나 글로 한두 번 아뢴 것이 아닌데, 아직 윤택하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들은 섭섭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크게 강단(剛斷)하여 물 흐르듯이 간언(諫言)을 따르시어 사사전을 죄다 관가를 시켜 거두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教)하기를, “사사전의 조세는 관가에서 거둘 수 없다. …”하였다.

- 성종실록 권169, 성종 15년(1484) 8월 3일(정사)  
대사헌 이극균이 각림사처럼 다른 사사전도 징수할 것을 주장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전일에 사사전(寺社田)을 폐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가(允可)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헤아리건대, 한 해의 국용(國用)이 44만 석(碩)이고 군수(軍需)가 50여 만 석입니다. 조도(調度)의 비용이 매우 많으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사전은 삼사(三寺)에서만 3분의 2를 줄이고 그 나머지 사사전은 예전대로 두었으니, 신들은 매우 미편(未便)하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거두지는 않더라도 국용이 넉넉하여질 때까지는 임시로 줄이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으므로 국가에 보탬이 없을 뿐더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므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심하니, 사사전을 어찌 다만 임시로 줄이고 말겠는가? 길이 폐지하더라도 괜찮을 것이겠지만, 선왕(先王)께서 내리신 것이므로 차마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자, 이극균이 아뢰기를, “각림사(覺林寺)·대자암(大慈菴)·장의사(藏義寺)의 전토(田土)도 선왕께서 내리신 것인데 이미 임시로 줄였으니, 그 밖의 사사(社社)만은 어찌 줄이지 못하겠습니까? 온통 거두지는 않더라도, 반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은 옳으나, 어쩔 수 없는 까닭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 성종실록 권199, 성종 18년(1487) 1월 23일(갑자)  
대사간 김수손 등이 각림사 등에 대한 반승 비용을 줄일 것을 아뢰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 김수손(金首孫)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 등은 제왕(帝王)이 행할 만한 도(道)와 국가에서 없앨 만한 폐단을 삼가 채집하여 조목(條目)별로 아래에 진술합니다. … 신 등은 삼가 듣건대, 선민(先民)의 말에 이르기를, ‘불씨(佛氏)의 피해는 양(楊) 목(墨)보다 심하다.’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현인군자(賢人君子)는 깊이 막고 힘써 분별(分辨)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통촉해 보시는 것인데,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우선 그 국가를 좀먹는 것을 들어서 그 만의 하나를 대략 진술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반승(飯僧)하는 비용을 관찰하면, 개경사(開慶寺)는 소금이 53석 5두, 회암사(檜巖寺)는 소금이 60석, 진관사(津寬寺)·장의사(莊義寺)는 소금이 모두 20석, 정업사(淨業寺)·정인사(正因寺)는 소금이 모두 60석, 연경사(衍慶寺)·복천사(福泉寺)는 소금이 93석 5두, 숭효사(崇孝寺)·보은사(報恩寺)는 소금이 모두 50석, 각림사(覺林寺)·대자사(大慈寺)·용문사(龍門寺)는 소금이 모두 1백 20석, 내불당(內佛堂)은 소금 5석, 말장(末醬) 5석 5두, 쌀 31석 2두, 마포(麻布) 8필, 면포 10필, 봉선사(奉先寺)는 소금 1백 석, 말장 6석 5두, 황두(黃豆) 48석, 쌀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원각사(圓覺寺)는 소금 10석, 말장 6석 5두, 황두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연굴암(演窟菴)·복세암(福世菴)은 소금이 모두 10석 6두, 말장 5석, 쌀 27석 6두, 양종(兩宗)은 소금이 모두 40석이고 선승(選僧)하는 해는 쌀이 모두 30석, 황두가 30석이니,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은 데 이릅니다. 10년을 합하여 보면 소금이 총계 6천 2백 20석 10두, 말장이 2백 30석, 황두가 1천 2백 30석, 쌀이 1천 7백 4석, 마포 2백 80필, 면포 5백 필이며, 20년을 쌓으면 소금·쌀·말장·황두가 총계 1만 8천 7백 60석이 넘고 마포·면포가 1천 5백 60필인데 공불(供佛)하는 비용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이로써 적(敵)을 방어하면 무슨 적인들 이기지 못하겠으며, 이로써 성(城)을 지키면 어느 성인들이 튼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 데 쓴다면 수십 만의 얼고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를 대적하는 데 쓴다면 수십 년간의 청구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1687) 8월 12일(무오) 지평 이정익이 각림사의 위전과 관련하여 상소하다.

지평(持平) 이정익(李禎翊)이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일을 말하는 한 두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꺾어 버리시고 은덕을 베푸는 낙점(落點)도 여러 차례나 아끼고 계십니다. 오직 전하(殿下)께서 좋지 않은 말도 받아 주시고 나쁜 병폐도 숨겨 주시어, 억울한 대중의 심정이 퍼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성(原城) 각림사(覺林寺)의 위전(位田)은 이미 향교(儒宮)의 대대로 전해내려오던 것이므로 내탕(內帑)의 사저(私儲)로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장보(章甫)들의 상소에 대하여 오직 고집하시고 윤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당하지 않은 분부를 내리시므로, 신은 그욕이 개탄스럽게 여겨집니다. 또한 전하께서 특별히 도로 돌려주도록 하시어 사도(斯道)를 옹호하시는 훌륭한 뜻을 보이시기 바랍니다.”하였다. 또 갑자년 이전의 여러 도(道)의 포흠(逋欠)을 특별히 감해주고, 호서(湖西)의 양전(量田)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위전(位田)의 일은 들어주지 않고 다른 일들은 묘당(廟堂)에 계하(啓下)했는데 시행하지 않았다.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3월 18일(병신) 정언 임환계가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귀속시킬 것을 청하다.

정언(正言) 임환계(林煥啓)가 아뢰기를, 신이 엿드려 보건대, “원성현(原城縣)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位田)은 본도(本道) 감사(監司)의 서장(書狀) 및 해조(該曹)의 복계(復啓)와 함께 그대로 향교(鄕校)에 속해달라는 청(請)에 대해 별도로 판부(判付)하여 교유(校儒)에게 절득(折得)한 문서(文書)는 비슷하고 가까운 듯해도 허망(虛妄)함이 명백(明白)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사(內司)에 속한 물건으로 교유(校儒)를 침점(侵占)하였다는 것은 사리(事理)가 부당(不當)합니다. 이에 내사(內司)에 속하게 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신 등이 그옥이 의혹하건대, 각림사(覺林寺)는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잠저(潛邸) 때 강업(講業)한 곳입니다. 특별히 전민(田民)을 하사하고 주관(主官)으로 하여금 견휜(鑷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역(役)은 곧 제안대군방(齊安大君房)의 원당(願堂)이 아니었음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본사(本寺)가 훼폐(毀廢)된 후, 위전(位田)이 향교(鄕校)에 내속(來屬)되어 공용(公用)의 것을 수세(收稅)하였습니다. 이미 5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내사(內司)가 지금 처음 조사하여 가늠하고는 먼저 내사(內司)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교유(校儒)를 후에 침점(侵占)한 것을 역시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난(亂)이 지나 멀리 오래된 후라 비록 향교의 문적(文籍)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미 기사년간(己巳年間)부터 면세(免稅)의 문장(文狀)이 남아 있습니다. 즉 문서(文書)가 전무(全無)하여 반환하는 것이 허망(虛妄)하다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할 것입니다. 60년 가까이 향교에서 수세(收稅)한 땅을 하루 아침에 내사(內司)에 옮겨 속하게 하면 유생(儒生)들이 결망(缺望)하여 사체(事體)에 미안(未安)하오니 어떻게 하오리까? 일찍이 학전(學田)을 둔 것은 선비를 많이 양성하려는 것으로 제왕(帝王)의 성전(聖典)입니다. 지금 비록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속한 땅을 다시 빼앗아 내사(內司)에 들이겠습니까? 청컨대, 해조의 복계에 의하여 본래대로 향교에서 수세(收稅)하여 향교에 그대로 속하게 하소서.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3월 20일(무술) 이돈이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속하게 하도록 청하다.

… 이돈(李墾)이 아뢰기를, “원성(原城)의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은 본래 향교에서 수세(收稅)하던 것이므로 그대로 향교에 속하게 하소서.”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3월 22일(경자) 정언 김우항이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속하게 하도록 청하다.

정언(正言) 김우항(金字杭)이 아뢰기를, “원성현(原城縣)의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을 그대로 본래의 향교에 속하게 청합니다.” 하였다. …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3일(경술) 대사간(大司諫) 심유(沈攸) 등이 각림폐사의 위전을 본래대로 향교에 돌려줄 것을 청하다.

인견(引見)할 때, 대사간(大司諫) 심유(沈攸) 등이 아뢰기를, “원성현(原城縣)의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을 해조(該曹)의 복계(覆啓)에 의거하여, 본래 향교에서 수세(收稅)하던 곳이므로 본래대로 향교에 속하게 하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4일(신해) 승정원에서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속하게 하도록 청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원성현(原城縣)의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은 해조(該曹)의 복계(復啓)대로 그대로 본래의 향교에 속하게 청합니다.”하였다. …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5일(임자)  
승정원에서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속하게 하도록 다시 청하다.  
승정원에서 전에 아뢴대로 원성현(原城縣)의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을 해조(該曹)의 복계(復啓)대로 본래의 향교에 속하는 일을 청하여 입계(入啓)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9일(병진)  
승정원에서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속하도록 청하였다.  
승정원에서 전에 아뢴대로, 원성현(原城縣)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位田)을 다시 본래의 향교에 속하는 일을 청하였다. …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10일(정사)  
승정원에서 각림폐사의 위전을 다시 향교에 속하게 할 것을 아뢰다.  
승정원에서 원성현(原城縣)의 각림폐사(覺林廢寺) 위전(位田)을 다시 본래의 향교에 속하게 하는 일을 아뢰었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11일(무오)  
승정원에서 다시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속하도록 청하다.  
승정원에서 전에 아뢴대로, 원성현(原城縣)의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位田)을 본래 향교에 속하게 되돌릴 일을 입계(入啓)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12일(기미)  
헌납 민진주가 각림폐사의 위전에 대하여 아뢰다.  
… 헌납(獻納) 민진주(閔鎭周)가 아뢰었는데 원성현(原城縣)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位田)을 그대로 본래의 향교에 속하게 하는 일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13일(경신) 승정원에서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에 속하게 하도록 아뢰다.

승정원에서 아뢰었는데, 원성현(原城縣)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位田)을 그대로 본래의 향교로 속하게 하는 일이었다. …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16일(계해) 승정원에서 각림폐사의 위전에 대하여 아뢰다.

승정원에서 원성현(原城縣)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을 본래 향교에 속하게 되돌리는 일을 청하였다. …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17일(갑자) 헌납 민진주가 각림폐사의 위전을 향교로 되돌릴 것을 청하다.

… 헌납(獻納) 민진주(閔鎭周)가 아뢰기를, “신이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位田)의 일로써 귀에 거슬리도록 힘을 다하였으나 성상의 비답 윤후(允俞)를 얻지 못하여 민울(悶鬱)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국가(國家)가 사여(賜與)하는 물건은 진실로 필히 내사(內司)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는데, 어찌 위전(位田)은 아니겠습니까? 본래 내사(內司)의 물건이지만 근래 60년 이래 향교에서 수세(收稅)한 학전(學田)이므로 교유(校儒)에게 맡긴 것이지 침점(侵占)한 것이 아닙니다. 내사(內司)와 향교(鄉校)는 대개 문적(文籍)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니, 수세(收稅)의 문장(文狀)에 따라 그대로 본래의 향교에 속하게 하소서. 사리(事理)가 매우 명백한데, 하물며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 강학(講學)한 사찰로 사여(賜與)한 땅이니 향교에 돌려주어 선비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의(義)를 심히 바르게 하소서. 비록 위전(位田)이 본래 내사(內司)의 물건이오나 전하(殿下)께서 학교(學校)을 숭상하고 장려하는 성심(盛心)이



진실로 적지 않고 소중한 것을 어찌 여러 유생들과 함께 하지 않고 가벼이 허망하게 다시 빼앗아 선비들을 결망(缺望)하게 하십니까? 그 사체(事體)의 경중(輕重)을 헤아리시고 청컨대 머무름을 어렵다하지 마시며 본래 향교의 수세처(收稅處)로 그대로 속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 승정원일기 321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4월 21일(무진) 승정원에서 각림폐사의 위전에 대하여 다시 아뢰다.

승정원에서 전에 아뢴대로 원성현(原城縣) 각림폐사(覺林廢寺)의 위전(位田)을 그대로 본래의 향교에 속하게 할 것을 정계(停啓)하였다.

- 승정원일기 322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5월 12일(기축) 생원 최태익이 상소하여 각림폐사의 땅을 향교에 돌려주도록 청하다.

강양도(江襄道) 원성(原城)의 생원(生員) 최태익(崔泰益)이 상소하기를, “... 본현(本縣)의 각림폐사(覺林廢寺)의 땅은, 이미 기사년간(己巳年間)부터 관가(官家)에서 향교(鄕校)로 이속(移屬)된 것입니다. ... 성명(聖明)을 앞드려 빌건대, 심히 사기(士氣)를 배양하는 도(道)를 극명(亟命)히 하셔서 그대로 본읍(本邑) 향교(鄕校)에 토지를 하사하시어 성조(聖朝)의 숭학(崇學)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고 흥기(興起)하는 땅이 되게 하시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하였다. ...

- 승정원일기 323책(탈초본 17책) 숙종 13년(1687) 8월 14일(경신) 지평 이정익의 상소에 답하면서 각림사의 위전에 대해 이르다.

지평(持平) 이정익(李禎翊)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다 살펴보니, 진언(進言)이 참으로 우애(憂愛)하다. 내가 가상히 여긴다. 각림사(覺林寺)의 위전(位田)은 본래 학궁(學宮)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지금에 이르러서 출급(出給)된 것으로 실로 그 득당(得當)함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46권, 강원도(江原道), 원주목(原州牧), 불우(佛宇)

각림사(覺林寺), 치악산의 동쪽에 있다.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여기서 글을 읽었다. 뒤에 황성에서 강무(講武)할 때, 임금의 수레를 이 절에 멈추고 고로(古老)들을 불러다 위로하였다.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고을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조세·부역 따위를 면제하여 구휼하게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의 시에, “치악산이 동해 지방에 이름이 높고, 이 산의 사찰(寺刹) 중에는 각림사가 가장 좋다네. 구름·연기·바위·동학(洞壑)이 몇 천 년이 되었던가. 땅의 신령한 기운이 천룡(天龍[제천(諸天)])과 용신(龍神)의 모임을 웅위하였네.”하였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상(上), 강원도(江原道), 방리(坊里), 산천(山川)

치악산(雉岳山)은 관아의 동쪽 25리에 있다. 고을의 진산(鎭山)이다. 처음에 오대산(五臺山)에서 갈라져 황성을 거치며 탁이산(卓異山)이 되고, 원주로 들어와 서리어 치악산이 된다. 고려 때 보궐(補闕) 벼슬을 하던 진(陳) 아무개가 치악산의 서쪽을 지나가는데 소나무와 삼나무가 무성하고 물과 돌이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가 그윽하고 기이했다. … 차유령(車踰嶺)은 관아의 동쪽 60리, 치악산 북쪽 기슭에 있다. 대대로 전해지기를, 태종의 행차가 각림사로 나들이하던 길에 이 고개를 거쳤다고 한다. 따라서 수레가 넘은 고개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 여지도서(輿地圖書) 상(上), 강원도(江原道), 방리(坊里), 사찰(寺刹)

각림사는 치악산의 동쪽 30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 뒤에 황성에서 사냥하며 무예를 닦을 때, 이 절에 머무르며 고을의 노인들을 불러다 위로했다.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고을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조세나 부역 따위를 면제해 줌도 록 했다. … 변계량(卞季良)이 시를 지어 노래했다.

雉岳爲山名東海 치악산이 동해 지방에서 이름이 높은데  
 山之寶刹覺林最 그 산의 절 가운데 각림사가 가장 좋아.  
 雲烟岩壑幾千年 구름과 연기, 바위와 골짜기 몇천 년인가  
 地靈擁衛天龍會 땅 신령이 천룡의 모임을 호위하네.

○ 여지도서(輿地圖書) 상(上), 강원도(江原道), 방리(坊里), 고적(古跡)

주필대(駐蹕臺)는 각림사의 남쪽에 있다. 태종대왕이 원천석을 찾아와서  
 바위 위에 머물렀다. 훗사람들이 그 대의 이름을 '태종대(太宗臺)'라 했다.  
 영조 임술년(1742, 영조 18)에 이름을 '주필대'로 고치고 큰 글씨로 그  
 바위에 새겼다. '원천석' 항목 아래에 자세히 보인다. ...

○ 관동지(關東誌) 권1, 원주(原州), 산천(山川)

차유령(車踰嶺)은 고을 동쪽 60리 거리인 치악산 북쪽 기슭에 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태종대왕이 가마를 타고 각림사로 행차하다가 이  
 고개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 관동지(關東誌) 권1, 원주(原州), 사찰(寺刹)

각림사는 치악산 동쪽 3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태종대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 뒤에 황성에서 강무(講武)할  
 때 임금이 탄 가마를 이 절에 멈추고 예전의 동네 노인들을 불러서  
 위로하였고,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고을 관원에게 명하여  
 조세와 부역을 덜어주어 구휼하게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이 시를 지어  
 노래했다.

雉岳爲山名東海 치악산이 동해 지방에서 명성이 높고  
 山之寶刹覺林最 이 산속의 사찰 가운데 각림사가 최고이다.  
 雲烟岩壑幾千年 구름연기 긴 바위골짜기는 몇 천 년이나 되었나?  
 地靈擁衛天龍會 명당자리에는 천룡의 모임을 옹위하네.

○ 관동지(關東誌) 권1, 원주(原州), 고적(古跡)

주필대(駐蹕臺)는 각림사의 남쪽에 있다. 우리 태종대왕이 원천석을 방문하기 위해 이 바위 위에 가마를 멈추었다고 하여 뒤에 사람들이 그 대(臺)의 이름을 태종대(太宗臺)라고 하였다. 지금 임술년(1742, 영조 18)에 이름을 주필대로 고치고 그 바위에 크게 써서 새겼다. 원천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보인다. …

○ 원주읍지(原州邑誌), 불우(佛宇)

각림사는 치악산 동쪽에 있으며 조선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이곳에서 독서하였다. 후에 강무(講武)하러 황성에서 이 절에 주필(駐蹕)하였다. 노인들을 불러서 위로하였고, 절에 토지와 백성을 하사하였으며 관원에게 명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구휼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이 시를 지어 노래했다.

雉岳爲山名東海 치악산이 동해 지방에서 명성이 높고  
山之寶刹覺林最 이 산속의 사찰 가운데 각림사가 최고이다.  
雲烟岩壑幾千年 구름연기 긴 바위골짜기는 몇 천 년이나 되었나?  
地靈擁衛天龍會 명당자리에는 천룡의 모임을 옹위하네.

○ 강원도지(江原道誌) 권지5, 사찰(寺刹), 영월(寧越)

각림사는 치악산 동쪽에 있다. 조선시대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이곳에서 독서(讀書)하였다. 후에 황성에서 강무(講武)할 때 이 절에 머물며 부로(父老)들을 불러 위로하고 절에 토지와 백성을 내려 주관(州官)으로 하여금 부세를 건감하고 구휼토록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의 시는 다음과 같다.

雉岳爲山名東海 치악산 동해에 이름 떨치는데  
山之寶刹覺林最 산의 보찰은 각림사가 제일이지.  
雲烟岩壑幾千年 구름안개 바위 긴 골짜기 몇 천 년인가  
地靈擁衛天龍會 땅의 영기 둘러싸 천룡이 모였지.

○ 동문선(東文選) 권지81, 기(記), 만덕산백련사중창기(萬德山白蓮社重創記), 윤희(尹淮)

… 선사의 속성은 최씨이니 문헌공(文憲公)의 후손이요, 고죽(孤竹)의 상족(上族)이다. 어릴 적에 출가하여 계행이 남보다 뛰어나고 묘법(妙法)을 돈오(頓悟)하여 승려들의 존경을 받았다.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께서 일찍이 치악산(雉岳山) 각림사(覺林寺)를 지으시고 대회를 베풀어 낙성하는데, 선사의 명망을 듣고 불러서 그 자리를 주장하게 하였고, 또 장령산(長嶺山) 변한소경공(卞韓昭頃公) 묘소 곁에다 대자암(大慈庵)을 짓고 명하여 주지를 삼았었다. …

○ 동문선(東文選) 권지113, 소(疏), 원주각림사중창경찬법화법석소(原州覺林寺重創慶讚法華法席疏), 변계량(卞季良)

각림사는 일찍이 임금께서 행차하셨던 곳이오며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참다운 경입니다. 마땅히 성스러운 곳에 성스러운 법회를 열 만합니다. 생각하오니, 성상(聖上)의 은혜로 이름 있는 절에 머물게 된 뒤로 재목의 썩은 것은 바꾸고, 이지러진 것은 보충하고자 하여 수희(隨喜)할 인연을 널리 구하였더니, 반 년 동안에 부처님을 모실 법당과 중이 살 요사(寮舍)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지기(地祇)의 천룡(天龍)이 옹호하며, 임금님의 꿈에까지 자주 보였습니다. 이는 전생의 인연으로서 임금님의 특별히 생각하심이 미쳤습니다. 이 낙성식을 베풀어서, 위[上] 없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한 자루의 향은 널리 시방(十方)의 세계를 향기롭게 하고 삼관(三觀)의 묘한 뜻은 모든 법의 강령을 밝혔습니다. 감통함은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듯하고 공덕은 항하사(恒河沙)로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나이다.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해와 달이 항상 솟 듯하고 억만 년 동안 하늘과 땅처럼 오래 수하소서. 왕비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태자께서도 길이 길하고 건강하여지이다. 여섯 기운이 순하여서 바람과 비가 때에 맞으며 다섯 가지 무기를 거둬서 조정과 지방이 안정하여지이다.

○ 동문선(東文選) 권지113, 소(疏), 동전(同前), 변계량(卞季良)

이름난 절을 증창한 것은 옛날에 놀던 곳을 기념한 것이며, 참다운 경을 설(說)하여 드날리는 것은 저승의 명복을 빌고자 함입니다. 이에 붉은 정성을 다하여 눈썹 사이 흰 털 난 부처님 앞에 귀의합니다. 생각하오니 치악산(雉岳山)의 각림사는 젊을 적에 거처하던 곳으로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오래 되어도 잊히지 않기에 여러 번 행차하였나이다. 산천은 완전히 전과 같고 수목들은 울창해서 그들이 우거졌습니다.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서성거리며 옛날을 생각하고 이제를 느낍니다. 절이 허물어지고 기울고 좁고 누추하니 헌 것을 고쳐 새롭게 하기를 사양하지 않으며, 단청까지 베풀고 토지와 종을 하사하여서 부처와 중을 공양(供養)하게 하니 이에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마도 전생 인연의 정함인가 봅니다. 이 낙성(落成)의 성스러운 법회에 의지해서 선조의 명령들을 천도하고자 청정한 중들을 모아 범화경의 미묘한 뜻을 말하게 하니, 글자마다 광명이라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반자(半字)나 온자(滿字)의 구절마다 모두 1천 경의 중심이 됩니다. 백 명의 중에게 가사와 바리때를 주고 향과 등불로써 정근(精勤)하오니 삼보(三寶)께서 자상히 비치시고 감응하여 주소서. 엎드려 원하나이다. 길이 업장(業障)을 녹여 없애고, 참된 근원을 깨달아서 1만 법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여, 마음을 밝히어 관세음보살을 친견(親見)하고, 헛 것(幻化)에서 진실한 상을 증득해서 정묘부인(淨妙夫人)을 따르소서. 길이 상서를 받혀서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고 국가의 기초가 끝없이 뻗으며, 중생(衆生)을 무궁토록 건져주소서. 무릇 성정(性情)을 갖춘 이는 이익을 얻을지이다.

○ 미수기언(眉叟記言) 제18권 중편, 구묘(丘墓) 2, 운곡(耘谷)선생 묘명(墓銘)

선생의 본관은 원주(原州), 성은 원씨(元氏), 휘는 천석(天錫), 자는 자정(子正)이니, 고려 국자감(國子監) 진사(進士)였다. 고려의 정치가 혼란한 것을 보고 은거하여 절개를 지키며 호를 운곡 선생이라

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치악산(雉岳山)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태종(太宗)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으니, 임금이 그 의리를 고상하게 여겼다. 동쪽 지방을 순행할 적에 그의 집에 거둥하였으나 선생은 피하여 숨고 만나 주지 않았다. 임금이 시냇가 바위 위로 내려가 집을 지키는 노파를 불러 상을 후하게 내리고 그 아들인 형(洞)에게 벼슬을 주어 기천감무(基川監務)로 삼았다. 후인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고 부르는데, 대는 치악산 각림사(覺林寺) 옆에 있다. …

○ 성호사설(星湖僿說) 제12권, 인사문(人事門), 원운곡(元耘谷)

세상에 전하기를 “원운곡 천석(天錫)이 치악산(雉嶽山)에 숨어 살 적에 태종(太宗)이 친히 가서 방문했으나 피하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운곡은 고려 말기의 진사로서 원주(原州) 변암(弁巖)에 살았으며, 처음 목조(穆祖)가 전주로부터 영동(嶺東)으로 이거한 것은 그 외가(外家)가 평창(平昌)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고비(考妣)의 능(陵)이 삼척(三陟)에 있었는데 지금 나라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종이 영동을 왕래하게 되었는데 길이 원주를 경유하게 되므로 그를 찾아 자문한 바 있었고 지금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는 태종대(太宗臺)가 있는데 태종이 등극하기 이전에 책을 끼고 다니며 휴식하던 곳이며, 신씨(辛氏) 부자와 최영(崔瑩) 장군의 죽음에 그가 다 시를 지어 곡(哭)한 적이 있었고, 태종이 즉위해서는 감반(甘盤, 은나라 고종[殷高宗]의 스승, 즉 사제간의 뜻)의 옛 정의로 역마(驛馬)를 달려 방문한바, 그때는 운곡이 이미 사망한 뒤이므로, 그 아들 형(洞)을 불러 특별히 기천현감(基川縣監)에 제수한 것이다. 운곡은 37세에 상처하여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첩도 두지 않았으며, 그 학문이 조리(操履)가 있고 시권(詩卷)이 본기에 남아 있는데 혁명에 관한 말이 많으므로 그 자손들이 비밀히 감취 두었다 한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송와잡설(松窩雜說), 이기(李暨) 찬

- 원성(原城) 치악산(雉岳山) 동쪽에 각림사(覺林寺)가 있다. 처음에는 띠집 두어 칸이 숲속에 황폐하게 있었는데, 현릉(獻陵 : 태종의 능으로 태종을 지칭)이 즉위하기 전에 오가며 머물렀다. 절 남쪽으로 3~4리쯤에 용추(龍湫)가 있고 그 위에 대암(臺巖 : 대바위)이 산에 기대어 서 있는데, 현릉이 때때로 책을 끼고 바위 위에서 읊조렸다 한다. 등극(登極)한 후에 특별히 명을 내려 고쳐 짓게 하여 드디어 큰 절이 되었으며, 주민은 대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 불렀다.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절은 다 타서 없어졌으나 대바위는 우뚝히 서 있다.

- 고려 말, 진사(進士) 원천석(元天錫)은 나의 외조부의 고조로 호는 운곡(耘谷)이다.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해박하였는데, 원주(原州) 변암촌(弁巖村)에 살았다. 고을 동북쪽 5리쯤에 영천(靈泉)이라는 절이 있었다. 현릉이 즉위하기 전에 이 절에 묵으면서, 공에게 자문(咨問)하여 공의 깨우침[啓沃]이 자못 많았다. 대개 평창군(平昌郡)은 목조(穆祖)의 외가(外家) 고을이고, 고비(考妣)의 능(陵)이 삼척(三陟)에 있었으므로, 현릉이 가끔 삼척에 왕래하였던 것이다. 현릉이 즉위하자, 역말[驛馬]을 달려보내, 공의 안부를 물으니, 공은 죽은 지 벌써 오래였고, 공의 아들 원통(元侗)이 있었다. 편전(便殿)으로 불러와서 특별히 기천현감(基川縣監)에 제수하였으니, 성주(聖主)께서 스승의 옛 정을 잊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절이 허물어진 지 몇 해 인지 모르나 세 탑은 지금도 오탁하게 남아 있다.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권, 태조조(太祖朝) 고사본말(故事本末)

- 잠룡 때 일

중 신조(神照)가 과거에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 있었는데, 용력이 뛰어났다. 태조를 따르게 되자, 사냥하는 데나 전진(戰陣)에나 항상 따라다니며 모셨다. 자기는 비록 고기를 먹지 않지만, 태조에게 음식을 드릴 때마다 손수 고기를 베어서 요리하였다. 개국 후에 공을 세워 봉리군(奉利君)을 봉하였다(『용비어천가』).



- 고려에 절개를 지킨 여러 신하, 원천석(元天錫)

원천석은, 자는 자정(子正)이며, 호는 운곡(耘谷)이고,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문장이 부섬(富瞻)하고 학문이 해박하였는데, 고려 말의 정치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치악산(雉岳山) 밑에 은거하면서 한결같이 몸을 감추고 몸소 농사지어 아버이를 봉양하다가 이름이 군적(軍籍)에 등록되자 부득이해서 과거를 보러 갔는데 단번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벼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물러나 향리에 돌아와서 이색 등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며 자주 시를 지어 주고 받으면서 시국을 개탄하였다.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일찍이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그가 즉위하여 여러 번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이 동쪽 지방에 나갔다가 그 집을 방문하니 공은 피하고 보이지 않았다. 태종이 계석(溪石) 위에 내려와서 그 집 여종을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돌아와서 그의 아들 원형(元炯)에게 벼슬을 주어 기천감무(基川監務 : 기천은 지금의 풍기읍)를 삼았다. 후대 사람이 그 돌을 '태종대(太宗臺)'라 이름지었다. 그 대는 치악산 각림사(覺林寺) 곁에 있다(『여사제강(麗史提綱)』, 『미수기언(眉叟記言)』).

- 태종이 상왕이 되었을 때 특명하여 공을 부르니, 공이 흰 옷을 입고 와서 뵈었다. 궁중에 불러 들여 옛정을 말한 다음 여러 왕자들을 불러서 나와 보게 하고는 문기를, “우리 자손들이 어떠하오?”하였더니, 공이 세조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조부를 몹시 닮았으니, 아아 모름지기 형제를 사랑하라.”하였다(『해동악부(海東樂府)』).

○ 춘정집(春亭集) 제4권, 시(詩), 각림사(覺林寺)

雉岳爲山名海東	치악산 그 이름은 해동에 떨쳤는데
山之寶刹覺林最	산중에 사찰로는 각림사가 최고라네.
雲烟巖壑幾千年	노을이 그 계곡을 몇천 년 간 가리었고
地靈擁衛天龍會	지령은 천룡의 모임을 호위했지.

○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원주각림사중창경찬법화법석소(原州覺林寺重創慶讚法華法席疏)

각림정사(覺林精舍)는 일찍이 임금님이 들르셨던 곳이고, 법화진전(法華眞詮)은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보배의 땅에 좋은 자리를 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어 유명한 이 사찰에 머무르셨으므로, 낡은 것을 개조하고 훼손된 곳을 보수하고자 호응하는 사람들에게 성금을 받았습시다. 승방(僧房)과 불전(佛殿)이 크고도 높지만 반년 만에 모양이 바뀌었고, 지신(地神)과 천룡(天龍)이 옹호하여 임금님의 꿈 속에 자주 나타났습시다. 이는 대체로 목은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준공의 불사를 벌여 무상(無上)의 신령한 진리를 선양한 것입니다. 한 줄기 향기는 널리 시방(十方)의 세계에 퍼지고, 삼관(三觀)의 오묘한 뜻은 모든 법의 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감응은 마치 형체에 따르는 그림자와 같습니다만, 그 공덕을 어찌 항하(恒河)의 모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많은 복을 받아 일월(日月)이 항상 떠오른 것처럼 되고 만년토록 누리어 천지와 같이 장구하게 하소서. 중전(中殿)께서는 융성한 복록을 받고 세자께서도 태평을 누리게 하소서. 육기(六氣)가 조화를 이루어 풍우가 제때에 이르고, 병화가 그치어 조정과 초야가 안정되게 하소서.

○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소(疏)

보찰(寶刹)을 건립한 것은 옛날에 선왕(先王)이 노닐었던 일을 추념(追念)한 것이고, 진전(眞詮)을 강론한 것은 명복을 빌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충심을 다하여 백호(白毫)께 말씀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치악산(雉岳山)의 각림사(覺林寺)는 젊었을 때 머물며 여러 해를 보냈으므로, 오래도록 잊지 못하여 마다하지 않고 누차 거동하였습니다. 산천(山川)은 완전히 어제와 같았고 수목(樹木)은 울창하게 숲을 이루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고 배회하면서 정말로 현실에 감동하여 옛날을 생각하였는데, 사찰이 기울고 비좁으니 어찌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보수하라 명하고 또 새로 단청(丹青)을 칠하였는가 하면, 전지와 호구를 하사하여 부처와 스님을 공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정말 목은 인연이 정해졌기 때문이니, 마땅히 낙성(落成)의 좋은 모임을 이용하여 부지런히 선왕(先王)의 명복을 빌어야겠습니다. 이에 화개(花袞)의 깨끗한 무리를 모집하여 연경(蓮經)의 은미한 뜻을 강론하였는데, 광명(光明)한 글자는 모든 부처의 근본이 되었고 반만(半滿)의 말씀은 모든 불경을 포괄하였습니다. 의발(衣鉢)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향등(香燈)을 널리 켜 놓았습니다. 이 1백 명의 정근이 삼보(三寶)를 감동시켜 소상히 살피실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업보의 장애를 영원히 제거하고 근본을 시원하게 깨닫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만법(萬法)의 묘리로 일심(一心)을 밝혀 친히 관음보살(觀音菩薩)을 만나 보고, 환상에 나아가 실상을 증명하여 항상 정묘부인(淨妙夫人)을 중유함으로써, 영구히 상서를 내려 후손들이 창성하여 대업이 끝없이 이어지고 중생을 영원히 구제하게 하소서. 성정(性情)을 소유한 모든 것들이 도움을 받게 하소서.

○ 춘정집(春亭集) 추보(追補), 연화문(緣化文), 각림사정문안치대장경 연화문(覺林寺正門安置大藏經緣化文)

雉岳爲山名海東	치악산이 해동에 유명한데
山之寶刹覺林最	산중의 보찰로 각림사가 최고이니
雲煙壟壑幾千年	구름과 안개 암학에 서린 지 몇 천 년이던가
地靈擁衛天龍會	지령이 웅위하고 천룡이 모였어라.
至尊昔日此遊學	지존께서 옛날 여기에서 지내며 배웠으니
其爲福地尤昭晰	복된 땅임이 더욱 분명하여
乃命重營不日成	이에 중건을 명하니 금방 이루어져
峩峩潤谷輝金碧	높디높은 산골짜기에 단청이 빛났어라.
殿中旣安無量佛	대웅전에 무량불을 안치하고
持香祝釐晨與夕	조석으로 향을 사르고 복을 빈다.

山野誓願成大藏  
置諸門樓時轉閱  
惟願尊卑各隨喜  
功利無邊不可說  
祖聖仙遊登樂方  
吾王享壽彌萬億  
中壺齊年福日增  
儲宮孝友崇厥德  
年登國阜兵革戢  
太平朝野歌熙洽

백성들이 서원하여 대장경을 이루어  
문루에 안치하고 때로 넘겨보려 하니  
오직 준비가 각기 보시하기 바라는바  
공리가 끝이 없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태조께서는 신선되어 즐거운 곳에 오르고  
우리 임금은 수를 누리 억만년에 이르며  
중전도 함께하여 복이 날로 더하고  
세자도 효성과 우애가 있어 그 덕을 높이며  
풍년이 들고 나라가 부유하여 전쟁이 그치고  
태평한 조야에 빛나고 화려한 정사를  
구가하리라.

○ 운곡시사(耘谷詩史) 권1, 차각림당두원통축상시운(次覺林堂頭圓通祝上詩韻)

각림사(覺林寺) 당두(堂頭) 원통(圓通) 스님의 축상시(祝上詩)에 차운함  
瑞氣蔥龍滿洞天      영롱한 서기(瑞氣)가 온 골에 가득하고  
梵聲遙振白雲邊      연불 소리가 멀리 흰 구름 가에 들리네.  
岳靈已獻吾君壽      산신령께서도 우리 임께 헌수(獻壽)했으니  
化日舒長政似年      덕화의 하루가 한 해처럼 길어지리.

○ 운곡시사 권5, 우중사영천당두송주(각림주시아)  
(雨中謝靈泉堂頭送酒(覺林住詩也))

빗속에 술을 보낸 영천사(靈泉寺) 당두(堂頭)에게 고마워하며  
(당시 나는 각림사에 머물고 있었다)

落花春檻雨霏微      꽃 지는 봄 난간에 부슬비 내리는데  
病客無聊獨掩扉      병든 나그네 쓸쓸히 사립문을 닫았네.  
廬岳一壺來慰寂      여악(廬岳)의 술 한 병이 고즈넉한 마음 달래주어  
陶然身世摠忘機      즐겁게 몸과 세상을 다 잊어 버렸네.  
嫣紅掃盡狂風際      미친 바람이 불더니 붉은 꽃 다 쓸어 버리고  
嫩綠初均小雨餘      가랑비 지나가자 부드럽게 푸르러지네.

賴此麴生攻萬恨      이 술을 힘입어 만 가지 시름 물리치고  
惜春新句等閑書      봄 아끼는 새 시를 한가롭게 지어보리라.

- 운곡시사 권5, 천태연선자장부총림, 자각림사내과여, 관기어묵동정, 심시불범수당석원만추, 장시이복흥기도, 임별수어, 차필이신행운 (天台演禪者將赴叢林, 自覺林寺來過余, 觀其語默動靜, 甚是不凡雖當釋苑晚秋, 將是以福興其道, 臨別需語, 泚筆以驢行云)

천태(天台) 연(演) 스님이 총림(叢林)에 가는 길에 각림사(覺林寺)를 지나게 되어 나를 찾아왔다. 그의 말이 묵묵하고 움직임이 고요함을 보니 범상치 않았다. 비록 절간이 쇠락해 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장차 그 도를 다시 일으킬 것이므로, 이별하는 마당에 시 한 수를 지어 붓을 적서서 노자로 드린다.

禪門絕名相	선문(禪門)에선 이름과 모습을 다 끊었으니
闕闕本幽深	그 문턱이 본래 그윽하고 깊었네,
祖脉傳台嶺	조사(祖師)의 맥은 태령(台嶺)에 전했고
宗風隔少林	종단의 바람은 소림(少林)에 격했네.
應吹無孔笛	구멍 없는 피리를 불기도 하고
閑弄沒絃琴	줄 없는 거문고를 타기도 했으니.
此別何須恨	이 이별을 어찌 서운케 생각하라
不同塵土心	티끌 세상의 마음과 같지 않네.

- 운곡시사 권5, 용심자운정각림실(用深字韻呈覺林室)

심자(深字) 운의 시를 지어 각림사(覺林寺)의 장실(丈室)에 드림

智海寬仍大	지혜의 바다는 너그럽고도 크며
慈門廣且深	인자한 문은 넓고도 깊네.
紛華笑城市	분잡한 성시(城市)를 비웃으시고
寂靜愛山林	고요한 산과 숲을 사랑하시네.
蘿月朝朝鏡	아침마다 담쟁이 달을 거울 삼고
松風夜夜琴	밤마다 솔바람을 거문고 삼으시네.

上人常燕坐      스님이 언제나 선정에 들어 있는  
 是處豁傳心      그곳이 바로 마음 전하는 곳일세.

○ 운곡시사 권5, 기봉복군(신조대선사)(寄奉福君(神照大禪師))

봉복군에게 부침(신조대선사)

專嚮慈門十過春	오로지 인자한 문을 향해 열 번이나 봄을 보냈으니
無因縮地每勞神	축지법(縮地法) 배우지 못해 늘 마음만 괴로웠네.
覺林八部增威德	각림사(覺林寺) 팔부(八部) 중생이 위덕(威德)을 더하여
忙待經營舊主人	옛 주인 경영하기를 못내 기다리네.
東國中興第一春	동국(東國)이 중흥하는 첫 번째 봄이니
農桑得意謝天神	농사와 누에치기가 뜻대로 되어 천신(天神)께 감사하네.
沙門亦感風雲會	스님도 역시 풍운이 만남을 느껴
奉福尋常獻一人	예사롭게 복을 받들어 한 사람에게 바치네.

○ 운곡행록(耘谷行錄) 권지5, 시(詩)

천태(天台) 연(演) 스님이 총림(叢林)에 가는 길에 각림사(覺林寺)를 지나게 되어 나를 찾아왔다. 그의 말이 묵묵하고 움직임이 고요함을 보니 범상치 않았다. 비록 절간이 쇠락해 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장차 그 도를 다시 일으킬 것이므로, 이별하는 마당에 시 한 수를 지어 붓을 적서서 노자로 드린다(天台演禪者將赴叢林, 自覺林寺來過余, 觀其語默動靜, 甚是不凡, 雖當釋苑晚秋, 將是以復興其道, 臨別需語, 泚筆以賦行云)

○ 운곡행록사적(耘谷行錄事蹟), 사적록(事蹟錄), 석경묘소사적(石徑墓所事蹟), 고려국자진사운곡선생묘갈찬(高麗國子進士耘谷先生墓碣纂)

선생은 원주인(原州人)으로 성은 원씨(元氏), 휘는 천석(天錫), 자는 자정(子正)이니, 고려 국자감(國子監) 진사(進士)였다. 고려의 정치가 혼란한 것을 보고 은거하여 절개를 지키며 호를 운곡 선생이라

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치악산(雉岳山)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태종(太宗)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으니, 임금이 그 의리를 고상하게 여겼다. 동쪽 지방을 순행할 적에 그의 집에 거둥하였으나 선생은 피하여 숨고 만나 주지 않았다. 임금이 시냇가 바위 위로 내려가 집을 지키는 노파를 불러 상을 후하게 내리고 그 아들인 형(洞)에게 벼슬을 주어 기천감무(基川監務)로 삼았다. 후인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고 부르는데, 대는 치악산 각림사(覺林寺) 옆에 있다. …

○ 운곡선생사적(耘谷先生事蹟)

… 『동사찬요(東史纂要)』에 이르기를, 원천석은 본관이 원주, 자호가 운곡이다. 고려 말 정치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치악산에 은거하여 몸소 밭을 갈고 부모를 봉양하였다. … 태종대왕께서 미천하던 시절 공에게 배운 적이 있었다. 신분이 귀하게 되시고서 여러 차례 공을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 임금께서 그의 거처에 행차하였으나 원천석은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였다. 그래서 임금께서는 그저 당시 밥하던 여종(임금께서 배울 때 밥하던 여종)을 불러 먹을 것을 하사하고 발길을 돌이켰다고, 동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전한다. … 여말 『제강(提綱)』에 이르기를, … 태종대왕께서 미천하던 시절 수업한 적이 있었다. 신분이 귀하게 되어서 여러 차례 공을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으므로 태종대왕께서 그저 당시 밥하던 여종을 불러 먹을 것을 하사하고 발길을 돌이켰다. … 『역대록(歷代錄)』에 이르기를, 태종대왕 원년인 신사년(1401)에 임금께서 친히 원천석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원천석은 호가 운곡인데, 치악산에 살며 직접 밭을 갈아 부모를 봉양하였다. 임금께서 미천하던 시절 그를 따라 배운 적이 있었다. 왕의 자리에 오르자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임금께서 직접 그의 오두막에 행차하였으나 역시 만날 수 없었다. 임금께서 골짜기 바위 가에 어거하시어 그의 아들에게 관직을 주고, 당시 밥하던 여종을 불러 음식을 후하게

하사하고 돌아왔다. 뒷사람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라고 불렀다. 『가장(家狀)』에 이르기를, … 더욱더 자신의 재주를 숨겨 치악산의 각림사에 들어가 몸소 받을 갈아 부모님을 봉양하였으며, 자호를 ‘운곡’이라 하였다. 이때 명문대가에서 자제를 보내 수업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종대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선생을 따라 배운 적이 있었다. 왕위에 오르자 여러 차례 예로써 선생을 불렀으나 의리를 들어 굽히지 않았다. 태종대왕이 선생이 감반이었던 옛 은혜 때문에 몸을 굽혀, 수레가 친이 그 오두막에 행차하였으나 선생께서는 피해서 변암에 숨으셨다. 변암은 치악산 상봉의 바위굴이다. 깊은 숲이 거둬 막고 있어 종적을 찾기 어려웠다. 태종대왕은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오두막 옆 시냇가 석대 위에 앉아 옛시절 밤하던 여종을 불러 음식을 후사하고, 선생의 아들 형에게 명해 기천현감을 삼았다. 후대 사람들이 그 석대를 ‘태종대’라고 불렀다. … 『묘갈(墓碣)』에 이르기를, … 우리 태종대왕께서 미천하던 시절 따라 노닐며 배운 적이 있었다. 고려가 망하자 태종대왕께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임금께서 그의 의기를 높게 여겨 동쪽을 노닐다가 그의 오두막에 행차하셨으나 선생이 피하여 만나지 않았다. 임금께서 계속 바위 위에 내리셔서 오두막을 지키던 할미를 불러 후사하고, 선생의 아들 형에게 관직을 내려 기천현감으로 삼았다.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라 불렀다. 태종대는 치악산 각림사 옆에 있다. … 『매산록(梅山錄)』에 이르기를, … 운곡선생은 포의로써 절개를 지켰다. 태종대왕이 직접 그의 오두막을 방문하였으나 담을 넘어 도망쳐 받들지 않았다. 지금까지 치악산에 어기가 머물었던 단이 있다. … 『해동악부(海東樂府)』에 이르기를, 원천석은 본관이 원주이다. 고려 말 원주에 은거하였고 호는 운곡이다. 태종대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 왕위에 오르자 원천석은 평민의 신분으로 알현하러 왔다. 궐 안에 들어가자 태종은 마치 평소 극히 친했던 사람처럼 옛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왕자들을 불러서 나와 만나게 하고 물었다. “내 손자들이 어떻소?” 원천석은 광보(세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제 할아버지를 쫓 빼뺏았소.” 그리고 말했다.



“이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 휴옹(休翁) 정홍익(鄭弘翼)의 저서에 어떤 문사가 야사 한 부를 본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태종대왕이 미천할 때 처사 원천석에게 배웠다. 왕위에 오르자 선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춰 현인을 구하는 도에 따라 친히 깊은 산 초가집에 행차하여 원천석을 방문하였으나, 원천석은 담을 넘어가 만나지 않았다. 태종대왕이 상왕이 되자 원천석이 서울에 왔다. 궐문 밖에 이르자 문지기에게 “네 주상에게 알려라.”라고 하니 문지기가 승정원에 알렸다. 승정원에서 즉시 상왕에게 아뢰자, 대내전에 맞아들어 극진히 예우하였다. 상왕이 “감히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킬 계책을 묻겠습니다.”라고 하자 원천석은 “집안이 가지런해진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오.”라고 하였다. 원천석이 왕손들을 보겠다고 청하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는 제 할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골육을 사랑해야 하느니라.”라고 하였으니, 바로 세조가 어릴 때였다고 한다. … 『은봉세첩(隱峯世牒)』에 이르기를, … 태종대왕은 가르침을 받았던 옛 은혜 때문에 운곡을 방문하였지만 선생은 피하여 만나지 않았다. 태종대왕이 각림사의 전원을 운곡에게 내리라고 명했으나 선생은 끝내 보지 않았다. … 『역대록』의 태종대왕 원년에 임금이 운곡을 직접 방문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송와일기(松窩日記)』에는 태종대왕이 평창에 행차했을 때 운곡을 방문하였는데, 운곡이 이때 이미 죽었다고 운운하였다. 이 설은 잘못되었으며 근거가 없다. … 치악산 제일봉을 비로봉이라 하고 비로봉 정상에서 동쪽으로 십여 보 아래 고갈처럼 생긴 바위굴이 있으니 이것이 변암이다. 변암 뒤와 좌우는 모두 벽처럼 되어 있고 전면의 환쪽이 뚫려 있다. 그 옆 바위 사이로 가는 썸이 솟아나온다. 선생이 그 바위굴에 온돌을 놓아 방을 만들고 은거하는 곳으로 삼았다. 임금의 가마가 왕립했을 때 피하여 이곳으로 들어갔다. … 태종대 아래 시냇물은 아래로 흘러가 물이 모여 연못이 된다. 어가가 밥하던 여종을 불렀을 적에 여종이 이때 이미 늙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연못을 ‘할미못’이라고 불렀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여종이 임금 앞에 나아가서는 입을 딱 벌린 채 기뻐하며 “나리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시기에 위위가 이와 같으십니까?”라고 하자, 임금이 웃으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벼슬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내리신 말씀이 매우 정성스럽고 후하였으며 먹을 것을 하시하였다. 각림사에서 서쪽으로 직치령(直峙嶺)이 있다. 임금의 수레가 돌아갈 때 이 길을 경비하고 통행을 금했다. 고개를 이미 넘자 활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매가 날며 하늘에서 울고 있었다. 임금은 활 쏘는 이에게 활을 쏘라고 명했다. 활 쏘는 이가 단발에 맞추자 활을 맞은 매는 허공을 빙빙 돌다가 떨어졌다. 임금이 그 매가 맴돌던 원 안에 있던 논밭을 활 쏘는 자에게 방위전(方位田)으로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방위가 그래서 지명이 되었다. 지금까지 각림사 한 구역을 그렇게 부른다. 임금이 하사한 땅은 선생이 돌보지 않자 각림사의 승려가 문득 소유했다가 절이 없어지니 원주향교에 속하게 되었다. 나중에 어떤 승려 하나가 절 땅이라고 소송을 하여 중앙관서까지 올라갔고, 중앙관서에서 배상해주었다. 태종대왕의 관위전이 또 민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각림사는 치악산중의 동쪽에 있다. 세속과 똑 떨어져 있어 속인이 닿을 수 없고 큰 길에서 외떨어져 있어 다니는 사람이 지나지 않으므로 본 사람이 드물다. 땅은 숨겨져 있고 책은 없어졌으므로 선생의 이름도 함께 사라졌다. ...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 지는 직장동정 벼슬을 하였고 일찍 죽었다. 차남 형은 기천현감을 지냈다. 태종대왕이 행차했을 때 기천현감에 배수되었다. 기천공은 선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공 역시 벼슬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기천에 부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

○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지10, 유관동록(遊關東錄) 속각림사(宿覺林寺)

宿覺林寺	각림사에 묵으며
自笑清寒謝鹿迹	스스로 청한(清寒) 비웃다 속세 행적 끊고나서
年來自有看山癖	요즈음 산 보는 버릇 생겼다.
關西千里曾飛箭	관서(關西) 땅 천리 길 일찍이 지팡이 날렸는데

又向關東曳雙屐	또 관동 향해 두 신 짝 끄누나.
覺林自是古招堤	각림사 오래된 절
松檜陰中聳樓閣	송희(松檜) 그늘 속에 누각 솟아있다.
玉筍巍峨插高鐘	아름다운 종각 높은 곳 귀한 종 꽃혔는데
珠簾淅瀝搖雲窓	구슬발 스삭거리 구름 창 흔든다.
丈夫未死愛遠遊	장부 아직 죽지 않아 멀리 떠도는 일 좋아해
豈肯兀坐如枯椿	어찌 꼳꼳이 말뚝처럼 앉았으리.
且窮勝景作平生	또 좋은 경치 두루 보기 평생토록 작정하여
其氣萃嶺何曲降	그 기상 높은데 무엇 때문에 굽히리.

○ 식산선생별집(息山先生別集) 권지3, 지행록(地行錄) 6, 관동(關東)

… 치악(雉嶽) … 각림사(覺林寺)가 있는데 각림사(覺林寺)는 우리 강헌왕(康獻王, 태조 이성계)이 잠저(潛邸) 때에 글을 읽은 곳이다. …

○ 식산선생별집(息山先生別集) 권지4, 지행부록(地行附錄) 치악(雉嶽)

북원경(北原京)으로, 관동(關東)의 초두(初頭)에서 치악(雉嶽)이 가장 큰 산이다. … 상원사(上元寺) 아래 각림사(覺林寺)는 우리 태조(太祖)가 잠저(潛邸) 때에 이곳에서 독서(讀書)하였다고 한다. …

○ 낙하생집(洛下生集) 책(冊) 17, 추수근재집(秋樹根齋集), 해동악부(海東樂府), 원처사(元處士)

원천석(元天錫)은 원주인(原州人)으로 스스로 호를 운곡(耘谷)이라 하였다. … 우리 태종(太宗)이 미천할 때 일찍이 공에게서 수학(受學)하였다. 귀하게 되자 자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각림사에 행행하여 그 여막에 왕립하였으나 공은 피하고 알현하지 않았다. 태종은 단지 그 여종을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돌아갔다. … 세상에 전하기를 태종이 일찍이 불렀을 때 원천석이 내알(來謁)하였는데, 임금의 여러 왕자들을 보이고 묻기를 “내

손자들이 어떻소?”하니 원천석이 광묘(세조)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빼닮았소”하였고, 또 말하기를 “모름지기 형제를 사랑해야한다. 모름지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다. …

○ 관암전서(冠巖全書) 책(冊) 22, 기(記), 주필대기(駐蹕臺記)

…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잠저(潛邸) 때에 각림사의 산에서 글을 읽었다. …

○ 순암복부고(順菴覆瓿稿) 상(上), 순암복부고(順菴覆瓿稿) 2, 차아원협도중운(次兒原峽道中韻)

집 아이가 원주 가는 도중에 지은 시를 차운하다(次兒原峽道中韻)

匹馬乘秋向嶺東	완연한 가을 말 타고 영동을 향하니
行行盡日畫圖中	저녁노을 물들어 한 폭의 그림 속이라.
千峰雨帶朝嵐碧	봉우리 비 내리고 아침 이내 푸르니
萬樹霜啣夕照紅	나무마다 서리 머금어 석양빛 붉어라.
雉岳幽奇傳自古	치악은 그윽하고 기이함 예부터 전해져
覺林形勝最無窮	각림의 뛰어난 경치 더없이 최고로다.
歸來若出桃源路	돌아오니 마치 무릉도원 길을 나온 듯
回首雲山翠疊重	돌아보니 산 구름이 푸른 옥 겹겹이 둘렀네.

## 【참고문헌】

### 1. 사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동사강목(東史綱目)』.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원주읍지(原州邑誌)』.
- 『관동지(關東誌)』.
- 『여지도서(輿地圖書)』.
- 『강원도지(江原道誌)』.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국조보감(國朝寶鑑)』.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 4650-10]).
- 『목은집(牧隱集)』.
- 『양촌집(陽村集)』.
-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 『동명집(東溟集)』.
- 『기언(記言)』.
- 『식산집(息山集)』.
- 『성호사설(星湖僿說)』.

『관암전서(冠巖全書)』.  
 『해동악부(海東樂府)』.  
 『동사열전(東師列傳)』  
 『대동야승(大東野乘)』.  
 『송와잡설(松窩雜說)』.  
 『운곡시사(耘谷詩史)』.  
 『운곡선생사적(耘谷先生事蹟)』  
 『춘정집(春亭集)』.  
 『동문선(東文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양촌집(陽村集)』.  
 「조말생신도비문(趙末生神道碑文)」.  
 「1395년 정진(鄭津)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나옹화상행장(懶翁和尚行狀)」  
 「신록사대장각기(神勒寺大藏閣記碑)」  
 「용연사석가여래부도비(龍淵寺釋伽如來浮屠碑)」

## 2. 저서

강림면지편찬위원회, 『講林面誌』, 2008.  
 강원도, 『국역 매월당전집』, 2000.  
 강원도·횡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제4권 고려시대, 2012.  
 김창현, 『신돈과 그의 시대』, 푸른역사, 200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VI, 1970.  
 범해 찬, 김윤세 역, 『東師列傳-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광제원, 1991.  
 이인재·허경진 공역, 『운곡시사(耘谷詩史)』, 원주문화원, 2001.  
 이정 편, 『한국불교인명사전(韓國佛敎人名辭典)』, 불교시대사, 1993.  
 이종찬 역주, 『韓國漢詩大觀』 14-卞季良/柳方善, 이회문화사, 2002.  
 임종욱 역음, 『산사에 가면 시가 보이네』, 이회문화사, 2001.  
 정구복 외, 『朝鮮前期古文書集成-15世紀篇』, 國史編纂委員會, 1997.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2008.

## 3. 논문

강호선,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 수록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 2017.  
 구지현 역주, 「耘谷先生事蹟」,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완, 2007.

- 김동정, 「황성지역 향토사료 발굴 조사를 다녀와서」, 『황성문화』 29, 2014.
- 김동진, 「조선전기 강무의 시행과 捕虎政策」, 『조선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 김영태, 『불교』, 『한국사』 26-조선 초기의 문화 1, 국사편찬위원회, 1995.
- 김혜완, 「운곡 원천석과 주변 사원과의 관계」,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 김흥삼, 『『운곡시사』의 승려·사찰과 여말선초의 불교 동향』,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 민순의, 「조선전기 수록재의 내용과 성격-천도의례(薦度儀禮)의 성격 및 무차대회(無遮大會)와의 개념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불교문예연구』 9, 2017.
- 신종원·정민화, 「橫城郡內 寺址調査」, 『강원문화연구』 3, 1983.
- 안계현, 「불교행사의 성행」,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75.
- 이규철, 「역사 속의 메가 이벤트-조선시대 강무(講武)」,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하계학술대회, 2018.
- 이달춘, 「高麗 天台宗의 成立과 그 展開」,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 이익주, 「元天錫의 생애와 현실인식 再考-고려 말 지방거주 유교지식인의 삶과 생각-」,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 이인재, 「高麗末 元天錫의 生涯와 社會思想」,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 이인재, 「高麗末 元天錫의 學問觀과 地域 活動」,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해안, 2007.
- 이현수,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軍史』 45, 2002.
-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0, 2009.
- 홍성익, 「東興備放에 나타난 강원지역 寺刹 검토」, 『강원문화연구』 32, 2013.
- 홍성익, 「浮屠形 佛舍利塔에 대한 연구」, 『전북사학』 43, 2013.
- 홍주민, 「조선 초기 각림사의 번창과 그 의미」, 『황성문화』 제29호, 황성문화원, 2014.
- 황인규, 「고려말 李成桂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2001.
-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천태학연구』 11,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8.

#### 4. 웹사이트

- 교동인씨대중회(<http://www.kyodongin.co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 저자 약력

### 유 재 춘

〈약력〉

강원대학교 사학전공 교수(문학박사)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장  
강원대학교 학생처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저서〉

『한국 중세축성사 연구』  
『근세동아시아와 요동』(공저)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흥산』(공저)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축성 연구』 外

### 이 흥 권

〈약력〉

강원대학교 사학전공 강사(문학박사)  
한국이사부학회 사무국장

〈저서〉

『19세기~20세기초 조선의 滿洲 이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흥산』(공저)  
『淸의 간도정책과 이범윤의 이주민 관리 연구』  
『19세기 조선인 만주 이주와 고종의 관리정책』 外

### 한 성 주

〈약력〉

강원대학교 사학전공 조교수(문학박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강원도청 강원도사편찬위원

〈저서〉

『조선시대 潘胡 연구』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흥산』(공저)  
『정묘호란 직후 '李仁居의 난' 연구』  
『조선과 여진의 貂皮 교역 성행과 그 영향』 外

향토사료 제35집

### 황성 각림사(覺林寺)와 태종의 강무 행차 재조명

인 쇄 | 2019년 3월

발 행 | 2019년 3월

발행인 | 박순엽

편저자 | 유재춘·이흥권·한성주

기 획 | 민준식

발행처 | 황성문화원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황성로 371 / T. (033)343-2271

인쇄처 | 강원일보 출판국